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저 자

최효미, 이정원, 박은정, 김태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19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70-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본 연구는 5개년도 연속으로 실시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3차년도 조사 결과로,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3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육아가구의 소비행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가 크게 변동한 시기이다.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충격에 육아가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동 패널조사 방식을 준용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COVID-19) 전후의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패널조사 형태로 보다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에 분리되어 연구되었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2개의 연구를 하나의 과제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사 및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8년 1차년도 조사에서 구축이 완료된 영유아기(만 0세~6세) 아동을 추적 조사함과 동시에 매해 신생아 가구 표본을 추가 표집하여 구축함에 따라, 3차년도 연구에서는 표본이 초등2학년 자녀까지(만 0~8세)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조사 기간 등으로 인한 제약으로 당해연도 조사 자료의 분석이 기초분석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3차년도 연구에서는 초등 전환기 아동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 확장에 따라 연구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연구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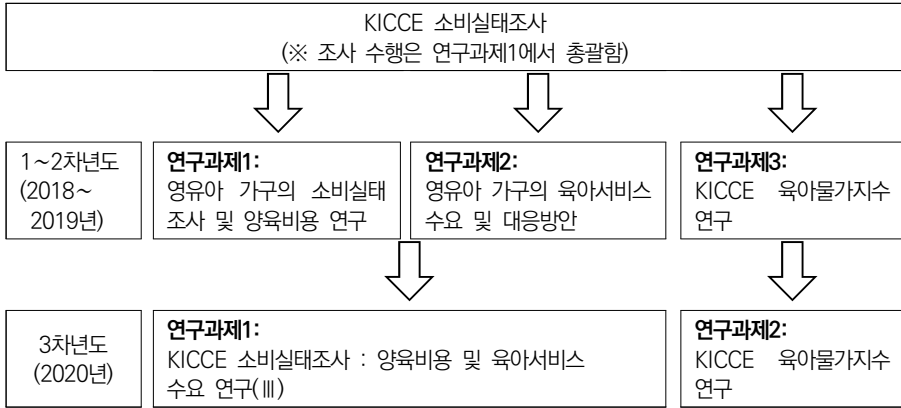
일러두기

-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는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실시되는 과제로, 3차년도 기준 2개의 세부 연구과제로 구성.
 - 3차년도 연구 기준 2개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연구과제1 :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 연구과제2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 세부 연구과제는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실태 관련 설문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공유하고 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각 과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됨.
 - 세부 과제의 구성과 세부 과제별 연구 내용 등은 시의성을 반영하여 매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2차년도(2019년)까지는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으나, 3차년도에는 양육비용연구와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를 통합하여 2개 과제로 수행함.
 - 2차년도까지 분리되어 운영되던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연구’를 3차년도에는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수행함.
 - 이는 3차년도 연구 수행 과정의 효율성 증진 및 초등 저학년까지의 추적조사 비용의 확보를 위한 조치임.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모든 세부과제를 지원하는 통합 조사이나, 조사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과제1에서 포괄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성격의 조사로, 1차년도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에 따라 3차년도 아동용 설문 응답 대상은 초등 2학년까지로 확장됨.
 - 매해 신생아 표본을 고려하여 신규 표집을 실시하고 있어, 해마다 조사표본의 수가 크게 확대되는 형태로 수행됨.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각 세부과제별 연구 범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과제 1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생활비 지출, 가계경제 현황,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초등 돌봄 이용 실태 및 수요, 육아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
- 연구과제 2 : 체감 물가, 경제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 등

□ 연구과제1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소비란 전반적인 소비 행동과 연관된 광의의 의미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지불 행위 혹은 금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지출’로 표기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28).
- 양육비용이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분담금에 해당하는 ‘양육비’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용’으로 표기(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28~30).
-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모두 포함됨.
 -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

용으로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제외한 금액.

- 마지막으로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 자료가 아닌 영유아 및 초등2학년이하 자녀 개인 단위로 산출된 금액임(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1~122).
- ‘육아서비스’라 함은 보육·교육서비스를 포함해 자녀 양육과 관련해 영유아 가구가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의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임(이정원·이정림·김태우, 2018: 31).
- 단, 비용(현금) 지원 부분은 양육비용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3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육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

사교육				육아지원(공공, 민간 포함)							
기관 교육	시간제사교육			서비스						시간	
				기관 보육·교육		가정 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기타 육아서비스		
반일제 이상 학원	단시간 학원	가정 방문 교육, 학습지	상업문화 센터 프로그램	반일제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공공 (아이 돌봄)	민간*	혈연*	육아종, 건가 등 프로그램, 공간 지원	휴가·휴직	유연 근무

주: 원가구 내/ 타가구 위탁 구분
 자료: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p.31을 수정 보완함.

- ‘영유아 가구’라 함은 가구 내 초등 이상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지칭함.
- 2차년도 이후로는 아동용 설문 조사 대상 자체가 초등학령기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3차년도 조사에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이 초등2학년(만8세)인 가구 (즉, 영유아가 없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가구를 포괄하여 ‘육아 가구’라고 표현함.



목차

요약 1

I. 서론 **2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 내용 25

3. 연구 방법 28

II. 육아 지원 정책 동향 **33**

1.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동향 33

2.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41

3. 초등 돌봄 지원 정책의 동향: 온종일 돌봄체계 50

Part I 2020년 KICCE 기초분석 **63**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67**

1.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67

2. 설문지 구성 70

3. 응답자 특성 75

IV.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95**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95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99

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114

4.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118

5.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127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37
1. 영아(만0세~만3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37
2. 유아(만4세~만6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51
3. 초등학교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76
4.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191
5. 긴급돌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193

VI.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99
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199
2. 기관 이용 시간 조정에 관한 의견	204
3. 이용 육아서비스별 만족도	206
4. 사교육 비용 부담	215
5.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219
6.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229
7. 긴급 돌봄 대응	243

PartⅡ 심층분석: 초등 전환기 변화를 중심으로	257
------------------------------------	------------

VII.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261
1. 심층 분석 개요	261
2.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변화	265
3. 초등 전환기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276

PartⅢ 결론 및 정책 제언	297
-------------------------	------------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301
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301
2.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산 및 정착	309
3. 양육비용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의 취약 가구 지원 강화	316
4.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안착 및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324
5.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330
6. 정책 제언 종합 및 후속 연구 제언	342

참고문헌 ————— 345

Abstract ————— 353



표 목차

〈표 Ⅰ-2-1〉 3차년도 연구 내용	27
〈표 Ⅰ-3-1〉 부모 대상 심층 면담 개최 현황	29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30
〈표 Ⅱ-1-1〉 보육료 지원단가 (2020년)	35
〈표 Ⅱ-1-2〉 2020년 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2020년)	36
〈표 Ⅱ-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20년)	36
〈표 Ⅱ-1-4〉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0년)	37
〈표 Ⅱ-1-5〉 2020년 아이돌보미 정부지원금(시간당)	38
〈표 Ⅱ-1-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 (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2020년)	39
〈표 Ⅱ-2-1〉 유연근무제 유형	42
〈표 Ⅱ-2-2〉 주요 유연근무 제도 도입율 및 활용 실적	42
〈표 Ⅱ-2-3〉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45
〈표 Ⅱ-2-4〉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법적 근거 및 활용 현황	46
〈표 Ⅱ-2-5〉 가족돌봄 휴가 휴직제도	47
〈표 Ⅱ-2-6〉 가족돌봄 관련 법안 주요 개정 과정 및 추가 지원	48
〈표 Ⅱ-2-7〉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49
〈표 Ⅱ-3-1〉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2020년 2월 기준)	51
〈표 Ⅱ-3-2〉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54
〈표 Ⅱ-3-3〉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법조항	56
〈표 Ⅱ-3-4〉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57
〈표 Ⅱ-3-5〉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58
〈표 Ⅱ-3-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61
〈표 Ⅱ-3-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 및 별표 15) ..	62
〈표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개요: 1~3차 자료	69
〈표 Ⅲ-2-1〉 본조사 설문 의 개요 (1-3차년도)	71
〈표 Ⅲ-2-2〉 가구용 설문 비교 (1-3차년도)	72
〈표 Ⅲ-2-3〉 아동용 설문 비교 (1-3차년도)	74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 추적대상 표본 및 성공 가구 수 (2020년) ..	76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특성 (2018~2020년)	78
〈표 Ⅲ-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0년)	79
〈표 Ⅲ-3-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0년) ...	79
〈표 Ⅲ-3-5〉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80
〈표 Ⅲ-3-6〉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81
〈표 Ⅲ-3-7〉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0년)	82
〈표 Ⅲ-3-8〉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83
〈표 Ⅲ-3-9〉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2018~2020년)	83
〈표 Ⅲ-3-10〉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0년)	84
〈표 Ⅲ-3-11〉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0년) ..	85
〈표 Ⅲ-3-12〉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향후 취업할 의향 (2020년)	86
〈표 Ⅲ-3-13〉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취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 (2020년)	87
〈표 Ⅲ-3-14〉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 (2020년)	88
〈표 Ⅲ-3-1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2020년)	89
〈표 Ⅲ-3-16〉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노동시간 변동 (2020년)	91
〈표 Ⅲ-3-1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모의 노동시간 변동 (2020년)	92
〈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2018~2020년, 실질비용)	96
〈표 Ⅳ-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97
〈표 Ⅳ-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0년)	98
〈표 Ⅳ-1-4〉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0년)	98
〈표 Ⅳ-2-1〉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99
〈표 Ⅳ-2-2〉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100
〈표 Ⅳ-2-3〉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101
〈표 Ⅳ-2-4〉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02
〈표 Ⅳ-2-5〉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	104
〈표 Ⅳ-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05
〈표 Ⅳ-2-7〉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06
〈표 Ⅳ-2-8〉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07
〈표 Ⅳ-2-9〉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108

〈표 IV-2-10〉 비목별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09
〈표 IV-2-11〉 가구특성별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	110
〈표 IV-2-12〉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초등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112
〈표 IV-2-13〉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초등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113
〈표 IV-3-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0년) ..	114
〈표 IV-3-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0년)	115
〈표 IV-3-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0년)	116
〈표 IV-3-4〉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0년)	117
〈표 IV-4-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2019~2020년	118
〈표 IV-4-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2020년)	119
〈표 IV-4-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0년) ..	120
〈표 IV-4-4〉 세제혜택 인지여부 및 수혜여부 (2019~2020년)	121
〈표 IV-4-5〉 세제혜택 인지여부 및 수혜여부 :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122
〈표 IV-4-6〉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2019~2020년) ..	124
〈표 IV-4-7〉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124
〈표 IV-4-8〉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126
〈표 IV-5-1〉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전체 소비지출 변동 (2020년, 실질비용) ..	127
〈표 IV-5-2〉 자녀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변동 (2020년, 실질비용) ..	128
〈표 IV-5-3〉 가구지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 (2020년)	129
〈표 IV-5-4〉 가구지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2020년)	130
〈표 IV-5-5〉 양육비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 (2020년)	130
〈표 IV-5-6〉 양육비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2020년)	131
〈표 IV-5-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년) ..	133
〈표 IV-5-8〉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0년)	134
〈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0년) ..	138
〈표 V-1-2〉 가구특성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0년)	139
〈표 V-1-3〉 가구특성별 영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0년)	140
〈표 V-1-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 (2018~2020년) ..	140
〈표 V-1-5〉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 (2020년)	141
〈표 V-1-6〉 영아의 어린이집 등원시간별 하원시간 (2020년)	142

〈표 V-1-7〉 2020년 2월29일 이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2020년)	143
〈표 V-1-8〉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144
〈표 V-1-9〉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145
〈표 V-1-10〉 영아의 연령별 및 연도별 월 평균 어린이집 이용비용 (2018~2020년) ..	145
〈표 V-1-11〉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2020년)	146
〈표 V-1-1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0년) ...	148
〈표 V-1-13〉 가구특성별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20년)	149
〈표 V-1-14〉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비용 (2020년)	150
〈표 V-1-15〉 연도별 영아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여부, 횟수, 시간 및 비용 (2018~2020년)	150
〈표 V-1-16〉 연도별 영아의 키즈카페 이용여부, 횟수, 시간 및 비용 (2018~2020년)	151
〈표 V-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0년) ..	152
〈표 V-2-2〉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0년)	153
〈표 V-2-3〉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0년)	155
〈표 V-2-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0년)	156
〈표 V-2-5〉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0년) 156	
〈표 V-2-6〉 가구특성별·이용 기관별 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 (2020년) ...	157
〈표 V-2-7〉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이용시간 (2018~2020년) ..	158
〈표 V-2-8〉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 (2020년)	159
〈표 V-2-9〉 유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 (2020년)	160
〈표 V-2-10〉 유아의 등원시간별 유치원 하원시간 (2020년)	161
〈표 V-2-11〉 유아의 등원시간별 반일제이상 학원 하원시간 (2020년)	161
〈표 V-2-12〉 2020년 2월29일 이전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2020년)	162
〈표 V-2-13〉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163
〈표 V-2-14〉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163
〈표 V-2-15〉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2018~2020년) ..	164

〈표 V-2-16〉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2020년) ……	165
〈표 V-2-17〉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세부비용 (2018~2020년) ……	166
〈표 V-2-18〉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0년) ……	167
〈표 V-2-19〉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0년) ……	168
〈표 V-2-20〉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0년) ……	169
〈표 V-2-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0년) ..	170
〈표 V-2-22〉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0년) ……	171
〈표 V-2-23〉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시간 (2020년) ……	173
〈표 V-2-24〉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8~2020년) …	174
〈표 V-2-25〉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	175
〈표 V-2-26〉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20년) ……	176
〈표 V-3-1〉	가구특성별 육아서비스 이용 (2020년) ……	176
〈표 V-3-2〉	요일별 초등돌봄교실 하교시간 (2020년) ……	177
〈표 V-3-3〉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유형 (2020년) ……	178
〈표 V-3-4〉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개수 (2020년) 183	
〈표 V-3-5〉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비용 (2020년) ……	184
〈표 V-3-6〉	방과후학교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20년) ……	184
〈표 V-3-7〉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9~2020년) ……	185
〈표 V-3-8〉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2020년) ……	186
〈표 V-3-9〉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9~2020년) ..	187
〈표 V-3-10〉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0년) ……	187
〈표 V-3-11〉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9~2020년) ..	189
〈표 V-3-1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	189
〈표 V-3-13〉	유형별(단시간학원)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	190
〈표 V-4-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0년, 중복응답) ……	191
〈표 V-4-2〉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0년) ……	192
〈표 V-4-3〉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이용비용/이용시간 (2019~2020년) ..	193
〈표 V-5-1〉	맞벌이 가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 (2020년) ……	194
〈표 V-5-2〉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변화 (2020년) ……	196
〈표 VI-1-1〉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	200
〈표 VI-1-2〉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	201

〈표 VI-2-1〉 이용 서비스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 (2020년)	205
〈표 VI-3-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만족도 (2020년)	207
〈표 VI-3-2〉 시간제 사교육 비용 및 서비스 만족도 (2020년)	207
〈표 VI-3-3〉 시간제 일시보육 및 키즈카페 만족도 (2020년)	207
〈표 VI-3-4〉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2020년)	208
〈표 VI-3-5〉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 (2020년)	209
〈표 VI-3-6〉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만족도 (2020년)	210
〈표 VI-3-7〉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2020년)	211
〈표 VI-3-8〉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비용 만족도 (2020년)	213
〈표 VI-3-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0년)	213
〈표 VI-3-10〉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0년)	214
〈표 VI-4-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 영유아 ..	216
〈표 VI-4-2〉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 초등 ..	217
〈표 VI-4-3〉 가구특성별 키즈 카페 이용하는 이유 (2020년)	218
〈표 VI-5-1〉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0년) ..	220
〈표 VI-5-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0년)	222
〈표 VI-5-3〉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0년)	223
〈표 VI-5-4〉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0년) ..	223
〈표 VI-5-5〉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를 돌볼 방법 (2020년)	224
〈표 VI-5-6〉 가구특성별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를 돌볼 방법 (2020년, 1순위 응답기준)	226
〈표 VI-5-7〉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0년)	227
〈표 VI-5-8〉 희망서비스 종류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2020년, 1+2순위응답)	228
〈표 VI-6-1〉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0년)	230
〈표 VI-6-2〉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0년)	237
〈표 VI-7-1〉 외벌이 가구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2020년) ..	243
〈표 VI-7-2〉 가구특성별 맞벌이 가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 돌봄 방식 실현 여부 (2020년)	244
〈표 VI-7-3〉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의 실제 자녀 돌봄 방식별 희망 여부 (2020년)	245

〈표 VI-7-4〉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 자녀 돌봄 방식별 희망하는 돌봄 방식 (2020년) ..	248
〈표 VI-7-5〉	희망하는 돌봄 방식별 돌보지 못한 이유 (2020년)	251
〈표 VI-7-6〉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0년) ..	252
〈표 VI-6-7〉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0년, 1순위)	254
〈표 VI-6-8〉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0년, 1순위)	255
〈표 VII-1-1〉	심층 분석 대상자 가구 특성 (2012년생 추적표본)	262
〈표 VII-1-2〉	심층 분석 대상자 아동 및 부모 특성 (2012년생 추적표본)	263
〈표 VII-2-1〉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265
〈표 VII-2-2〉	가구 특성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267
〈표 VII-2-3〉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	268
〈표 VII-2-4〉	가구 특성별 아동당 교육보육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269
〈표 VII-2-5〉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교육보육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	270
〈표 VII-2-6〉	가구 특성별 아동당 식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270
〈표 VII-2-7〉	아동 및 부모특성별 식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271
〈표 VII-2-8〉	가구 특성별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	272
〈표 VII-2-9〉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	272
〈표 VII-2-10〉	아동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273
〈표 VII-2-11〉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	275
〈표 VII-2-12〉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275
〈표 VII-3-1〉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012년생)	277
〈표 VII-3-2〉	만7세(초등1학년)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012년생)	277
〈표 VII-3-3〉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2012년생)	278
〈표 VII-3-4〉	가구 특성별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279
〈표 VII-3-5〉	아동 및 부모특성별 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280
〈표 VII-3-6〉	가구 특성별 7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281
〈표 VII-3-7〉	아동 및 부모특성별 7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282
〈표 VII-3-8〉	이용 육아서비스 종류별 양육비용 및 교육보육비 (2012년생, 실질비용) ..	283
〈표 VII-3-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2년생, 실질비용)	285
〈표 VII-3-10〉	아동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2년생, 실질비용)	287

〈표 VII-3-11〉 이용 육아서비스 종류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2012년생)	288
〈표 VII-3-1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2년생)	289
〈표 VII-3-13〉 아동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2년생)	290
〈표 VII-3-14〉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logit) ..	292
〈표 VII-3-15〉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	293
〈표 VII-3-16〉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294
〈표 VII-3-17〉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	295
〈표 VII-3-18〉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296
〈표 VIII-3-1〉 저소득 육아가구의 아동 대상 지원 사업	318
〈표 VIII-3-2〉 저소득 가구 요금감면서비스 지원 내용	319
〈표 VIII-3-3〉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322
〈표 VIII-6-1〉 육아 가구 양육비용 경감 및 육아서비스 지원 방안 개요	342



그림 목차

[그림 Ⅰ-2-1]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26
[그림 Ⅱ-1-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	34
[그림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구성(1~3차)	68
[그림 Ⅳ-4-1]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125
[그림 Ⅳ-4-2]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126
[그림 Ⅳ-5-1]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 변화 (2020년)	132
[그림 Ⅴ-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 (2018~2020년) ..	138
[그림 Ⅴ-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 (2018~2020년) ..	152
[그림 Ⅴ-3-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179
[그림 Ⅴ-3-2] 방과후학교 이용 (2020년, 중복응답)	182
[그림 Ⅴ-5-1]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0년, 중복응답) ..	195
[그림 Ⅵ-1-1]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202
[그림 Ⅵ-1-2]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204
[그림 Ⅵ-2-1] 초등돌봄교실 오후 및 저녁돌봄 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20년) ..	205
[그림 Ⅵ-4-1] 연령별 사교육 비용 부담 (2020년)	215
[그림 Ⅵ-6-1]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1
[그림 Ⅵ-6-2]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2
[그림 Ⅵ-6-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2
[그림 Ⅵ-6-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3
[그림 Ⅵ-6-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6
[그림 Ⅵ-6-6]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36
[그림 Ⅵ-6-7]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40
[그림 Ⅵ-6-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40
[그림 Ⅵ-6-9]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	241
[그림 Ⅵ-6-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42
[그림 Ⅵ-6-11]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242
[그림 Ⅵ-7-1]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였던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방식 (2020년) ..	246
[그림 Ⅵ-7-2] 맞벌이 가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 이유 (2020년)	249

[그림 VII-2-1] 아동당 양육비용 및 교육보육비 분포 변화(2012년생, 실질비용) ...	266
[그림 VII-3-1]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분포 (2012년생)	286
[그림 VII-3-2]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분포 (2012년생)	289
[그림 VIII-1-1] 긴급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	306
[그림 VIII-1-2] 긴급 상황에서의 가정내 양육 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309
[그림 VIII-2-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	314
[그림 VIII-2-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316
[그림 VIII-3-1] 저소득 육아가구 양육비용 절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	321
[그림 VIII-3-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324
[그림 VIII-4-1]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향	330
[그림 VIII-5-1] 온종일 돌봄 계획	333
[그림 VIII-5-2]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338
[그림 VIII-5-3] (초등저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방향	340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총 5개년 연속으로 실시되는 연구의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 교육보육비는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비목이지만, 육아 가구들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이뤄질 필요성이 높음.
 -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춰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령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양육비용 변화와 육아서비스 이용행태를 변화를 살펴보고, 육아가구의 요구에 부합하는 육아 지원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3차년도 연구가 수행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육아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급돌봄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고찰을 함께 진행함.
 - 본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조사 자료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 3차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초등 아동 일인당 양육비용 포함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초등학교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시의성 주제	제도 변화 반영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사회적 변화 반영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가계경제 및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동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포함
주제별 심층 분석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다. 연구 방법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 연구의 가장 주된 연구 방법이자 연구 내용에 해당함.
 - 2차년도 자료 구축이 완료된 표본(2020년 초등2학년이 되는 2012년생 이하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신규 표본을 구축함.
-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 당해연도에 심층 분석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3차년도 심층 분석의 주제는 초등 전환기의 양육비용 변화와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임.
- 이 외 문헌연구, 실태조사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부모 대상 심층 면담, 연구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2. 육아 지원 정책 동향

가.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동향

-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변경됨.
 - 주된 변화 내용은 첫째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한 것과 둘째 각 보육과정에 대해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를 갖추어 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합리화한 것임.
 - 보육료 지원은 기본보육시간에 대해 이뤄지며,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추가 지원됨.
- 양육수당
 - 2020년 기준 가정 양육수당(일반가구 기준)은 12개월 미만 자녀는 20만원, 24개월 미만 자녀는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전 자녀까지는 10만원임.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변화 방향은 인·적성 검사 등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강화, 현장사례 중심 교육 확대, 돌보미간 정보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담회 실시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수준 제고에 있음.

□ 긴급보육서비스

- 코로나19(COVID-19)의 국내 확산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실시.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되어, 2019년 9월 소득에 상관없이 만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원으로 확대됨.

□ 아동돌봄쿠폰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지급.

나. 부모 시간 지원 정책 동향

□ 유연근무제도

-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해주는 근무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로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말함.
- 유연근무제도는 전반적으로 도입율이 매우 낮으며, 제도 활용률 또한 5%를 넘지 못함.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뜻함.
-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과 지원 내용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활용 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음.

□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가 자녀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등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도

로 법령 개정이 진행됨.

다. 초등 돌봄 지원 정책의 동향 : 온종일돌봄체계

□ 온종일 돌봄체계

- 온종일 돌봄체계는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지자체 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임.
-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포함됨(단, 본 연구의 대상범위를 고려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지속적인 양적 확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2년까지 53만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시간대(17시까지)에 1~2학년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까지 연장 운영함.

□ 다함께돌봄

- 지역 내 돌봄 역량을 집결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함.
-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 학기 중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14:00~19:00임.
- 2018년 이후 양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80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정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등도 제공하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확대 중임.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4,217개소 설치됨.
- 2019년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됨.

3.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가.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표본 추적 및 구축

-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 성공한 가구를 패널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실시.
- 대상 가구 중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가구가 있었던 조사구 내에서 대체 표본을 구축.
- 해마다 신생아 표본 250가구(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125가구,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 125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조사 실시.

□ 조사 도구 및 면접원 교육

- 기존 TAPI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이설문(PAPI)로 전환.

나. 설문문의 구성

- 응답자 편의성을 고려한 형태로 아동 조사 설문을 대폭 수정하고 간략화 함.
- 3차년도 조사에서는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즉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설문 문항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 경제 설문부터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에 걸쳐 모든 문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정도 묻는 설문 다수 포함.

다. 응답자 특성

□ 표본 가구 특성

- 가구 기준 3차년도 전체 표본 수는 2,156가구이며, 추적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1,634가구(75.8%)였고, 표본 이탈로 인해 대체 조사한 가구가 268가구, 3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가구가 254가구임.
- 아동 기준으로 3차년도 표본 수는 총 3,278명이고, 추적조사에 성공한 아동

은 2,493명이며, 표본 이탈로 인해 대체 조사한 아동은 365명, 3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아동은 420명임.

□ 가구 소득 특성

- 3차년도 조사결과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평균 501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높음.
-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금의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보완되면서, 전체적인 가구소득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 아동 특성

- 출생연도별로 2020년생 158명, 2019년생 321명, 2018년생 331명, 2017년생 334명, 2016년생 378명, 2015년생 424명, 2014년생 422명, 2013년생(초등 1학년) 441명, 2012년생(초등 2학년) 469명이 조사됨.

□ 모의 노동시장참여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5%가 취업할 의향이 있고, 희망한다면 막내자녀가 약 8세 정도 되면 하겠다고 응답.
- 모가 향후 취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가구소득 증가를 위해서가 46.8%로 가장 많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변동 및 노동시간 변동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변동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76.1%, 감소한 가구는 21.9%, 증가한 가구는 2.0%.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감소가 크게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부의 노동시간이 변동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10.1%, 모의 노동시간이 변동한 경우는 15.2%.

4.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가.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2020년 육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282만5천원으로, 2019년 대비 2만 4천원가량 감소.

- 비목별로는 식비는 10만9천원 증가한 반면 교육보육비가 약10만원 감소하였으며, 여가문화생활비 또한 약 9만원가량 감소.
-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지수가 29.8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가량 크게 증가.
- 엔젤지수 1.2%포인트가량 감소한 반면, 슈바베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 변동 없음.

나.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가구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2020년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만원 2천원가량 감소.
 - 비목별로 식비는 전년대비 5만원가량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비목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총 양육비용의 감소를 유인.
- 2020년 영유아 양육비용은 8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1천원 감소하여, 총 양육비용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큼.
 - 비목별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가장 크며, 이 비중은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증가함.
 -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 지출 및 비중은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감소, 감소폭은 총 양육비용에 비해 더욱 큼. 즉,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 감소가 초등이상 자녀의 교육보육비 감소보다 컸음.
- 2020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의 비중은 25.0%,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은 17.9%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함.
 - 반면,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소비의 감소에 따른 양육비용 감소입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동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0년 기준 월평균 5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

만8천원가량 감소.

- 가구 생활비 대비 비중은 18.9%로 전년대비 1%포인트 가량 감소.
 - 2020년(3차년도)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의 편차가 축소된 점.
 - 비목별로 다른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에서 크게 감소.
- 2차년도 조사 이후 조사대상 연령에 포함된 초등 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2020년 기준 월평균 7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만4천원 감소.
- 3차년도에 조사 대상 연령 확대로 산출하기 시작한 초등 2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70만9천원으로,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에 비해 약간 적음.

□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비목은 2020년 기준 교육/보육비가 54.6%로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식비 18.7% 순임.
-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출하고자 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28.8%), 금융상품(24.3%), 원리금 상환(15.1%) 순임.

□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 아동수당 활용처는 2020년 응답 기준(1+2순위) 식비가 67.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유지비(37.9%), 교육/보육비(24.8%) 순.
- 세제 지원에 대한 인지는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살짝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1+2순위 응답기준 6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60.0%, 가정양육수당 32.6% 순.
-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2020년 기준 아동수당 지원이 56.7%(1+2순위)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43.1%), 가정양육수당(29.2%), 세제 지원(21.0%) 순.
- 향후 축소가 필요한 지원으로는 2020년 기준 출산장려금이 33.0%로 가장

많고, 기타 수당(28.6%), 아이돌보미 지원(26.6%) 순임.

□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이 변동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9%,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8.6%, 감소했다는 응답도 18.4%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 코로나19 전후로 자녀의 양육비용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8.1%였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17.3%, 감소했다는 응답이 14.6%임.
- 코로나19 전후 가구 지출에서 지출이 증가한 비목은 식비(71.9%).
- 코로나19 전후 가구 지출에서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여가 문화생활비가 3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22.9%)임.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이 증가했는지를 질의한 결과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32.7%였으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으로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이 40.5%, 생활비 감축 20.5%, 기존의 저축 활용 19.6% 순.

5.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영아(만0세~만3세)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 반일제 이상 기관

- 모든 연령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주당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여, 이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이용하는 경우 더 길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16:00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85%가량이 17:00시 이전에 하원함.
-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대한 인지가 낮으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도 변경 전후로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2.8%, 단축된 경우 10.2%, 증가한 경우 6.9%임.

-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만0세는 총 4만1천원, 만1세는 1만6천원, 만2세는 4만원, 만3세는 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 시간제 사교육

- 전년과 비교하여 문화센터 이용율이 현저히 감소, 전체적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단, 비방문 사교육(비방문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 영아가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시간은 시간제 사교육 중 단시간 학원이 평균 3시간36분으로 가장 길고, 문화센터 1시간18분,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시간, 비방문 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 54분, 방문형 교구활동 36분, 방문형 학습지 30분 순.
- 이용시간이 긴 단시간 학원이 20만1천원으로 이용비용도 가장 높으며, 이외 개인 및 그룹지도 13만9천원,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1만9천원, 방문형 학습지 6만8천원, 비방문 학습지/온라인 통신교육 6만7천원, 문화센터 6만원,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5만1천원 순.

나. 유아(만4세~만6세)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 반일제 이상 기관

-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률은 전년도 2%이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에서는 10%내외로 크게 증가.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의 주당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38시간내외,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35시간 내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약간 긴 것으로 조사됨.
- 유아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도 17:00시 이전이 대부분이며, 17:00시 이후 기관에 남아 있는 유아의 비중은 약 16%였음.
 - 유치원 하원시간은 어린이집 이용자에 비해 더욱 빨라, 17:00시 이후 기관에 남아 있는 비중은 6%에 그침.
- 기본보육시간 제도 도입 전후 이용시간이 변동 없는 경우가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단축된 경우가 10.0%, 증가한 경우가 6.5%임.

-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만4세는 총 6만7천원, 만5세는 8만1천원, 만6세는 7만2천원이었으며, 유치원의 경우 만4세 14만6천원, 만5세 14만3천원, 만6세 11만1천원임.
- 반일제이상 학원의 이용비용은 만4세 68만원, 만5세 74만6천원, 만6세 92만6천원임.
-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시간제 사교육

- 이전년도 조사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비대면형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등)만이 약간 증가.
- 예체능 활동은 주로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고, 한글과 수학은 학습지와 교구활동을 주로 활용하며, 유아기에는 영어의 경우 비방문 학습지 혹은 온라인 통신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 단시간 학원의 이용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통신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이용시간은 전년도 보다 증가.
- 이용시간이 가장 긴 단시간 학원의 이용비용이 대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연도별·연령에 따라서는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 보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이용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다.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 공공 기관 지원 서비스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 학교는 4.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6%.
-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21.6%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높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하교 시간은 16:00시가 가장 많으며, 17:00시가 넘어서 하교는 경우는 2%에도 미치지 못함.
- 방과후학교 이용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용하는 경우 주로 체육, 수학

및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시간제 사교육

- 시간제 사교육 유형 중 단시간 학원 이용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임.
- 단시간 학원은 주로 체육, 음악 등 예체능 교과목을 이용하고, 방문형 학습지는 수학 및 과학, 한글 등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방문형 교구활동은 영어,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은 종합교과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단시간학원 9시간12분, 방문형 학습지 48분, 개인 및 그룹지도 3시간 등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단시간 학원이 가장 많아 월 23만2천원(초등1학년 기준), 개인 및 그룹지도 21만8천원 등임.

라. 개별돌봄서비스 이용행태

- 2020년 기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25가구로, 개별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가 77.3%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13.8%, 아이돌보미는 6.7%, 민간 육아도우미가 5.3% 등임.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민간 육아도우미가 주당 20시간24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아이돌보미는 주당 20시간42분, 조부모 돌봄은 주당 22시간18분,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주당 22시간42분 순으로 길어짐.

마. 긴급돌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코로나19상황에서의 자녀돌봄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8.6% 순임(1+2+3순위 응답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문화센터가 29.4%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 학원 16.7% 순.
- 코로나19로 인해 반일제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유치원은 22.3%, 어린이집은 23%가 코로나19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응답.

6.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가.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 전체 표본가구(2,156) 중 60.9%는 보육지원체계의 변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39.1%는 몰랐다고 응답.
-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내용(기본보육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짐)에 대해서 부모들의 평가는 긍정적 37.0%, 보통 35.4%, 매우 긍정적 15.4%로 87.8%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사유는 '별도의 연장보육 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보육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31.3%로 가장 많이 응답.
 -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 사유는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서 돌봄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42.6%로 가장 많이 응답됨.

나. 기관 이용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해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8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금보다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12.8%,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3.1%임.
-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오후 및 저녁돌봄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만큼 이용시간을 늘리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상 일정시간만 운영하여서'가 37.8%,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가 26.0%,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8.6%,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17.5% 순으로 응답됨.

다. 이용 육아서비스별 만족도

- 영유아
 - 5점 척도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만족도는 4.0점으로 높았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용 만족도는 3.3점으로 보통.
 -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만족도는 3.5점, 서비스 만족도는 3.9점임.
 -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 4.1점, 3.7점임.

□ 초등학교

- 초등학교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3.9점으로 높은 편.
 - 초등학교교실 이용시 개선 희망 사항은 1+2+3순위 기준 돌봄프로그램 다양화가 74.9%,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 47.7%, 돌봄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 47.1%, 간식 혹은 급식 제공 35.7% 순임.
-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3.9점이며, 방과후학교 개선 희망 사항은 1+2+3순위 기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가 61.2%,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49.3%, 수강 인원 확대 38.9%,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32.9%,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 30.5% 순임.
-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만족도는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3.9점.

□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 비용 지원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고, 유치원 비용 지원 3.9점, 양육수당 3.8점 순.

라. 사교육 비용 부담

-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42.1%, 5점 척도 기준 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 사교육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순.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와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남.

마.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 영유아기

- 원하는 양육형태가 있는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41.1%), '비용 부담 때문에'가 13.6%,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0% 순.
- 원하는 양육형태가 따로 있는데도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였으며(38.1%), 이밖에 ‘비용 부담 때문에’가 22.0%임.

□ 초등학교령기

- 향후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정규과정 수업 후 자녀를 돌보고 싶은 방법은 1순위에서는 ‘부모 직접 돌봄(육아휴직 등을 활용)’이 44.2%, ‘초등돌봄교실’ 19.7%, ‘방과후 학교’ 15.3%, ‘학원’ 13.0%, ‘조부모 및 친인척’ 6.3% 순으로 응답.
- 초등 1~2학년 자녀에 대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1순위의 응답 기준 ‘방과후 학교’로 41.5%, 초등돌봄교실 23.1%, 학원 19.7%,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등 4.6%, 부모직접돌봄 4.5% 순임.
 -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1+2순위 응답기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 65.5%,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가 13.3%, ‘원하는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서’ 9.2%, ‘비용이 부담되어서’ 7.5%, 기타 4.8%, ‘추천에서 떨어져서’ 4.7% 순.

바.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전체 자녀 대상

- 자녀 양육에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지원 분야는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35.1%로 가장 높음.
-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분야별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은 개선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49.6%.
 - (개별돌봄서비스)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5.9%.
 - (시간제 이용 및 기타 서비스)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40.4%.
 -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27.9%.
 -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현금 지원 수준 제고, 39.9%.
 - (양육물품 지원)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의 다양화, 28.4%.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초등학령기 자녀)

-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 지원 분야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부족 (46.9%)이 가장 많음.
-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분야별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은 개선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학교연계 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확충, 42.1%
 - (개별돌봄서비스)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8.1%.
 -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5.9%.
 -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24.8%.
 - (문화 인프라 이용)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 40.5%.

사. 긴급 돌봄 대응

-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긴급 상황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은 외벌이 가구는 부모 직접돌봄(90.8%)이 가장 많음.
- 맞벌이 가구에게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본 주된 방식이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법이었는데 질문에 질문한 결과, 65.5%만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이었다고 응답.
 -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희망한 돌봄 방식은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26.4%)이 가장 높음.
 - 맞벌이 가구들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 이유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1.7%로 가장 높고, 급작스럽게 돌봄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20.4%,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18.8%, 소득 감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3.7% 순임.
- 사회적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32.4%), 아이돌봄지원제도 개선(26.6%), 유연근로제도 개선(14.0)% 순.

7.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가. 심층분석 개요

-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2012년생 자녀)만을 추출하여 분석.
 -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동일 자녀를 패널자료 형태로 구성하여 활용, 총 327명(654개 관측치)에 대한 분석임.
- 분석방법은 OLS와 로짓(logit) 분석,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패널고정효과(fixed-effect)을 활용함.
-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등전환기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의미함.

나.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변화

- 유아기(만6세) 대비 초등1학년(만7세) 당시의 양육비용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되 최상위 밀도가 다소 낮아졌음.
 -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유아기(만6세) 대비 초등1학년에 더 높아지고 최상위 밀도도 더 높음.
 - 즉, 아동의 다수가 초등 전환기에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다른 양육비용을 일부 줄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
- (OLS 분석결과) 아동당 양육비용에는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패널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에서 최상위 가구소득 구간(600만원이상)과 부모의 연령, 모의 근로시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식비에는 대부분의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구특성과 무관한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음.

다. 초등 전환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초등1학년 때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분석 대상의 83.5%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

- 초등 전환기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만6세 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이용하다가 만7세에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18.1%(59명), 만6세 당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했으나 오히려 만7세가 되면서 다른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8%(6명) 있었음.
 - 만7세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하고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현격히 증가함.
-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사교육 이용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과 이용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소수의 가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평균 비용과 이용시간의 상승을 유인하는 반면, 초등학교령기에는 다수의 가구가 유아기에 비해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유사한 수준의 비용 지출과 이용시간을 보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로짓 분석결과 : 만6세 당시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구소득, 자녀수 정도임.
- 초등학교 입학한 만7세 때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는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대다수의 가구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양상으로 보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OLS 분석결과: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음.
-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개인 특성과 시차 특성을 제외하고도 맞벌이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OLS 분석결과: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가구특성 및 아동특성은 거의 없음.
-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초등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됨.

8. 결론 및 정책 제언

□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정책개선사항은 항 제목 위주로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 지속가능한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확산
-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활동 자료 보급 및 부모 정서 지원

나.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산 및 정착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 확산 및 정착
- 가족돌봄휴직/휴가 지원 범위 확대

다. 양육비용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의 취약 가구 지원 강화

-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수당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추가 지원 및 육아지원 강화

라.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안착 및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원활한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연장보육료 지원 체계 정비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및 입소대기시스템 연계

마.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 초등돌봄교실 창의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강화
 - 돌봄전담사 추가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지원 강화
- 초등돌봄교실-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확대

□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 학습 연계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검토

바. 정책 제언 종합 및 후속 연구 제안

□ 육아 가구 양육비용 경감 및 육아서비스 지원 방안 개요는 다음과 같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연령	지원 대상의 취약여부			
		구분없음(전체)	저소득	다자녀	맞벌이
비용 지원	영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플러스 (가칭) 지원 검토 -의료비지원 확대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아동수당플러스 (가칭) 지원 검토
	유아	-아동수당			
	초등	-초1: 아동수당			
시간 지원	영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초2) -가족돌봄 휴가/휴직	-유연근무 제도 도입 촉진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일 수 확대 검토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정착 및 확대
	유아				
	초등				
서비스 지원	영아	-무상보육/유아교육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활동 자료 보급 및 부모 정서 지원	-육아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기준 완화	-연장보육서비스 현장 안착 지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확산 -온종일돌봄체계
	유아				
	초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아동센터		

- 주: 1) 취약여부는 특히 방점이 주어진 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함.
 2) 음영에 굵은 글씨가 본 연구의 주요 제안 내용이며, 흰색의 경우 기존의 주요 지원 제도를 표기한 것임.
 3)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비용 지원(요금감면 등) 등 세부적 지원은 가독성 측면에서 별도 표기하지 않음.

□ 의료지원 및 의료보장을 위한 보험료 지원, 주거비 등에 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요함.

I

서론

0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육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은 가구당 44만1천원으로 양육비용 비목 중 가장 지출 비용이 많은 비목이며(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45), 육아 가구의 절반 가량인 48.8%가 자녀 양육 시 교육보육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64). 그러나, 육아 가구들은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심하다고 하면서도 추가 소득이 생기면 교육·보육비에 우선 지출하겠다(25.6%)고 응답하여(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66), 교육·보육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실제 2019년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게 된 육아 가구들의 아동수당 사용처 또한 교육보육비에 쏠려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72)¹⁾,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보육서비스의 가구소득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08). 이처럼 육아 가구에게 있어 교육보육서비스(이하 육아서비스)의 이용은 일종의 사치재이면서도 필수재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강한 독특한 비목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육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견되는 독특한 양상은 자녀가 영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육아서비스의 이용은 영유아기에 비해 부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근진·박은정·김희수(2019: 185~189)에 따르면, 실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초등 1학년 자녀의 하교 후 오후 돌봄 시간대의 돌봄서비스 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숙·마경희·권소영 외(2015: 117~118)는 초등 자

1) 1순위 응답 기준은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은 비목은 식비(29.0%)이기는 했으나, 교육보육비에 사용했다는 의견도 24.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72)

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1.9%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일가정 병행이 더 어려워진다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는 영유아기 이용 기관에 비해 짧아진 정규 수업시간 때문(40.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98)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기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게 되면서, 학원 및 돌봄 시간이 약 1.7시간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초등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육아서비스 종류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특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육아 부담의 가중이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선도 사업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초등 돌봄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8. 4), 초등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범정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관계부처 합동, 2019. 10)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3차년도 연구가 수행된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충격으로 육아가구의 가계 경제 및 돌봄 양상이 크게 변동된 시기이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의 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긴급 돌봄이 시행되는 등 아동 돌봄에 있어서의 새로운 양상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로서, 일차적으로는 여러 개의 연구를 동시에 지원하는²⁾ ‘KICCE 소비실태조사(3차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20년 일어난 육아 정책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충격 등에 대응하여 육아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양태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추적조사가 이뤄진 초등 전환기 아동의 육아서비스 이용 양태를 분석하여, 초등 저학령기 자녀의 돌봄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숙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차년도 연구까지는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되던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 물가지수 연구³⁾’를, 3차년도에는 양육비용 연구와 육아서

2) 2차년도 연구까지는 3개의 세부과제가 각출하여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지원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연구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2개의 세부과제가 통합되어, 2개 과제가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지원함.

3) 총괄 과제명이며,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

비스 수요 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수행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중에서 특히 교육·보육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지원하는 기존의 3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수행하였다. 이는 또한 제한된 연구예산 안에서 해마다 표본 규모가 확장⁴⁾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적조사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연구 내용

가. 연차별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개년 연속 과제로 기획되어 수행 중에 있으며, 각 연차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연구 범위를 확정하고 기초적인 양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주거 환경과 공유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8). 2차년도에는 1차년도 표본을 패널 조사 형태로 추적 조사하고 대체 표본 및 신규 표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양육비용 등을 산출하고, 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등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8)⁵⁾.

한편, 2차년도 연구까지는 총 3개의 과제가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지원하였으나, 3차년도 연구에서는 양육비용 연구에서 특히 교육·보육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연구'의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여 수행하였다.

향후 4차년도 연구에서는 양육비용 중에서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닌

안 연구,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로 구성되어서 수행되었음.

4) 영유아기 전 연령을 조사하기 위해 해마다 신생아 신규표본의 추가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년도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조사 표본이 초등학령기로 확장됨. 자세한 내용은 3장 KICCE 소비실태 조사 개요에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5) 3차년도 연구에서 2개의 과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양육비용 연구에 육아서비스 연구가 통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전년도 연구 내용은 양육비용 연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문화 및 여가생활비를 중심으로, 육아기 자녀의 문화 및 여가 향유의 격차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며, 5차년도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4차년도 이후의 연구주제는 육아 가구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경될 수 있다.

[그림 I-2-1]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연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공동 항목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소비문화, 육아지원 정책 변화 및 인지,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연차별 심층 분석	-육아용품 및 공유경제, 주거 관련 문화	-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격차 -아동수당 도입 에 따른 변화	-육아서비스 이용 -초등 전환기자녀 양육비용 및 돌봄서비스 이용	-문화 및 여가 생활의 격차 -공적이전소득의 양육비용 절감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소비실태 추이 분석
KICCE 소비 실태 조사 표본의 특징	-1차년도 표본 구축 (2012년생~ 2018년생반기 출생아) -양육비용 설문 개발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1학년 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18하반기, 2019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 체표본 구축 (초등2학년 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19하반기, 2020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 체표본 구축 (초등3학년 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20하반기, 2021상반기 출생아)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3학년 까지 조사) -신규표본 추가 (2021하반기, 2022상반기 출생아)

- 주: 1) 연구 주제는 통합 기준이 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를 기준으로 정리됨.
 2) 연차별 상황에 따라 연구 주제와 조사 표본은 변경될 수 있음.
 3) 전년도 원표본은 초등 저학년(3학년)까지 추적조사 실시 예정이며, 이후 초등 고학년 진학 표본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음. 매해 출생아 신규 표본으로 추가적으로 표집하여 조사함.
 자료: 최호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p.19, [그림 I-3-1]을 수정 보완함.

나. 3차년도(2020년도) 연구 내용

본 연구인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는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수행과 2020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심층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변화와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육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표 I-2-1〉 3차년도 연구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초등 아동 일인당 양육비용 포함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초등학령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정책적 요구
시의성 주제	제도 변화 반영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선호
	사회적 변화 반영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가계경제 및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동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포함
주제별 심층 분석		초등 전환기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주: 심층 분석은 3차년도 자료가 아닌 전년도(1~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2차년도까지 구축이 완료된 표본 1,902가구(아동 표본 기준 2,804명)를 패널 조사 형태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마모된 표본 가구에 대해 대체 표본 구축 및 2019년 하반기 이후 출생아 신규 표본 구축 등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⁷⁾. 다음으로 2020년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교육·보육비 부담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육아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아동 조사의 표본(추적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확장됨에 따라, 초등 저학년 시기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영유아 시기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아가구의 가계 경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가 크게 변동된 해로, 이러한 사회적 충격에 육아가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주요 육아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육아가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당해연도 조사 완료 후 연구 기간이 촉박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의 심층 분석 주제는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충격 혹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유추해보았다.

6) 본 연구에서 육아서비스 수요는 협의의 의미로 주로 육아서비스의 이용 행태, 즉 소비 패턴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서비스의 수요(량) 예측 등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7)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 제시함.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 작성과 육아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연구에서 이미 여러차례 리뷰가 진행된 영역(양육비용 측정 방법, 영유아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정책, 아동수당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은 간략화하고, 3차년도(2020년) 연구에서의 주요 정책적 변화와 심층 분석과 연관된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나. 육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자료 구축이 완료된 표본(2020년 초등2학년이 되는 2012년생 이하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신규 표본 구축을 실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표본을 원표본으로 하는 패널 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원표본이 표본에서 이탈되는 경우(조사거부 및 추적 불가 등)에는 해당 표본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 표본을 해당 표본의 조사구 내에서 대체 표본으로 구성하여 대체 표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출생년도별로 조사 표본의 수가 250명에서 450명 정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패널 조사를 유지하기 위해 표본 마모를 감수할 경우 관측치가 적어져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은 III장에 제시하였다.

다.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본 구조가 패널 조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까지를 마무리하는데 연구 기간의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해연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당해연도의 양육비용 산출 및 이용 현황 분석 등 기초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년도 연구에서 전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주제를 선정하여 수행

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전환기 자녀(2012년생)의 양육비용 변화와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부모 대상 심층 면담

초등 저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 대상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육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기, 유아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나누어 총 8회, 23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때, 초등 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별도 분리하여 2회 실시하였다.

〈표 I-3-1〉 부모 대상 심층 면담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대상자 수	대상자 특성
1회	9. 22	3명	영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2회	9. 22	3명	영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3회	9. 23	3명	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4회	9. 23	3명	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5회	9. 24	2명	초등저학년(2012년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6회	9. 24	3명	초등저학년(2012년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7회	9. 28	3명	초등 돌봄교실 이용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8회	9. 28	3명	초등 돌봄교실 이용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부모대상 심층면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모두 ZOOM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또한 온라인을 통한 모집을 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과 양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상황을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대응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초등 자녀의 경우에는 초등돌봄 및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수정 및 보완, 신규 표본 및 대체 표본의 설계와 구축, 정책 방안 마련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3차년도 연구에서는 주로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된 아동 조사 설문에 대한 간소화 및 응답자 편의를 고려한 설문 수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일시	참석자	자문 내용
3. 26	육아 정책 분야 7인(원내멘토링)	3차년도 설문 수정본 검토
4. 4	조사 관련 전문가 4인, 총괄과제 연구진 전원	3차년도 조사 설계 및 설문 확정
6. 22	육아 정책 분야 4인	중간보고서 검토
10. 29	소비실태 2인, 육아정책 1인	최종보고서 검토
11. 3	초등 돌봄 3인	정책 제언 관련 자문
11. 4	초등 돌봄 1인, 긴급돌봄 1인	정책 제언 관련 자문

II

육아 지원 정책 동향

- 01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동향
- 02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 03 초등 돌봄 지원 정책의 동향: 온종일 돌봄체계

II. 육아 지원 정책 동향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 동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속과제인 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 3차년도(2020년) 연구에서는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에 따른 정책 변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돌봄 정책 및 시간 지원 정책, 그리고 심층 분석 주제인 초등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위주로 정리하였다⁸⁾. 이들 정책은 먼저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과 부모 시간 지원 정책, 초등 돌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동향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2020년 3월부터 ‘지원체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⁹⁾.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기존의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원칙은 유지하면서, 보육시간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즉,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보육시간이 구분되었다¹⁰⁾.

둘째,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의 각 보육과정에 대해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를 갖추어 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합리화 하였고,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되었다¹¹⁾. 기본보육은 16:00시까지이며,

8) 이 외에도 많은 육아지원 정책이 있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개요는 전년도 연구 자료 등을 참조하기 바람. 1차년도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각종 비용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세제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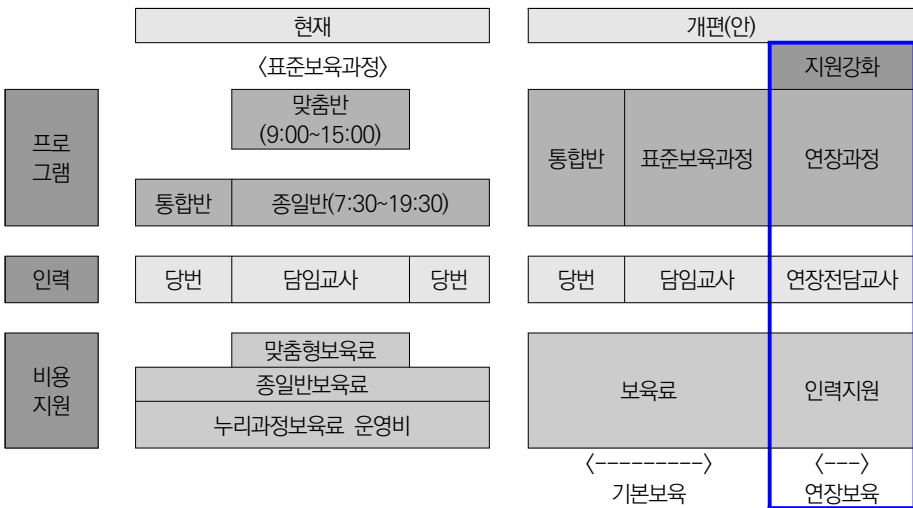
9) 한국유아교육뉴스(2019. 7.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오후 7시 30분까지,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9> (인출일 : 2020. 4. 10).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 2020. 4. 10).

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

연장보육은 그 이후의 보육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루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이후의 연장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에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게 된 것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방지,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질 높은 보육을 제공,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 5).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2020. 4. 10 인출)

연장보육 도입에 따라 0~2세반 영아의 경우는 연장반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3~5세 유아반의 경우는 누구나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0~2세반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을 신청하고,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반 아동이라도 간헐적인 보육 수요에 의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 11~18).

연장보육은 고정적으로 17:00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아동 수와 연장반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

2020. 4. 10).

집으로 전액 지원하며, 이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 16~19). 연장보육은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은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므로, 아동의 등·하원이 체크되는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된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 20).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22만원으로 7년간 동결되었던 3-5세 누리공통과정 지원이 24만원으로 인상되었다¹²⁾.

〈표 II-1-1〉 보육료 지원단가 (2020년)

단위 :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19.01.01 이후 출생	'18.01.01 ~'18.12.31	'17.01.01 ~'17.12.31	'14.01.01~'14.12.31(5세반) '15.01.01~'15.12.31(4세반) '16.01.01~'16.12.31(3세반)	-
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주: 1) 월기준

2)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3)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22

기본보육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d: 322). 연장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를 설치·운영할 것, 둘째,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d: 350). 연장보육료는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를 지원하는데,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12) 서울신문(2019. 12. 11). 누리과정 단가 7년 만에 인상...난임시술 최대 110만원 지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004010> (인출일 : 2020. 4. 10).

〈표 II-1-2〉 2020년 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2020년)

단위 : 원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주: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50

지원금은 전자출결시스템 상 17:00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며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가 생성된다(보건복지부, 2020d: 350). 유아학비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종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원액이 6만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다. 이밖에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월 최대 10만원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0: 1).

〈표 II-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20년)

단위 :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2014.1.1.~2014.12.31	60,000	240,000	240,000
	만 4세	2015.1.1.~2015.12.31			
	만 3세	2016.1.1.~2017.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4.1.1.~2017.2.28	50,000	70,000	70,000

자료: 1)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 '20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20.1.6).

나. 양육수당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d: 364). 지원 금액은 2020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 가정의 12개월 미만 자녀는 20만원, 24개월 미만 자녀는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전 자녀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¹³⁾.

13) 복지포, 양육수당, www.bokjiro.go.kr/welinfo (인출일 : 2020. 6. 9).

한편, 일반 가정의 아동이 아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의 아동은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일반 양육수당과는 월령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36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d: 364). 농어촌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7만7천원, 36개월 미만까지는 15만6천원, 47개월까지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d: 364).

〈표 II-1-4〉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0년)

단위 : 개월,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d). 2020년 보육사업안내. p.364.

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 1조에 근거하여 개별 가정 및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여성가족부, 2019: 15; 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 81에서 재인용) 것을 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후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14년째 확대 실시중이다(여성가족부, 2020: 10). 그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을 상향,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사업의 양적 확장을 주로 도모하여 왔다면, 2020년 변화의

주요 방향은 인·적성 검사 등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강화, 현장사례 중심 교육 확대, 돌보미간 정보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담회 실시 등(여성가족부, 2020: 60, 63~64)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선 질적 수준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요금 수준 인상에 따라 각 지원유형별로 정부지원금액도 증가하였다.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 은 나형의 경우 2019년 정부지원비율 50%에서(여성가족부, 2019: 59) 2020년 55%로 정부지원율이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49).

〈표 II-1-5〉 2020년 아이돌보미 정부지원금(시간당)

단위 : 원

시간당 지원금액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공통)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일반형 A형 ¹⁾		일반형 B형 ²⁾		(생후 3~36개월)		A형		B형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가형	8,203	8,407	7,238	7,418	7,720	7,912	9,843	10,081	8,685	8,895
나형	5,308	5,440	1,930	1,978	5,790	5,934	5,790	6,523	5,790	5,930
다형	1,448	1,484	1,448	1,484	1,448	1,484	5,790	5,930	5,790	5,930
라형	-	-	-	-	-	-	5,790	5,930	5,790	5,930

주: 1) 2020년은 '13.1.1 이후 출생아, 2019년은 '12.1.1 이후 출생아 기준
 2) 2020년은 '12.12.31 이전 출생아, 2019년은 '11.12.31 이전 출생아 기준
 3) 시간당 지원금액 기준은 '중위소득'이며,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150% 초과임.

자료: 1)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p.32 〈표 I-4-8〉
 2) 여성가족부(2019). p.59
 3) 여성가족부(2020). p.49
 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sp/fam/sp_fam-f005.do (인출일 : 2020. 4. 16).

한편, 2020년 초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였다¹⁴⁾. 즉,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¹⁵⁾.

1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892 (인출일 : 2020. 4. 16).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892 (인출일 : 2020. 4. 16).

〈표 II-1-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2020년)

단위 : 원, %

유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 4인)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존	개선	기존	개선	증감(시간당)
가형	75%이하 (356.2만원 이하)	8,407원 (85%)	8,901원 (90%)	1,483원 (15%)	989원 (10%)	△494원
나형	120%이하 (569.9만원 이하)	5,440원 (55%)	5,934원 (60%)	4,450원 (45%)	3,956원 (40%)	△494원
다형	150% 이하(712.4만원 이하)	1,484원 (15%)	4,495원 (50%)	8,406원 (85%)	4,945원 (50%)	△3,461원
라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원 (40%)	9,890원 (100%)	5,934원 (60%)	△3,956원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92 (인출일 : 2020. 4. 16).

라. 긴급보육서비스

2019년 말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확진자 급증에 따라 2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월 27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및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실시를 지시하였다¹⁶⁾.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이용 사유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¹⁷⁾.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2월 26일 최초 3월 8일까지 휴원하도록 안내된 후 다시 3월 22일까지, 4월 5일까지, 그리고 무기한 연장되었으며, 기간 중 긴급보육 이용률은 10.0%에서(2월 27일) 31.5%(3월 30일)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¹⁸⁾.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어린이집 정상 운영시간(7:30~19:30) 동안이며, 급·간식도 제공된다¹⁹⁾.

16) 한국일보(2020. 2. 26). [속보] 전국 어린이집 27일~내달 8일 휴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127341935> (인출일 : 2020. 4. 16).

17)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0. 2. 27).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 중이고, 외부인 출입제한, 교재교구 및 빈번 접촉부분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7&CONT_SEQ=353193 (인출일 : 2020. 4. 16).

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 2020. 4. 16).

1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 2020. 4. 16).

마.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 15539호로 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어 지급이 시작되었다²⁰). 아동수당은 첫 도입 시 당시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것으로²¹) 도입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²²) 4월 25일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었고²³), 2019년 9월부터는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0c: 3).

바.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동 가구의 177만 명의 보호자이며 카드에 돌봄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의 형태로도 지급하였다²⁴).

아동돌봄쿠폰은 가구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의 수에 따라 아동수당 지정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5. 14).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813&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6%EC%9B%94 (인출일 : 2020. 4. 16).

21) 아동수당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22) 아동수당법(법률 제1624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217&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231%EB%A7%8C (인출일 : 2020. 4. 16).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B%8F%8C%EB%B4%84%EC%BF%A0%ED%8F%B0 (인출일 : 2020. 4. 16).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가 합산되어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 복지정책과, 2020. 4. 13). 돌봄포인트는 한시적 지원으로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을 '20년 연도말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가급적 빠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0. 4. 13).

2.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이 절에서는 육아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반 육아 지원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의 기준을 적용하여²⁵⁾ 시간 정책을 크게 유연근무제도와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해주는 근무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로 크게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 85에서 재인용²⁶⁾).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아래 <표 II-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5) 이 연구의 기준을 차용한 이유는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II)이 2020년에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로 통합되어 연속과제의 전년도 선행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6) 재인용 원자료 출처: http://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인출일 : 2019. 6. 18)

〈표 II-2-1〉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내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자료: 고용노동부(2018). 유연근무제 우수사례집: 잘 나가는 기업, 비법은 유연근무제!

이러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도입율은 낮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시차출퇴근제도의 도입률은 17.2%에 그쳤으며, 유연근무제도 중 어떠한 것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74.4%에 달했다. 평균 활용 실적은 이보다 더 저조하여, 시차출퇴근제가 5.3%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유연근무 제도 활용률이 5%를 넘지 못하며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표 II-2-2 참조).²⁷⁾

〈표 II-2-2〉 주요 유연근무 제도 도입율 및 활용 실적

단위 : %

제도 유형	근로시간				근로장소		도입 안함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도입 여부	13.4	17.2	8.7	7.6	3.5	4.5	74.4
평균활용 실적	1.7	5.3	4.3	3.4	2.8	1.5	

자료: 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p.214, 216.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의 밀도를 낮추고, 어린이집 휴원, 초중고교의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근무제’가 활발히 실시되었다. 먼저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집단 감염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

2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 2019)는 2020년 10월 기준 가장 최신의 조사 자료이지만, 조사 기준 시점은 2018년으로 노동시간단축(주52시간)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음.

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²⁸⁾.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²⁹⁾.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재택근무 실시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에 관한 것이다³⁰⁾.

이후 몇몇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순환재택근무 실시,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환경 구축을 도모하였는 바³¹⁾ 2019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그간 부진 하였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표 II-2-3〉에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출산 및 육아관련 시간을 지원하는 휴가·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 포함)를 일괄하여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각 제도들의 2019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한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중 2019년 이후 변화가 있었던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무급휴가제도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유급 기간이 이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다. 또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10일 중 5일에 관한 국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9: 2~3).

2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16).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96 (인출일 : 2020. 6. 18).
 29)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51 (인출일 : 2020. 6. 18).
 30)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51 (인출일 : 2020. 6. 18).
 31) 뉴스월코리아(2020. 6. 8).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롯데윌, 재택근무·화상회의 적극 도입. <https://www.news1.kr/articles/?3957972> (인출일 : 2020. 6. 18).

두 번째로 육아휴직은 종전 근로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허용되었으나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³²⁾. 또한 양부모 가정에서 부모 각각 1회씩의 육아휴직이 이용 가능한 반면 단 1회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게 되었다. 즉,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을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되어 양부모 가정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에 비해 급여에 있어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³³⁾. 또한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 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제도가 개선되었다³⁴⁾.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단위가 변경되었다. 즉, 기존의 일일 2~5시간 단위 단축에서 일일 1~5시간 단위 단축이 가능해졌고, 1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없도록 변경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까지 가산한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19: 6~7). 그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는 바, 육아휴직 대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용노동부, 2019: 7).

32)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 (인출일 : 2020. 3. 25).

3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24).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 (인출일 : 2020. 6. 18).

3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24).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 (인출일 : 2020. 6. 18).

〈표 II-2-3〉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유형	권리/기간	분할횟수	급여	비고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	통상임금의 100%	-
출산전후 휴가	산전, 산후로 90일간 가능함(다태아인 경우 120일). 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 배정되어야 함.	이전 유산 경험, 청구당시 만 40세 이상 임신부,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시 출산 전 분할하여 미리 사용 가능	주2)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통상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출산휴가 최초 5일치 통상임금(상한액 382,770원)을 지급 *정부 지원 부분은 사업주 유급 의무 감면	유급(2019. 10.1 시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씩)	1회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 70만원)지급,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80%, 7개월 이후 50% 지급.	부모 동시 사용 가능 ('20.2.28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1년까지 주당 15시간~35시간 미만으로 사용 가능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 제한 없음)	매주 최초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합 2년 사용 가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2차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분 제도 미적용	-

주: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p.86 표를 토대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함.

2)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자료: 1)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p.86 〈표 II-4-2〉

2)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ersonBnef>에서 (인출일 : 2020. 3. 25)

3) 고용노동부(201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4)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

2019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 2019: 41~193)의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법적 근거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4>와 같다.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활용도와 활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가장 활용실적이 높은 출산전후휴가 제도조차 12.4%의 활용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육아휴직제도가 84.0%, 출산전후휴가제도 82.2% 등으로 활용실적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제도 완비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제도 실질적인 활용 과정에서 장벽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II-2-4>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법적 근거 및 활용 현황

구분	지원 근거 및 지원 내용	활용 수준
임신, 출산	출산전후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①)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 90일 휴가를 부여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12.4%. -인지도 : 82.2% -활용가능성 : 50.7%(모수에서 모른다 2.7% 제외)
	배우자출산 휴가제도 (남녀 고용 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부여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6.7%. -인지도 : 70.1% -활용가능성 : 45.0%(모수에서 모른다 9.3% 제외)
	임신기근로 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⑦)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근로자 청구 시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5.6%. -인지도 : 79.0% -활용가능성 : 44.7%(모수에서 모른다 21.0% 제외)
	난임치료휴가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1.6%. -인지도 : 53.1% -활용가능성 : 40.1%(모수에서 모른다 46.9% 제외)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6.9%. -인지도 : 84.0% -활용가능성 : 42.7%(모수에서 모른다 16.0%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	-지난 1년간 활용실적 : 3.9%. -인지도 : 65.4% -활용가능성 : 40.7%(모수에서 모른다 34.6% 제외)

주: 1) 활용수준은 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2019)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정리한 것으로, 기준 시점은 2018년임.

2) 인지도는 잘알고 있음 + 대충 알고 있음 + 들어본 적 있음 비중의 합계.

자료: 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pp.41~193.

다.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한편,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에 의해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설되었다(고용노동부, 2019: 10~1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이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9: 10~11).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5>와 같다.

<표 II-2-5> 가족돌봄 휴가 휴직제도

유형	권리/기간	분할횟수	급여	비고
가족돌봄휴직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	1회 30일 이상으로 분할 가능	무급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사용	-	-	‘19. 8 도입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처우 금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연간 90일 초과 불가)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	‘19. 8 도입

자료: 고용노동부(201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가족돌봄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 및 신설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2020년 1월 시행이 예정되었던 사항으로, 가족돌봄휴직 제도에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 등을 추가³⁵⁾하면서 확대되었다³⁶⁾. 한편,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35) 단, 본인 이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2020년 1월 신설되었다³⁷⁾.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자녀를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급속한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의 제도이나,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한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개학연기 상황에서 사용이 권장되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근로자 1인당 5만원을 최대 5일, 한부모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0일을 지원하였다³⁸⁾.

〈표 II-2-6〉 가족돌봄 관련 법안 주요 개정 과정 및 추가 지원

개정일시 (시행시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2019. 8. 27 (2020. 1. 1.)	가족범위 확대 : 조부모, 손자녀 추가	제도 신설
2020. 9. 8	-	-감염병 심각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한 조치 신설 -사용일수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한부모 25일로 확대) -중소기업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사용은 지원금 지원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 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 2020. 10. 20).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9. 8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20가정%20양립%20지원에%20관한%20법률> (인출일 : 2020. 10. 20).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588> (인출일 : 2020. 10. 20).

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 2020. 10. 20).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 2020. 10. 20). 이와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또한 2020년 1월 신설되었으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해당 제도는 자녀 양육이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38)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 2020. 3. 25)

이 후 2020년 9월 정부는 고평범의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긴급 가족돌봄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2020년 9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일수는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³⁹⁾.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⁴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의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에게 추가적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⁴¹⁾.

2020년 10월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되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내용은 <표 II-2-6>과 같다.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20년 9월 8일 법령 개정 사항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혹은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 돌봄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측면의 범조항이 많이 추가된 상황이며, 법제의 정비 뿐 아니라 관련 지원금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⁴²⁾.

<표 II-2-7>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제22조의2 ①)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제22조의2 ②)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 사유	(제22조의2 ①) 질병, 사고, 노령	(제22조의2 ②)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제22조의2 ④ 3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9. 8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20일·가정%20양립%20지원에%20관한%20법률> (인출일 : 2020. 10. 20).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9. 8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20일·가정%20양립%20지원에%20관한%20법률> (인출일 : 2020. 10. 20).

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588> (인출일 : 2020. 10. 20).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588> (인출일 : 2020. 10. 20).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예외 적용	(제22조의2 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의2 ②)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제22조의2 ④ 1호)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제22조의2 ④ 2호)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행 강제 조항	(제39조② 8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9조② 8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휴직 기간 중 무급, 근속 포함,	휴가 기간 중 무급, 근속 포함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joNo=003900000&languageType=KO&docType=J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 (인출일 : 2020. 10. 20).

2) 정부24, 가족돌봄휴직제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인출일 : 2020. 10. 20).

3. 초등 돌봄 지원 정책의 동향: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 돌봄 지원 정책은 주로 초등학령기 자녀의 방과 후 시간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유아기와 달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초등학령기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온종일 돌봄체계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여 초등 돌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장명림·이희현·조진일 외, 2018: 3).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제공되어 왔던 분절적 초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 중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장명림·이희현·조진일 외, 2018: 5~7; 장명

림·박성철·정연아 외, 2020: 3~4).

온종일 돌봄체계는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지자체 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장명림·박성철·정연아 외, 2020: 3~4). 여기서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⁴³⁾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초등돌봄 사업이다. <표 II-3-1>은 초등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현황이 정리된 표이다.

온종일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뉘며, 교육부 소관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돌봄에 속하고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마을돌봄으로 구분된다(장명림·이희현·조진일 외, 2018: 17~19). 온종일 돌봄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마을학교나 유휴 학교교실·공간 활용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도 시도하고 있다(장명림·이희현·조진일 외, 2018: 17; 장명림·박성철·정연아 외, 2020: 26).

온종일 돌봄체계에 따른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17년 약 33만 명에서 2019년 약 40만 명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53만 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 및 마을돌봄 공급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교육부 설명자료, 2020. 1. 19).⁴⁴⁾

<표 II-3-1> 부처별 초등돌봄 사업(2020년 2월 기준)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시행시기	2004	2017	2004
근거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지원대상	초 1~6학년	만 6~12세 미만	만 18세 미만
지원기준 (소득기준)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이하)

43)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음.

44) 교육부 설명자료(2020. 1. 19).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953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 (인출일 : 2020. 6. 18).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이용료 일부 부담 (지자체별 결정)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운영 시간 (최소 필수/표준서 비스 시간)	학기	방과 후 ~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14~19시	14~19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9~18시	12~17시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놀이, 체험, 방과후 학교 연계, 일부 급·간식 지원 등	보호, 교육, 놀이, 체험, 학습(특별활동), 급·간식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급·간식 지원 등
19년 운영 규모 (19년 말 기준)		13,910실 290,358명	173개소 2,968명	4,217개소 초등 98,501명
20년 계획		14,610여실 (중 700여실) 30만4천명	573개소 (중 400개소) 1만5천명	4,225개소 (중 8개소) 초등 10만명

자료: 장명림·박성철·정연아 외(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 온종일 돌봄체
계 구축·운영 업무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p.35를 참고하여 작성함.

나.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이며, 45)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 내용에 근거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은 근거법령 없이 교육부 고시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근진·박은정·김희수, 2019: 294~295). 특히,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학교와 마을돌봄 연계사업이나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김근진·박은정·김희수, 2019: 295). 이에 교육부가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으나,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중부일보, 2020. 7. 15).⁴⁶⁾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은 맞벌이 부부에게

45) 정부 24, 초등돌봄교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0005> (인출일 : 2020. 6. 10)

46) 중부일보(2020. 7. 15). 초등 돌봄교실 근거 법령제정 입법 중단...교육부, 교원 반발에 백기, <http://www.joong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3304> (인출일 : 2020. 10. 10).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상당수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돌봄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초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돌봄 서비스가 초등돌봄교실이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9). 즉,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9). 2018년 발표된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2022년까지 총 3,500실로 확대될 예정이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0).

초등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시간대(17시까지)에 1~2학년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2). 오후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47). 저녁돌봄교실 돌봄서비스는 오후 돌봄 이후에 추가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제공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55).

3~6학년의 경우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03).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의무적으로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별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장명림·김성희·김옥자 외, 2015; 오시영·전주성, 2018: 72에서 재인용).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인력으로는 돌봄전담사, 돌봄봉사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 등이 있으며, 실질적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은 돌봄전담사가 담당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65, 168).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및 교실 관리, 전반적인 학생 돌봄 및 보호,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여야 돌봄전담사 자격요건을 갖는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24).

오후돌봄교실 돌봄서비스는 개인활동과 단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학습

보다는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48).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외부강사와 교원을 활용하여 운영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48).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II-3-2>와 같다.

<표 II-3-2>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유형	프로그램 내용
개인 활동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돌봄전담사, 돌봄봉사인력 등의 지원·관리에 행하는 활동 예)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EBS 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 포함
단체 활동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 예)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재미있는 요리, 연극, 학부 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인성프로젝트, 안전교육 등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되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수행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 놀이활동」(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활용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b).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0). p.49.

최근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 및 돌봄 공간에서부터 돌봄 서비스 운영 모델까지 여러 측면에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발표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의거한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2022년까지 약 10만 명을 증원하여 34만 명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0~12).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3,500실까지 확대하고, 기존 교실 1,500실을 활용할 계획이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2).

운영 교실의 확대와 함께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즉, 기존에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오후돌봄교실과 3~6학년 대상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등은 대상 학년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게 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2). 한편, 초등돌봄교실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돌봄교실 서비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2). 이용 대상이나 운영시간 확대는 각 교육청이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2).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4월말 기준 6,117개교에서 약 29만 여명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9). 2020년에는 700실을 확충하고 1만 4천명을 증원하여 30만 4천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9). 각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전용 교실 전환 사업과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700여실의 초등돌봄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9).⁴⁷⁾ 한편, 초등돌봄교실의 지역사회 연계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여 학교-마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선도사업 사례를 개발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4~15).

다.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사업 이전에도 다양한 돌봄 수요에 따라 지역 내 여러 형태의 지원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돌봄 서비스로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적 격차가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였다(유해미·이정림·최윤경 외, 2017: 9~11). 이에 지역 내 돌봄 역량을 집결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사업이 다함께돌봄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0a: 3).

다함께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3; 장명림·박성철·정연아 외, 2020: 35). 2019년 1월에 아동복지법 법률 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8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47) 교육부 보도자료(2020. 1. 9).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458&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 2020. 6. 10).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따른다(보건복지부, 2020a: 3).

〈표 II-3-3〉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법조항

법조항 내용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용 대상은 만6세~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39). 이용 인원은 아동 1인당 최소 시설면적기준(3.3㎡)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최소 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다(보건복지부, 2020a: 40). 또한 돌봄필수인력 대 아동비율인 1인당 아동 20명 기준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일시돌봄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40).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유형은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된다. 상시돌봄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이고, 일시돌봄은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 시 제공하는 비정기적 돌봄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20a: 40). 다함께돌봄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기 중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14시~19시이며, 단기방학을 포함한 방학 중 제공 시간은 9시~18시이다(보건복지부, 2020a: 41).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a: 40).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표준서비스 제공시간 포함), 주중 5일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보건

복지부, 2020a: 40).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수적인 돌봄인력은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이며, 센터장은 센터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돌봄선생님은 실질적인 돌봄업무를 전담한다(보건복지부, 2020a: 47). 이용아동 수 및 운영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제 2인(4시간 기준) 돌봄선생님을 배치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55). 하지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는 돌봄선생님을 비롯해서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돌봄인력이 가급적 2명 상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a: 55).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3-4〉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48.

다함께돌봄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2017년 7월부터 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출범하였으며, 2018년에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17개소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4). 2019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조항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 발족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173개소이다(보건복지부, 2020a: 4).

보건복지부는 2018년 다함께돌봄사업의 대대적인 확대를 결정하고, 2019년 200개소, 2020년 400개소, 2021년 400개소, 2022년 80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10. 30).⁴⁸⁾ 2019년 기준으로 총 173개소가 설치되어(보건복지부, 2020a: 4),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을 확대하면서 2019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 2020a: 3). 또한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0년 신설되거나 개정된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표 II-3-5>와 같다.

<표 II-3-5>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0년 주요 개정사항
돌봄서비스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에는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서비스를 신청 • 2020년 지침 개정에 따라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온라인* 신청이 신설) *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또는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세부내역에서 상해보험료와 급간식비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시 *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가능 * 급간식비: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이용료 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납한도액 내에서 시설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세부내역별로 이용료 수납액을 결정하도록 개정 • 이용료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규정 중에 수납한 이용료를 필히 시설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집행할 것을 명시 • 이용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
이용아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지침에 이용아동 수에 대한 규정 신설 • 다함께돌봄센터의 최소 전용면적(66㎡)와 아동 1인당 최소 시설면적(3.3㎡)을 고려하여 정원(상시)을 산정 • 동시간대에 최대 이용아동수는 돌봄필수인력 대 아동비율(상시돌봄 및 일시돌봄 포함)을 준수하여 배치 • “돌봄필수인력 1인당 아동 20명(일시돌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4명 이내로 권장함)”

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0. 3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돌봄 확대 결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479&SEARCHKEY=TITLE&SEARCHVALUE=%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A%B3%B5%EB%AC%B4%EC%9B%90 (인출일 : 2020. 6. 10).

구분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출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학부모 상담을 통해 개인별 관리 카드에 등·하원 시간 및 시간대별 활동 등을 작성하고 관리(단, 센터 이용 후 타 연계기관 미이용 및 즉시 귀가할 경우 생략 가능) • 센터장이 출결관리를 위해서 출석부를 비치하여 관리해야 하는 규정에서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비치로 개정 •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센터에서는 별도 출석부 작성을 생략 가능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지침에서 상시돌봄에서 종일돌봄과 시간제돌봄의 구분을 삭제 • 운영시간 규정에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신설
종사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자격 기준에서 기존에 “자격 취득 후”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센터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되도록 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에게 직접 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 제성이 거의 없었음 • 2020년 지침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범죄 전력여부 조회 기능을 개선 할 예정임을 명시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채용 후 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할 때, 서면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임면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정 • 임면보고 시 채용 관계서류에 대한 규정이 보다 상세하게 제시 •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규정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지원내역에서 센터장과 시간제 돌봄선생님 인건비 보조금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8시간) 1인: 2,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6,000원(월 지급액)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 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선생님(4시간) 1인: 1,09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5,000원(월 지급액)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 퇴직적립금 • 인건비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신설되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 보조금 인건비 지원 •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체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 “개소당 지원 단가: 월 30만원(지방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사업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함.

라. 지역아동센터

빈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민간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방과후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었다(박선권, 2019: 1; 홍나미·정익중, 2019: 6).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의 돌봄과 결식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정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등도 제공하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확대되었다(박선권, 2019: 1; 홍나미·정익중, 2019: 6).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총 895개소에서 1년만인 2005년에 1,709개소로 거의 2

배가량 증가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20b: 4),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4,217개소이다(장명림·박성철·정연아 외, 2020: 35).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르며, 「아동복지법」 제54조~제75조의 조항에 준하여 종사자 배치 및 시설운영을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3). 동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따른다(보건복지부, 2020b: 3).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은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인 돌봄취약아동이 우선순위이다(보건복지부, 2020b: 45).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족(3명 이상)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을 포함한 일반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우선시 된다(보건복지부, 2020b: 45). 일반아동은 신고정원의 20% 이내로 등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b: 45).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일반아동에 한해 일정 절차를 거쳐 월 5만원 이내에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해당 이용료는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b: 169).

한편, 2019년에는 일반아동 이용비율이 신고정원의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조건이 추가되었다. 즉,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40% 이내, 이외 지역은 30% 이내로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39). 2020년에는 이보다 더 완화되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60% 이내, 이외 지역은 50% 이내 범위에서 일반아동도 등록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 2020b: 45). 한편,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가구특성기준에 속해 있었으나 2020년 지침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일반아동에 포함시켰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등 타 기관 이용이 어려워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0b: xiii). 또한 2020년 사업안내에는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등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중복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규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도 이용이 불가능함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b: 54).

지역아동센터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을 준수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b: 58).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4시~19시, 방학 중에는 12시~17시이며, 기본 운영시간을 필히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b: 59).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b: 59). 기본프로그램의 영역은 보호·교육·문화·지역사회·정서지원으로 구분되며,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여건 및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20b: 59).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20b: 29). 단,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10인 미만 배치 기준이 삭제되어 아동 10인 미만 신규설치 신고는 불가능하나, 기존 시설은 인정된다(보건복지부, 2020b: 29).

〈표 II-3-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 10인 미만	1명	-	-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29.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5에 따른다(보건복지부, 2020b: 29).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3-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 및 별표 15)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자료: 보건복지부(2020b).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p.29-30.

Part I

2020년 KICCE 기초분석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01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02 설문지 구성

03 응답자 특성

Ⅲ.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1.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⁴⁹⁾

가. 표본 추적 및 구축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패널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하였다. 다만, 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추적대상 가구 중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가구가 있었던 조사구 내에서 대상 가구와 특성이 유사한 가구(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수를 우선 고려함)를 대체 표본으로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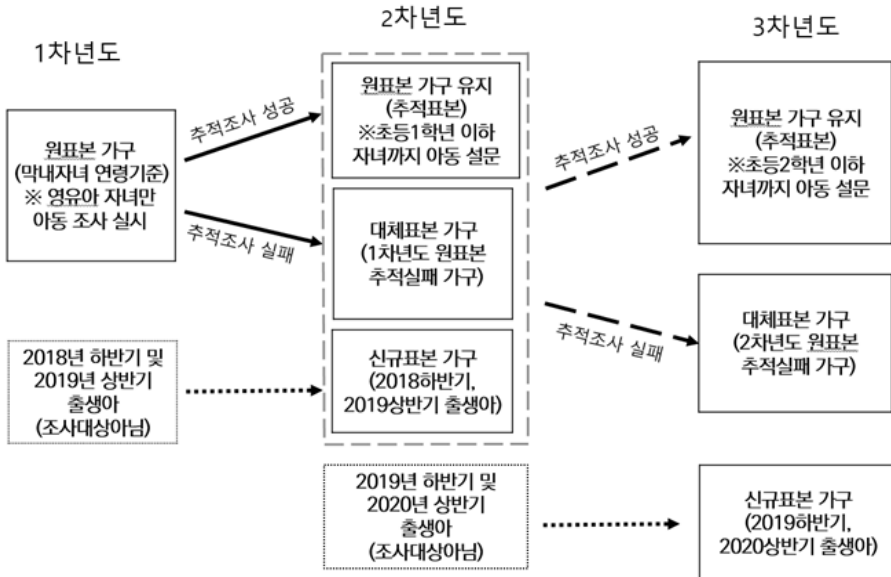
본 연구가 횡단 조사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패널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횡단 자료 구축 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구 소득 등을 통제하기 어려워, 양육비용의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부록: 5).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년 조사마다 조사 대상 육아 가구에게 2022년까지 해당 연구가 진행됨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가구패널 조사와 달리 단 기간(3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영유아 가구의 특성상 이주가 잦고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원표본 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부록: 5).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 패널 조사 방식에 조사구 패널 방식을 접목하여, 조사 기간의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구 내 대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체 표본의 조건은 대체가 필요한 원표본과 자녀수와 막내 자녀의 연령이 같으면서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국한하였다.

49) 이 절의 내용은 연구과제 특성상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에서도 연구보고서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조사 설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되거나 인용될 수 있음.

한편, 영유아기 전 연령이 매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마다 신생아 표본을 250가구(전년도 하반기 출생아 125가구,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 125가구) 추가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자료를 횡단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유아기 전체의 표본에 대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표본으로 인해 매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산출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 표본의 특징은 3절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그림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구성(1~3차)



주: 가는 점선은 당해연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굵은 점선은 2차년도 원표본 가구를 의미함.

나. 조사 도구 및 면접원 교육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도구는 2차년도 조사까지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종이설문(PAPI)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조사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것으로, 설문의 유치를 통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기존 TAPI조사에서 PAPI(종이설문조사)로 조사 도구가 변경됨에 따른 응답 값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 내용을 기존 태블릿PC에서의 입력 시스템과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더블 펀칭하도록 하고, 응답 오류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 단계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해 패널 조사(종단자료) 방식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응답 대상과의 유대감과 양육비용 비목 구분 및 육아서비스 등 설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조사이다. 따라서, 매해 70명 내외의 면접원을 선발하여 동일한 면접원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차년도 조사는 응답 대상이 초등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표본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의 어려움으로 조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총 80명의 면접원을 선발하여 조사에 투입하였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조사 설계 등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된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미친 3차년도 조사도 동일한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개요: 1~3차 자료

단위 : 가구, 명

구분	1차(2018)년도	2차(2019)년도	3차(2020)년도	
조사 대상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추적대상표본 : 1차년도 원표본 가구 (초등1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추적대상표본 : 2차년도 조사 성공 표본 가구 (초등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신규 원표본 : 2018년 하반기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신규 원표본 : 2019년 하반기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체 표본 : 원표본 중 조사 실패 가구	대체 표본 : 2차년도 표본 중 조사 실패 가구	
가구 표본	1,648	1,902	2,156	
아동 조사	영유아	2,276	2,333	2,369
	초등1학년	-	443	431
	초등2학년	-	-	478
설문 종류	본조사(가구용, 아동용)	본조사(가구용, 아동용)	본조사(가구용, 아동용)	
	온라인 설문	-	-	
조사 도구	TAPI	TAPI	PAPI	
조사 방법	방문 대면 면접 조사	방문 대면 면접 조사	방문 대면 면접 조사 (설문유치 후 전화조사병행)	
조사 기간	6.14~8.31	5.10~8.15	5.15~7.30	

자료: 1)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부록).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p.7.
 2)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3)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설문지 구성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편의성을 고려한 형태로 아동 조사 설문지를 대폭 수정하고 간략화 하였다. 3차년도 아동 조사 설문지는 시간표 형태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을 응답하도록 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육아서비스 종류 등을 전년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전년도 자료와의 연속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설문 개발을 진행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설문은 이용하는 육아서비스 종류에 따라 응답 문항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문지의 분량이 많아보여도 실제 응답자가 응답하는 문항은 많지 않은 특징이 있다. 다만, 3차년도 조사는 TAPI가 아닌 PAPI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설문지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 혹은 면접원으로 인해 자료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면접원 교육, 전화 재조사 실시, 더블 펀칭 등 여러 단계에 걸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3차년도 조사에서는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즉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 경제 설문부터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에 걸쳐 모든 문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정도를 설문지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차수별로 설문 문항에서 차별적으로 강조되었던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본조사 이외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2차년도 설문에서는 초등학교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문이 대거 도입되고 아동수당 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정책 인지 등에 관한 설문문이 추가되었다. 2차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초등 자녀용 설문은 3차년도에도 설문 구조가 크게 변경되고 간소화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1차년도에 실시된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공유경제는 온라인 조사 미실시로 전부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2차년도에 크게 설문문이 보강된 아동수당 정책 변화와 세계 관련 문항은 3차년도에는 아동수당 사용처 등 일부 핵심 문항은 유지하되, 정책 인지 등과 관련된 설문은 대폭 축소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차수별 설문 주요 문항은 <표 III-2-1>부터 <표 III-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1> 본조사 설문의 개요 (1-3차년도)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구용 조사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	○	○	○
	가구의 경제활동	○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문항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문항 추가,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
	가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	○		
아동용 조사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이용시간(기본보육시간) 관련 문항 및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이용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기타보육				
아동용 조사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 초등돌봄교실 이용			
	- 방과후학교 이용			
	- 학원(특기교육 등) 이용			
- 기타 돌봄				
가구용 조사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	설문축소 및 통합 (초등포함으로 수정)	2차년도 기준 설문 축소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	설문축소
	육아 소비 성향	○	○	○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	일부 문항만 조사	2차년도 동일
	육아 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온라인 조사	×	×
	육아용품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2차년도 동일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자료: 1)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부록).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3. <표 VI-2-1>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설문지.

설문 종류별로 조사차수별 가구용 설문의 세부 문항별 질의 여부는 다음과 같다. 3차년도 조사에서는 미취업자인 어머니에게 취업 의향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변동, 부모의 노동시간 변동, 가계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을 질의하였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도입된⁵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관련 정책 인지 및 선호 등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50)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으로 인해 조사기간(2020년 5월~7월)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의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음.

반면,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문항은 간략화하고 응답자 편의를 고려한 형태로 응답표를 수정하였으며, 주거관련 문항을 축소하였다. 또한 2차년도의 정책 변화로 인해 대거 포함되었던 아동수당 정책 관련 변화 인지와 수혜, 세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설문 문항을 삭제하였다⁵¹⁾. 단, 아동수당 지원은 2020년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수당의 사용출처와 양육비용 부담 경감 정도 문항은 기존대로 유지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2-2〉 가구용 설문 비교 (1-3차년도)

세부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구원 구성	○	○	○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
[미취업모]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1 :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기타	지난 1개월 1회 수령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2 : 아동수당	×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부모 노동시간 변동 등	×	×	문항 신설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	○
아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	×	○	×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	×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	○	×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	○	○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	문항 간소화	문항 간소화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	○	○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	×	×

51) 2차년도 조사 결과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는 육아 가구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낮았음(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77~85).

세부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	×	문항 신설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	○	×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	○	○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용 설문	○	○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	×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긴급돌봄 대응	×	×	○
육아상품 가격상승 시 구매패턴	○	문항 일부 수정	○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지출 변화	○	○	○
소득감소 시 지출 변화(탄력성)	○	○	○
육아품목 물가 체감 : 소비자/내구재/서비스 구입 경험, 구입 경로, 가격 체감, 부담정도	온라인 조사	○	○
과거, 현재 및 미래 사회·경제적인 위치	○	문항추가(과거)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경제 전망	○	×	×
미래 자녀세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	×
부모 부양책임, 노후준비와 자녀양육 지출 비중	○	×	×
경제 인식 및 물가 체감(온라인 조사) : 경기 체감, 가계 상황에 대한 체감, 소비자 물가 및 육아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	○

자료: 1)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부록),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5~18, <표 VI-2-2>와 <표 VI-2-4>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설문지.

한편, 아동용 설문은 2차년도부터 가구용 설문과 분리하여 조사되며(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부록: 16), 영유아용 설문과 초등자녀용 조사로 구분된다. 아동용 설문은 주로 아동별 육아서비스의 이용행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년도까지는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를 질문한 후 해당 유형의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반해, 3차년도 조사에서는 시간표 형태로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를 응답한 후 해당 유형의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는 데이터 처리상의 업무량 증가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연상하고 응답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이용 시간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와 조합 방식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교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교육 서비스(문화센터, 학원, 학습지 등)는 2차년도 조사까지는 사교육 서비스로 묶어서 질문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시간표 조사 상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도록 사교육 서비스 종류별로 설문을 세분하였다. 이때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가 어떠한 분야에 속하는지를 세분하여 응답하도록 한 반면, 이용 개수, 이용빈도, 이용시간 등은 시간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설문을 축소하였다. 또한 사교육 서비스 이용사유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응답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표 III-2-3〉 아동용 설문 비교 (1-3차년도)

세부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주로 돌보는 사람	○	○	×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	×
	자녀의 기관 이동 경험	×	○	×
	기관 이동 경로	×	○	×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어린이집 이용자	○	○	문항 간소화
	유치원 이용자	○	○	문항 간소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	○	문항 간소화
	시간제 일시 보육	○	○	이용 사유 삭제
개별돌봄 서비스	○	가구용 설문	가구용 설문	
시간제 사교육	○	○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기타 육아서비스	○	○	키즈카페만 질문	

세부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등하교시간,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초등은 아동조사 대상이 아님	○	하교시간만 질문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	○
	방과후 학교 이용 자녀		○	문항 간소화
	시간제 사교육		○	문항 간소화
기타 육아서비스	○	×		

자료: 1)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부록).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6~19, <표 VI-2-3>와 <표 VI-2-5>를 수정 보완함.

3. 응답자 특성

가. 표본 가구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조사의 추적대상 표본 및 성공 가구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1>과 같다.

가구기준 3차년도 전체 표본 수는 2,156가구이며, 추적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1,634가구(75.8%)였고, 표본 이탈로 인해 대체 조사한 가구가 268가구, 3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가구가 254가구였다.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0세가 154가구, 1세 313가구, 2세 289가구, 3세 234가구, 4세 222가구, 5세 237가구, 6세 230가구, 7세(초등 1학년) 248가구, 8세(초등 2학년) 229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추적 성공

가구의 비중이 큰 차이 없이 85% 수준을 나타냈다. 0세의 추적성공 표본은 전년도 조사 성공 가구 내 출산에 따른 표본 확대 표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세의 경우, 2차년도 기준 2019년 상반기 출생아는 신규표본으로 126가구만 구축되었기 때문에 추적 성공 가구수가 적어보이는 상황이다. 최초 표본보다 추적조사 표본수가 많은 이유는 원표본 가구의 출생에 따라 막내자녀 연령이 반영된 경우에 해당한다.

아동 기준으로 3차년도 표본 수는 총 3,278명이고, 추적조사에 성공한 아동은 2,493명이며, 표본 이탈로 인해 대체 조사한 아동은 365명, 3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아동은 42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0세는 158명, 1세 321명, 2세 331명, 3세 334명, 4세 378명, 5세 424명, 6세 422명 7세(초등 1학년) 441명, 8세(초등 2학년) 469명이 조사되었다.

각 연령별로 최소 250명(당해년도는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상반기 출생아만 조사하므로 절반인 125명)의 표본을 확보하도록 조사하였으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본 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 추적대상 표본 및 성공 가구 수 (2020년)

단위 : 가구, 명(%)

구분	가구 기준				아동 기준			
	3차 전체 표본 수	3차 추적 성공	3차 대체 표본	3차 신규 표본	3차 전체 표본 수	3차 추적 성공	3차 대체 표본	3차 신규 표본
전체	2,156 (100.0)	1,634 (75.8)	268 (12.4)	254 (11.8)	3,278 (100.0)	2,493 (76.1)	365 (11.1)	420 (12.8)
2012년생 (8세, 초등 2학년)	229 (100.0)	190 (83.0)	39 (17.0)	-	469 (100.0)	399 (85.1)	61 (13.0)	9 (1.9)
2013년생 (7세, 초등 1학년)	248 (100.0)	216 (87.1)	32 (12.9)	-	441 (100.0)	378 (85.7)	52 (11.8)	11 (2.5)
2014년생 (6세)	230 (100.0)	194 (84.3)	36 (15.7)	-	422 (100.0)	355 (84.2)	55 (13.0)	12 (2.8)
2015년생 (5세)	237 (100.0)	211 (89.0)	26 (11.0)	-	424 (100.0)	358 (84.4)	43 (10.1)	23 (5.4)
2016년생 (4세)	222 (100.0)	188 (84.7)	34 (15.3)	-	378 (100.0)	292 (77.2)	45 (12.0)	41 (10.8)
2017년생 (3세)	234 (100.0)	196 (83.8)	38 (16.2)	-	334 (100.0)	258 (77.2)	44 (13.2)	32 (9.6)

구분	가구 기준				아동 기준			
	3차 전체 표본 수	3차 추적 성공	3차 대체 표본	3차 신규 표본	3차 전체 표본 수	3차 추적 성공	3차 대체 표본	3차 신규 표본
2018년생 (2세)	289 (100.0)	247 (85.5)	42 (14.5)	-	331 (100.0)	257 (77.6)	44 (13.3)	30 (9.1)
2019년생 (1세)	313 (100.0)	165 (52.7)	21 (6.7)	127 (40.6)	321 (100.0)	169 (52.6)	21 (6.5)	131 (40.8)
2020년생 (0세)	154 (100.0)	27 (17.5)	-	127 (82.5)	158 (100.0)	27 (17.1)	-	131 (82.9)

주: 1) 가구 원표본은 1차년도 조사 당시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설정됨.
 2) 대체 표본은 1차년도 원표본 가구를 대체한 경우이며, 신규표본은 막내 자녀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출생한 최초 표집 표본을 의미함. 아동 기준 표본 수는 가구의 표본 특성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KICCE 1~3차년도 가구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2>와 같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는 3차년도에 4명이 50.4%로 가장 많았고, 3명이하 32.7%, 5명이상 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가구원수별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1차년도는 4명의 비중이 다소 작고, 3명이하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는 2차년도와 3차년도는 3.9명으로 동일하였으며, 1차년도는 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추적 과정에 후속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변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차년도 맞벌이 가구는 960가구(44.5%)였으며, 2차년도에는 맞벌이 가구가 856가구(45.0%), 1차년도 762명(46.2%)으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1~3차년도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비중을 살펴보면, 3차년도는 400~499만원이하가 29.4%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이상 22.8%, 300~399만원이하 21.8%, 500~599만원이하 18.6%, 299만원이하 7.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비중이 대체로 비슷하나 3차년도가 1~2차년도 결과에 비해 저소득 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특성 (2018~2020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전체	2차년도 전체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634 (100.0)	268 (100.0)	254 (100.0)	
가구원수	3명이하	609 (37.0)	638 (33.5)	704 (32.7)	476 (29.1)	115 (42.9)	113 (44.5)
	4명	781 (47.4)	952 (50.1)	1,087 (50.4)	862 (52.8)	127 (47.4)	98 (38.6)
	5명이상	258 (15.7)	312 (16.4)	365 (16.9)	296 (18.1)	26 (9.7)	43 (16.9)
평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7	3.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2 (46.2)	856 (45.0)	960 (44.5)	741 (45.3)	124 (46.3)	95 (37.4)
	외벌이	886 (53.8)	1,046 (55.0)	1,196 (55.5)	893 (54.7)	144 (53.7)	159 (62.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59 (21.8)	273 (14.4)	158 (7.3)	113 (6.9)	22 (8.2)	23 (9.1)
	300~399만원 이하	474 (28.8)	536 (28.2)	471 (21.8)	357 (21.8)	58 (21.6)	56 (22)
	400~499만원 이하	374 (22.7)	493 (25.9)	634 (29.4)	462 (28.3)	78 (29.1)	94 (37)
	500~599만원 이하	201 (12.2)	298 (15.7)	402 (18.6)	304 (18.6)	61 (22.8)	37 (14.6)
	600만원 이상	240 (14.6)	302 (15.9)	491 (22.8)	398 (24.4)	49 (18.3)	44 (17.3)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자녀수에 따라서 3차년도에 전체 2,156가구 중 52.2%(1,125명)가 자녀가 2명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3.6%(725가구),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가 14.2%(306명)으로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가구 자녀 구성과 비교해보면 자녀수별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도 1.8명으로 동일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2명(49.6%) 혹은 3명이상(11.7%)인 가구의 비중이 다소 낮고 자녀가 1명(38.7%)인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평균 자녀수도 1.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0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634 (100.0)	268 (100.0)	254 (100.0)	
자녀수	1명	638 (38.7)	660 (34.7)	725 (33.6)	490 (30.0)	117 (43.7)	118 (46.5)
	2명	818 (49.6)	987 (51.9)	1,125 (52.2)	896 (54.8)	131 (48.9)	98 (38.6)
	3명이상	192 (11.7)	255 (13.4)	306 (14.2)	248 (15.2)	20 (7.5)	38 (15.0)
평균 자녀수	1.7	1.8	1.8	1.9	1.6	1.7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3차년도 전체 2,156가구 중 44.2%(952가구)가 중소도시에 살고 있으며, 대도시 40.1%(865가구), 읍면지역 15.7%(339가구)로 나타나 1~2차년도와 비교할 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을 대체할 시 지역구를 고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III-3-4〉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0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634 (100.0)	268 (100.0)	254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662 (40.2)	762 (40.1)	865 (40.1)	664 (40.6)	99 (36.9)	102 (40.2)
	중소도시	717 (43.5)	833 (43.8)	952 (44.2)	714 (43.7)	125 (46.6)	113 (44.5)
	읍면지역	269 (16.3)	307 (16.1)	339 (15.7)	256 (15.7)	44 (16.4)	39 (15.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가구 소득 특성⁵²⁾

가구특성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결과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평균 501만8천원으로 나타나, 2차년도 475만7천원, 1차년도 444만6천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3차년도 맞벌이 가구는 571만원, 외벌이 가구는 446만3천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약 124만7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외벌이의 격차는 2차년도 147만9천원, 1차년도 137만9천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3차년도에 자녀가 2명인 가구가 5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514만5천원, 자녀가 1명인 가구 474만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에는 3명이상인 경우가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5〉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444.6	475.7	501.8	507.8	485.5	48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8.8	557.1	571.0	578.7	558.2	528.2
	외벌이	380.9	409.2	446.3	449.0	422.9	452.0
자녀수	1명	437.6	460.9	474.4	480.5	473.2	450.5
	2명	443.5	479.9	516.0	519.5	495.5	511.2
	3명이상	472.4	498.0	514.5	519.4	491.8	494.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세목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3차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평균 410만2천원으로 2차년도 435만2천원, 1차년도 428만3천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은 3차년도 평균 4만원으로 2차년도 6만2천원보다 낮았고, 1차년도 3만8천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제외)은 3차년도 평균 21만5천원으로 2차년도 23만3천원 보다는 낮았고, 1차년도 9만2천원보다는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평균 55만7천원으로 나타

52)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기준)를 활용하여 모든 값을 실질화함.

났다. 사적이전소득은 3차년도 평균 4만6천원으로 2차년도 4만5천원, 1차년도 1만8천원보다 높았다. 기타소득은 3차년도 평균 5만8천원으로 2차년도 6만6천원보다 낮았고, 1차년도 1만4천원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가구소득의 하락을 일정부분 방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일시불 형태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과대평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⁵³⁾.

〈표 III-3-6〉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428.3	435.2	410.2	420.3	408.6	346.6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3.8	6.2	4.0	4.0	2.8	5.0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9.2	23.3	21.5	17.9	16.8	49.9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	55.7	56.5	48.6	58.1
사적이전소득	1.8	4.5	4.6	3.3	2.7	15.8
기타소득	1.4	6.6	5.8	5.9	6.1	5.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7〉과 같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평균 481만5천원,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이 6만2천원,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22만2천원, 코로나지원금 54만2천원, 사적이전소득 4만1천원, 기타소득 2만7천원으로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는 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52만9천원,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2만2천원,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20만9천원, 코로나지원금 56만9천원, 사적이전소득 5만1천원, 기타소득 8만3천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은 맞벌이가 많았으나, 코로나지원금,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은 외벌이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코로나지원금,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목별 가구소득은 자녀수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진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공적

53)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소득 상승에 해당하며, 가구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소득에 모두 합산함.

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지역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세목별 가구소득은 자녀수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진 않았다.

〈표 III-3-7〉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0년)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코로나 지원금	사적이전 소득	기타 소득	계(수)
전체		410.2	4.0	21.5	55.7	4.6	5.8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81.5	6.2	22.2	54.2	4.1	2.7	(960)
	외벌이	352.9	2.2	20.9	56.9	5.1	8.3	(1,19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50.0	1.3	22.2	47.5	2.7	2.4	(158)
	300~399만원 이하	285.6	1.2	18.9	49.1	0.9	1.5	(471)
	400~499만원 이하	364.1	1.1	22.3	54.6	3.2	1.3	(634)
	500~599만원 이하	458.7	2.6	20.8	57.0	3.4	3.2	(402)
	600만원 이상	633.1	12.4	23.3	65.2	11.7	19.0	(491)
자녀수	1명	393.3	5.0	18.9	46.4	4.1	6.7	(725)
	2명	422.4	3.7	21.1	58.9	4.8	5.1	(1,125)
	3명이상	405.1	2.7	29.1	66.2	5.3	6.2	(306)
지역규모	대도시	410.8	7.0	20.4	49.9	2.8	2.6	(865)
	중소도시	413.0	1.9	21.7	61.9	4.8	9.0	(952)
	읍면지역	400.7	2.0	23.6	53.3	8.9	4.9	(33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은 양육수당, 보육료지원(영아), 누리과정지원(유아),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금 등이 포함되며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공적이전 소득은 다음의 〈표 III-3-8〉과 같다. 3차년도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평균은 58만8천원으로 2차년도 57만7천원, 1차년도 33만8천원보다 많았다.

맞벌이 가구 3차년도는 6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 57만8천원 보다 평균 2만2천원 많아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격차는 2차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1차년도 3만2천원보다는 작아졌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3차년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양육 관련 공적이전 소득은 66만4천원, 자녀가 2명인 경우 61만4천원, 1명인 경우 51만2천원으로 자녀가 많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2차년도 조사 결과도 동일하였다.

〈표 III-3-8〉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33.8	57.7	58.8	53.8	50.2	97.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5	58.9	60.0	53.7	51.7	116.0
	외벌이	32.3	56.7	57.8	53.9	48.8	8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7	48.9	54.2	50.8	47.3	77.1
	300~399만원 이하	31.5	58.9	57.7	52.6	52.7	94.1
	400~499만원 이하	35.3	59.5	63.0	56.3	51.6	101.1
	500~599만원 이하	34.7	57.2	58.2	54.9	45.0	108.5
	600만원 이상	35.6	60.8	56.4	52.1	53.5	95.0
자녀수	1명	24.1	40.0	51.2	45.1	47.4	79.8
	2명	37.8	62.2	61.4	57.7	52.5	102.0
	3명이상	48.8	84.9	66.4	56.3	50.4	133.7

주: 1) 전체 자녀의 공적이전소득 합산. 모든 공적 이전 소득(7개)를 한꺼번에 합산
2) 1차년도는 1회 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는 월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고, 3차년도는 유형별로 월 평균 금액을 자녀별로 나눈 금액을 조사하였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 아동 특성

3차년도 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자녀는 총 3,278명이었으며, 남아는 1,695명(51.7%), 여아는 1,583명(48.3%)으로 나타나 2차년도(남아 52.5%, 여아 47.5%)보다는 남아의 비중이 다소 줄었고 여아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1차년도(남아 50.9%, 여아 49.1%)보다는 남아의 비중이 다소 늘어나 여아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성별 (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493)	100.0 (365)	100.0 (420)
성별	남아	50.9 (1,158)	52.5 (1,457)	51.7 (1,695)	52.7 (1,315)	47.7 (174)	49.0 (206)
	여아	49.1 (1,119)	47.5 (1,319)	48.3 (1,583)	47.3 (1,178)	52.3 (191)	51.0 (214)

주: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아동수를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3차년도에 2020년생 158명, 2019년생 321명, 2018년생 331명, 2017년생 334명, 2016년생 378명, 2015년생 424명, 2014년생 422명, 2013년생(초등 1학년) 441명, 2012년생(초등 2학년) 469명이었다.

〈표 III-3-10〉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0년)

단위 : %(명)

출생년도	해당차시 연령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1차	2차	3차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2020년생	-	-	0세	- (-)	- (-)	4.8 (158)	1.1 (27)	- (-)	31.2 (131)
2019년생	-	0세	1세	- (-)	5.7 (158)	9.8 (321)	6.8 (169)	5.8 (21)	31.2 (131)
2018년생	0세	1세	2세	5.6 (127)	10.7 (297)	10.1 (331)	10.3 (257)	12.1 (44)	7.1 (30)
2017년생	1세	2세	3세	11.8 (268)	10.7 (297)	10.2 (334)	10.3 (258)	12.1 (44)	7.6 (32)
2016년생	2세	3세	4세	12.9 (294)	12.1 (335)	11.5 (378)	11.7 (292)	12.3 (45)	9.8 (41)
2015년생	3세	4세	5세	15.6 (356)	14.8 (410)	12.9 (424)	14.4 (358)	11.8 (43)	5.5 (23)
2014년생	4세	5세	6세	16.2 (370)	14.6 (406)	12.9 (422)	14.2 (355)	15.1 (55)	2.9 (12)
2013년생	5세	6세	7세 (초1)	17.7 (403)	15.2 (421)	13.5 (441)	15.2 (378)	14.2 (52)	2.6 (11)
2012년생	6세	7세 (초1)	8세 (초2)	20.2 (459)	16.3 (452)	14.3 (469)	16.0 (399)	16.7 (61)	2.1 (9)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493)	100.0 (365)	100.0 (420)

주: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아동 표본 특성을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11〉과 같다. 3차년도에 외벌이 가구 아동은 1,866명(56.9%)이고, 맞벌이 가구 아동은 1,412명(43.1%)으로 나타나 1~2차년도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점차 작아졌다. 3차년도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이하 가구 아동 218명(6.7%), 300~399만원이하 687명(21.0%), 400~499만원이하 1,007명(30.7%), 500~599만원이하 613명(18.7%), 600만원이상 753명(23.0%)으로 나타나 1~2차년도에 비해 399만원이하 비중이 줄고, 400만원이상 가구의 아동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

인다. 3차년도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아동은 725명(22.1%), 2명인 가구 아동 1,905명(58.1%), 3명인 가구 아동 648명(19.8%)으로 나타나 자녀가 1명인 가구 아동 비중이 다소 줄고, 3명이상인 가구의 아동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1,320명(40.3%), 중소도시 1,437명(43.8%), 읍면지역 521명(15.9%)으로 나타나, 1~2차년도에 비해 읍면지역이 아동표본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원표본	2차년도 원표본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493)	100.0 (365)	100.0 (42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8 (1,024)	43.4 (1,205)	43.1 (1,412)	44.0 (1,097)	44.1 (161)	36.7 (154)
	외벌이	55.2 (1,253)	56.6 (1,571)	56.9 (1,866)	56.0 (1,396)	55.9 (204)	63.3 (26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9 (499)	13.3 (369)	6.7 (218)	6.4 (159)	7.1 (26)	7.9 (33)
	300~399만원 이하	28.4 (646)	28.9 (803)	21.0 (687)	20.6 (514)	21.4 (78)	22.6 (95)
	400~499만원 이하	23.2 (528)	26.7 (741)	30.7 (1,007)	30.1 (751)	29.6 (108)	35.2 (148)
	500~599만원 이하	11.9 (270)	15.3 (424)	18.7 (613)	18.4 (458)	24.1 (88)	16.0 (67)
	600만원 이상	14.7 (334)	15.8 (439)	23.0 (753)	24.5 (611)	17.8 (65)	18.3 (77)
자녀수	1명	28.0 (638)	23.8 (660)	22.1 (725)	19.7 (490)	32.1 (117)	28.1 (118)
	2명	56.5 (1,286)	58.3 (1,618)	58.1 (1,905)	60.1 (1,499)	58.1 (212)	46.2 (194)
	3명이상	15.5 (353)	17.9 (498)	19.8 (648)	20.2 (504)	9.9 (36)	25.7 (108)
지역규모	대도시	40.5 (923)	40.0 (1,110)	40.3 (1,320)	41.0 (1,023)	35.6 (130)	39.8 (167)
	중소도시	42.7 (973)	43.6 (1,210)	43.8 (1,437)	43.1 (1,075)	48.5 (177)	44.0 (185)
	읍면지역	16.7 (381)	16.4 (456)	15.9 (521)	15.8 (395)	15.9 (58)	16.2 (6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라. 모의 노동시장참여

가구특성별 모의 향후 취업할 의향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4.5%가 취업할 의향이 있고, 희망한다면 막내자녀가 약8세 정도 되면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299만원이하 모는 66.7%가 향후 취업 의향이 있었고, 300~399만원이하 60.8%, 400~499만원이하 50.4%, 500~599만원이하 48.5%, 600만원이상 46.4%가 취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모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일 때 취업할 의향이 있는 모가 50.3%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 56.0%,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57.8%로 나타나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취업할 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3-12〉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향후 취업할 의향 (2020년)

단위 : %, 세 (명)

구분		취업 의향		취업 희망시 막내자녀 연령	계	
		있음	없음			
전체		54.5	45.5	7.9	100.0	(1,17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6.7	33.3	7.8	100.0	(117)
	300~399만원 이하	60.8	39.2	7.8	100.0	(357)
	400~499만원 이하	50.4	49.6	8.0	100.0	(409)
	500~599만원 이하	48.5	51.5	8.0	100.0	(165)
	600만원 이상	46.4	53.6	7.7	100.0	(125)
	F/x^2		21.200***		0.1	
총 자녀수	1명	50.3	49.7	7.7	100.0	(376)
	2명	56.0	44.0	8.0	100.0	(612)
	3명이상	57.8	42.2	8.0	100.0	(185)
	F/x^2		4.138		0.6	
지역 규모	대도시	55.5	44.5	7.8	100.0	(472)
	중소도시	52.8	47.2	7.8	100.0	(525)
	읍면지역	56.8	43.2	8.1	100.0	(176)
	F/x^2		1.214		0.4	

주: 연령은 만 나이 기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모가 향후 취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가구소득 증가를 위해서가 46.8%로 가장 많았고, 자녀돌봄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이 33.2%, 자기계발을 위해서가 14.4%, 노후준비를 시작할 시점이어서 2.3%, 돌봐줄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2.2%, 기

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득증가를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자기계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돌봐줄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는 자녀수 1명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3〉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취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취업하려는 주된 이유						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	가구소득 증가를 위해	돌봐줄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기타		
전체	33.2	46.8	2.2	2.3	14.4	1.1	100.0 (63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2.1	51.3	-	2.6	10.3	3.8	100.0 (78)
	300~399만원 이하	32.7	51.2	2.8	0.5	12.0	0.9	100.0 (217)
	400~499만원 이하	32.5	47.1	2.4	2.9	14.6	0.5	100.0 (206)
	500~599만원 이하	36.3	38.8	3.8	3.8	17.5	-	100.0 (80)
	600만원 이상	34.5	34.5	-	5.2	24.1	1.7	100.0 (58)
	χ^2	28.410						
총 자녀수	1명	33.3	40.7	5.3	2.1	15.9	2.6	100.0 (189)
	2명	35.6	45.8	0.9	2.6	14.6	0.6	100.0 (343)
	3명이상	25.2	60.7	0.9	1.9	11.2	-	100.0 (107)
	χ^2	27.855**						
지역 규모	대도시	36.6	43.1	1.5	1.5	16.8	0.4	100.0 (262)
	중소도시	30.3	50.9	2.2	2.5	12.3	1.8	100.0 (277)
	읍면지역	32.0	45.0	4.0	4.0	14.0	1.0	100.0 (100)
	χ^2	11.88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반면, 모가 향후 취업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일보다 자녀양육이 우선이 53.7%가 가장 많았고, 육아와 가사만으로 시간 여유 없음이 23.6%, 일과 육아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어 10.9%,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이 8.6%, 꼭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사만으로 시간 여유 없음 응답이 높았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일과 육아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

을 수 없음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경향을 보였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와 가사만으로 시간 여유 없음 응답 비중이 높아지며, 일보다 자녀양육 우선이나 일과 육아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들 응답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도시규모가 작아 집에 따라 일보다 자녀양육 우선이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3-14〉 (모 미취업) 가구특성별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취업의향 없는 이유						기타	계	
	일보다 자녀양육 우선	육아와 가사만으 로 시간 여유 없음	일과 육아 병행이 체력적으 로 힘들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꼭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				
전체	53.7	23.6	10.9	8.6	2.2	0.9	100.0	(53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8.5	17.9	15.4	15.4	5.1	7.7	100.0	(39)
	300~399만원 이하	60.0	17.9	10.7	8.6	1.4	1.4	100.0	(140)
	400~499만원 이하	56.2	22.2	12.3	8.4	1.0	-	100.0	(203)
	500~599만원 이하	42.4	31.8	12.9	5.9	7.1	-	100.0	(85)
	600만원 이상	56.7	32.8	1.5	9.0	-	-	100.0	(67)
	χ^2	58.559***							
총 자녀수	1명	55.1	20.3	12.8	8.0	2.1	1.6	100.0	(187)
	2명	54.3	22.3	10.0	10.0	3.0	0.4	100.0	(269)
	3명이상	48.7	35.9	9.0	5.1	-	1.3	100.0	(78)
	χ^2	13.690							
지역 규모	대도시	53.3	21.4	13.3	8.1	3.3	0.5	100.0	(210)
	중소도시	53.6	27.0	8.9	8.5	0.4	1.6	100.0	(248)
	읍면지역	55.3	18.4	10.5	10.5	5.3	-	100.0	(76)
		χ^2	15.36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변동 및 노동시간 변동

가구특성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변동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15〉와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변동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76.1%를 차지하였고, 감소한 가구는 21.9%, 증가한 가구는 2.0%였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평균 소득감소액은 104만7천원이었으며, 증가한 가구는 평균 66만7천원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는 25.9%가 소득이 감소하였고 평균 103만1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구는 18.7%가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평균 106만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맞벌이 가구는 1.8%였으며 소득이 평균 80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외벌이 가구는 2.2%가 증가하였고 소득은 평균 57만8천원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이하 가구는 45.6%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으며 평균 120만6천원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300~399만원이하 가구는 23.8%가 소득이 줄었고 평균 92만6천원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400~499만원이하 가구는 19.7%가 소득이 줄었고 평균 93만2천원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00~599만원이하 가구는 19.7%가 소득이 줄었고 평균 91만4천원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600만원이상 가구는 17.3%가 소득이 줄었으며 평균 136만3천원 줄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27.5%가 소득이 평균 108만1천원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2.6%가 평균 104만6천원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가 1명인 가구는 18.6%가 102만7천원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비중이 크고 유의하진 않았으나 줄어든 소득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21.5%, 중소도시 21.0%순으로 나타났으며, 줄어든 소득 평균액은 대도시가 112만6천원으로 가장 컸고, 읍면지역 99만8천원, 중소도시 99만5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2020년)

단위 : %, 만원(명)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전체		21.9	104.7	2.0	66.7	76.1	100.0 (2,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9	103.1	1.8	80.3	72.3	100.0 (960)
	외벌이	18.7	106.4	2.2	57.8	79.1	100.0 (1,196)
	t		-0.4		1.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5.6	120.6	1.9	114.5	52.5	100.0 (158)
	300~399만원 이하	23.8	92.6	2.1	38.3	74.1	100.0 (471)
	400~499만원 이하	19.7	93.2	2.7	68.8	77.6	100.0 (634)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500~599만원 이하	19.7	91.4	0.5	42.9	79.9	100.0 (402)	
	600만원 이상	17.3	136.3	2.2	80.7	80.4	100.0 (491)	
	F		4.3**		1.4			
총 자녀수	1명	18.6	102.7	1.1	49.6	80.3	100.0 (725)	
	2명	22.6	104.6	2.8	74.5	74.7	100.0 (1,125)	
	3명이상	27.5	108.1	1.3	40.5	71.2	100.0 (306)	
	F		0.1		1			
자녀 구성	1명	영아만	15.7	98.6	0.9	31.8	83.4	100.0 (337)
		유아만	22.3	101.8	1.9	61.1	75.7	100.0 (206)
		초등이상만	19.8	110.0	0.5	57.2	79.7	100.0 (182)
	2명	영아만	17.6	127.0	1.9	19.1	80.6	100.0 (108)
		유아만	14.5	116.2	5.3	45.3	80.3	100.0 (76)
		영아+유아	20.5	110.3	3.0	75.3	76.6	100.0 (303)
		영아+초등이상	25.5	101.5	4.1	115.7	70.4	100.0 (98)
		유아+초등이상	25.0	99.7	1.6	78.2	73.4	100.0 (304)
		초등이상만	25.8	97.1	3.0	79.7	71.2	100.0 (236)
	3명이상	영유아만	17.3	160.1	1.9	28.6	80.8	100.0 (52)
		영유아+초등이상	28.4	99.9	1.5	44.5	70.1	100.0 (194)
		초등이상만	33.3	107.1	-	-	66.7	100.0 (60)
	F		0.5		0.7			
지역 규모	대도시	21.5	112.6	2.0	75.5	76.5	100.0 (865)	
	중소도시	21.0	99.5	2.3	58.6	76.7	100.0 (952)	
	읍면지역	25.7	99.8	1.2	73.9	73.2	100.0 (339)	
	F		1.1		0.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코로나19로 인해 부의 노동시간이 변동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10.1%였으며, 코로나 이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시간6분이고 코로나 이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시간48분으로 평균적으로 약 1시간24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부의 경우 8.8%가 노동시간이 변동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노동시간이 1시간 18분 줄었고, 외벌이 가구 부는 11.1%가 노동시간이 변동하였으며, 평균 1시간30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에 따라 400만원이상 가구의 부는 평균 약48분 정도의 노동시간이 줄었으나 300~399만원이하 가구의 부는 2시간 줄었으며, 299만원이하 가구의 부는 6시간36분이 줄어 저소득층에서 부의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 부의 노동시간은 자녀가 1명인 경우 1시간36분 감소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시간18분 줄었으며,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부는 1시간12분정도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6〉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노동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시간, %, (명)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노동시간			변동없음 비중(%)	(수)
		코로나 이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코로나 이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증감 시간		
전체		45.1	43.8	-1.4	89.9	(2,0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6	43.3	-1.3	91.2	(947)
	외벌이	45.6	44.1	-1.5	88.9	(1,140)
	<i>t</i>	-2.7**	-1.9	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2	39.5	-6.6	66.9	(118)
	300~399만원 이하	45.0	43.0	-2.0	86.5	(458)
	400~499만원 이하	45.5	44.6	-0.9	90.6	(625)
	500~599만원 이하	45.1	44.2	-0.8	94.7	(399)
	600만원 이상	44.6	44.0	-0.6	94.0	(487)
	<i>F</i>	1.4	8.1***	26.9***		
총 자녀수	1명	44.4	42.8	-1.6	91.0	(698)
	2명	45.4	44.1	-1.3	89.9	(1,100)
	3명이상	46.0	44.8	-1.2	87.5	(289)
	<i>F</i>	4.5*	5.9**	0.8		
지역 규모	대도시	44.8	43.4	-1.4	89.6	(837)
	중소도시	45.2	43.9	-1.3	90.7	(924)
	읍면지역	46.0	44.3	-1.7	88.7	(326)
	<i>F</i>	2.5	1.2	0.5		

주: 1) 부가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분석함.

2) 코로나19로 인한 부의 노동 증감 시간은 변동없음을 0으로 하여 평균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분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코로나19로 인한 모의 노동시간 변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이 변동한 모는 15.2%였으며, 코로나 이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6시간42분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34시간30분이되어 평균 2시간12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모는 15%가 코로나로 인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변동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한 경우 평균 2시간6분이 줄었으며, 외벌이 가구의 모는 25%가 변동했다고 응답했으며 3시간24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 가구의 모는 1시간18분 줄었고, 500~599만원이하 가구의 모는 1시간12분, 400~499만원이하 가구 모는 3시간, 300~399만원이하 가구 모는 4시간48분, 299만원이하 가구의 모는 7시간42분 노동시간이 줄어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모의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모의 노동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시간, %, (명)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모의 노동시간			변동없음 비중	(수)
		코로나 이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코로나 이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증감 시간		
전체		36.7	34.5	-2.2	84.8	(7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7	34.6	-2.1	85.0	(768)
	외벌이	34.4	31.0	-3.4	75.0	(16)
	<i>t</i>	0.9	0.8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2.3	24.7	-7.7	58.6	(29)
	300~399만원 이하	31.1	26.3	-4.8	69.3	(75)
	400~499만원 이하	34.4	31.3	-3.0	79.4	(155)
	500~599만원 이하	37.8	36.6	-1.2	91.8	(195)
	600만원 이상	38.8	37.5	-1.3	89.1	(330)
<i>F</i>		13.5***	24.3***	12***		
총 자녀 수	1명	37.3	35.3	-2.0	85.9	(262)
	2명	36.5	34.2	-2.3	84.1	(427)
	3명이상	35.5	33.5	-2.0	85.3	(95)
	<i>F</i>	1.2	1	0.2		
지역 규모	대도시	36.3	34.2	-2.1	84.9	(305)
	중소도시	36.5	34.1	-2.4	82.7	(342)
	읍면지역	38.0	36.3	-1.7	89.8	(137)
	<i>F</i>	1.4	1.7	0.6		

주: 1) 모가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분석함.

2) 코로나19로 인한 모의 노동 증감 시간은 변동없음을 0으로 하여 평균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IV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0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0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04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 05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IV.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이 장에서는 육아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 지출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년도 보고서까지는 육아 가구의 지출 비용을 명목 비용을 사용하였으나, 3차년도 연구부터는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시점 차이에 의한 비용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해 2015년=100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⁵⁴⁾를 반영하여, 모든 비용을 실질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이 장에 사용된 생활비 및 양육비용은 물가변동이 반영된 형태의 실질비용으로, 실제 명목비용이 소폭 상승하였더라도 실질비용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2020년 육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282만5천원으로, 2019년 대비 2만4천원가량 감소하였다. 비목별로는 식비는 10만9천원 증가한 반면 교육보육비가 약10만원 감소하였으며, 여가문화생활비 또한 약9만원가량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생활비 지출액이 증가한 비목은 식비, 피복비, 기기/집기, 보건/의료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보험료 등이며,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여가문화생활비 비목 중에서 가족여행과 관람 체험학습과 관련된 지출은 감소한데 반해, 완구와 도서구매와 관련된 지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 중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목 또한 식비는 전년 대비 4.2%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교육/보육비는 3.5%포인트 감소했으며, 여가문화생활비는 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가구의 소비패턴에 변화로 판단된다.

54) 기준시점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5월~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통계청이 물가지수를 2015년을 기준으로 발표함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화 하였음(2018년 104.13, 2019년 104.83, 2020년 104.81임). 이는 5개년 연속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자료의 재산정을 실시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

〈표 IV-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67.6	(100.0)	284.9	(100.0)	282.5	(100.0)
1.식비(외식비포함)	77.9	(29.9)	80.1	(29.1)	91.0	(33.3)
1-1.외식비	24.0	(9.0)	25.1	(8.9)	26.6	(9.5)
3.기기/집기	6.0	(1.9)	7.8	(2.4)	10.5	(3.0)
4.피복비(의류및신발)	17.5	(6.6)	18.1	(6.4)	18.2	(6.4)
5.보건/의료비	6.8	(2.6)	8.5	(3.0)	10.8	(3.8)
6.교육/보육비	39.4	(13.4)	43.2	(14.1)	33.0	(10.6)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1.0	(11.0)	30.5	(9.9)	21.6	(7.3)
7-1.가족여행 등	19.0	(6.6)	18.5	(5.8)	10.5	(3.4)
7-2.관람 체험학습	3.9	(1.5)	4.0	(1.4)	1.2	(0.4)
7-3.완구	3.8	(1.4)	3.8	(1.3)	4.1	(1.5)
7-4.도서구매	4.3	(1.5)	4.3	(1.4)	4.9	(1.7)
8.교통비	25.3	(10.0)	26.6	(9.8)	25.1	(9.2)
9.통신비	16.4	(6.7)	16.9	(6.4)	17.4	(6.6)
9-1.휴대전화비	12.0	(4.9)	11.7	(4.4)	12.5	(4.7)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9)	12.7	(4.7)	13.5	(5.1)
11-2.보험	34.9	(11.6)	40.5	(14.2)	41.2	(14.7)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현상이 여전히 발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현상도 여전하였다. 3차년도 표본 특성에 따라서는 전년도 표본으로 추적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생활비 지출이 월평균 321만원으로 다소 높고, 전년도 표본 추적에 실패하여 새롭게 추가된 대체표본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평균 302만4천 원, 2019년 하반기 이후 출생아가 있는 신규표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282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신규표본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어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월평균 생활비에도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IV-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체	추적표본	대체표본	신규표본	
전체	299.5	317.3	314.2	321.0	302.4	282.5	
맞벌이 가구	맞벌이	320.7	341.3	339.2	345.5	330.5	301.0
	외벌이	281.4	297.6	294.1	300.7	278.2	271.4
여부	<i>t</i>	6.9***	8.1***	9.4***	8***	3.9***	2.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3.2	239.2	224.8	228.9	192.8	235.5
	300~399만원 이하	267.9	276.6	266.4	270.2	250.0	258.6
	400~499만원 이하	321.3	319.8	294.9	297.8	299.7	276.6
	500~599만원 이하	325.8	357.8	336.8	344.5	328.2	287.9
	600만원 이상	420.4	416.0	395.2	401.9	385.9	345.4
	<i>F</i>	168.7***	143.8***	154***	123.1***	22.9***	7.7***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생활비와 관련된 주요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3차년도) 조사에서 생활비 중 식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지수가 29.8로 전년 대비 3.8%포인트가량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생활비 전체에서 자녀 양육에 투입된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지수는 1.2%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특성에 따라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엔젤지수가 높고 엔젤지수는 크게 보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성 자체는 3차년도에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엔젤지수가 가장 낮고 엔젤지수가 높는데 이러한 경향성도 3차년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비 지출 패턴은 2020년에도 큰 변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엔젤지수가 높아지고 엔젤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다.

〈표 IV-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0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전체		26.5	8.7	29.1	26.0	8.3	27.9	29.8	8.4	26.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5.5	8.2	29.4	24.8	8.3	27.9	28.4	8.0	26.6
	외벌이	27.4	9.2	28.7	26.9	8.4	27.9	30.9	8.7	26.8
총 자녀수	1명	27.2	9.1	27.6	26.6	8.9	26.9	30.1	9.0	25.9
	2명	25.8	8.6	30.6	25.6	8.1	29.3	29.3	8.1	27.9
	3명이상	27.4	7.9	27.5	25.8	7.8	25.2	30.6	8.2	24.2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한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엔젤지수와 슈바베지수가 높은 현상도 3차년도에 여전히 유지되며 자료상에서의 일관성은 보였다. 단, 3차년도 기준 엔젤지수의 경우에는 600만원이상 최고소득 구간에서 오히려 500~599만원 구간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서는 500~599만원 구간에서 엔젤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해당 구간이 3차년도에는 600만원이상 가구 구간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3차년도 기준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600만원이상 가구소득 구간에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IV-1-4〉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0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엔젤 지수	슈바베 지수	엔젤 지수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1	10.6	28.5	28.0	10.0	27.0	32.0	11.0	26.8
	300~399만원 이하	27.5	9.3	28.0	27.1	8.7	27.2	30.9	9.2	26.6
	400~499만원 이하	26.7	7.9	30.1	26.0	8.2	29.1	30.6	8.3	26.3
	500~599만원 이하	25.0	8.1	28.7	24.2	7.4	27.0	29.0	7.6	27.8
	600만원 이상	23.3	6.8	30.6	23.6	7.4	29.1	27.5	7.5	26.5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가구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2020년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만원2천원가량 감소하였다. 비목별로 식비는 전년대비 5만원가량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비목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총 양육비용의 감소를 유인하였다.

교육/보육비는 2018년(1차년도)에 월평균 37만7천원으로 총 양육비용의 29.8%였으며, 2019년(2차년도)에 소폭 상승하여 월평균 42만1천원(31.0%)였으나, 2020년(3차년도)에 총 양육비용의 23.3%로 크게 감소하였다. 여가문화생활비 또한 월평균 비용 뿐 아니라 총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감소하였다. 반면, 식비의 경우 1차년도에 총 양육비용의 22.8%, 2차년도 22.7% 수준이었으나, 3차년도에는 27.7%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및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르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 IV-2-1〉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사례수	(1,648)	(1,648)	(1,902)	(1,902)	(2,156)	(2,156)
총계	110.6	100.0	120.7	100.0	116.5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5	22.8	25.4	22.7	30.4	27.7
1-1.외식비	5.6	5.3	6.3	5.3	7.4	6.6
3.기기/집기	2.8	2.1	3.3	2.4	4.1	3.0
4.피복비(의류및신발)	8.9	8.7	9.5	8.3	10.1	9.2
5.보건/의료비	4.2	4.3	5.0	4.6	6.1	5.5
6.교육/보육비	37.7	29.8	42.1	31.0	31.8	23.3
7.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8.4	17.1	17.5	14.7	14.0	12.7
7-1.가족여행 등	8.5	7.9	8.4	6.9	5.0	4.4
7-2.관람 체험학습	2.2	2.0	2.2	1.7	0.7	0.5
7-3.완구	3.6	3.6	3.4	3.2	3.9	3.8
7-4.도서구매	4.1	3.6	3.6	2.9	4.5	4.0
8.교통비	0.6	0.5	0.7	0.5	1.0	0.8
9.통신비	0.5	0.3	0.7	0.5	1.2	0.9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9-1.휴대전화비	0.4	0.3	0.6	0.4	1.0	0.8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0	5.5	5.2	5.3	5.8	6.0
11-2.보험	9.1	8.8	11.1	9.9	11.9	11.0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020년 영유아 양육비용은 8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1천원 감소하여, 총 양육비용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컸다. 비목별로는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가장 크며, 이 비중은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또한 총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 및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감소폭이 총 양육비용에 비해 좀 더 커서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가 초등이상 자녀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2-2 참조).

2020년에 총 양육비용 및 영유아 양육비용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증감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용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이 많은 현상 자체는 매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라 볼 수 있다.(표 IV-2-3 참조)

〈표 IV-2-2〉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사례수	(1,648)	(1,648)	(1,665)	(1,665)	(1,678)	(1,678)
총계	88.2	100.0	88.3	100.0	82.2	100.0
1.식비(외식비포함)	18.4	23.0	18.8	23.5	22.0	29.0
1-1.외식비	4.4	5.3	4.4	5.3	5.0	6.5
3.기기/집기	2.4	2.1	2.5	2.3	3.2	3.1
4.피복비(의류및신발)	7.0	8.8	7.2	8.7	7.8	9.8
5.보건/의료비	3.7	4.6	4.2	5.2	5.0	6.2
6.교육/보육비	29.5	28.7	28.2	28.0	17.3	17.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5.2	17.6	13.6	15.3	11.3	13.7
7-1.가족여행 등	6.9	8.1	6.5	7.3	3.9	4.8
7-2.관람 체험학습	1.8	2.0	1.5	1.6	0.5	0.6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7-3.완구	3.2	3.9	3.0	3.7	3.6	4.6
7-4.도서구매	3.3	3.5	2.6	2.6	3.3	3.7
8.교통비	0.3	0.3	0.4	0.4	0.6	0.7
9.통신비	0.0	0.0	0.1	0.1	0.2	0.2
9-1.휴대전화비	0.0	0.0	0.0	0.1	0.1	0.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3	5.7	4.6	6.0	5.4	7.3
11-2.보험	7.4	9.0	8.6	10.6	9.3	12.2

주: 1)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표 IV-2-3〉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사례수	(1,648)	(1,648)	(1,902)	(1,665)	(2,156)	(1,678)	
전체	110.6	88.2	120.7	88.3	116.5	8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9.7	96.7	130.2	95.0	127.1	89.2
	외벌이	102.7	81.0	113.0	82.9	107.9	76.7
	<i>t</i>	5.3***	5.7***	5.3***	4.2***	6.6***	4.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7.9	65.0	87.9	65.0	81.7	62.3
	300~399만원	95.6	75.1	100.6	75.7	93.2	68.9
	400~499만원	122.0	96.7	122.6	92.5	107.6	76.0
	500~599만원	120.0	96.0	136.3	95.2	128.2	90.7
	600만원 이상	163.4	129.1	167.6	118.9	151.8	102.9
	<i>F</i>	89.2***	68.3***	75.2***	38.9***	74.8***	32.6***
총 자녀수	1명	80.0	80.0	82.6	79.4	76.5	71.5
	2명	120.7	93.4	131.8	93.4	128.5	88.2
	3명이상	169.1	93.2	176.4	90.5	167.0	83.8
	<i>F</i>	198.6***	11.6***	245***	10.5***	304***	18.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한편, 2020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의 비중은 25.0%,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은 17.9%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전년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은 3.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도 3%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폭에 비해 양육비용의 감

소폭이 더욱 컸음을 시사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감소가 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보다는 이용 자체가 제한된 것에 기인한 감소임을 엿볼 수 있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이 높은 현상 자체는 예년과 동일하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20년(3차년도)의 영유아 양육비용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보육비 지출 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에서 식비와 같은 고정 비용의 영향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2-4〉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전체		27.3	22.1	28.2	20.9	25.0	17.9
맞벌이 가구	맞벌이	24.4	19.6	25.4	18.8	23.3	16.8
	외벌이	29.9	24.2	30.6	22.7	26.3	18.8
여부	<i>t</i>	-4.6***	-4***	-3.5***	-4.1***	-4.1***	-3.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30.4	40.5	30.0	43.2	34.4
	300~399만원	27.0	21.3	28.5	21.6	26.1	19.3
	400~499만원	26.9	21.3	27.4	20.7	24.1	17.0
	500~599만원	21.6	17.3	24.9	17.4	23.5	16.6
	600만원 이상	20.7	16.5	21.3	15.3	20.4	13.8
	<i>F</i>	16.9***	15.7***	15.0***	19.8***	60***	56.6***
총 자녀수	1명	19.6	19.6	19.5	18.8	17.9	17.0
	2명	30.2	23.8	31.1	22.1	26.9	18.5
	3명이상	40.5	22.9	39.7	21.9	34.9	17.8
	<i>F</i>	62.7***	5.1**	47.7***	4.9**	133.1***	1.8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반면,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2020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은 36.1%,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은 26.7%로 2019년 36.9%, 27.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구 생활비 지출액 자체가 2020년 소폭 감소하기도 했기 때문으로, 양육비용만을 감소시킨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비목별 생활비 지출액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도의 경향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인 소비의 감소에 기인한 양육비용 감소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결과들을 종합해보자면, 2020년 육아가구의 생활비 지출과 양육비용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양육비용의 감소는 전반적인 가구 생활비 지출 감소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지출 감소에 비해서 감소폭이 적었는데, 이는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보전의 효과로 보여진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가구소득보다는 가구 소비 전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계 지출에 있어 양육비용만을 크게 삭감하거나 우선 감축하는 등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육아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가계 부담은 오히려 살짝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자녀의 교육보육비 감소는 가구소득 감소에 따른 비용 경감 때문이 아닌 서비스 이용 자체의 제한에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IV-2-5〉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중(%)		총 양육비용 비중(%)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중(%)		총 양육비용 비중(%)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중(%)
총계	299.5	35.8	29.1	317.3	36.9	27.9	314.2	36.1	26.7
1. 식비(외식비포함)	77.9	30.7	24.6	80.1	32.6	24.8	91.0	33.5	25.2
3. 기기/집기	6.0	50.4	43.3	7.8	43.6	34.6	10.5	43.1	35.6
4. 피복비(의류및신발)	17.5	54.1	43.9	18.1	56.0	43.8	18.2	57.6	45.7
5. 보건/의료비	6.8	71.5	63.4	8.5	67.0	56.9	10.8	60.4	50.9
6. 교육/보육비	39.4	96.6	79.1	43.2	96.8	74.1	33.0	96.3	67.6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1.0	62.9	52.8	30.5	61.6	48.9	21.6	69.1	56.0
7-1. 가족여행 등	19.0	45.7	37.4	18.5	46.3	37.5	10.5	47.0	37.9
7-2. 관람 체험학습	3.9	61.8	49.2	4.0	56.7	40.6	1.2	59.7	42.9
7-3. 완구	3.8	95.0	86.9	3.8	91.1	78.9	4.1	95.1	81.7
7-4. 도서구매	4.3	92.4	75.3	4.3	86.1	63.7	4.9	91.0	68.3
8. 교통비	25.3	3.0	1.6	26.6	3.3	2.0	25.1	4.4	2.8
9. 통신비	16.4	2.5	0.3	16.9	4.1	0.4	17.4	6.2	0.9
9-1. 휴대전화비	12.0	3.1	0.3	11.7	4.9	0.4	12.5	7.4	0.8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2.5	35.7	12.7	42.6	36.1	13.5	42.8	37.2
11~2. 보험	34.9	30.4	25.2	40.5	31.0	24.3	41.2	32.2	25.8

주: 1)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기구별로 '(총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소비지출)*100.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아동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20년 기준 월평균 5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만8천원가량 감소하였다. 가구 생활비 대비 비중은 18.9%로 전년대비 1%포인트 가량 감소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증가하고, 가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는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다만, 2020년(3차년도)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자녀 연령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의 편차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즉, 만6세와 만0세의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차이는 2018년(1차년도) 당시 4.7%포인트, 2019년(2차년도)에는 6.4%포인트였으나, 2020년(3차년도)에는 2.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총액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만0세의 비용은 크게 변동되지 않은데 반해, 만6세의 양육비용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편차가 축소된 것은 만6세의 양육비용 감소에 기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6〉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수)	
전체	63.3	20.8	(2,298)	63.0	19.9	(2,334)	58.2	18.9	(2,367)	
자녀 (생활) 연령	0세	51.4	18.1	(128)	51.2	16.7	(161)	50.7	17.9	(158)
	1세	49.0	17.9	(268)	51.3	17.4	(298)	51.4	17.7	(321)
	2세	55.0	19.4	(298)	55.9	18.4	(297)	50.9	17.4	(331)
	3세	57.3	19.9	(360)	56.5	18.4	(336)	56.8	18.1	(334)
	4세	67.6	21.4	(372)	64.3	20.7	(411)	58.4	19.0	(378)
	5세	71.3	22.8	(407)	68.9	21.3	(408)	63.0	20.2	(424)
	6세	74.1	22.8	(465)	78.9	23.1	(423)	68.3	20.8	(421)
F	22.3**	17.6**		24.2***	23.9***		14.9***	9.0***		

주: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각각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서 2020년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격차가 축소된 것은 연령이 많은 자녀의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누차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영아 자녀에 비해 유아 자녀의 돌봄에 보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표 IV-2-7〉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사례수	(2,298)	(2,298)	(2,334)	(2,334)	(2,367)	(2,367)
총계	63.3	100.0	63.0	100.0	58.2	100.0
1.식비(외식비포함)	13.2	23.8	13.4	24.0	15.6	29.6
1-1.외식비	3.1	5.4	3.1	5.3	3.6	6.6
3.기기/집기	1.7	2.0	1.8	2.1	2.2	2.8
4.피복비(의류및신발)	5.0	8.8	5.1	8.9	5.5	10.0
5.보건/의료비	2.6	4.7	3.0	5.4	3.5	6.2
6.교육/보육비	21.2	27.6	20.1	26.3	12.3	16.8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0.9	17.3	9.7	15.2	8.0	13.4
7-1.가족여행 등	5.0	8.2	4.7	7.5	2.7	4.9
7-2.관람 체험학습	1.3	2.0	1.1	1.6	0.4	0.6
7-3.완구	2.3	3.8	2.1	3.6	2.6	4.4
7-4.도서구매	2.4	3.3	1.9	2.5	2.3	3.5
8.교통비	0.2	0.3	0.3	0.4	0.4	0.7
9.통신비	0.0	0.0	0.0	0.1	0.1	0.2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1	0.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1	5.9	3.3	6.4	3.9	7.6
11-2.보험	5.3	9.5	6.2	11.2	6.6	12.7

주: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각각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총 양육비용이나 영유아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커지는 경향성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반면, 2019년 이전에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거주지의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큰 현상이 발견된 데 반해, 2020년(3차년도)에는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에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을 보다 많이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V-2-8〉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전체	63.3	20.8	63.0	19.9	58.2	18.9	
맞벌이 가구	71.4	21.7	70.1	20.6	65.3	19.5	
외벌이	56.6	20.1	57.6	19.4	53.0	18.5	
여부	<i>t</i>	8.9***	4.5***	7.3***	3.4***	8.6***	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2	20.3	51.8	21.5	48.3	20.8
	300~399만원 이하	54.3	20.3	52.8	19.0	50.3	19.5
	400~499만원 이하	68.2	21.2	63.2	19.9	52.1	18.0
	500~599만원 이하	70.7	21.1	70.1	19.9	62.9	19.3
	600만원 이상	92.5	21.9	83.8	20.5	73.4	18.9
	<i>F</i>	98.1***	2.8*	48.6***	4.7***	50.7***	4.6**
총 자녀수	1명	80.0	27.6	79.4	26.9	71.5	25.9
	2명	58.8	19.2	60.2	18.9	57.0	18.1
	3명이상	49.7	14.7	49.8	13.9	46.0	13.3
	<i>F</i>	96.2***	413.8***	79.1***	372.2***	79.4***	384.3***
지역 규모	대도시	68.7	21.3	67.2	20.4	58.2	18.9
	중소도시	60.9	20.8	59.4	19.3	57.5	18.8
	읍면지역	56.2	19.8	62.8	20.4	60.2	19.4
	<i>F</i>	17.4***	3.7*	9.4***	4.1*	0.9	0.7

주: 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각각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2020년 전년에 비해 살짝 감소하여 12.7%였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경향성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

었다. 이때 가구소득 구간별 편차, 예컨대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와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의 차이는 2018년 9.8%포인트, 2019년에는 13.1%포인트였으나, 2020년에는 16.9%포인트까지 벌어져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20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서 식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가구소득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초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지 않았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줄어든 비목은 없는데 반해 가정 내 양육 증가로 인한 식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사이에는 비중 편차가 축소되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9〉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사례수		(2,298)	(2,298)	(2,334)	(2,334)	(2,367)	(2,367)
총계		63.3	15.8	63.0	14.9	58.2	12.7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71.4	14.5	70.1	13.9	65.3	12.3
	외벌이	56.6	16.9	57.6	15.7	53.0	13.0
	<i>t</i>	8.9***	-3.9***	7.3***	-3.4***	8.6***	-1.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6.2	21.6	51.8	23.9	48.3	26.7
	300~399만원	54.3	15.4	52.8	15.1	50.3	14.1
	400~499만원	68.2	15.0	63.2	14.1	52.1	11.6
	500~599만원	70.7	12.7	70.1	12.8	62.9	11.5
	600만원 이상	92.5	11.8	83.8	10.8	73.4	9.8
	<i>F</i>	98.1***	25.2***	48.6***	40.1***	50.7***	99.2***
총 자녀수	1명	80.0	19.6	79.4	18.8	71.5	17.0
	2명	58.8	15.0	60.2	14.2	57.0	11.9
	3명이상	49.7	12.2	49.8	12.1	46.0	9.8
	<i>F</i>	96.2***	29.2***	79.1***	29.2***	79.4***	73.2***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7세 초등입학을 유예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2) 초등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2차년도(2019년) 조사 이후 분석이 가능한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은 2020년 기준 월평균 7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만4천원 감소하였다. 초등1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 또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식비가 증가하고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 양육비용 산출이 가능해진 초등2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70만9천원으로 초등1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에 비해서도 약간 적었다. 2차년도 조사 당시 초등1학년인 아동은 2012년생으로 3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2학년이 되었으므로, 자료를 패널 형태로 보아 해석한다면 전년대비 초등 자녀의 양육비용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초등1학년 아동과 초등2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을 비목별로 비교해보면 초등 1학년이 기기/집기, 식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등에서 지출 수준이 약간 더 높은 반면, 초등2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령기 자녀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이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V-2-10〉 비목별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초등2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사례수	(470)	(470)	(442)	(442)	(469)	(469)
총계	77.8	100.0	72.4	100.0	70.9	100.0
1. 식비(외식비포함)	15.6	21.6	18.2	28.2	17.8	27.9
1-1. 외식비	4.1	5.5	4.8	7.3	4.8	7.3
3. 기기/집기	2.8	2.4	4.0	3.6	1.4	1.4
4. 피복비(의류및신발)	5.7	7.6	5.9	8.5	5.6	8.1
5. 보건/의료비	2.5	3.3	3.5	5.0	2.8	4.1
6. 교육/보육비	31.2	39.1	22.6	27.0	24.9	31.2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0.5	13.0	8.0	11.3	7.9	11.1
7-1. 가족여행 등	5.4	6.5	2.7	4.0	3.0	4.3
7-2. 관람 체험학습	1.5	1.9	0.4	0.5	0.5	0.5
7-3. 완구	1.6	2.1	2.1	2.9	1.6	2.4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초등2학년 1인당 양육비용	비목별 비중
7-4.도서구매	2.1	2.5	2.8	3.8	2.8	3.8
8.교통비	0.4	0.5	0.6	0.8	0.5	0.8
9.통신비	0.8	1.0	0.8	1.3	1.2	1.7
9-1.휴대전화비	0.6	0.8	0.6	1.0	1.1	1.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2	3.1	2.5	4.1	2.2	3.7
11-2.보험	6.1	8.6	6.5	10.0	6.6	10.0

주: 1)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은 초등1학년, 초등2학년 각각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6세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초등 저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도 큰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지역 규모에 따라 초등 저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은 전년에는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11〉 가구특성별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초등2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전체	77.8	23.0	72.4	21.8	70.9	21.1	
맞벌이	85.2	22.7	80.5	23.1	80.3	21.5	
가구	71.4	23.2	65.9	20.8	63.3	20.8	
여부	<i>t</i>	3.8***	-0.7	4.0***	2.6**	4.9***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2.3	25.4	46.4	22.4	49.2	20.7
	300~399만원 이하	65.3	22.3	62.9	22.1	61.0	21.4
	400~499만원 이하	77.7	22.6	67.8	21.0	62.4	20.3
	500~599만원 이하	84.4	22.2	74.0	21.4	78.4	21.9
	600만원 이상	105.9	23.3	89.7	22.8	92.2	21.6
	<i>F</i>	21.8***	1.9	11.6***	0.7	18.6***	0.6
총 자녀수	1명	100.2	31.6	92.8	29.0	90.3	29.7
	2명	75.9	22.1	72.0	21.7	70.8	20.7
	3명이상	59.2	16.5	53.8	15.3	54.3	14.9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초등1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초등2학년 1인당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비중(%)	
	<i>F</i>	32.8***	132.8***	25.7***	71.7***	25.5***	117.0***
지역 규모	대도시	82.7	23.8	71.9	21.5	70.0	20.8
	중소도시	75.1	22.6	72.9	22.3	71.7	21.5
	읍면지역	70.4	21.7	72.2	21.4	71.5	21.4
	<i>F</i>	3.6*	2.2	0.0	0.5	0.1	0.4

주: 1) 초등저학년 1인당 양육비용은 초등1학년, 초등2학년 각각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하며,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6세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가구 생활비 대비 초등 저학년 아동의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며, 비목별로는 식비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해 교육/보육비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여가문화생활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아동 1인당 양육비용 자체는 3차년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의 감소폭이 작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의 가구 생활비 지출액 총액에서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아동당 양육비용에서 여가문화생활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세부 비목별 완구와 도서구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동을 위해 지출된 여가문화생활비의 세부 비목들 중에서 가족여행과 관람 체험학습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 완구 및 도서구매에 대한 지출액은 3차년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 및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3차년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초등1학년 아동과 초등2학년 아동 사이의 가구 생활비 대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기기/집기로 무려 12.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2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초등 1학년의 기기/집기에 소요된 양육비용 비중이 29.5%로, 3차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돕기 위한 기기/집기의 구매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2-12〉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초등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가구 생활비 지출액 (만원)	초등1학년 양육비용 비중(%)	가구	초등1학년	초등2학년
			생활비 지출액 (만원)	초등1학년 양육비용 비중(%)	초등2학년 양육비용 비중(%)
총계	317.3	23.0	314.2	21.8	21.1
1. 식비(외식비포함)	80.1	19.5	91.0	19.8	19.2
1-1. 외식비	25.1	17.2	26.6	18.3	18.7
3. 기기/집기	7.8	29.5	10.5	31.6	19.4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1	32.0	18.2	32.3	31.1
5. 보건/의료비	8.5	35.1	10.8	33.1	30.4
6. 교육/보육비	43.2	61.3	33.0	57.3	57.6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0.5	34.4	21.6	40.9	39.4
7-1. 가족여행 등	18.5	26.4	10.5	26.4	26.5
7-2. 관람 체험학습	4.0	34.6	1.2	36.5	37.1
7-3. 완구	3.8	52.9	4.1	56.8	53.0
7-4. 도서구매	4.3	53.5	4.9	55.8	57.9
8. 교통비	26.6	1.9	25.1	2.8	2.7
9. 통신비	16.9	4.5	17.4	4.4	6.8
9-1. 휴대전화비	11.7	5.5	12.5	5.0	9.0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7	20.7	13.5	21.1	19.0
11-2. 보험	40.5	17.4	41.2	18.0	17.4

주: 1) 아동당 양육비용 비중은 각 가구별로 "(아동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비중 =(해당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6세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소득 대비 초등 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외벌이 가구일 때,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2-13〉 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초등저학년 아동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초등1학년		초등1학년		초등2학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중
사례수		(470)	(470)	(442)	(442)	(469)	(469)
총계		77.8	19.0	72.4	15.2	70.9	15.4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85.2	16.3	80.5	14.5	80.3	14.4
	외벌이	71.4	21.4	65.9	15.7	63.3	16.2
	<i>t</i>	3.8***	-1.7	4.0***	-1.3	4.9***	-1.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62.3	34.2	46.4	24.9	49.2	27.0
	300~399만원	65.3	18.4	62.9	17.6	61.0	17.2
	400~499만원	77.7	17.3	67.8	15.2	62.4	14.0
	500~599만원	84.4	15.5	74.0	13.6	78.4	14.4
	600만원 이상	105.9	12.6	89.7	12.1	92.2	12.3
	<i>F</i>	21.8***	5.2***	11.6***	13.9***	18.6***	15.2***
총 자녀수	1명	100.2	23.4	92.8	20.6	90.3	20.3
	2명	75.9	19.5	72.0	14.8	70.8	15.0
	3명이상	59.2	13.2	53.8	10.9	54.3	12.0
	<i>F</i>	32.8***	2.5	25.7***	26.9***	25.5***	14.9***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만6세로 초등학교를 조기 입학한 아동 1명의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자녀를 위한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3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양육비용 충분성은 2차년도에도 평균 3점 수준을 보여, 큰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특성별로 맞벌이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3-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0년)

단위 : 점, %, (가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평균 점수	충분함 비중	(수)	
전체	2.5	51.8	(1,648)	3.0	26.3	(1,902)	3.0	29.6	(2,156)	
맞벌이 가구	맞벌이	2.6	58.7	(761)	3.0	28.2	(856)	3.1	33.1	(960)
	외벌이	2.4	45.9	(887)	3.0	24.8	(1,046)	2.9	26.8	(1,196)
여부	t / χ^2	5.8***	33.0***	-	2.2*	6.2	-	5.1***	28.9***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	34.5	(359)	2.7	16.8	(273)	2.5	11.4	(158)
	300~399만원	2.4	47.9	(474)	2.9	22.0	(536)	2.9	22.7	(471)
	400~499만원	2.6	56.4	(374)	3.0	27.6	(493)	3.0	30.3	(634)
	500~599만원	2.6	63.7	(201)	3.1	28.2	(298)	3.1	33.1	(402)
	600만원 이상	2.7	68.3	(240)	3.3	38.4	(302)	3.3	38.3	(491)
		F / χ^2	25.2***	102.1***	-	20.1***	99.8***	-	25.7***	117.7***
총 자녀수	1명	2.6	59.2	(638)	3.1	33.5	(660)	3.2	36.0	(725)
	2명	2.5	48.7	(818)	3.0	23.8	(987)	3.0	27.6	(1,125)
	3명이상	2.3	40.6	(192)	2.8	17.3	(255)	2.8	21.9	(306)
		F / χ^2	15.0***	39.8***	-	14.7***	38.0***	-	22.3***	49.7***

주: 1) 충분함은 매우충분 + 대체로 충분을 의미하며, 1차년도는 4점 척도, 2차와 3차년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비목은 2020년 기준 교육/보육비가 54.6%로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식비 18.7% 순이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보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육아가구들은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표본 자체가 매해 확장되면서 초등 저학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일시적으로 지출 자체가 줄어들긴 했으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육/보육비 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IV-3-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0년)

단위 : %,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명)	%	(명)	%	(명)
1. 식비(외식비포함)	17.7	(292)	15.5	(294)	18.7	(404)
2. 주거 관리비	4.0	(66)	2.7	(52)	1.5	(32)
3. 기기/집기	0.8	(13)	0.8	(15)	0.5	(11)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	(29)	1.9	(37)	1.8	(38)
5. 보건/의료비	1.6	(27)	1.6	(30)	1.3	(28)
6. 교육/보육비	44.6	(735)	48.8	(929)	54.6	(1,178)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0	(82)	3.5	(67)	2.5	(54)
8. 교통비/통신비	0.8	(13)	0.9	(18)	0.2	(5)
9. 개인유지비	7.0	(116)	7.7	(147)	6.8	(147)
10. 금융상품	4.1	(68)	4.0	(77)	2.4	(52)
11. 원리금 상환	-	-	-	-	7.7	(167)
12. 이전지출	0.7	(12)	11.0	(209)	0.7	(15)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8)	0.9	(18)	1.2	(25)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187)	0.1	(1)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비목의 순서 자체는 교육/보육비, 식비, 원리금 상환 순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나, 외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식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맞벌이 가구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애초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액 자체가 적은 저소득 가구에서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필품 활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와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둘 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V-3-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2020년)

단위 :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원리 금 상환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18.7	1.5	0.5	1.8	1.3	54.6	2.5	0.2	6.8	2.4	7.7	0.7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9	1.5	0.3	2.0	0.6	55.1	3.3	0.2	5.6	2.8	9.1	1.1	1.5
	외벌이	20.2	1.5	0.7	1.6	1.8	54.3	1.8	0.3	7.8	2.1	6.7	0.3	0.9
	χ^2	30.9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8	3.2	0.6	-	1.9	36.1	3.2	0.0	12.0	-	7.6	-	0.6
	300~399만원	22.1	1.3	-	1.9	0.8	52.9	1.9	0.2	7.6	1.9	8.1	0.4	0.8
	400~499만원	17.5	0.8	0.3	2.5	1.4	56.6	2.2	0.2	7.9	2.4	6.5	0.6	1.1
	500~599만원	13.9	1.5	0.7	2.2	1.2	58.5	2.7	0.7	5.5	4.2	7.0	0.5	1.2
	600만원 이상	15.9	2.0	1.0	0.8	1.4	56.6	3.1	-	4.1	2.2	9.8	1.4	1.6
	χ^2	109.606***												
총 자녀 수	1명	16.0	2.3	0.6	2.2	1.5	47.9	3.9	0.4	11.0	3.2	7.2	1.5	2.3
	2명	18.0	1.2	0.4	1.5	1.3	58.6	1.9	0.1	5.1	2.1	8.7	0.4	0.7
	3명이상	27.8	0.7	0.7	1.6	0.7	56.2	1.6	0.3	3.3	1.6	5.6	-	-
	χ^2	106.16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출하고자 하는 비목은 교육/보육비(28.8%), 금융상품(24.3%), 원리금 상환(15.1%) 순이었다. 지면 관계상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경향성은 전년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와 식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원리금 상환에 쓰겠다는 응답이 낮았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식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와 식비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4〉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0년)

구분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비목											계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파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상환		이전지출	기타상품및서비스
전체	11.1	1.4	2.0	1.3	1.4	28.8	10.5	0.1	3.6	24.3	15.1	0.4	0.1	100.0 (2,156)
맞벌이 가구여부	9.0	1.6	1.6	1.6	1.1	26.1	11.0	0.3	3.1	25.0	19.0	0.5	0.1	100.0 (960)
	12.8	1.3	2.3	1.0	1.7	30.9	10.0	0.0	3.9	23.7	12.0	0.3	0.2	100.0 (1,196)
	χ^2 39.587***													
299만원 이하	15.8	2.5	3.8	0.6	3.2	24.7	5.7	-	4.4	20.9	18.4	-	-	100.0 (158)
300~399만원	11.3	2.3	2.1	2.1	1.3	27.4	9.8	-	2.5	26.5	14.0	0.4	0.2	100.0 (471)
400~499만원	10.6	0.8	1.7	0.9	1.4	32.0	11.7	0.3	3.2	22.1	15.0	-	0.3	100.0 (634)
500~599만원	11.7	1.5	2.2	1.7	1.0	31.3	11.9	-	4.2	20.9	13.4	-	-	100.0 (402)
600만원 이상	9.6	0.8	1.4	0.6	1.4	25.1	10.0	0.2	4.3	28.9	16.5	1.2	-	100.0 (491)
	χ^2 73.428*													
1명	9.4	1.9	1.4	1.2	1.5	21.8	15.2	0.1	4.1	28.4	14.5	0.1	0.3	100.0 (725)
2명	10.8	1.0	2.1	1.3	1.6	31.4	8.6	0.1	3.3	23.6	15.6	0.4	0.1	100.0 (1,125)
3명이상	16.0	1.6	2.9	1.0	0.7	35.6	6.2	0.3	3.3	17.0	14.7	0.7	-	100.0 (306)
	χ^2 78.3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단위 : %(명)

4.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육아가구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용 지원 정책은 크게 2차년도(2019년) 전후 정책 변화가 있었던 아동수당과 세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육아서비스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은 VI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아동수당 활용 실태

먼저 2019년(2차년도)부터 설문에 추가된 아동수당의 활용처는 2020년 응답 기준(1+2순위) 식비가 67.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유지비(37.9%), 교육/보육비(24.8%) 순이었다. 식비는 1순위 응답에서 52.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개인유지비(26.1%)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를 2차년도(2019년) 응답 결과(1+2순위 기준)와 비교할 때,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긴 하지만 비중이 훨씬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2차년도에는 교육/보육비(39.5%), 개인유지비(31.9%) 순이었다면 3차년도에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는 2020년(3차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보육비 지출 감소와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표 IV-4-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2019~2020년

단위 : (명), %

구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총계	(1,902)	(1,902)	(1,902)	(2,156)	(2,156)	(2,156)
식비	24.7	13.7	45.1	52.0	15.9	67.9
파복비	2.4	7.8	12.0	2.4	10.8	13.1
보건/의료비	2.5	5.1	8.9	3.0	10.8	13.8
교육/보육비	20.5	13.1	39.5	12.2	12.6	24.8
여가 및 문화생활비	4.8	12.0	19.8	1.9	7.2	9.1
개인유지비	11.7	15.4	31.9	11.9	26.1	37.9
저축 등 금융상품	18.1	8.1	30.8	15.8	5.0	20.7
기타	0.4	0.3	0.7	0.2	0.6	0.8
아동수당 받지 않음	15.1	15.1	15.1	0.6	0.6	0.6
무응답	-	9.5	-	-	10.5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수당 활용처의 차이는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해 1+2순위 응답 합산 기준 활용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비목, 즉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만을 <표 IV-4-2>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부표 3-5-1~부표 3-5-3 참조)로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특성에 따라 활용 비목의 순서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상대적 비중 자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다.

우선 맞벌이 여부에 따라 외벌이 가구들은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인유지비와 교육/보육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저축 등 금융상품에 활용했다는 응답이 1순위 17.5%, 2순위 4.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2순위 응답에서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식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성이 뚜렷히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개인유지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식비에 활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1순위 응답에서 보다 뚜렷하게 포착되는 경향이였다.

<표 IV-4-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2020년)

단위 : %

구분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2	16.9	14.0	14.3	11.9	24.2
	외벌이	55.9	15.1	10.9	11.2	11.9	27.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1.4	13.3	7.0	12.7	13.3	27.8
	300~399만원	54.6	14.2	10.4	10.4	11.3	28.9
	400~499만원	49.5	15.3	11.7	11.7	12.9	22.7
	500~599만원	52.0	16.7	13.9	12.9	10.7	26.9
	600만원 이상	49.7	18.3	15.1	15.5	11.6	26.5
총 자녀수	1명	47.6	18.1	9.2	10.6	17.8	27.3
	2명	53.2	15.0	13.8	14.0	9.2	24.6
	3명이상	58.2	13.7	13.7	11.8	7.8	28.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2020년에 평균 3.8점(5점 척도)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2019년(2차년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9%였으나, 2020년(3차년도)에는 7.8%로 감소한 반면,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020년에 43.8%로 매우 증가하였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019년에는 15.1%였으나, 2020년에는 22.4%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자체가 2차년도(2019년) 15.1%에 달했으나 3차년도에는 0.6%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차년도 조사 당시 아동수당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육아가구가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수급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2020년 전면적인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수당 추가 지원 등으로 지원액 자체가 커짐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자 자체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만족도(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또한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4-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0년)

단위 : %(명)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아동수당 받지않음		
2차년도 (2019년)	2.0	11.9	27.2	28.2	15.6	15.1	3.5	100.0 (1,902)
3차년도 (2020년)	0.9	7.8	24.5	43.8	22.4	0.6	3.8	100.0 (2,156)

주: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세제 혜택 인지 및 수혜 여부

2019년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세제 지원은 다소 축소되었다. 육아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자녀세액공제, 자녀 장려금,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한 비과세 지원 등이 있다(최효미 외, 2019: 25). 2019년 아동수당 제도가 확장되면서 만6세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중복수혜가 삭제되었으며, 취약 계층 대상의 자녀 장려금 지원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다(최효미 외, 2019: 27~28). 세제 지원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 형태이기 때문에, 육아가구 입장에서 이러한 세제 지원의 축소는 실질적으로 2020년에 체감하게 된다.

2019년 조사 당시 육아가구들은 세제 지원에 대해 낮은 인지도와 수혜율을 보였다. 2019년(2차년도) 조사와 3차년도 조사의 설문 구조가 다소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차년도 조사에서 세제 지원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수혜자라고 간주한다면, 2차년도 대비 3차년도에 세제에 대한 인지는 약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세제 지원에 대한 인지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전반적으로 세제를 통한 비용 지원의 체감도가 낮음을 암시한다.

세제 지원 혜택별로 자녀기본공제의 수혜율이 80.1%로 가장 높는데, 이는 지원 대상이 전체 육아가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수혜율이 가장 높은 자녀기본공제의 경우에도 지원 받았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는 응답이 76.9%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지원 정책은 자녀장려금 제도로,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 가구 등으로 한정되는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수혜율은 낮지만 수혜 받은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는 응답이 57.3%에 달해, 육아가구들의 세제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표 IV-4-4〉 세제혜택 인지도부 및 수혜여부 (2019~2020년)

단위 : %, (명)

구분	2019년(2차조사)					2020년(3차조사)		
	수혜여부	지원금 인지도부			수혜여부	지원금 인지도부		계
		지원 금액 알고 있음	구체적 금액은 모름	(수)		지원 금액 알고 있음	구체적 금액은 모름	
자녀 기본 공제	79.0 (1,429)	30.0	70.0	(1,129)	80.1	23.1	76.9	(2,15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 (914)	40.6	59.4	(143)	14.7	14.2	85.8	(2,156)
자녀 장려금	31.1 (1,065)	59.8	40.2	(291)	13.9	42.7	57.3	(2,156)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48.0 (677)	33.9	66.1	(511)	33.3	27.3	72.7	(2,156)

주: 2차년도 조사에서는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 수혜여부를 묻고, 수혜받은 경우 지원금 인지도부를 질문함. 3차년도 조사는 전체에 대해 모든 문항을 질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해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인지 및 수혜율이 가구특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⁵⁵⁾ 먼저, 자녀기본공제는 맞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으며, 지원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도 맞벌이 가구에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을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데 반해, 수혜 여부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표 IV-4-5〉 세제혜택 인지여부 및 수혜여부 :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구분	수혜여부	지원금 인지여부
자녀 기본 공제	-맞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높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음(299만원이하 가구의 수혜율이 현저히 낮음).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음	-맞벌이 가구의 인지도가 높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짐.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겨웅에는 구체적 지원금액까지 안다는 응답 비중이 현저히 낮음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외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높음. 가구소득이 300-499만원구간에서 수혜율이 높음	-총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인지도가 낮고, 2명인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음
자녀 장려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음	-총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인지도가 현저히 낮음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가구소득이 400-599만원인 경우에 높음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현저히 낮음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인지도가 매우 낮음. -총자녀수 3명이상인 경우 인지도가 낮음.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제 지원은 외벌이 가구에서 수혜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400~499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제 지원은 수혜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며, 지원금에 대한 인지도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인 자녀장려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았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 금액까지 안다는 응답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55)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3-5-4〉~〈부표 3-5-7〉을 참조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자녀교육비 소득 공제는 가구소득이 500~599만원 구간에서 수혜율이 높았으며, 400~499만원 구간에서 다음으로 높았다. 인지도 자체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지원 금액까지 안다는 응답 비중이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가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정책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구체적 금액을 안다는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수혜율 자체는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2020년 1+2순위 응답기준 6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수당 60.0%, 양육수당 32.6% 순으로, 전반적으로 보편 지원이면서 현금성 지원인 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차년도(2019년) 응답에서도 발견된 현상으로 3차년도(2020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양상이나, 다만 아동수당에 대한 선호가 더욱 증가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세제 혜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2순위 기준 13.9%로 특히 2순위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육아휴직급여(10.8%), 출산장려금(6.2%), 아이돌보미 지원(6.2%) 등은 앞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세제 혜택에 비해서도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지원이 지원대상이 특정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본인의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응답하다 보니 자신이 정책 대상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4-6〉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2019~2020년)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양육수당	21.0	14.6	35.6	18.9	13.6	32.6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	45.6	20.6	66.2	45.0	22.0	67.0
육아휴직급여	4.9	6.4	11.4	4.7	6.1	10.8
아동수당	17.9	33.3	51.2	22.5	37.5	60.0
출산장려금	3.2	6.2	9.4	2.2	4.0	6.2
아이돌보미지원	2.1	5.6	7.7	1.5	4.7	6.2
기타수당	2.2	3.3	5.4	0.7	1.4	2.2
세제지원	3.2	9.2	12.4	4.4	9.5	13.9
무응답	-	0.7	-	-	1.2	-
(수)	(1,902)	(1,902)	(1,902)	(2,156)	(2,156)	(2,156)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2020년 기준 아동수당 지원이 56.7%(1+2순위)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43.1%), 양육수당(29.2%), 세제 지원(21.0%) 순이었다. 2019년(2차년도) 조사에서는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이 51.6%로 가장 높았던데 반해, 2020년 아동수당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4-7〉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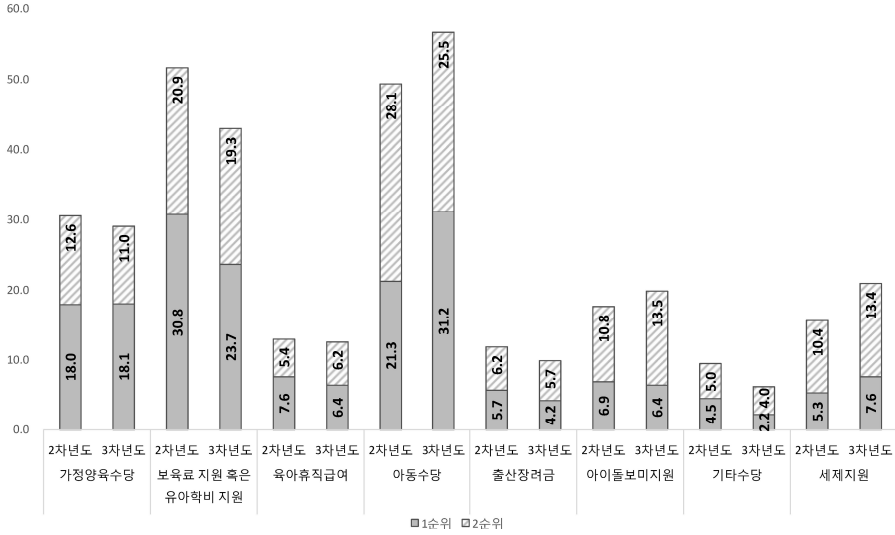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양육수당	18.0	12.6	30.5	18.1	11.0	29.2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	30.8	20.9	51.6	23.7	19.3	43.1
육아휴직급여	7.6	5.4	13.0	6.4	6.2	12.7
아동수당	21.3	28.1	49.5	31.2	25.5	56.7
출산장려금	5.7	6.2	11.8	4.2	5.7	9.9
아이돌보미지원	6.9	10.8	17.7	6.4	13.5	19.9
기타수당	4.5	5.0	9.5	2.2	4.0	6.2
세제지원	5.3	10.4	15.7	7.6	13.4	21.0
무응답	-	0.7	-	-	1.4	-
(수)	(1,902)	(1,902)	(1,902)	(2,156)	(2,156)	(2,156)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IV-4-1] 향후 확대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단위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반대로 향후 축소가 필요한 지원으로는 2020년 기준 출산장려금이 33.0%로 가장 많고, 기타 수당(28.6%), 아이돌보미 지원(26.6%) 순으로, 대상이 특정되면서 일시 지원 형태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타났다. 2019년(2차년도)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31.9%), 출산장려금(28.8%) 세제 지원(28.3%) 순으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된 것과 비교하여 약간의 경향성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세제 지원의 경우 앞서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21.0%로 1+2순위 합산 응답 기준 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이는 정책이었는데, 축소가 필요한 정책에서도 25.2%(1+2순위 합산)로 4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즉, 세제 혜택에 대한 정책 선호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선호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원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의 대상자 여부 및 인지도 등에 따라 선호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가구의 정책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으로 본인의 수혜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보편 지원이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높은 선호가 뚜렷하게 관측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육아 정책 설계 당시 육아가구 부모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

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다 확대하거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IV-4-8〉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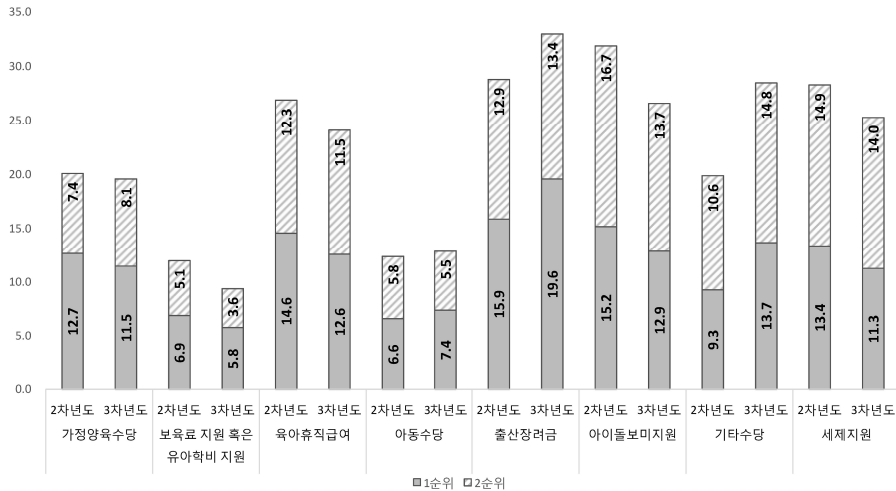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양육수당	12.7	7.4	20.1	11.5	8.1	19.6
보육료 지원 혹은 유아학비 지원	6.9	5.1	12.0	5.8	3.6	9.4
육아휴직급여	14.6	12.3	26.9	12.6	11.5	24.0
아동수당	6.6	5.8	12.4	7.4	5.5	12.8
출산장려금	15.9	12.9	28.8	19.6	13.4	33.0
아이돌보미지원	15.2	16.7	31.9	12.9	13.7	26.6
기타수당	9.3	10.6	19.8	13.7	14.8	28.6
세제지원	13.4	14.9	28.3	11.3	14.0	25.2
무응답	5.4	14.4	5.4	5.2	15.6	5.2
(수)	(1,902)	(1,902)	(1,902)	(2,156)	(2,156)	(2,156)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IV-4-2〉 향후 축소가 필요한 정책 지원 (2019~2020년)

단위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5.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이 절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 시의성 주제로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 변동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이 변동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9%로 2/3가량의 육아가구는 특별히 소비에서 있어서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8.6%, 감소했다는 응답도 18.4%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변동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가구 특성에 따라 일률적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전후로 가구 전체의 소비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감소액은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에서 매우 커 평균 82만7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구 전체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평균 증가액은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평균 46만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양육비용 변화를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식비 등의 부담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표 IV-5-1〉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전체 소비지출 변동 (2020년, 실질비용)

단위 : %, 만원, (명)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전체	18.4	53.1	18.6	32.2	62.9	100.0 (2,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9	53.2	17.4	34.0	62.7	100.0 (960)
	외벌이	17.2	53.0	19.6	30.9	63.1	100.0 (1,196)
	<i>t</i>		0.0		1.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4.1	82.7	20.9	37.3	55.1	100.0 (158)
	300~399만원 이하	17.6	46.7	18.9	27.5	63.5	100.0 (471)
	400~499만원 이하	19.1	46.4	18.5	33.6	62.5	100.0 (634)
	500~599만원 이하	17.9	55.2	19.7	29.3	62.4	100.0 (402)
	600만원 이상	16.9	54.0	17.1	36.0	66.0	100.0 (491)
<i>F</i>		3.5**		1.5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총 자녀수	1명	17.9	51.8	12.0	26.6	70.1	100.0 (725)
	2명	18.9	50.7	21.3	29.8	59.7	100.0 (1,125)
	3명이상	17.6	65.8	24.5	46.3	57.8	100.0 (306)
	F		1.6		12.1***		
지역 규모	대도시	20.6	53.5	13.5	34.0	65.9	100.0 (865)
	중소도시	16.7	53.9	22.5	30.2	60.8	100.0 (952)
	읍면지역	17.7	50.1	20.9	35.2	61.4	100.0 (339)
	F		0.1		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코로나19를 전후로 자녀의 양육비용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8.1%였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이 17.3%, 감소했다는 응답이 14.6%로, 가구 전체 소비지출의 변동이 없는 비중에 비해 높고, 감소한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 내 소비지출이 변동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비용보다는 먼저 다른 비목을 조정하는 가구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의 변동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띠는데, 특히 영아 자녀의 양육비용 변화가 적었다. 양육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증가한 금액은 평균 11만5천원으로, 만0세의 경우에만 평균 23만9천원으로 약간 높으나 워낙에 응답자 비중 자체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은 평균 16만7천원으로 증가금액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감소액 평균 비용 자체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이후 자녀의 양육비용 변동이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과 연관된 결과로,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보육비 지출이 큰 현상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IV-5-2〉 자녀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변동 (2020년, 실질비용)

단위 : %, 만원, (명)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전체		14.6	16.7	17.3	11.5	68.1	100.0 (3,278)
자녀 연령별	0세	2.5	7.2	4.4	23.9	93.0	100.0 (158)
	1세	4.4	13.8	12.5	12.3	83.2	100.0 (321)
	2세	10.0	11.3	17.2	10.0	72.8	100.0 (331)

구분	감소		증가		변동없음	계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3세	11.4	14.0	20.4	11.9	68.3	100.0 (334)
4세	15.3	13.5	16.9	12.0	67.7	100.0 (378)
5세	17.2	13.9	20.8	10.4	62.0	100.0 (424)
6세	16.8	15.6	20.1	12.5	63.0	100.0 (422)
7세 (초1)	20.4	19.8	18.1	12.0	61.5	100.0 (441)
8세 (초2)	20.9	22.5	16.6	10.1	62.5	100.0 (469)
F		3.8***		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코로나19로 전후 가구 지출에서 지출이 증가한 비목이 무엇인지를 질의한 결과, 식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보건의료비(13.8%), 주거/관리비(13.1%)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3순위 응답에서는 개인유지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다.

〈표 IV-5-3〉 가구지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 (2020년)

단위 : %

구분	증가한 항목												증가한 항목 없음 /무응답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3순위	71.9	18.7	4.4	4.1	29.3	9.5	9.6	7.1	18.8	2.3	1.6	4.1	20.5
1순위	62.3	0.8	0.6	0.4	9.1	2.3	0.9	0.4	1.7	0.4	0.3	0.4	20.5
2순위	7.8	13.1	1.8	1.5	13.8	4.7	5.0	3.5	9.1	0.9	0.4	1.3	37.1
3순위	1.8	4.9	1.9	2.2	6.4	2.5	3.8	3.1	8.0	1.0	0.9	2.5	61.1

주: 1순위에서 감소한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순위 이후 무응답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반대로 코로나19 전후 가구 지출에서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여가문화생활비가 3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22.9%)였다. 2순위 응답에서도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통신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11.7%로 다음이었다. 3순위 응답 기준 개인유지비(7.7%), 교통/통신비(7.6%)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V-5-4〉 가구지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2020년)

단위 : %

구분	감소한 항목												감소한 항목 없음 /무응답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파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3순위	7.1	1.3	4.4	22.0	8.6	35.1	57.0	22.1	17.0	3.6	1.2	3.1	22.5
1순위	4.2	0.5	0.7	6.3	2.4	22.9	34.5	2.8	2.2	0.8	0.1	0.1	22.5
2순위	2.0	0.5	1.6	9.1	2.9	8.3	17.0	11.7	7.2	1.3	0.2	0.7	37.5
3순위	0.8	0.4	2.0	6.7	3.3	3.9	5.6	7.6	7.7	1.5	0.8	2.2	57.6

주: 1순위에서 감소한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순위 이후 무응답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한편, 코로나19 전후로 양육비용에서 지출이 증가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은 24.6%로, 앞서 가구 지출에서 증가 비목이 없는 비중에 비해 약간 높았다. 코로나 19 전후로 양육비용에서 지출이 증가한 비목은 1순위 식비(59.0%), 2순위 보건/의료비(14.8%), 3순위 개인유지비(5.8%)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1~3순위 합산 결과, 식비가 증가했다는 응답(6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비(27.3%), 개인유지비(15.8%) 순이었다.

〈표 IV-5-5〉 양육비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 (2020년)

단위 : %

구분	증가한 항목									증가한 항목 없음 /무응답
	식비	기기/집기	파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1+2+3순위	68.3	6.8	5.1	27.3	13.3	12.7	4.2	15.8	2.9	24.6
1순위	59.0	0.6	0.4	8.3	3.7	1.4	0.2	1.3	0.5	24.6
2순위	7.0	3.1	2.5	14.8	6.8	7.0	2.1	8.6	1.1	47.0
3순위	2.3	3.2	2.1	4.1	2.8	4.3	1.9	5.8	1.3	72.2

주: 1순위에서 증가한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순위 이후 무응답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 특성별 차이는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해 부표(부표 3-4-1~부표 3-4-3 참조)로 제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응답 기준 외벌이 가구의 식비 증가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 자

녀수에 따른 증가가 컸다. 지역 규모별로 중소도시에서 식비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고, 대도시는 증가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2순위 응답에서는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컸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무응답 비중이 낮았다. 3순위 응답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보건/의료비, 여가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등의 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전후로 양육비용에서 지출이 감소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은 28.4%로, 가구 전체 지출에서 감소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 22.5%에 비해 5.9%포인트 높았다. 즉, 가구 전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양육비용의 감소는 후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양육비용에서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여가문화생활비(28.8%)와 교육/보육비가 많았으며, 2순위에서는 여가문화생활비(17.2%), 3순위 피복비(6.4%)와 교통/통신비(6.4%) 등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1~3순위 합산 기준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37.7%), 피복비(21.2%) 순이었다.

〈표 IV-5-6〉 양육비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2020년)

단위 : %

구분	감소한 항목									감소한 항목 없음/ 무응답
	식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1+2+3순위	4.3	4.3	21.2	9.2	37.7	51.2	16.9	11.9	2.2	28.4
1순위	2.2	0.8	5.8	2.7	26.9	28.8	2.5	1.5	0.4	28.4
2순위	1.2	1.3	9.0	3.8	7.8	17.2	8.1	5.0	0.6	46.0
3순위	0.9	2.2	6.4	2.6	3.1	5.2	6.4	5.4	1.1	66.8

주: 1순위에서 감소한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2순위 이후 무응답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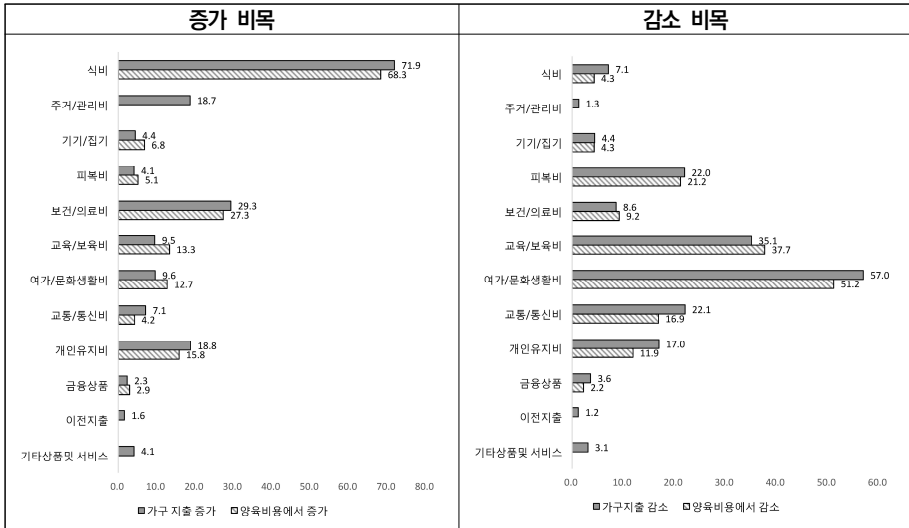
가구특성별 증가 비목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가구특성별 감소한 비목도 부표(부표 3-4-4~부표 3-4-6 참조)로 제시하였다. 양육비용에서 감소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비 감소가 크고, 감소한 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보육비 감소가 적어, 즉 대도시일수록 교육보육비 감소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순위 응답에서는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많고, 지역 규모

에 따라 규모가 작아질수록 교육보육비 감소 비중이 커지며, 중소 도시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복비 감소 비중이 적었으며, 읍면지역은 여가문화생활비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3순위 응답에서는 여가문화생활비 감소가 자녀수가 많을수록 커지며, 개인유지비 감소도 자녀가 많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비목을 종합해보면, 가계 지출 뿐 아니라 양육비용에서 모두 식비의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며,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감소한 비목은 가계 지출과 양육비용 모두에서는 여가/문화생활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으나,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 감소 비중이 가계 지출에서의 감소폭보다 더 컸다. 이는 육아가구가 지출하는 가계 지출 중 교육/보육비가 대부분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 지출에서 세 번째로 감소 비중이 높은 비목은 교통/통신비인데 반해, 양육비용에서는 피복비에서의 감소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IV-5-1]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 변화 (2020년)

단위 : %



주: 증감비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및 무응답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이 증가했는지를 질의한 결과에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32.7%였으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32.7	67.3	100.0	(2,156)
맞벌이 가구	맞벌이	33.3	66.7	100.0	(960)
	외벌이	32.1	67.9	100.0	(1,196)
여부	<i>t</i>	0.36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0	43.0	100.0	(158)
	300~399만원 이하	35.9	64.1	100.0	(471)
	400~499만원 이하	33.6	66.4	100.0	(634)
	500~599만원 이하	29.1	70.9	100.0	(402)
	600만원 이상	23.4	76.6	100.0	(491)
	<i>F</i>	66.275***			
총 자녀수	1명	23.4	76.6	100.0	(725)
	2명	34.2	65.8	100.0	(1,125)
	3명이상	48.7	51.3	100.0	(306)
	<i>F</i>	64.992***			
지역 규모	대도시	28.2	71.8	100.0	(865)
	중소도시	35.3	64.7	100.0	(952)
	읍면지역	36.6	63.4	100.0	(339)
	<i>F</i>	13.16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으로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이 40.5%, 생활비 감축 20.5%, 기존의 저축 활용 19.6%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36.7%), 기존의 저축 활용(23.3%), 생활비 감축(22.2%) 순이었으며,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33.9%), 생활비 감축(23.5%), 기존의 저축 활용(13.0%) 순이었다. 정부 공적 자금 지원으로 충당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300~399만원이하인 가구(47.3%)와 500~599만원이하인 가구(44.4%)에서 상대

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총당이 필요 없다는 응답(10.4%)과 은행 대출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10.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5-8〉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총당 방법 (2020년)

단위 : %(명)

구분	부족한 생활비 총당 방법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6.5	40.5	5.1	5.3	19.6	1.7	20.5	0.9	100.0 (7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	36.7	1.1	5.6	23.3	7.8	22.2	-	100.0 (90)
	300~399만원 이하	4.1	47.3	4.7	5.3	21.3	-	16.0	1.2	100.0 (169)
	400~499만원 이하	6.6	38.0	7.0	3.8	20.7	0.9	22.1	0.9	100.0 (213)
	500~599만원 이하	8.5	44.4	4.3	2.6	18.8	0.9	19.7	0.9	100.0 (117)
	600만원 이상	10.4	33.9	6.1	10.4	13.0	1.7	23.5	0.9	100.0 (115)
<i>F</i>	54.553***									

주: ①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총당이 필요 없음; ②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③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④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⑤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털어 씀(보험 해지 포함); ⑥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⑦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1 영아(만0세~만3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2 유아(만4세~만6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3 초등학교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4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 05 긴급돌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이 장에서는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서비스 이용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영아기(만0~만3세), 유아기(만4~만6세), 초등저학년기로 구분하여, 해당 연령 자녀들의 육아서비스 이용행태를 이용률,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아동 단위 서비스 이용보다 가구 단위로 이용하게 되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동용 설문지의 모든 자료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아동의 연령 표기는 보고서 전체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된 모든 비용은 실질비용(2015=100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임을 밝혀둔다.

1. 영아(만0세~만3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반일제 이상 기관

1) 이용기관

본 3차년도 조사 대상 아동 중 만0세~만3세까지의 영아 1,107명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행태를 살펴본 결과, 2차년도까지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별로 이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1,2차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를 기준으로 만0세의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98.2%로 대부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1세는 19.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만2세는 70.6%가, 만3세는 89.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1,2차년도와 동일하나 1,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

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돌봄체제로의 운영, 영유아 부모의 불안감으로 인한 가정양육 선택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0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만0세	3차(2020년)	1.8	0.0	98.2	100.0 (143)
	2차(2019년)	2.0	0.0	98.0	100.0 (144)
	1차(2018년)	2.3	0.0	97.7	100.0 (143)
만1세	3차(2020년)	19.9	0.0	80.1	100.0 (288)
	2차(2019년)	24.3	0.0	75.7	100.0 (288)
	1차(2018년)	32.9	0.4	66.8	100.0 (287)
만2세	3차(2020년)	70.6	0.0	29.4	100.0 (322)
	2차(2019년)	81.2	0.7	18.1	100.0 (328)
	1차(2018년)	82.9	0.7	16.4	100.0 (341)
만3세	3차(2020년)	89.1	0.6	10.3	100.0 (354)
	2차(2019년)	95.2	0.9	3.9	100.0 (373)
	1차(2018년)	94.6	1.4	3.9	100.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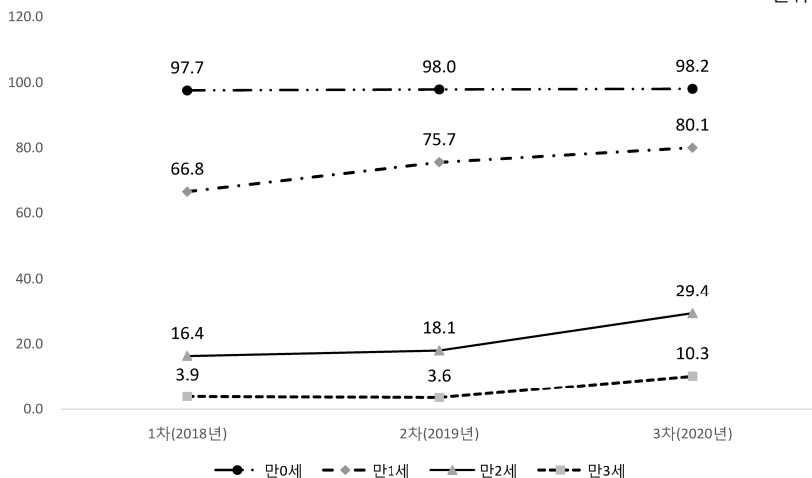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 (2018~2020년)

단위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66.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외벌이가구의 46.6%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영아일 경우에도 반일제이상 기관을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녀수는 2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등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2〉 가구특성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0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4.4	0.2	45.4	100.0 (1,1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7	0.3	33.0	100.0 (432)
	외벌이	46.6	0.2	53.2	100.0 (675)
χ^2		43.1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2	0.0	49.8	100.0 (74)
	300~399만원	45.9	0.0	54.1	100.0 (247)
	400~499만원	51.1	0.3	48.6	100.0 (371)
	500~599만원	59.8	0.0	40.2	100.0 (178)
	600만원 이상	65.9	0.5	33.7	100.0 (237)
χ^2		25.945**			
자녀수	1명	40.2	0.3	59.5	100.0 (322)
	2명	60.2	0.2	39.6	100.0 (601)
	3명이상	60.6	0.0	39.4	100.0 (184)
χ^2		37.626***			
지역규모	대도시	51.8	0.5	47.7	100.0 (454)
	중소도시	55.0	0.0	45.0	100.0 (485)
	읍면지역	59.9	0.0	40.1	100.0 (168)
χ^2		6.125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는 3명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영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603명의 영아 중 53.3%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밖에 가정어린이집 21.4%, 국공립어린이집 18.4%, 사회복지법인 2.5%, 법인·단체 2.4%, 직장어린이집 1.5%, 부모협동어린이집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 가구특성별 영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0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모름	계(수)
전체	18.4	2.5	2.4	53.3	21.4	1.5	0.2	0.2	100.0 (60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영아가 주로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인 어린이집의 주당 이용시간을 아동 연령별, 연도별(1~3차)로 비교해 보았다. 연령별로는 1~3차 조사 결과에서 모두 만0세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 3차의 경우 만0세가 주당 48시간30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0세의 경우는 이용 사례가 1~3차 모두 3사례로 희소하여 만0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사료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로는 본 3차 조사의 결과가 동일 연령대의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차 조사에서 1차와 2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이용 시간 관련 설문 문항의 구조가 변경된 것(시간표 형태로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들로 이용자가 압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V-1-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 (2018~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만0세	3차 (2020년)	48.5	(3)
	2차 (2019년)	42.2	(3)
	1차 (2018년)	40.8	(3)
만1세	3차 (2020년)	35.2	(57)
	2차 (2019년)	33.8	(70)
	1차 (2018년)	35.0	(94)

구분		어린이집	
만2세	3차 (2020년)	37.1	(227)
	2차 (2019년)	35.1	(266)
	1차 (2018년)	34.5	(283)
만3세	3차 (2020년)	37.7	(315)
	2차 (2019년)	35.1	(355)
	1차 (2018년)	34.4	(348)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차년도 조사 결과의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만0~3세 영아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37시간18분인데, 이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맞벌이 가구의 영아는 평균 39시간54분을 이용하나 외벌이 가구의 영아는 평균 34시간48분으로 맞벌이 가구의 영아가 주당 5시간6분, 하루 1시간 정도 어린이집을 길게 이용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이 증가하여,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는 주당 34시간48분을 이용하였으나 300~399만원 이하 35시간6분, 400~499만원 이하 36시간48분, 500~599만원 이하 38시간12분, 600만원 이상 39시간1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벌이 가구 보다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1-5〉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 (2020년)

구분		어린이집	
전체		37.3	(6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9	(288)
	외벌이	34.8	(314)
	<i>t</i>	8.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8	(37)
	300~399만원 이하	35.1	(114)
	400~499만원 이하	36.8	(189)
	500~599만원 이하	38.2	(106)
	600만원 이상	39.3	(156)
	<i>F</i>	6.4***	

단위 :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총 자녀수	1명	37.1	(129)
	2명	37.2	(362)
	3명이상	37.6	(111)
	F	0.1	
지역 규모	대도시	36.6	(235)
	중소도시	37.4	(267)
	읍면지역	38.4	(101)
	F	1.8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다음으로 평일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파악하였는데, <표 V-1-6>과 같이 오전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4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5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1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아 중 오전 9시 이전에 등원하는 경우는 0.8%, 오후 7시 이후 하원하는 경우는 4%에 해당한다.

<표 V-1-6> 영아의 어린이집 등원시간별 하원시간 (2020년)

단위 : %, (명)

등원 하원	8:00	9:00	10:00	11:00	12:00	13:00	(수)
12:00	0.0	0.0	0.8	0.0	0.0	0.0	(5)
13:00	0.0	0.2	1.5	0.6	0.0	0.0	(14)
14:00	0.0	0.1	1.0	0.2	0.0	0.0	(8)
15:00	0.0	0.7	6.2	1.6	0.2	0.0	(52)
16:00	0.0	5.0	38.5	6.4	0.2	0.0	(301)
17:00	0.0	4.4	15.5	1.4	0.0	0.0	(127)
18:00	0.2	4.5	6.1	0.9	0.0	0.2	(71)
19:00	0.6	1.0	1.2	0.2	0.0	0.0	(18)
20:00	0.0	0.5	0.5	0.0	0.0	0.0	(6)
(수)	(5)	(98)	(428)	(67)	(2)	(1)	(60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차 조사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아가 기본보육시간 변동이 이루어진 3월 1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2월 29일 이전부터 이용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72.5%,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5%로 나타났다. 2

월 29일 이전부터 이용했다는 응답은 0세가 30.6%, 3세가 87.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세부터는 2월 29일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본보육시간이 변동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던 영아 중 3월 1일 이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시간 변동이 없는 경우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단축된 경우가 10.2%, 증가한 경우가 6.9%에 해당하였다.

〈표 V-1-7〉 2020년 2월29일 이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 시간 변동 여부 (2020년)

단위 : %(명)

구분	2월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 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72.5	27.5	100.0 (603)	10.2	82.8	6.9	100.0 (437)
2020년생(0세)	30.6	69.4	100.0 (3)	0.0	100.0	0.0	100.0 (1)
2019년생(1세)	31.0	69.0	100.0 (57)	20.1	64.7	15.2	100.0 (18)
2018년생(2세)	62.0	38.0	100.0 (227)	7.6	84.2	8.2	100.0 (141)
2017년생(3세)	87.9	12.1	100.0 (315)	11.0	83.3	5.8	100.0 (27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많아 가구소득 299만원이하에서는 16.6%가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가구소득 500~599만원이하에서는 7.9%만이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서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변동이 없는 경우가 74.6%로 대도시(84.3%), 중소도시(84.8%)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고, 단축된 경우가 16.6%, 증가한 경우가 8.8%로 단축된 경우가 두배가량 많았다. 한편, 대도시의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는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영아에 비해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된 경우가 9.6%로 가장 높았다.

〈표 V-1-8〉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2	82.8	6.9	100.0	(437)
맞벌이 가구	맞벌이	9.4	83.1	7.5	100.0	(217)
	외벌이	11.1	82.6	6.4	100.0	(220)
여부		χ^2		0.479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16.6	63.2	20.3	100.0	(25)
	300~399만원이하	12.1	84.2	3.7	100.0	(83)
	400~499만원이하	10.2	78.5	11.2	100.0	(128)
	500~599만원이하	7.9	85.7	6.4	100.0	(79)
	600만원 이상	9.2	88.5	2.3	100.0	(123)
			χ^2		17.977*	
총 자녀수	1명	12.5	78.5	9.0	100.0	(89)
	2명	10.6	82.6	6.8	100.0	(269)
	3명이상	6.5	88.4	5.1	100.0	(79)
			χ^2		3.064	
지역 규모	대도시	6.0	84.3	9.6	100.0	(161)
	중소도시	11.2	84.8	4.0	100.0	(200)
	읍면지역	16.6	74.6	8.8	100.0	(76)
			χ^2		11.75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어린이집 하원 시간대별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시간이 늦어질수록 기본보육시간 변동으로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집 하원이 집중되어 있는 16:00시와 17:00시의 경우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18:00시 이후 하원하는 경우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에 비해 2배이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일부 재편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연장보육 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본보육시간의 종료 시점(17:00) 이내로 하원 시간을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17:00이후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편하게 장시간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자체가 다소 길어진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보육지원체계 개편만의 효과인지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표 V-1-9〉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2	82.8	6.9	100.0 (437)
하원 시간별	16:00 전	16.5	78.6	4.9	100.0 (43)
	16:00	10.9	83.0	6.1	100.0 (213)
	17:00	11.0	81.2	7.8	100.0 (101)
	18:00 후	4.0	86.7	9.4	100.0 (78)
	χ^2	6.39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이용비용에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추가 보육료, 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한 그밖의 비용,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비용, 특별활동 비용을 합한 총 이용비용을 살펴본 결과, 3차 본 조사에서 만0세는 총 4만1천원, 만1세는 1만6천원, 만2세는 4만원, 만3세는 5만4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시, 연령별로 이용비용 지출의 증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만0세의 경우는 이전년도 조사시보다 지출액이 증가하였고, 만1세, 만2세, 만3세의 경우는 2차년도 조사 결과보다 지출액이 하락하였다. 단, 만0세의 경우는 1~3차에 걸쳐 사례수가 3명으로 희박하여 매년 사례의 특징에 따라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0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출액이 증가하고 3차조사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1-10〉 영아의 연령별 및 연도별 월 평균 어린이집 이용비용 (2018~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만0세	3차 (2020년)	4.1 (3)
	2차 (2019년)	1.4 (3)
	1차 (2018년)	8.0 (3)
만1세	3차 (2020년)	1.6 (57)
	2차 (2019년)	2.3 (70)
	1차 (2018년)	2.0 (94)
만2세	3차 (2020년)	4.0 (227)
	2차 (2019년)	4.9 (265)
	1차 (2018년)	3.5 (283)

구분	어린이집	
	3차 (2020년)	5.4
2차 (2019년)	7.7	(353)
1차 (2018년)	6.4	(34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도시 지역의 영아는 월평균 3만7천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출하여 중소도시 5만1천원, 읍면지역 5만9천원에 비해 이용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3차년도 본조사 결과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세부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를 월평균 8천원 지출하고 있으며, 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운행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입학금 등 그 밖의 비용이 월평균 1만6천원, 특별활동 비용 5만7천원이며, 총비용은 4만5천원이 지출되고 있었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차이, 지역규모에 따른 총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비용은 외벌이 가구의 영아가 맞벌이 가구의 영아보다 평균 6천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비용은 대도시 지역의 영아의 총비용이 3만7천원으로 중소도시 5만1천원, 읍면지역 5만원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영아들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영아에 비해 그 밖의 비용과 특별활동 지출 비용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11〉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추가 보육료	그 밖의 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총 비용	
전체		0.8	1.6	5.7	4.5	(6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9	1.3	5.6	4.2	(288)
	외벌이	0.7	1.9	5.7	4.8	(314)
	<i>t</i>	1.0	-2.4*	-0.1	-1.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3	2.2	4.2	4.4	(37)
	300~399만원 이하	0.6	1.5	6.3	4.0	(114)
	400~499만원 이하	1.1	1.5	5.9	5.1	(189)

구분		추가 보육료	그 밖의 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총 비용	
	500~599만원 이하	0.8	1.3	5.9	4.3	(106)
	600만원 이상	0.7	1.8	5.3	4.4	(156)
	<i>F</i>	0.7	1.0	1.5	0.8	
총 자녀수	1명	0.4	1.7	6.1	4.6	(129)
	2명	1.0	1.5	5.6	4.7	(362)
	3명이상	0.4	1.6	5.3	3.9	(111)
	<i>F</i>	2.2	0.1	1.0	0.9	
지역 규모	대도시	0.9	1.3	5.1	3.7	(235)
	중소도시	0.6	1.8	6.0	5.1	(267)
	읍면지역	0.9	1.7	5.6	5.0	(101)
	<i>F</i>	0.4	1.4	1.7	4.4*	

주 1) 어린이집특별활동 비용을 제외한 보육료, 그밖의 비용, 총비용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한 값임.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은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값임.

2) 모든 세부비용은 0원 포함, 모름/무응답 제외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나. 시간제 사교육(반일제이상 기관 제외)

1) 이용기관

영아가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을 연령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3차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1차 혹은 2차년도에 비해 문화센터 이용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1,2차년도에는 만1세의 문화센터 이용률이 각각 13.8%, 13.1%로 시간제 사교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3차년도의 문화센터 이용률은 만0세는 0%, 만1세 2.2%, 만2세 0.9%, 만3세 0.6%에 불과하며 1차 혹은 2차년도에 비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차년도에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등의 사교육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2차년도에 비해 만 0~2세의 경우는 비방문 사교육(비방문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영아의 사교육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선택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V-1-1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0년)

단위 : %,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센터	(수)
만0세	3차	0.0	0.0	0.0	0.0	0.7	0.0	0.0	(143)
	2차	0.0	0.0	0.0	0.0	0.0	0.0	1.2	(144)
	1차	0.0	0.7	0.0	0.0	0.0	0.0	1.6	(143)
만1세	3차	0.3	0.3	0.9	0.6	0.3	0.0	2.2	(288)
	2차	0.3	0.0	0.7	0.0	0.3	0.3	13.1	(288)
	1차	1.1	0.8	1.1	0.0	0.0	0.4	13.8	(287)
만2세	3차	0.6	0.9	0.9	1.2	0.9	0.3	0.9	(322)
	2차	1.7	2.3	1.7	0.7	0.0	0.3	8.8	(328)
	1차	3.1	4.1	0.3	3.0	1.7	0.7	10.5	(341)
만3세	3차	2.7	5.8	1.2	1.8	1.2	1.8	0.6	(354)
	2차	2.7	9.3	1.8	2.4	2.1	1.5	5.4	(373)
	1차	4.8	6.7	2.0	3.6	0.6	1.7	5.0	(36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영아 중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영아 75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은 방문형 학습지로 75명 중 32.4%가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단시간 학원 16.5%, 비방문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 15.9%, 문화센터 15.2%,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3.2%,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2.2%, 개인 및 그룹지도 9.7% 순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방문형 학습지를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에는 외벌이 가구의 영아가 단시간 학원(19.5%), 문화센터(18.0%) 등 비교적 보호자의 동반 및 이동 동행이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반하여 맞벌이 가구의 영아는 비방문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등 이동이 필요 없이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비해 문화센터(28.3%),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26.8%) 등 부모의 지도나 동참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반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 학습지·온라

인통신교육 등 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지도를 받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V-1-13〉 가구특성별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20년)

단위 : %,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수)
전체		16.5 (12)	32.4 (24)	13.2 (10)	15.9 (12)	12.2 (9)	9.7 (7)	15.2 (11)	(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5	33.6	13.1	18.7	13.9	11.4	12.5	(37)
	외벌이	19.5	31.2	13.3	13.1	10.5	8.1	18.0	(3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2.7	0.0	0.0	0.0	22.1	35.2	(5)
	300~399만원	18.7	25.6	13.2	23.1	24.3	6.3	13.8	(16)
	400~499만원	26.2	21.7	19.9	13.0	4.4	8.4	23.5	(24)
	500~599만원	0.0	34.3	15.3	34.3	16.0	0.0	0.0	(6)
	600만원 이상	13.2	44.8	8.9	12.6	13.3	13.2	7.9	(24)
자녀수	1명	8.0	11.5	14.7	11.3	26.8	11.2	28.3	(27)
	2명	19.8	43.9	14.7	16.8	4.9	8.0	9.5	(41)
	3명이상	29.1	44.2	0.0	27.7	0.0	14.0	0.0	(7)
지역규모	대도시	12.4	44.2	9.2	6.0	14.7	9.2	20.0	(34)
	중소도시	17.4	23.5	13.9	22.9	11.8	6.0	13.1	(35)
	읍면지역	35.1	15.9	33.0	33.5	0.0	35.1	0.0	(6)

주: (수)는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 전체를 의미하며,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비중은 중복응답으로 (수)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 비중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3차년도 조사에서 영아가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의 주당 이용시간과 이용비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용시간은 시간제 사교육 중 단시간 학원이 평균 3시간36분으로 가장 길고, 문화센터 1시간48분,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시간,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54분, 방문형 교구활동 36분, 방문형 학습지 30분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비용은 가장 이용시간이 긴 단시간 학원이 20만1천원으로 이용비용도 가장 높았다. 이외 개인 및 그룹지도 13만9천원,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1만9천원, 방문형 학습지 6만8천원,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6만7천원, 문화센터 6만원,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5만1천원 순이었다.

〈표 V-1-14〉 영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비용 (2020년)

단위 : 시간,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이용시간	3.6 (12)	0.5 (24)	0.6 (10)	0.9 (12)	1.0 (9)	1.3 (7)	1.8 (11)
이용비용	20.1 (11)	6.8 (24)	11.9 (10)	6.7 (12)	5.1 (9)	13.9 (7)	6.0 (11)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 기타서비스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영아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률 및 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영아 중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해 본 아동의 비율은 3차 조사에서 1.9%로 1차 2.4%에 비해서는 감소하였고 2차 1.5%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해본 경우 월평균 이용횟수는 3차 조사에서 11회로 1차(9.2회), 2차(7.8회)에 비해 증가하였고, 1회당 이용시간은 3차 조사에서 평균 3시간6분으로 역시 1차(2시간30분), 2차(2시간12분)에 비해 증가하였다. 3차 조사 결과에서는 시간제 일시보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월평균 8만4천원으로 1차(7만1천원), 2차(2만1천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2차 조사에 비해 3차 조사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차년도인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고 가정 양육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V-1-15〉 연도별 영아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여부, 횟수, 시간 및 비용 (2018~2020년)

단위 : %(명), 회, 시간, 만원, (명)

구분	이용율	(수)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수)
3차(2020년)	1.9	(1,107)	11.0	3.1	8.4	(21)
2차(2019년)	1.5	(1,133)	7.8	2.2	2.1	(17)
1차(2018년)	2.4	(1,139)	9.2	2.5	7.1	(27)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영아의 키즈카페 이용여부 및 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영아 중 지난 3개월간 키즈카페를 이용해 본 비율은 1차 58.4%, 2차 48.9%에 비해 3차는 12.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역시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3차 조사에서 키즈카페를 이용해본 경우 월평균 이용횟수는 1.5회로 1차(1.9회), 2차(1.8회)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12분으로 1차와 2차의 평균 2시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이용비용도 월평균 8천원을 지출하여 1차와 2차의 평균 6천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V-1-16〉 연도별 영아의 키즈카페 이용여부, 횟수, 시간 및 비용 (2018~2020년)

단위 : %, 회, 시간, 만원, (명)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수)
3차(2020년)	12.8	1.5	2.2	0.8	(141)
2차(2019년)	48.9	1.8	2.0	0.6	(554)
1차(2018년)	58.4	1.9	2.0	0.6	(66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유아(만4세~만6세)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가. 반일제이상 기관

1) 이용기관

본 3차년도 조사 대상 아동 중 만4세~만6세까지의 유아 1,262명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행태를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3차년도 조사 대상인 만4세의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9.2%로 대부분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이용 비율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만4세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1차년도 1.8%, 2차년도 1.2%에 불과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9.2%로 2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약 7.7배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3차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병, 확산된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만4세 뿐 아니

라 만5세, 만6세의 경우도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3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만4세의 경우 2차년도 대비 3차에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감하였고, 만5세, 만6세의 경우는 2차년도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고 유치원 이용률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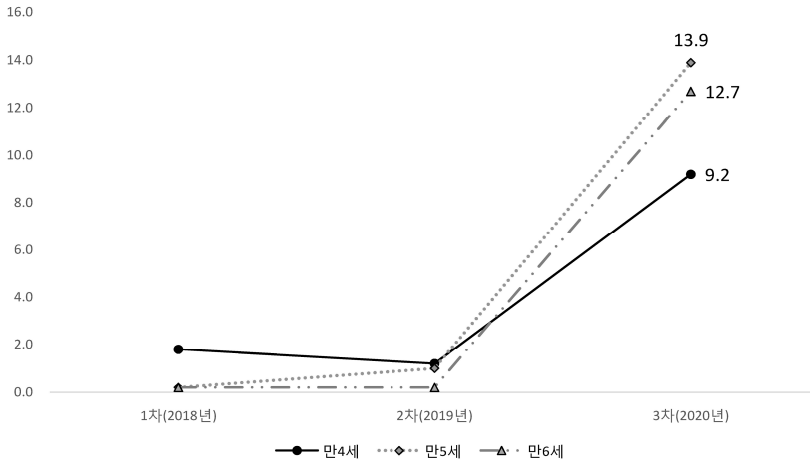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만4세	3차	55.1	34.6	1.1	9.2	100.0 (401)
	2차	63.3	33.3	2.2	1.2	100.0 (401)
	1차	52.1	40.9	5.1	1.8	100.0 (365)
만5세	3차	41.5	43.0	1.6	13.9	100.0 (433)
	2차	40.1	56.7	2.2	1.0	100.0 (398)
	1차	34.1	60.2	5.4	0.2	100.0 (366)
만6세	3차	31.8	53.1	2.4	12.7	100.0 (428)
	2차	31.8	64.4	3.5	0.2	100.0 (401)
	1차	29.4	63.8	6.6	0.2	100.0 (40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중 (2018~2020년)

단위 : %



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행태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가 외벌이인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6.5%로 맞벌이 가구의 유아 중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인 6.6%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46.7%로 유치원 이용 비율(44.7%)보다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의 유아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자녀가 1명인 경우 37.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나 자녀가 3명인 경우 49.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율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항목에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나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우선순위가 포함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9: 69)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자녀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자녀 가구 유아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V-2-2〉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0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42.6	43.7	1.7	12.0	100.0 (1,2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7	44.7	2.0	6.6	100.0 (578)
	외벌이	39.1	42.8	1.5	16.5	100.0 (684)
χ^2		30.67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5.5	38.6	1.4	14.5	100.0 (78)
	300~399만원	41.6	40.3	0.8	17.3	100.0 (261)
	400~499만원	42.6	45.9	1.7	9.7	100.0 (369)
	500~599만원	43.0	44.7	0.8	11.5	100.0 (251)
	600만원 이상	42.3	44.3	3.4	9.9	100.0 (303)
χ^2		18.38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자녀수	1명	37.8	44.7	3.9	13.6	100.0 (212)
	2명	41.4	46.2	1.0	11.3	100.0 (783)
	3명이상	49.9	35.4	2.0	12.7	100.0 (267)
	χ^2	18.905**				
지역규모	대도시	41.0	45.8	2.1	11.1	100.0 (513)
	중소도시	43.2	41.6	1.4	13.7	100.0 (562)
	읍면지역	45.3	44.0	1.5	9.2	100.0 (187)
	χ^2	5.658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3차년도 본 조사에서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38명의 유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0.4%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25.7%, 사회복지법인 4.9%, 직장 4.6%, 법인·단체 2.6%, 가정 1.3%, 부모협동어린이집 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가구소득 300~399만원이하에서 30.0%로 가장 이용률이 높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299만원이하 가구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은 모든 가구소득 구간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집 유형이긴 하지만 특히 가구소득 500~599만원이하에서 69.4%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은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에서 11.3%의 이용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특히 높아 33.7%에 달하였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9.0%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70.8%로 대도시 52.8%, 중소도시 63.2%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읍면지역은 유아들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이 10.1%로 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2-3〉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0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모름	계(수)
전체		25.7	4.9	2.6	60.4	1.3	4.6	0.2	0.4	100.0 (5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6	5.2	2.4	58.3	1.9	7.3	0.0	0.4	100.0 (270)
	외벌이	26.9	4.5	2.8	62.4	0.7	1.9	0.4	0.4	100.0 (268)
	χ^2	12.0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6	11.9	0.0	58.6	0.0	5.9	0.0	0.0	100.0 (36)
	300~399만원	30.0	5.7	4.0	54.7	0.0	4.7	0.0	0.9	100.0 (109)
	400~499만원	26.2	5.5	1.3	63.1	1.9	0.7	0.7	0.7	100.0 (157)
	500~599만원	22.1	1.9	2.0	69.4	2.8	1.8	0.0	0.0	100.0 (108)
	600만원 이상	25.2	3.9	4.2	54.6	0.8	11.3	0.0	0.0	100.0 (128)
	χ^2	41.927*								
총 자녀수	1명	21.8	2.6	1.4	70.4	1.3	2.5	0.0	0.0	100.0 (80)
	2명	26.1	4.9	2.9	59.5	1.5	4.5	0.3	0.3	100.0 (324)
	3명이상	27.3	6.1	2.5	56.4	0.8	6.2	0.0	0.8	100.0 (133)
	χ^2	7.556								
지역 규모	대도시	33.7	2.1	4.7	52.8	0.0	5.7	0.5	0.5	100.0 (210)
	중소도시	24.7	5.4	1.2	63.2	2.1	3.3	0.0	0.0	100.0 (243)
	읍면지역	9.0	10.1	1.1	70.8	2.2	5.6	0.0	1.1	100.0 (85)
	χ^2	43.95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다음으로 3차년도 본 조사에서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유치원을 이용하는 551명의 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설립유형은 사립유치원으로 67.2%가 이용하며, 국공립유치원은 32.8%가 이용하고 있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의 설립유형을 살펴본 결과,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먼저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서 자녀가 1명일 경우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25.5%였으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49.5%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 유치원의 설립유형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지역규모별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의 결과와는 반대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대도시 지역이 29.2%로 가장 낮고, 중소도시 31.1%, 읍면지역 47.7%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졌다.

〈표 V-2-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0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전체		32.8	67.2	100.0	(55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8	70.2	100.0	(258)
	외벌이	35.4	64.6	100.0	(293)
χ^2		1.98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3.6	66.4	100.0	(30)
	300~399만원	37.4	62.6	100.0	(105)
	400~499만원	35.9	64.1	100.0	(170)
	500~599만원	26.2	73.8	100.0	(112)
	600만원 이상	30.3	69.7	100.0	(134)
χ^2		4.359			
총 자녀수	1명	25.5	74.5	100.0	(95)
	2명	30.3	69.7	100.0	(362)
	3명이상	49.5	50.5	100.0	(94)
χ^2		15.390***			
지역규모	대도시	29.2	70.8	100.0	(235)
	중소도시	31.1	68.9	100.0	(234)
	읍면지역	47.7	52.3	100.0	(82)
χ^2		9.73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연구.

** $p < .01$, *** $p < .001$.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 중 마지막으로 반일제이상 학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3차년도 본 조사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중인 유아는 22명이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은 영어학원으로 65.9%가 이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타 유형 19.5%, 체육학원 9.7%, 놀이학원 4.9% 순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가 매우 적어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아 본문에서 생략하였다.

〈표 V-2-5〉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0년)

단위 : %(명)

구분	영어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계(수)	
전체	65.9	4.9	9.7	19.5	100.0	(2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연구.

한편, 유아들이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의 유형별로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수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287명,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263명,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10명였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이용 유아는 평균 3.0개, 유치원의 경우는 평균 2.9개,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도 평균 2.9개로 유사하였다. 가구특성별로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로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과목수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에 따른 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과목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은 대도시 지역의 유아는 평균 3.2개를 이용해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읍면지역 3.0개, 중소도시 2.6개로 중소도시의 유아가 가장 적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가구특성별·이용 기관별 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 (2020년)

단위 : 개,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수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과목수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수	
전체		3.0	(287)	2.9	(263)	2.9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	(140)	2.9	(131)	2.8	(6)
	외벌이	3.0	(147)	2.9	(133)	3.0	(4)
	<i>t</i>	-0.2		-0.4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	(17)	3.0	(9)	-	(-)
	300~399만원 이하	3.2	(51)	3.2	(50)	3.0	(1)
	400~499만원 이하	3.0	(91)	2.7	(75)	2.4	(2)
	500~599만원 이하	2.6	(62)	2.8	(54)	1.0	(1)
	600만원 이상	3.1	(67)	3.0	(75)	3.4	(6)
	<i>F</i>	1.9		0.8		0.7	
총 자녀수	1명	2.8	(50)	3.0	(52)	2.3	(4)
	2명	3.1	(166)	2.9	(177)	3.7	(3)
	3명이상	2.9	(71)	2.8	(34)	3.0	(3)
	<i>F</i>	1.3		0.2		0.6	
지역 규모	대도시	2.9	(95)	3.2	(108)	2.5	(4)
	중소도시	3.0	(141)	2.6	(124)	3.0	(5)
	읍면지역	3.1	(51)	3.0	(32)	4.0	(1)
	<i>F</i>	0.3		4.6*		0.3	
아동 연령	만4세	2.9	(114)	3.1	(70)	4.0	(1)
	만5세	3.1	(98)	2.8	(86)	4.0	(2)
	만6세	2.9	(76)	2.8	(108)	2.4	(7)
	<i>F</i>	0.6		1.0		1.1	

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2) 이용시간

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의 주당 이용 시간을 아동 연령별(4~6세), 연도별(1~3차)로 살펴보았다. 반일제이상 기관 들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연령대의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보다 이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6세의 경우 3차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주당 38시간24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이용시 33시간48분, 반 일제이상 학원 이용시 36시간24분 보다 주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36분 더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연도별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6세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3차년도 조사의 결과에서 각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 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3차년도 조사에서 기관 이용 시간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대비 현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시 대비 이용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관측치가 매우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V-2-7〉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이용시간 (2018~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만4세	3차(2020년)	37.5	(221)	35.1	(139)	34.2	(4)
	2차(2019년)	35.8	(254)	34.1	(134)	29.0	(9)
	1차(2018년)	35.2	(190)	34.3	(149)	27.5	(19)
만5세	3차(2020년)	38.0	(180)	35.0	(186)	33.1	(7)
	2차(2019년)	36.6	(160)	34.2	(226)	30.5	(9)
	1차(2018년)	35.9	(125)	34.8	(220)	28.6	(20)
만6세	3차(2020년)	38.4	(137)	33.8	(227)	36.4	(10)
	2차(2019년)	36.0	(128)	34.7	(258)	29.4	(14)
	1차(2018년)	35.5	(120)	34.3	(260)	28.6	(27)

-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3)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이용시간을 기관 유형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만4~6세 유아의 평균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37시간54분, 유치원 34시간30분, 반일제이상 학원 34시간54분으로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수준, 지역규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당 이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린이집 이용 유아는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평균 39시간54분을 이용하며, 외벌이 가구의 유아의 35시간48분 이용에 비해 평균 4시간6분 더 이용하고 있었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유아는 37시간30분, 외벌이 가구의 유아 31시간54분으로 맞벌이-외벌이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는 주당 38시간을 이용하나, 가구소득 300만원이상부터는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는 가구소득증가에 따라 유치원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경우 유치원 이용 유아의 이용시간이 599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3시간30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은 맞벌이 가구의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시간 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유치원 이용시간은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당 평균 37.0시간으로 이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며, 대도시(34시간)와 중소도시(34시간12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2-8〉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 (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37.9	(538)	34.5	(551)	34.9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9	(270)	37.5	(258)	33.7	(11)
	외벌이	35.8	(268)	31.9	(293)	36.3	(10)
	<i>t</i>	6.3***		7.4***		-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8.0	(36)	33.0	(30)	35.0	(1)
	300~399만원 이하	36.0	(109)	33.5	(105)	42.5	(2)
	400~499만원 이하	37.1	(157)	33.4	(170)	33.7	(6)
	500~599만원 이하	39.0	(108)	34.0	(112)	37.6	(2)
	600만원 이상	39.5	(128)	37.5	(134)	33.5	(10)
	<i>F</i>	3.9**		4.7***		1.6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총 자녀수	1명	37.9	(80)	35.1	(95)	34.4	(8)
	2명	37.6	(324)	34.3	(362)	34.7	(8)
	3명이상	38.7	(133)	34.7	(94)	36.1	(5)
	F	1.0		0.3		0.2	
지역 규모	대도시	37.2	(210)	34.0	(235)	36.6	(11)
	중소도시	38.2	(243)	34.2	(234)	32.4	(8)
	읍면지역	38.7	(85)	37.0	(82)	35.7	(3)
	F	1.5		3.5*		1.6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수요일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등원 및 하원 시간은 <표 V-2-9>와 같이 오전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4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5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V-2-9> 유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 (2020년)

단위 : %, (명)

하원	등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2:00	0.0	0.0	0.4	0.0	0.0	(2)
13:00	0.0	0.0	1.3	0.0	0.0	(7)	
14:00	0.0	0.2	0.7	0.2	0.0	(6)	
15:00	0.4	0.6	4.8	1.8	0.0	(40)	
16:00	0.2	5.2	36.1	6.0	0.0	(253)	
17:00	0.0	5.9	17.7	2.4	0.0	(138)	
18:00	0.2	4.0	6.2	1.0	0.0	(61)	
19:00	0.2	2.7	0.8	0.2	0.0	(21)	
20:00	0.0	0.2	0.2	0.2	0.0	(3)	
21:00	0.0	0.0	0.0	0.0	0.4	(2)	
(수)	(5)	(100)	(363)	(62)	(2)	(53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도 오전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4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5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17.9%에 해당하였다. 그 외 10시에 등원,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9.7%, 오전 9시에 등원 4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7.3%, 오전 9시

등원하여 오후 5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7.2% 순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주로 9~10시에 등원하고 3~5시에 하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V-2-10〉 유아의 등원시간별 유치원 하원시간 (2020년)

단위 : %, (명)

등원 \ 하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0:00	0.0	0.2	0.0	0.0	0.0	(1)
12:00	0.0	0.0	0.6	0.2	0.0	(4)
13:00	0.0	0.2	3.1	0.0	0.0	(18)
14:00	0.0	0.6	5.8	0.4	0.0	(36)
15:00	0.0	1.2	9.7	1.2	0.0	(64)
16:00	0.4	7.3	33.8	1.8	0.0	(230)
17:00	0.8	7.2	17.9	1.4	0.2	(146)
18:00	0.0	3.4	2.3	0.0	0.0	(30)
19:00	0.0	0.0	0.2	0.0	0.0	(1)
20:00	0.0	0.0	0.0	0.2	0.0	(1)
(수)	(6)	(106)	(389)	(27)	(1)	(530)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오전 10시 등원, 오후 4시 하원이 가장 일반적인 등하원 패턴으로 나타나 42.2%가 이에 해당하였다. 10시에 등원하여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19.0%에 해당하며, 10시 등원·5시 하원 10.2%, 9시 등원·3시 하원 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1〉 유아의 등원시간별 반일제이상 학원 하원시간 (2020년)

단위 : %, (명)

등원 \ 하원	7:00	8:00	9:00	10:00	11:00	(수)
13:00	0.0	0.0	0.0	0.0	0.0	(-)
14:00	0.0	0.0	0.0	0.0	0.0	(-)
15:00	0.0	0.0	10.0	19.0	9.2	(8)
16:00	0.0	0.0	0.0	42.2	0.0	(9)
17:00	0.0	0.0	0.0	10.2	0.0	(2)
18:00	0.0	0.0	4.9	4.6	0.0	(2)
19:00	0.0	0.0	0.0	0.0	0.0	(-)
20:00	0.0	0.0	0.0	0.0	0.0	(-)
(수)	(-)	(-)	(3)	(17)	(2)	(2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한편, 조사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유아가 기본보육시간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인 2월 29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2월 29일 이전부터 이용하고 있었다는 응답이 92.1%,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2월 29일 이전부터 이용했다는 응답은 만4세가 93.3%로 가장 높고, 만5세 91.4%, 만6세 91.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별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기본보육시간이 변동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던 유아 중 3월 1일 이후의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이 없는 경우가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단축된 경우가 10.0%, 증가한 경우가 6.5%로 변동이 있는 경우 단축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V-2-12〉 2020년 2월29일 이전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2020년)

단위 : %(명)

구분	2월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모름	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92.1	7.7	0.2	100.0 (538)	10.0	83.5	6.5	100.0 (495)
2016년생(4세)	93.3	6.7	0.0	100.0 (221)	7.2	85.0	7.8	100.0 (206)
2015년생(5세)	91.4	8.0	0.6	100.0 (180)	13.1	80.0	6.8	100.0 (164)
2014년생(6세)	91.1	8.9	0.0	100.0 (137)	10.6	85.5	4.0	100.0 (12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가구특성별로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7.8%로 외벌이 가구의 78.9%에 비해 8.9%포인트 높았고 외벌이 가구는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1.7%로 맞벌이 가구의 8.5%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300~399만원이하(12.5%), 500~599만원이하(15.3%)에서는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타 소득대에 비해 현저히 높고, 가구소득 400~499만원이하(88.9%), 600만원이상(87.3%)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 299만원이하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2.3%로 어떤 소득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는 바, 가구소득 299만원이하가 여아 자녀의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V-2-13〉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0	83.5	6.5	100.0	(495)
맞벌이 가구	맞벌이	8.5	87.8	3.7	100.0	(257)
	외벌이	11.7	78.9	9.5	100.0	(239)
여부		χ^2		8.5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	74.6	22.3	100.0	(32)
	300~399만원 이하	12.5	79.8	7.7	100.0	(93)
	400~499만원 이하	7.7	88.9	3.4	100.0	(149)
	500~599만원 이하	15.3	77.0	7.6	100.0	(99)
	600만원 이상	8.4	87.3	4.3	100.0	(121)
		χ^2		22.794**		
총 자녀수	1명	6.8	82.1	11.1	100.0	(76)
	2명	11.7	82.1	6.3	100.0	(300)
	3명이상	8.0	87.8	4.2	100.0	(119)
		χ^2		5.284		
지역 규모	대도시	11.7	82.5	5.8	100.0	(193)
	중소도시	9.5	82.7	7.7	100.0	(224)
	읍면지역	7.3	87.9	4.9	100.0	(79)
			χ^2		2.27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하원시간별로 18:00시 이후 하원한 경우에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증가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로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에 이용 시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임을 방증한다.

〈표 V-2-14〉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하원 시간별	16:00 전	12.4	83.4	4.2	100.0	(48)
	16:00	11.3	82.9	5.8	100.0	(232)
	17:00	10.9	84.2	4.9	100.0	(132)
	18:00 후	3.9	85.0	11.1	100.0	(76)
		χ^2		7.16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총 이용비용을 기관유형별·연도별·연령별로 살펴보았다. 3차 본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4세는 총 6만7천원, 만5세는 8만1천원, 만6세는 7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이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시, 동일연령대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2차년도 결과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3차 조사에서 만4세 14만6천원, 만5세 14만3천원, 만6세 11만1천원을 지출하여 만4세의 이용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차년도 및 2차년도와 비교 시 유치원 이용비용은 만5세를 제외하면 2차년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만5세의 경우만 1차~2차년도 13만9천원에서 3차년도 14만3천원으로 이용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이용비용이 매우 높았는데 3차 조사를 기준으로 만4세 68만원, 만5세 74만6천원, 만6세 92만6천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6세를 제외하고 만4세와 만5세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2차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비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V-2-15〉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2018~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비용	인원	비용	인원	비용	인원
만4세	3차(2020년)	6.7 (221)	14.6 (139)	68.0 (4)		
	2차(2019년)	9.0 (251)	15.4 (132)	71.1 (9)		
	1차(2018년)	9.7 (190)	15.1 (149)	58.3 (19)		
만5세	3차(2020년)	8.1 (180)	14.3 (186)	74.6 (7)		
	2차(2019년)	10.1 (160)	13.9 (221)	81.3 (9)		
	1차(2018년)	8.2 (125)	13.9 (220)	59.9 (20)		
만6세	3차(2020년)	7.2 (137)	11.1 (227)	92.6 (10)		
	2차(2019년)	9.0 (125)	14.6 (257)	60.2 (14)		
	1차(2018년)	9.2 (120)	12.5 (260)	57.7 (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총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 유치원 이용비용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반일제이상 학원은 맞벌이 여부,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자녀수가 적을수록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증가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유치원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 52만7천원을 지출하여 맞벌이 가구 108만5천원 대비 55만8천원이나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총자녀수가 2명인 경우 67만2천원을 지출하여 1명인 경우(12만2천원), 3명이상인 경우(42만원)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6〉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7.3	(538)	13.1	(551)	81.8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	(270)	13.7	(258)	108.5	(11)
	외벌이	7.1	(268)	12.5	(293)	52.7	(10)
	<i>t</i>	0.5		1.1		3.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	(36)	10.7	(30)	14.3	(1)
	300~399만원 이하	6.6	(109)	11.2	(105)	95.4	(2)
	400~499만원 이하	7.0	(157)	11.5	(170)	49.5	(6)
	500~599만원 이하	7.7	(108)	15.4	(112)	11.5	(2)
	600만원 이상	8.4	(128)	15.1	(134)	98.9	(10)
<i>F</i>		1.9		2.9*		2.2	
총 자녀 수	1명	9.4	(80)	16.3	(95)	12.2	(8)
	2명	7.1	(324)	13.3	(362)	67.2	(8)
	3명이상	6.5	(133)	8.8	(94)	42.0	(5)
	<i>F</i>	4.2*		7.5***		8.7**	
지역 규모	대도시	6.0	(210)	14.7	(235)	62.1	(11)
	중소도시	8.0	(243)	13.1	(234)	11.3	(8)
	읍면지역	8.3	(85)	8.3	(82)	67.6	(3)
	<i>F</i>	5.2**		6.7**		3.3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로 반일제이상 기관의 세부비용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보조금 외 추가보육료가 3차년도에 2차년도 대비 평균 3천원, 시간연장형 보육료가 1차 혹은 2차년도 대비 1천원 증가하였고, 그밖의 비용 2천원 특별활동비 3천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도 정부보조금 외 추가교육비가 평균 4천원 증가하였으나 그밖의 비용이 2차년도 대비 5천원, 방과후 과정비용 2천원, 특성화프로그램비 7천원 등 대체로 세부비용이 감소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수업료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3차년도에는 특별활동 비용이 2차년도 대비 16만4천원이나 증가하였다.

〈표 V-2-17〉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세부비용 (2018~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보육료/ 교육료/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시간 연장형 보육 /유치원 방과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 특성화/ 특별활동	총계	계	
어린이집	3차(2020년)	1.6	1.9	0.2	6.6	7.3	(538)
	2차(2019년)	1.3	2.1	0.1	6.9	9.3	(541)
	1차(2018년)	1.9	2.4	0.1	5.4	9.1	(435)
유치원	3차(2020년)	6.8	2.1	0.4	7.4	13.1	(551)
	2차(2019년)	6.4	2.6	0.6	8.1	14.5	(617)
	1차(2018년)	5.3	2.7	0.3	6.3	13.6	(630)
반일제 이상	3차(2020년)	64.8	7.3	-	22.8	81.8	(22)
	2차(2019년)	51.6	11.0	-	6.4	69.1	(32)
학원 등	1차(2018년)	45.8	6.6	-	9.8	58.5	(65)

주: 1) 어린이집은 보육료, 유치원은 교육료,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수업료를 의미함.

2) 어린이집은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해당없음.

3)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특별활동을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시간제 사교육(반일제 이상 기관 제외)

1) 이용기관

유아가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을 연령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3차 조사 결과에 서는 2020년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의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즉, 이전년도 조사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단지

비대면형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등)만이 약간 증가하였다.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는 3차년도에도 여전히 이용 비중은 가장 큰 주된 시간제 사교육 종류로 확인되었으나, 그 이용 비율은 1차~2차년도 대비 확연히 감소하였다. 만5세의 단시간 학원 이용률은 3차년도에 19.2%로 2차년도의 27.5%에 비해 8.3%포인트 하락했으며, 만6세의 경우는 2차년도 대비 11.3%포인트 하락해 하락 폭이 더 컸다. 이러한 3차년도 유아의 사교육 이용 형태 변화는 무엇보다 2020년 전 국민의 생활 전반을 위축되게 하였던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V-2-18〉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0년)

단위 : %, (명)

구분	연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수)
만4세	3차	11.8	12.5	1.0	5.1	0.7	1.8	0.2	(401)
	2차	12.2	17.5	2.4	3.4	1.0	2.4	7.8	(401)
	1차	12.2	17.3	1.9	3.8	1.9	2.6	12.0	(365)
만5세	3차	19.2	20.5	2.1	5.4	0.5	2.1	1.7	(433)
	2차	27.5	25.8	1.0	6.5	1.7	3.2	8.8	(398)
	1차	29.4	25.3	5.2	4.5	1.5	6.0	11.4	(366)
만6세	3차	37.8	28.9	2.8	8.3	2.1	2.6	1.2	(428)
	2차	49.2	31.5	3.1	5.9	1.4	6.9	8.8	(401)
	1차	41.7	37.2	2.9	4.4	1.4	7.8	11.4	(407)

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는데, 전체 유아 중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유아는 539명이며,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은 단시간 학원으로 54.2%가 이용하고 있었다. 방문형 학습지의 이용률도 높아서 48.8%에 달하였다. 즉, 단시간 학원과 방문형 학습지는 유아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사교육임을 알 수 있다. 비방문 학습지·온라인통신교육은 14.7%, 개인 및 그룹지도 5.1%,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4.7% 순으로 이용되고 있어 영아에 비해 학원과 방문형 학습지를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었다.

중복응답으로 차이검정은 불가하지만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어 가구소득 299만원이하에서는 50.3%가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였으나 600만원이상에서는 67%가 이용하고 있었다. 단, 가구소득 400~499만원이하 구간에서는 단시간 학원 이용이 가장 저조해 38.7%에 불과한 반면 방문형 학습지 이용은 51.6%로 방문형 학습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구간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적을수록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단시간 학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방문형, 비방문형 학습지나 교구활동교육, 문화센터 이용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학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형이나 비방문형으로 진행되는 개별적 사교육의 이용과 지역 내 문화센터의 이용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V-2-19〉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0년)

단위 : %,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수)
전체		54.2	48.8	4.7	14.7	2.6	5.1	2.4	(5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5	51.3	3.5	14.3	4.2	3.9	2.0	(262)
	외벌이	51.0	46.4	5.8	15.2	1.1	6.2	2.9	(27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0.3	41.7	0.0	12.5	3.8	4.2	0.0	(25)
	300~399만원	53.4	45.4	5.6	24.3	1.1	6.8	1.2	(89)
	400~499만원	38.7	51.6	6.1	17.9	2.1	3.4	5.3	(148)
	500~599만원	57.3	50.1	1.9	12.1	1.8	7.3	2.8	(111)
	600만원 이상	67.0	48.3	5.5	8.8	4.2	4.3	0.6	(165)
자녀수	1명	60.4	50.2	1.1	13.5	4.2	5.4	4.4	(93)
	2명	53.7	46.9	5.5	16.4	2.4	4.7	2.0	(344)
	3명이상	50.1	53.9	5.1	10.2	2.1	6.1	2.0	(102)
지역규모	대도시	55.1	49.5	3.4	16.4	1.9	3.4	1.9	(217)
	중소도시	54.3	47.2	4.6	12.7	2.5	6.8	2.5	(240)
	읍면지역	51.2	51.2	8.2	16.3	4.6	4.7	3.5	(82)

주: (수)는 시간제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하는 전체 수를 의미하며, 이용 비중은 각 서비스별 중복으로 전체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을 살펴보았다.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292명의 유아 중 가장 많은 49.1%가 체육 과목을 이용하고 있고, 그 밖에 미술은 33.1%, 음악 16.8%, 수학 및 과학 14.0%, 영어 12.2%, 영어 외 언어 10.4%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하는 유아 중 73.4%가 한글을 배우고 있고, 수학 및 과학 53.3%, 영어 14.2%, 미술과 종합교과 5.2% 순이었다. 방문형 교구활동은 수학 및 과학 과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43.6%), 미술 27.7%, 한글 24.5%, 영어 19.9%, 종합교과 7.9%, 체육 4.2%, 영어 외 언어 4.0% 순으로 나타났다.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은 예체능 과목은 미술 1.3%로 미미한 수준이고, 영어(47.7%), 한글(39.2%), 수학 및 과학(30.0%), 종합교과(29.7%) 등에 고르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방문 교구활동교육은 수학 및 과학(42.9%), 한글(35.3%)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고, 미술(14.5%), 종합교과(13.5%), 영어 외 언어(7.5%), 기타(7.2%), 영어(7.1%), 체육(7.1%)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지도는 미술(37.1%), 체육(26.4%), 음악(15.2%) 등 예체능의 이용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예체능 활동은 주로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고, 한글과 수학은 학습지와 교구활동을 주로 활용하며, 유아기에는 영어의 경우 비방문 학습지 혹은 온라인 통신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겠다.

〈표 V-2-20〉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0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49.1	16.8	33.1	12.2	0.0	10.4	14.0	0.0	2.8	(292)
방문형 학습지	1.1	0.0	5.2	14.2	73.4	7.4	53.3	5.2	2.4	(263)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4.2	0.0	27.7	19.9	24.5	4.0	43.6	7.9	11.8	(25)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0.0	0.0	1.3	47.7	39.2	9.5	30.0	29.7	2.5	(79)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7.1	0.0	14.5	7.1	35.3	7.5	42.9	13.5	7.2	(14)
개인 및 그룹지도	26.4	15.2	37.1	14.7	11.1	3.6	7.6	14.3	11.2	(27)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율은 모수를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유아가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별 이용시간을 유아 연령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만4세~만6세의 각 연령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3차년도 기준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만4세는 5시간30분, 만5세 4시간36분, 만6세 6시간18분이었으며 1차~2차년도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은 전 연령에서 증가하였다.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의 차이는 이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통신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이용시간에서 이전년도 보다 증가한 경우가 발견된다. 특히 만6세의 경우 단시간 학원이 2차년도 주당 3시간48분에서 3차년도 6시간18분으로 2시간30분이 증가하였고,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은 주당 1시간48분으로 2차년도보다 36분 증가하고,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도 42분 증가, 개인 및 그룹지도도 48분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률은 비대면 교육을 제외하면 하락하였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시간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0년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단시간 사교육이 더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만6세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연령대로 만4~5세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2-21〉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8~2020년)

단위 : 시간

구분	연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만4세	3차	5.5	0.6	0.7	1.0	1.2	2.3	1.0
	2차	2.5	0.6	0.6	1.0	1.4	1.5	1.1
	1차	3.2	0.5	1.0	1.0	2.1	1.4	1.0
만5세	3차	4.6	0.5	0.8	2.1	0.8	1.9	3.6
	2차	3.6	0.5	0.7	1.2	0.8	1.6	1.2
	1차	2.9	0.6	1.2	1.1	1.4	2.1	1.4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만6세	3차	6.3	0.6	0.9	1.8	2.8	2.0
	2차	3.8	0.6	0.8	1.2	2.0	1.4
	1차	3.4	0.7	1.3	0.8	2.2	1.5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을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의 이용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유아인 경우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의 이용시간이 외벌이 가구의 유아보다 평균적으로 길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로 이용시간에 다소 차이가 났으나,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인 경우에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모두 가장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가구의 유아가 단시간 학원의 이용시간이 5시간36분으로 다소 긴 것을 제외하면 단시간 학원과 방문형 학습지 이용시간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의 경우는 반대로 가구소득 600만원이상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2-22〉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전체	5.7 (292)	0.6 (263)	0.8 (25)	1.7 (79)	1.5 (14)	2.4 (27)	2.8 (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	0.6	1.0	2.3	1.7	1.4
	외벌이	4.8	0.5	0.7	1.1	0.7	3.7
	<i>t</i>	3.4***	2.5*	1.7	2.1*	1.2	-1.3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6	0.4	-	1.9	2.0	4.0	-
	300~399만원 이하	4.2	0.6	0.9	2.2	0.5	2.2	2.0
	400~499만원 이하	4.3	0.5	0.6	1.1	0.8	3.0	3.2
	500~599만원 이하	5.8	0.6	0.4	1.5	2.7	3.1	2.6
	600만원 이상	7.0	0.7	1.1	2.1	1.5	0.9	1.0
	F	5***	3.0*	3.2*	0.7	0.9	2.8	0.1
총 자녀수	1명	5.4	0.6	0.7	3.1	1.5	1.3	1.5
	2명	5.4	0.6	0.9	1.5	1.7	2.3	2.5
	3명이상	7.1	0.5	0.7	1.1	0.8	3.4	6.5
	F	2.8	1.1	0.3	2.6	0.4	2.5	2.1
지역 규모	대도시	6.4	0.6	0.7	2.0	0.7	2.9	1.8
	중소도시	5.1	0.6	0.7	1.6	1.3	2.0	4.3
	읍면지역	5.6	0.5	1.1	1.0	2.6	3.0	1.0
	F	2.4	1.8	2.0	0.8	3.3	1.1	1.5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유아가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을 한글, 영어, 영어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는 '학습관련 사교육'으로, 체육·음악·미술 등을 '예체능 관련'으로 구분하여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로 학습과 예체능 이용시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단시간 학원은 예체능 학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주당 평균 5시간6분을 이용하여 학습관련 학원을 이용할 때의 4시간36분보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은 예체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학습관련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다소 길어서 주당 평균 예체능 48분, 학습관련 42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 학습지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예체능보다는 학습관련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방문형 학습지는 학습관련으로 주당 평균 36분, 예체능으로 30분 이용하며, 비방문 학습지와 온라인통신교육은 학습관련으로 1시간42분, 예체능으로 1시간30분 이용하였고,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도 학습관련으로 1시간36분 이용하여 예체능 1시간6분에 비해 30분가량 길게 이용하였다.

〈표 V-2-23〉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시간 (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학습관련 학원		예체능 학원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4.6	(98)	5.1	(237)
방문형 학습지	0.6	(251)	0.5	(23)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0.7	(17)	0.8	(1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7	(76)	1.5	(3)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6	(11)	1.1	(3)
개인 및 그룹지도	2.1	(11)	2.1	(20)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비용을 아동연령별·연도별로 비교해 보았다. 유형별로는 이용시간이 가장 긴 단시간 학원의 이용비용이 대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연도별·연령에 따라서는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 보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이용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3차년도의 경우 만4세의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이 13만2천원으로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인 12만2천원보다 1만원 높았으며, 만6세의 경우도 2차년도 결과에서 단시간 학원 14만4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이 17만5천원으로 3만1천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시간 학원이나 개인 및 그룹지도 등의 사교육은 이용 과목별 시간당 단가의 편차가 크고,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통합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그룹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향성을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3차년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그룹지도 보다는 개인지도가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용시간도 1차~2차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개인 및 그룹지도의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V-2-24〉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8~2020년)

단위 :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만4세	3차	12.2	7.8	8.8	7.0	7.1	13.2	3.8
	2차	11.9	6.7	10.3	9.0	7.1	12.4	4.2
	1차	12.9	6.2	9.2	6.8	5.4	13.4	4.5
만5세	3차	16.3	7.3	9.0	7.5	13.3	14.2	6.2
	2차	12.5	6.2	6.9	6.2	10.0	11.5	4.1
	1차	12.3	7.1	10.6	6.2	18.7	9.9	4.2
만6세	3차	18.4	8.4	12.1	9.1	10.5	14.9	3.6
	2차	14.4	7.9	8.3	8.7	7.9	17.5	5.1
	1차	13.3	7.7	11.1	5.0	3.0	13.3	5.1

주: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각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시간제 사교육 유형 중에서 평균적으로 단시간 학원의 이용비용이 가장 높아 16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및 그룹지도 14만2천원,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0만4천원,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10만2천원,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8만1천원, 방문형 학습지 7만9천원 순이었다.

단시간 학원과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의 이용비용은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유아의 단시간 학원과 방문형교구활동교육의 이용비용이 외벌이인 경우에 비해 높아서, 단시간 학원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18만3천원, 외벌이인 경우 1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방문형교구활동교육은 맞벌이인 경우 14만3천원을 지출하여 외벌이인 경우의 8만2천원에 비해 약 74.4%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단시간 학원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방문형 교구활동교육의 경우는 가구소득 300만~399만원대의 유아와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인 유아의 비용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V-2-25〉 가구특성별 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전체		16.8 (292)	7.9 (263)	10.4 (25)	8.1 (79)	10.2 (14)	14.2 (27)	4.9 (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3	8.4	14.3	7.8	11.5	15.8	1.6
	외벌이	15.2	7.4	8.2	8.3	5.4	13.3	6.6
	<i>t</i>	2.4*	1.6	2.8**	-0.5	1.2	0.6	-1.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5	6.9	.	11.7	3.8	24.8	
	300~399만원 이하	15.0	7.6	10.4	8.2	3.8	10.8	3.3
	400~499만원 이하	13.6	7.2	7.4	8.3	6.7	17.9	5.3
	500~599만원 이하	16.0	8.9	3.3	7.8	11.8	15.4	4.7
	600만원 이상	20.3	8.3	15.2	7.1	13.0	11.6	
	<i>F</i>	4.5**	1.3	6.0**	0.6	0.7	0.7	0
총 자녀수	1명	18.5	7.9	12.4	10.7	9.4	13.6	2.0
	2명	16.7	8.1	11.3	7.6	12.5	13.0	6.8
	3명이상	15.5	7.5	7.0	7.4	2.9	17.8	2.9
	<i>F</i>	0.9	0.3	1.1	2.4	1.4	0.5	0.6
지역 규모	대도시	16.3	8.6	8.9	7.8	6.7	15.8	2.7
	중소도시	17.9	7.6	11.5	9.0	13.0	14.7	7.2
	읍면지역	15.1	7.0	10.4	7.0	9.6	8.8	2.5
	<i>F</i>	1.1	2.3	0.4	1.0	0.8	0.6	0.7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다. 기타서비스

유아의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의 이용여부, 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을 살펴 보았다. 시간제 일시보육은 이용 사례가 전체 유아 1,262명 중 21사례에 불과해 매우 적었으나(1.7%) 이용하는 유아는 월평균 10회, 1회당 2시간54분, 월평균 1만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키즈카페는 유아의 16.5%가 이용하여 이용 경험이 비교적 높았고, 월평균 이용횟수는 1.5회, 1회당 2시간12분 이용, 1시간당 8천원을 지출하였다.

〈표 V-2-26〉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2020년)

단위 : %, 회, 시간,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중	횟수	시간	비용
시간제 일시보육	1.7 (1,262)	10.0 (21)	2.9 (21)	월평균 1.9 (21)
키즈카페	16.5 (1,262)	1.5 (208)	2.2 (208)	시간당 0.8 (208)

주: 시간제 일시보육의 비용은 월평균 비용이며, 키즈카페는 시간당 이용비용으로 조사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3. 초등학교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가. 공공 기관 지원 서비스

1) 이용서비스 개관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이용 중인 육아서비스를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 학교는 4.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6%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21.6%로, 3.9%가 이용 중인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등돌봄교실은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다소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관련 센터 이용 비율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 응답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8.5%에 그쳤다.

〈표 V-3-1〉 가구특성별 육아서비스 이용 (2020년)

단위 : %,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수)
전체		11.9	4.5	2.6	(9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6	4.5	3.5	(408)
	외벌이	3.9	4.5	1.8	(501)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수)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3	6.0	6.2	(65)
	300~399만원	6.0	3.4	2.3	(178)
	400~499만원	10.6	4.1	2.7	(260)
	500~599만원	14.7	5.9	2.0	(187)
	600만원 이상	16.2	4.2	2.1	(218)
자녀수	1명	12.1	4.6	2.2	(182)
	2명	12.0	4.4	2.6	(529)
	3명이상	11.3	4.6	2.8	(198)
지역규모	대도시	13.5	5.5	3.0	(366)
	중소도시	8.5	3.6	2.3	(406)
	읍면지역	17.4	4.6	2.3	(13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에게 요일별 하교시간을 질문한 결과, 모든 요일에서 오후 4시 하교가 약 1/3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 23~25%가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오후 1시 하교 응답 비율도 9~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초등 긴급돌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V-3-2〉 요일별 초등돌봄교실 하교시간 (2020년)

단위 : %, (명)

요일 하교	월	화	수	목	금	(수)
13:00	11.1	9.2	11.9	11.0	11.9	(56)
14:00	14.8	15.3	13.0	15.5	13.8	(74)
15:00	15.0	19.0	15.0	16.8	15.8	(83)
16:00	32.6	30.3	34.6	31.2	32.7	(164)
17:00	24.7	24.5	23.7	23.7	24.0	(123)
18:00	1.1	1.1	1.1	1.0	1.1	(5)
19:00	0.0	0.0	0.0	0.0	0.0	(-)
20:00	0.0	0.0	0.0	0.0	0.0	(-)
21:00	0.8	0.8	0.8	0.8	0.8	(4)
(수)	(102)	(100)	(102)	(103)	(102)	(50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유형을 질문한 결과, 오후 5시 이후 저녁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아침돌봄 이용은 16.5%, 오후 돌봄 이용은 92.5%로 나타나, 이용자의 대다수가 초등돌봄교실의 오후 돌봄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 수는 맞벌이 가구가 88명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오후 돌봄 이용 응답이 90.8%인데 비해, 외벌이 가구는 100%가 오후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한부모 가구 및 저소득 가구도 우선 이용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가구소득별 비교 결과에서 아침 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 가구소득 집단은 500~599만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인 가구는 100% 오후 돌봄을 이용하는데 비해,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85.2%만 오후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초등돌봄교실보다 시간제 사교육 혹은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총 자녀수별 비교에서는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아침 돌봄 이용률이 3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오후 돌봄은 82.4%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비해 낮았다. 지역규모별 비교 결과에서, 읍면지역의 경우 아침 돌봄 이용은 3.3%로 매우 낮고, 오후 돌봄은 10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별로는 만8세가 만7세에 비해 아침 돌봄 이용 비율이 다소 높고, 오후 돌봄은 만7세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3-3〉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유형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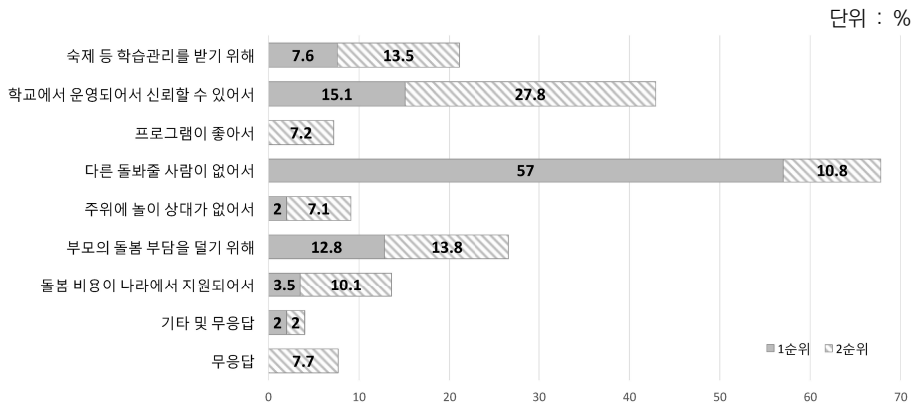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수)
전체		16.5	92.5	(1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6	90.8	(88)
	외벌이	16.2	100.0	(1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7	100.0	(7)
	300~399만원	8.6	100.0	(11)
	400~499만원	17.9	93.3	(28)
	500~599만원	21.0	96.2	(28)
	600만원 이상	14.8	85.2	(35)
총 자녀수	1명	31.1	82.4	(22)
	2명	13.8	96.7	(64)
	3명이상	9.7	90.3	(22)

구분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수)
지역 규모	대도시	15.4	92.3	(49)
	중소도시	27.2	87.5	(34)
	읍면지역	3.3	100.0	(24)
아동 연령	만7세	14.0	96.4	(56)
	만8세	19.3	88.2	(52)

주: 저녁 돌봄 이용자 전혀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3-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주: 총 108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7%가 1순위로 다른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초등 자녀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교에서 운영되어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2순위 합산 결과에서도 다른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운영되어 신뢰 가능하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과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먼저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돌봄이라는 점에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특히 방학중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끝나고 학교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시간이 너무 비어있는데 학교에서 좀 더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방과 후도 한두개 들을 수 있고.. 또 큰애 보내봤을 때 괜찮아서.. 그래서.. 둘째는 입학할 때 신청했어요..(면담8 면담자A)

방학 같은 때는 아무리 학원을 뭐 두세 군데 보내도 직장 끝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잖아요. 시간이 학원이 한 군데당 한 두 시간씩밖에 안 하는데 학원을 막 다섯 여섯 군데로 이렇게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3학년이라고 해도 간식을 먹는데 밥은 잘 챙겨먹기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국이나 이런 거 끓여먹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돌봄교실 어쨌든 이용하면 밥을 주잖아요.(후략) (면담6 면담자A)

방학기간 중에도 봐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거예요(면담7 면담자C)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과 관련하여 만족도와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이용할 의사는 높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와의 대체 관계와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우선은 초등학교 돌봄 시스템에 보내기가 그냥 별로 신뢰가 안 가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평이 없어서 덜 보내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랑 함께 가는 태권도 학원 선택해서 그거 위주로 해서 스케줄을 짜 놓은 거예요. (후략) (면담5 면담자A)

저도 1학년 때 돌봄을 하는데 4시에서 4시 반 정도면 아이들이 다 간대요. 진짜 오래 있는 아이들은 4시 반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5시면 다 간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오후 저녁 시간을 맡기고 싶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아이가 혼자 남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 한명 때문에 선생님을 남게 하는 것도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시간을 이때까지는 힘든 거 같아요 여러모로.(면담6 면담자B)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7시까지 맡길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내문에 처음부터 일곱 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늦게 데리러 간 거 보면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면담6 면담자A)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게 저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돌봄교실이 최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만약 조금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면담7 면담자C)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시간에 학교에서 도움을 받기원해서 초등돌봄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 다섯시까지 이용하게 하더라도 아이가 온종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조금.. “나

는 자주 남아있을까? 나혼자네? 두 번째네?” 그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모습에 미안함, 죄책감에 (중략) 그러면 새로운 전환,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면 그나마 갇혀있던 시간에서 아이들은 조금 해방됐다? 라는 느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끔 합니다.(면담7 면담자A)

저희도 학교가 5시까지밖에 안해요.. 돌봄교실.. 4시면 애들이 다 빠지죠.. 저희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라서.. 방학 때도 길게 안하고 평소에도 길게 안하고..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면담8 면담자B)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끝까지 이용할 것 같지는 않은게.. 그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데리러 갈 사람은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말이 예체능 같은 것은 저학년 때 다시켜야한다고 해야 해서.. 고학년 때는 공부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방과 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면담8 면담자C)

맞벌이 육아 가구 부모들은 온종일돌봄지원체계 하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의 수업시수 자체가 늘어나서, 초등돌봄교실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더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관련 질문) 시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돌봄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수업이 조금 더 담임 선생님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놀이 같은 수업이라도요.(면담6 면담자C)

저 같은 경우 초등 돌봄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처럼 그 쪽 그 시간이 다 같이 할 수 있고 누가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같이 하원 시간이나 그런 게 중간에 좀 노는 시간이나 이렇게 켜져 있어 같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학원으로 안 보낼 거 같아요.(면담5 면담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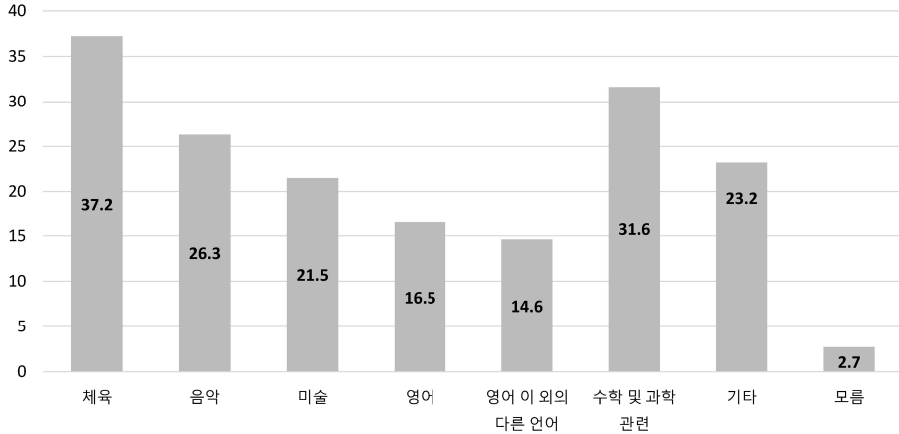
4교시는 짧거든요. 4교시라 하면 점심 먹고 1시에 오는 건데 수업시간은 2시 이후로 하면 좋을 거 같긴 해요.(면담5 면담자A)

3)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총 41명에게 이용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체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학 및 과학 관련 프로그램 이용이 31.6%, 음악이 26.3%, 기타 프로그램이 23.2%, 미술이 21.5%, 영어가 16.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가 14.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예체능 과목의 이용 비율이 다른 교과목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3-2] 방과후학교 이용 (2020년, 중복응답)

단위 : %



주: 총 41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심층면담 과정에서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주로 예체능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 높은 편이었다.

1학년 때 방과 후를 했었어요. 돌봄도 하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긴급돌봄만 한다고 하고 근데 알아보니깐 한 명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거기를 보내는 거를 조금 아이한테 아닌 거 같아서 안하기로 했었거든요. 1학년 때는 그냥 방과 후 교실은 학교 끝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1학년 때는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서 운동하는 거 말고는. 그때는 방과 후를 많이 했어요.(면담6 면담자B)

저는 저학년이라서 공부 위주보다는 약간 바둑이라든가 방송 댄스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해 줬었거든요. 약간 놀이하듯이 하라고. (중략) 맞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시간을 떼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처음에 입학하고 인제 그 종류가 뭐뭐 있다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학년이라서 공부 위주보다는 아예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더니 공부 쪽 아예 빼고 (중략) 방송댄스, 탁구, 요리제빵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정말 취미만 즐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략) 아이도 공부가 아니라 그런가 되게 재밌어했고. 그리고 뭐 학원 이런 데는 그런 요리 제빵 이런 거는 흔치 않은 거라서 아이한테 보면 학원으로는. 학교에서 또 학교가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깐 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종류를 이제 아이가 경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만족도가 컸어요.(면담6 면담자A)

방과후학교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5.7시간이며, 주당 평균 이용 개수는 1.8개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구특성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7.4시간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3.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평균 이용시간이 4.3시간으로 가장 짧고, 이용 개수도 1.5개로 가장 적었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경우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대도시의 방과후학교 이용시간과 이용 개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3-4〉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주당 이용 시간 및 이용 개수 (2020년)

단위 : 시간, 개, (명)

구분		이용시간	이용 개수	(수)
전체		5.7	1.8	(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	1.8	(18)
	외벌이	4.3	1.7	(22)
	<i>t</i>	2.0	0.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	2.0	(4)
	300~399만원 이하	6.3	2.2	(6)
	400~499만원 이하	6.8	1.7	(11)
	500~599만원 이하	5.3	1.7	(11)
	600만원 이상	4.3	1.5	(9)
	<i>F</i>	0.3	0.5	
총 자녀수	1명	5.6	1.6	(8)
	2명	5.9	1.7	(23)
	3명이상	5.3	2.0	(9)
	<i>F</i>	0.1	0.4	
지역 규모	대도시	6.3	1.9	(20)
	중소도시	4.6	1.7	(14)
	읍면지역	5.9	1.5	(6)
	<i>F</i>	0.5	0.4	
아동 연령	만7세	6.1	1.9	(18)
	만8세	5.3	1.6	(23)
	<i>t</i>	0.5	0.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방과후학교를 이용 중인 가구에게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영어 과목의 월평균 이용비용이 7만3천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수학 및 과학이 3만9천원, 체육이 3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과목들은 3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V-3-5〉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수)
전체	3.8	3.2	3.3	7.3	2.9	3.9	3.4	(4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방과후학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으나 현재 이용시간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방과후학교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이용자 중 4분의 1 정도는 방과후학교를 짧게 이용하고 이어서 다른 기관 및 사교육 이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겹쳐서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24.5%로 높게 나타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추가 이용을 원하나 선착순, 추첨에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도 20.2%였으며,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더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도 18.2%를 보였다. 이 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5.8%였다.

〈표 V-3-6〉 방과후학교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선착순, 추첨에 떨어져서	원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겹쳐서	기타	계(수)
전체	18.2	25.0	5.8	20.2	24.5	6.2	100.0 (1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시간제 사교육

1) 이용기관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 유형을 질문한 결과, 단시간 학원 이용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만7세의 경우 60.9%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8세는 이보다 높은 69.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와 비교하면 만7세의 경우 약 2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원 운영이 중단되거나 대면으로 하는 집체교육을 기피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방문형 학습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만7세가 27.2%로 만8세보다 3.1%포인트 높았다. 방문형 학습지 이용도 2차년도에 비해 5.1%포인트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 감소한 사교육 유형은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문화센터이다.

반면,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증가한 시간제 사교육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유형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나 소그룹, 일대일 방식의 사교육을 선호하게 되면서 발생한 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7〉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9~2020년)

단위 : %,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센터	(수)
만7세 (초등1)	3차	60.9	27.2	1.5	10.1	1.4	6.8	1.2	(431)
	2차	81.0	32.3	0.0	7.4	-	5.2	4.3	(443)
만8세 (초등2)	3차	69.2	24.1	2.8	10.5	1.0	6.2	1.2	(478)

주: 1)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 교육은 2차년도 설문에 없는 항목임.

2) 1차년도에는 초등 자녀가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2차년도에 만7세가 포함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로 이용하고 있는 과목을 이용률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 과목을 이용하는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이 39.4%, 영어가 32.8%, 미술이 23.9%였다. 즉, 초등 저학년의 경

우 예체능과 영어를 중심으로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형 학습지에서는 수학 및 과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70%로 매우 높았으며, 한글이 51.1%, 영어가 24.6%로 나타났다. 방문형 교구 활동 사교육 이용은 영어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교과 이용은 31%, 수학 및 과학은 28.7%였다.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은 종합교과가 44.9%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영어는 29.4%, 수학 및 과학은 24.8%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 추가된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은 한글 이용률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 및 과학은 44.9%, 영어는 44.3%였다. 방문형 학습지는 주로 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그룹지도에서는 영어 이용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음악은 26.9%, 종합교과는 21.4%로 나타났다.

〈표 V-3-8〉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2020년)

단위 : %,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모름	(수)
단시간 학원	53.9	39.4	23.9	32.8	0.0	14.3	19.1	0.0	4.7	1.7	(593)
방문형 학습지	0.9	0.5	1.3	24.6	51.1	19.1	70.0	13.4	2.4	0.0	(23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15.2	5.6	0.0	36.0	0.0	5.6	28.7	31.0	8.6	0.0	(20)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2.0	3.0	0.0	29.4	13.8	11.6	24.8	44.9	1.1	0.0	(95)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9.5	0.0	0.0	44.3	46.6	9.5	44.9	17.8	8.3	0.0	(11)
개인 및 그룹지도	16.2	26.9	19.5	30.0	6.3	0.0	14.6	21.4	10.4	0.0	(61)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률은 모수를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이용률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개인 및 그룹지도도 주당 이용시간이 2시간 증가하였으며,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도 다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만7세 이용률이 감소한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의 경우에도 주당 이용시간은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8세인 초등 2학년은 초등 1학년에 비해 단시간 학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문화센터 주당 이용시간이 약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9~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만7세 (초등1)	3차	8.4 (262)	0.8 (117)	1.1 (7)	1.9 (44)	1.7 (6)	3.6 (30)	1.4 (5)
	2차	6.2 (359)	0.7 (143)	- -	1.6 (33)	- -	1.6 (23)	1.6 (19)
만8세 (초등2)	3차	9.8 (331)	0.8 (115)	2.3 (13)	1.7 (51)	1.0 (5)	2.4 (31)	2.4 (6)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유형은 단시간 학원과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 교육이다. 먼저 단시간 학원은 맞벌이 가구의 이용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1시간36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도 증가하였다. 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비교하면 3시간 차이를 보였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8시간6분으로 1자녀 혹은 2자녀 가구에 비해 1시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 교육도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1시간12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체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자녀의 교육 및 돌봄의 일정 부분을 시간제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V-3-10〉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전체		9.2 (593)	0.8 (232)	1.9 (20)	1.8 (95)	1.4 (11)	3.0 (61)	1.9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	0.8	2.0	2.4	2.7	3.8	1.5
	외벌이	8.4	0.8	1.7	1.2	1.1	2.2	2.1
	t	4.0***	0.2	0.3	2.8**	1.0	1.8	-0.5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센터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7	0.6	-	0.6	-	1.0	1.0
	300~399만원 이하	8.5	0.8	2.4	1.7	2.0	2.9	1.0
	400~499만원 이하	8.6	0.8	1.2	1.4	1.2	2.8	2.9
	500~599만원 이하	8.9	0.8	-	1.4	1.0	4.1	3.0
	600만원 이상	10.7	0.7	1.7	2.7	0.8	2.9	2.0
	F	5.3***	0.3	0.5	2.1	0.7	0.3	1.5
총 자녀수	1명	9.2	0.7	2.7	1.4	0.5	5.4	1.7
	2명	9.5	0.9	1.6	1.6	1.4	2.4	2.1
	3명이상	8.1	0.6	1.7	2.5	1.6	3.2	-
	F	3.1*	1.2	0.4	1.7	0.3	2.8	0.2
지역 규모	대도시	9.3	0.9	2.6	2.0	1.5	3.3	2.1
	중소도시	8.9	0.7	1.4	1.5	1.3	2.4	1.0
	읍면지역	9.8	0.8	2.0	2.1	-	4.3	-
	F	1.2	0.4	0.7	1.0	0.1	1.0	0.5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3) 이용비용

초등1학년 자녀의 시간제 사교육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월 23만2천원이며, 개인 및 그룹 지도도 월 21만8천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이 월 15만8천원,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은 월 14만천원이었다. 이 외에 이용비용은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문화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2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초등1학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초등2학년의 경우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의 이용비용이 월 29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시간 학원은 월 27만1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는 월 18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만7세인 초등1학년과의 이용비용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이 많은 유형이 이용비용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차년도의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문화센터를 제외하고 2차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이용률과 이용시간이 증가한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 교육의 경우는 이용비용도 6만1천원이 증가하여 증가 폭이 컸다.

〈표 V-3-11〉 연령별 및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9~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만7세 (초등1)	3차	23.2 (262)	9.9 (117)	15.8 (7)	14.1 (44)	8.1 (6)	21.8 (30)	3.4 (5)
	2차	22.0 (359)	8.2 (143)	- (-)	8.0 (33)	- (-)	11.9 (23)	4.9 (19)
만8세 (초등2)	3차	27.1 (331)	10.0 (115)	29.8 (13)	9.6 (51)	10.7 (5)	18.6 (31)	6.3 (6)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이용시간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 학원,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단시간 학원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월 이용비용이 19만3천원인데 비해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이용비용은 31만1천원으로 나타나 월 11만8천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구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제한적인 소득 내에서 자녀별로 분산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자녀당 이용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3-1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전체		25.4 (593)	10.0 (232)	25.1 (20)	11.7 (95)	9.3 (11)	20.2 (61)	4.8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2	10.5	35.8	15.3	16.0	24.8	5.0
	외벌이	22.7	9.5	12.8	8.2	7.8	15.8	4.8
	t	3.9***	1.2	1.8	2.0	2.8*	2.2*	0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3	9.6	-	7.8	-	9.5	2.9
	300~399만원 이하	22.4	9.7	18.1	9.9	6.9	16.4	3.1
	400~499만원 이하	22.3	10.1	13.6	8.9	8.6	18.7	7.2
	500~599만원 이하	25.9	9.8	-	10.6	10.0	23.5	2.9
	600만원 이상	31.1	10.3	33.8	17.8	14.1	23.3	9.5
	F	7.7***	0.1	0.7	1.1	1.1	0.5	0.7
총 자녀수	1명	27.9	9.9	12.1	10.2	15.3	28.2	2.9
	2명	25.7	10.4	35.3	12.2	9.3	18.9	6.2
	3명이상	20.9	8.8	13.0	11.3	7.4	19.4	-
	F	4.9**	1.2	1.2	0.1	1.0	1.1	1.6
지역 규모	대도시	25.0	10.9	45.4	10.5	11.4	21.7	5.1
	중소도시	25.8	9.4	14.4	13.2	6.8	19.1	2.9
	읍면지역	25.1	8.9	20.5	9.9	-	19.8	-
	F	0.1	2.1	2.2	0.3	3.1	0.2	0.2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사교육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시간 학원의 과목별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월 19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과목은 수학 및 과학으로 월 13만2천원이었으며, 체육은 월 13만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음악 과목 이용비용은 월 11만9천원, 기타 과목은 월 11만4천원, 영어 외 언어는 월 10만4천원, 미술은 월 10만원 순이었다.

〈표 V-3-13〉 유형별(단시간학원)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0년)

단위 : 만원,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수)
단시간 학원	13.1	11.9	10.0	19.2	10.4	13.2	11.4	(593)

주: 1)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4.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은 1차년도에는 아동별로 질문하였으나, 2차년도 이후 가구용 조사에서 가구 단위로 서비스 이용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25가구로, 개별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가 77.3%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13.8%, 아이돌보미는 6.7%, 민간 육아도우미가 5.3%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2차년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이용 가구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조부모 돌봄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4-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0년, 중복응답)

단위 :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3차(2020년)	6.7	5.3	77.3	13.8	(225)
2차(2019년)	17.1	7.8	68.9	11.9	(193)

주: 1)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비율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3)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가구특성별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 및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비율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는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맞벌이에 비해 높았다. 이는 부모 외에 자녀의 개별돌봄 시간이 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제공자로 가족 내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4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기준이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에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13.9%로 2명 자녀 가구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부모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조부모를 통해 자녀 개별돌봄을 하는 비율이 65.6%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4-2〉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0년)

단위 :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모름/무응답	
전체		5.3	4.2	61.3	10.9	20.8	(2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	3.3	64.7	11.6	18.7	(241)
	외벌이	14.0	9.3	41.9	7.0	32.6	(4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1	7.7	38.5	0.0	30.8	(13)
	300~399만원	12.0	0.0	72.0	4.0	16.0	(25)
	400~499만원	8.5	2.1	63.8	12.8	14.9	(47)
	500~599만원	0.0	4.2	73.6	8.3	19.4	(72)
	600만원 이상	3.9	5.5	53.5	14.2	23.6	(127)
총 자녀수	1명	3.4	4.2	63.9	10.1	19.3	(119)
	2명	4.7	4.7	61.2	11.6	21.7	(129)
	3명이상	13.9	2.8	52.8	11.1	22.2	(36)
지역규모	대도시	4.7	3.1	65.6	7.8	19.5	(128)
	중소도시	6.2	5.3	57.5	11.5	22.1	(113)
	읍면지역	4.7	4.7	58.1	18.6	20.9	(43)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개별돌봄서비스 평균 동시 돌봄 자녀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1.3명, 조부모 및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1.5명으로 크게 제공자 유형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년도 자료와의 비교에서도 큰 변동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의 경우 2차에서는 동시 돌봄 자녀수가 1.2명이었으나 3차년도에는 1.5명으로 0.3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차년도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민간 육아도우미가 월 평균 70만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월 40만8천원, 조부모 돌봄은 월 30만7천 원이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가 월 24만5천원으로 가장 이용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하면,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돌봄에서 모두 이용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은 월 11만7천원 축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조부모 돌봄도 월 10만8

천원 감소하였다. 반면,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은 동시돌봄 자녀수뿐만 아니라 월 이용비용도 크게 증가하여,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평균 22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민간 육아도우미가 주당 20시간24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아이돌보미는 주당 20시간42분이었다. 한편, 조부모 돌봄은 주당 22시간 18분이었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주당 22시간42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하면, 아이돌보미와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의 이용시간이 약 4시간씩 증가하였다. 반면, 조부모 돌봄은 약 4시간 감소하였으며,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시간은 8시간 이상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 따라서 민간 육아도우미의 월 이용비용의 감소는 이용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V-4-3〉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이용비용/이용시간 (2019~2020년)

단위 : 명, 만원, 시간, (명)

구분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비용	이용시간	(수)	
여성가족부	3차	1.3	24.5	20.7	(15)
아이돌보미	2차	1.5	27.8	16.9	(33)
민간	3차	1.3	70.0	20.4	(12)
육아도우미	2차	1.4	81.7	28.8	(15)
조부모 돌봄	3차	1.5	30.7	22.3	(170)
	2차	1.5	41.5	26.4	(133)
조부모 외	3차	1.5	40.8	22.7	(31)
친인척 돌봄	2차	1.2	17.8	18.8	(23)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5. 긴급돌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을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에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18.6%,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센터 이용은 8.9%에 그쳤다. 1+2+3순위 응답 기준, 역시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8.6%였다. 합산 순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아버지가 연월차 휴가 사용으로 22.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지만 계속 발생하는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버지들도 휴가를 평소보다 더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 있었다는 응답도 1순위에서 7.4%, 합산 순위에서 20.5%로 나타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방임도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 지정 돌봄기관 이용은 합산 순위에서도 18.5%에 그쳐, 긴급 상황에서 이용률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V-5-1〉 맞벌이 가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 (2020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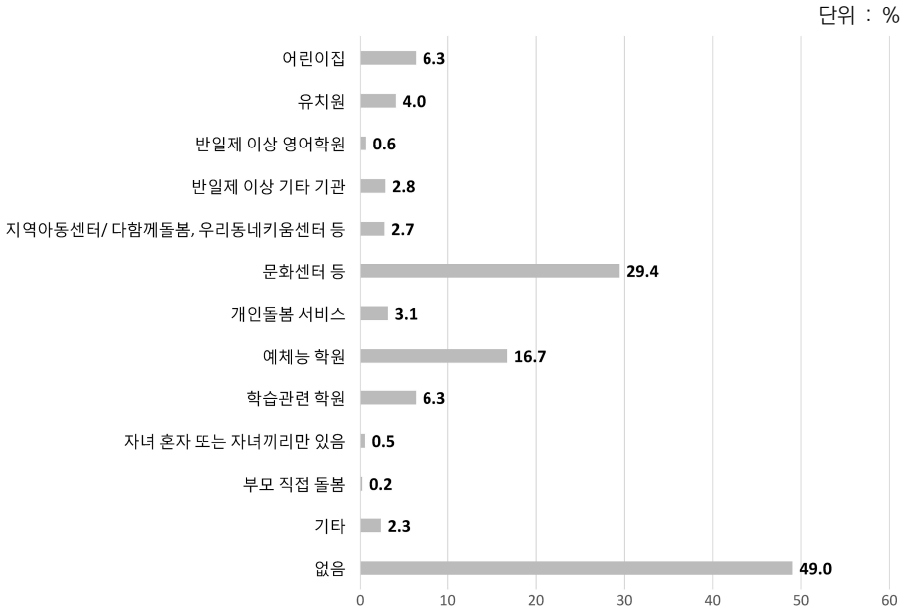
구분	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38.6	18.6	14.4	5.6
아버지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22.3	2.3	12.0	8.0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14.9	7.7	3.9	3.3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2.2	0.5	1.0	0.6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18.3	13.3	2.9	2.1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15.1	8.1	4.5	2.5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47.1	24.8	13.6	8.6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5.7	1.1	2.4	2.2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 (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1.4	0.1	0.8	0.4
긴급돌봄 센터(어린이집, 초등 포함)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18.5	8.9	5.6	4.1
아이 혼자(혹은 아이들끼리) 있었음	20.5	7.4	7.7	5.4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12.7	3.0	5.2	4.5
기타	5.6	2.3	1.6	1.8
모름/무응답	1.8	1.8	1.8	1.8
무응답	0.0	0.0	22.6	49.0
계(수)	-	(960)	(960)	(96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전체 영유아 아동 2,369명 중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는 49.0%이며, 절반 가량인 51.0%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중 문화센터가 29.4%로 가장 높

있으며, 예체능 학원은 16.7%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학습 관련 학원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3%였고, 유치원은 이보다 다소 낮은 4.0%가 응답하였다. 이외에 다른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들은 3% 미만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림 V-5-1]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0년, 중복응답)



주: 1)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반나절 이상 아이가 머무는 학원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교육에 포함됨.
 2) 총 2,369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평균 과목수는 모두 2.9개였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향후 특별활동을 3.4개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현재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개수에 비해 적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의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으나, 유치원은 22.3%, 어린이집은 23.0%가 코로나19로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V-5-2〉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변화 (2020년)

단위 : 개, %(명), 개

구분	과목수	차이여부				이용 계획 과목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어린이집	2.9	23.0	59.8	17.2	100.0 (1,140)	2.9
유치원	2.9	22.3	55.1	22.6	100.0 (551)	3.0
반일제 이상 학원	2.9	8.7	73.6	17.8	100.0 (24)	3.4

주: 1)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특별활동,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의미함.

2) 반일제이상 학원은 반나절 이상 아이가 머무는 학원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교육에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VI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0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 02 기관 이용 시간 조정에 관한 의견
- 03 이용 육아서비스별 만족도
- 04 사교육 비용 부담
- 05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 06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07 긴급 돌봄 대응

VI.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VI장은 2020년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가구의 인식과 육아서비스 만족도, 정책 선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주요 정책변화로 어린이집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알아본 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등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육아가구의 향후 이용의향과 선호를 분석해보았다. 또, 이용하고 있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육아서비스 이용 의향,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등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 육아서비스 이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긴급돌봄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육아가구의 입장을 고찰해보았다.

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본 3차년도 소비실태조사의 대상인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생의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되고, 기본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7시간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상 부모 총 2,156명 중 60.9%는 이러한 보육지원체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39.1%는 몰랐다고 응답해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에 대한 영유아 및 초등1,2학년생 부모들의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인지도는 조사 대상 가구의 총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자녀가 1명인 경우는 51.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3명이상인 경우는 67.0%로 15.6%포인트 높았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나 막내자녀연령 3세를

기점으로 다시 인지도가 하락하며, 특히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세 이상에서는 인지도가 급감하였다.

〈표 VI-1-1〉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단위 : %(명)

구분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계
		인식함	인식하지 못함	
전체		60.9	39.1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8	39.2	100.0 (960)
	외벌이	60.9	39.1	100.0 (1,196)
	χ^2	0.000		
총 자녀수	1명	51.4	48.6	100.0 (725)
	2명	65.2	34.8	100.0 (1,125)
	3명이상	67.0	33.0	100.0 (306)
	χ^2	40.869***		
막내자녀 연령	2020년생(0세)	51.9	48.1	100.0 (154)
	2019년생(1세)	58.5	41.5	100.0 (313)
	2018년생(2세)	70.2	29.8	100.0 (289)
	2017년생(3세)	84.6	15.4	100.0 (234)
	2016년생(4세)	75.2	24.8	100.0 (222)
	2015년생(5세)	70.5	29.5	100.0 (237)
	2014년생(6세)	62.6	37.4	100.0 (230)
	2013년생(초1, 7세)	37.9	62.1	100.0 (248)
	2012년생(초2, 8세)	33.2	66.8	100.0 (229)
	χ^2	229.17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영유아 부모대상 심층면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다고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두 번 정도 (연장보육서비스를) 사용했던 거 같아요. (중략)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자체가 그냥 4시에 애들 다 하원하고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4시를 언급하시니까 저도 4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애를 찾아서 (후략) (면담1 면담자C)

한편, 이러한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내용(기본보육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짐)에 대해서 부모들의 평가는 긍정적 37.0%, 보통 35.4%, 매우 긍정적 15.4%로

87.8%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가구특성 중 맞벌이 가구 여부와 막내자녀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의 부모 중 18.0%가 '매우 긍정적' 3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53.4%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외벌이 가구의 부모는 51.4%가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으로 평가해 맞벌이 가구 보다 다소 평가가 낮았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막내자녀가 3세인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1.8%, '긍정적'이 38.5%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다가 3세를 정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I-1-2〉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단위 : %(명)

구분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	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2.8	9.5	35.4	37.0	15.4	3.5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	9.1	34.0	35.4	18.0	3.6	100.0 (960)
	외벌이	2.3	9.8	36.5	38.2	13.2	3.5	100.0 (1,196)
		χ^2/t					1.2	
		13.548**						
총 자녀수	1명	2.8	9.1	36.0	39.2	13.0	3.5	100.0 (725)
	2명	2.4	9.5	34.9	36.4	16.7	3.6	100.0 (1,125)
	3명이상	4.6	10.1	35.6	33.7	16.0	3.5	100.0 (306)
			χ^2/F					1.4
		10.508						
막내자 녀연령	2020년생(0세)	2.6	12.3	32.5	37.7	14.9	3.5	100.0 (154)
	2019년생(1세)	1.9	10.2	32.9	37.7	17.3	3.6	100.0 (313)
	2018년생(2세)	2.4	8.7	34.3	36.0	18.7	3.6	100.0 (289)
	2017년생(3세)	3.8	7.7	28.2	38.5	21.8	3.7	100.0 (234)
	2016년생(4세)	2.3	9.9	33.3	38.3	16.2	3.6	100.0 (222)
	2015년생(5세)	3.4	10.5	34.6	36.7	14.8	3.5	100.0 (237)
	2014년생(6세)	3.5	8.7	35.2	36.1	16.5	3.5	100.0 (230)
	2013년생(초1, 7세)	3.2	7.7	45.2	34.7	9.3	3.4	100.0 (248)
	2012년생(초2, 8세)	2.6	10.5	41.9	37.6	7.4	3.4	100.0 (229)
			χ^2/F					2.5*
		46.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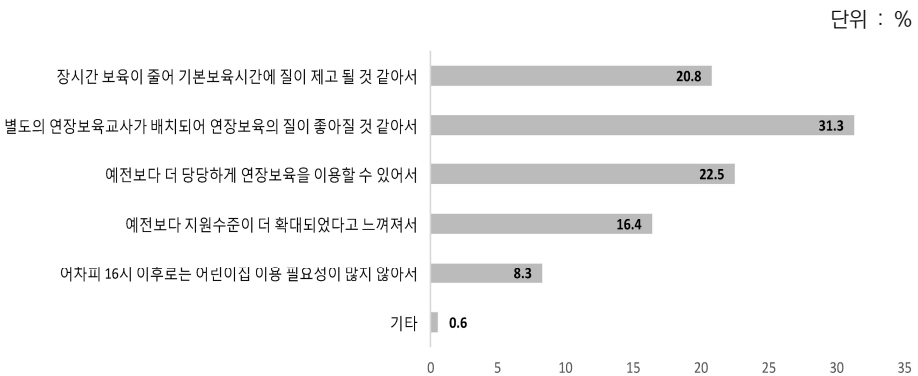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별도의 연장보육 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보육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31.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2.5%, ‘장시간 보육이 줄어 기본보육 시간의 질이 제고될 것 같아서’가 20.8%, ‘예전보다 지원수준이 더 확대되었다고 느껴져서’ 16.4%, ‘어차피 16시 이후로는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8.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으로 연장보육 교사가 배치되는 연장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만 장시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되면 기본보육시간의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비용도 지원되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예전보다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맞벌이 여부, 총 자녀수, 막내자녀연령에 따른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긍정적인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9-1 참조).

[그림 VI-1-1]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주: 전체 1,128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반대로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평가를 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서 돌봄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42.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는 바, 이는 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 보다는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가 24.2%,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22.3%,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지원정책이 줄어들까봐'가 7.5%, 기타 3.4%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심층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맞벌이 가구로 연장보육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어린이집의 상황 등에 따라 연장보육 서비스의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원래 퇴근 시간이 8시 출퇴근이 8시부터 5시 까진데 여기 오면 5시 반 정도 되거든요 사실 연장보육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싶는데 여기 저희 애기도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원아 자체가 많지 않고 남아 있는 애기가 한 명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가 왜 친구면 괜찮은데 그래도 또 언니고 그래서 저 애기는 좀 나 혼자 남아 있으면 좀만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용을 못 했어요. (면담2 면담자A)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면 했을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맡기고 나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거니까 했을 건데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한 거라서 만약에 됐으면 했을 거예요. (면담2 면담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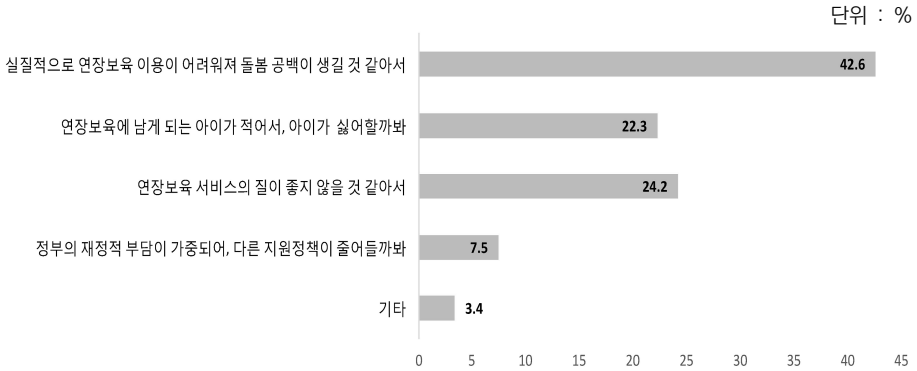
일단 첫 번째가 애들이 다 빠져요. 애들이 4시 이전에는 대부분 다 빠져서. 다 학원을 다니거나 빨리 귀가를 시키기를 청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맞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먼저 그런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면담4 면담자C)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차량 시간이 아기 어린이집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4시 이후에는 저희 동네는 안 온다고 해서 이용 할 수가 어렵고요. 또 다른 하나는 4시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모도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하고. 4시 이후에 찾으러 가면 애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밖에 없어서. 애들 혼자 있는 거 같아서 안 좋아서 그냥 일 빨리 끝내고 오는 편이에요.(면담4 면담자B)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모들이 서비스 질의 향상의 기대감을 많이 비추었던 것과 반대의 맥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모들은 연장보육 교사가 배치된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장보육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장보육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공 여부는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연장보육의 실질적 운영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공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그림 VI-1-2] 가구특성별 보육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2020년)



주: 전체 265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2. 기관 이용 시간 조정에 관한 의견

현재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에 대해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 바, 전체적으로 현재 이용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8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금보다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12.8%,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3.1%로 줄이고 싶다는 응답에 비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비스별로는 지금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시 가장 높고(82.5%),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가장 낮았다(73.9%). 지금보다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17.5%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이 15.2%(많이 늘리고 싶음+조금 늘리고 싶음) 가장 낮았다.

〈표 VI-2-1〉 이용 서비스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 (202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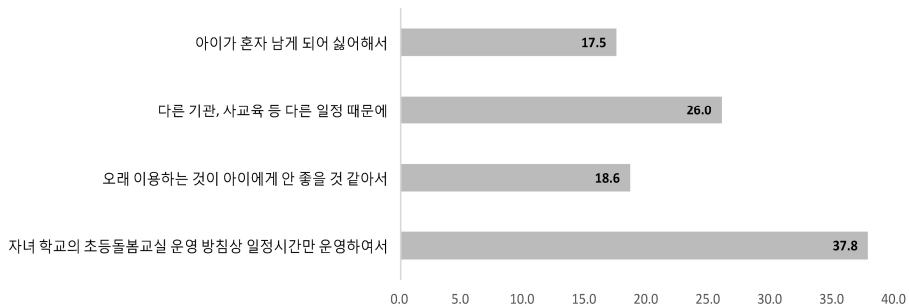
구분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지금이 적당함	조금 줄이고 싶음	많이 줄이고 싶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3.1	12.8	81.8	2.0	0.2	0.1	100.0 (1,716)
이용 서비스별	어린이집	2.5	12.7	82.5	1.9	0.4	0.1	100.0 (1,140)
	유치원	4.6	12.8	80.8	1.8	0.0	0.0	100.0 (551)
	반일제 이상학원	0.0	17.5	73.9	8.6	0.0	0.0	100.0 (2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오후 및 저녁돌봄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자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침상 일정시간만 운영하여서'가 37.8%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가 26.0%,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18.6%,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저녁 돌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 별로는 이보다 짧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VI-2-1〕 초등돌봄교실 오후 및 저녁돌봄 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2020년)

단위 : %



주: 총 11명의 응답 결과로, '더 이용하는 것이 눈치보여서'는 응답자가 없어 생략.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한편,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초등학생 부모님의 심층 면담에서는 주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적어 아이가 싫어해서 필요한만큼 오래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 4시에서 4시 반 정도면 아이들이 다 간대요. 진짜 오래 있는 아이들은 4시 반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5시면 다 간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오후 저녁 시간을 맡기고 싶은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아이가 혼자 남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 한명 때문에 선생님을 남게 하는 것도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시간을 이때까지는 힘든 거 같아요 여러모로(면담 6-B).

...(중략)아이들이 많이 출다 보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아이가 조금 무섭다고 할 때도 있고, 선생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좋기도 하긴 한데 조금 외롭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자기는 왜 맨날 늦게까지 있냐고. 그래가지고 학원을 그래서 돌리게 된 거죠(면담 6-C).

제가 다섯 시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다섯 시 반 뭐 이때쯤 되거든요. 근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돌봄교실에서는 일곱 시까지 봐줄 수 있는데 왜 다섯 시 반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엄마 봐봐 나밖에 없잖아' ...(중략)... 선생님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눈치 보이고 애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애는 심심하고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면담 6-A)

3. 이용 육아서비스별 만족도

가. 영유아

반일제이상 서비스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I-3-1>과 같다.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4.3%(매우 만족 17.1% + 대체로 만족 67.2%)이며 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83.0%(매우 만족 17.3% + 대체로 만족 65.7%)로 이용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용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4.3%(매우 만족 8.6% + 대체로 만족 2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점 척도 기준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만족도는 4.0점으로 높았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용 만족도는 3.3점으로 보통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서비스와 비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I-3-2>와 같다. 비용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0.6%(매우 만족 6.4% + 대체로 만족 54.2%)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0.9%(매우 만족 11.2% + 69.7%)가 만족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점 척도 기준에서도 비용 만족도는 3.5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서비스 만

족도는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3-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 응답		
어린이집 서비스	17.1	67.2	14.1	1.4	0.2	0.1	4.0	100.0 (1,140)
유치원 서비스	17.3	65.7	13.3	3.0	0.7	-	4.0	100.0 (551)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	8.6	25.7	48.5	17.3	0.0	-	3.3	100.0 (24)

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비스 만족도이며, 반일제 이상 학원은 비용 만족도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표 VI-3-2〉 시간제 사교육 비용 및 서비스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용 만족도	6.4	54.2	28.4	10.1	1.0	3.5	100.0 (291)
서비스 만족도	11.2	69.7	18.4	0.3	0.3	3.9	100.0 (29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85.1%(매우 만족 20.9% + 대체로 만족 64.2%)로 높았으며, 키즈 카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2.9%(매우 만족 11.2% + 대체로 만족 61.7%)로 비교적 높았다. 5점 척도 기준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1점으로 육아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키즈카페 만족도도 3.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VI-3-3〉 시간제 일시보육 및 키즈카페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보육	20.9	64.2	14.9	0.0	0.0	4.1	100.0 (42)
키즈카페	11.2	61.7	24.7	2.1	0.3	3.8	100.0 (34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초등학령기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4.6%(매우 만족 18.6% + 대체로 만족 56.0%)로 만족하는 편이며, 5점 척도 기준으로도 3.9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만족도는 맞벌이 가구 75.9%(매우 만족 20.8% + 대체로 만족 55.1%)가 만족하였고 외벌이 가구의 68.7%(매우 만족 8.7% + 대체로 만족 60.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만족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점 척도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는 만족도가 3.9점, 외벌이 가구는 3.7점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일 때 66.5%(매우 만족 8.7% + 대체로 만족 57.8%)였고, 2명 일 때 76.7%(매우 만족 20.4% + 대체로 만족 56.3%), 3명 일 때 76.6%(매우 만족 23.3% + 대체로 만족 53.3%)로 나타나 자녀가 2명 이상일때가 1명일 때 보다 만족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에서도 자녀가 1명일 때 3.6점, 2명이상일 때 4.0점으로 나타났다.

〈표 VI-3-4〉 가구특성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8.6	56.0	20.6	4.8	0.0	3.9	100.0 (1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8	55.1	20.6	3.5	0.0	3.9	100.0 (88)
	외벌이	8.7	60.0	20.4	10.8	0.0	3.7	100.0 (19)
	χ^2/t	2.546					1.4	
총 자녀 수	1명	8.7	57.8	14.5	19.0	0.0	3.6	100.0 (22)
	2명	20.4	56.3	21.7	1.6	0.0	4.0	100.0 (64)
	3명이상	23.3	53.3	23.4	0.0	0.0	4.0	100.0 (22)
	χ^2/F	13.087*					2.6	
지역 규모	대도시	9.8	66.0	19.9	4.3	0.0	3.8	100.0 (49)
	중소도시	33.3	39.1	21.8	5.7	0.0	4.0	100.0 (34)
	읍면지역	15.6	59.8	20.1	4.5	0.0	3.9	100.0 (24)
	χ^2/F	8.659					0.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물어본 결과, 1+2+3순 위 기준 돌봄프로그램 다양화가 74.9%로 가장 많았으며,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 47.7%, 돌봄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 47.1%, 간식 혹은 급식 제공 35.7%, 방학 중 돌봄교실 추가 개설 및 모집 28.2%, 물리적 환경 개선 24.4%, 돌봄시간의 연장 12.6%, 돌봄시간 내 자유로운 입출입 허용 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5〉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 (2020년)

단위 : %, (명)

구분	초등돌봄 교실 개선사항										계
	돌봄 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	물리적 환경 개선	돌봄 시간의 연장	돌봄 시간 내 자유로운 입출입 허용	방학 중 돌봄교실 추가 개설 및 모집	간식 혹은 급식 제공	기타	무응답	
1+2+3순위	47.1	47.7	74.9	24.4	12.6	12.1	28.2	35.7	4.6	0.0	(108)
1순위	22.4	13.9	33.8	6.6	5.5	0.9	6.4	7.6	2.9	0.0	(108)
2순위	13.2	21.6	25.3	8.6	3.6	3.6	8.3	12.2	0.0	3.6	(108)
3순위	11.5	12.2	15.8	9.2	3.5	7.6	13.5	15.9	1.7	9.0	(10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초등돌봄교실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의 질, 돌봄전담사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학교에서 돌봄 교실만 한 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 선생님들마다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저희 큰 애 때랑 이제 작은 애랑 조금 소홀히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TV만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좀 아이들한테 노는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똑같은 저기 환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반마다 조금 틀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후략)(면담6 면담자C)

(초등돌봄교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면담6 면담자A)

돌봄프로그램이 질이 많이 떨어져요. 엄마들이 돌봄을 보내다가도 중간에 애들을 학원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조바심이 나긴한데 주위 친구들은 영어학원 다니다 뭐 다니다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해서 많은 학원을 보낼 수 없으니까 돌봄을 이용하는데, 돌봄이 보육위주지 수업으로 뭘 가르치려는 의도는 없더라고요. 핸드폰을 했다는 소리, 만화영화를 봤다는 소리 거의 보육위주지 때문에 3학년때

는 거의 돌봄을 아예 안할 것 같고 그땐 조금 컸으니까 학원을 갔다가 집에 애가 혼자있더라도 돌봄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면담7 면담자A)

초1때는 서비스 질이 그렇게 상관 없었는데 초2때는 수업의 질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엄마들의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초1때는 5점만점의 5점이었는데 2학년때는 만족감이 3점으로 떨어지는 느낌? 1학년 때 했던 프로그램이 2학년때도 동일하게 이뤄지니까 다른 방과후 수업을 더넣어야겠다라는 2차방안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3학년이 돌봄을 한다고 하면 이용하지 않을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면담7 면담자C)

2)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개선사항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9.9%(매우 만족 11.7% + 대체로 만족 68.2%)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도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9.6%(매우 만족 9.9% + 대체로 만족 79.7%)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5점 척도에서도 4.0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1.9%(매우 만족 13.2% + 대체로 만족 58.7%) 및 5점척도 기준 3.8점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499만원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인 경우가 자녀가 1명 혹은 3명이상인 경우에 비해 낮았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 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VI-3-6〉 가구특성별 방과후학교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전체	11.7	68.2	14.6	2.7	0.0	2.7	3.9	100.0 (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9.9	79.7	10.3	0.0	0.0	4.0	100.0 (18)
	외벌이	13.2	58.7	18.2	4.9	0.0	4.9	100.0 (22)
	χ^2/t	2.805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5	23.3	28.2	0.0	0.0	4.2	100.0 (4)
	300~399만원 이하	17.5	64.1	0.0	18.4	0.0	3.8	100.0 (6)
	400~499만원 이하	8.6	45.7	45.7	0.0	0.0	3.6	100.0 (11)
	500~599만원 이하	8.3	81.7	0.0	0.0	0.0	4.1	100.0 (11)
	600만원 이상	0.0	100.0	0.0	0.0	0.0	4.0	100.0 (9)

구분	χ^2/F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χ^2/F	29.417*						1.1	
총 자녀수	1명	21.9	65.6	12.6	0.0	0.0	0.0	4.1	100.0 (8)
	2명	4.2	69.5	16.8	4.7	0.0	4.7	3.8	100.0 (23)
	3명이상	21.8	67.3	10.9	0.0	0.0	0.0	4.1	100.0 (9)
	χ^2/F	4.495						1.4	
지역 규모	대도시	19.0	66.7	14.4	0.0	0.0	0.0	4.0	100.0 (20)
	중소도시	6.8	56.4	21.4	7.7	0.0	7.7	3.7	100.0 (14)
	읍면지역	0.0	100.0	0.0	0.0	0.0	0.0	4.0	100.0 (6)
	χ^2/F	11.025						1.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서 개선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물어본 결과, 1+2+3순위 기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49.3%, 수강 인원 확대 38.9%,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32.9%,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 30.5%, 물리적 환경 개선 24.1%, 이용비용의 인하 22.7%, 하루에 2개 강좌 이상 이용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증설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3-7〉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2020년)

단위 : %, (명)

구분	방과후학교 개선사항										계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수강 인원 확대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	하루에 2개 강좌 이상 이용가능하도록 증설	이용비용의 인하	프로그램의 질 제고	물리적 환경 개선	기타	모름/무응답	
1+2+3순위	32.9	61.2	38.9	30.5	17.5	22.7	49.3	24.1	2.4	2.7	(41)
1순위	9.7	29.4	14.6	2.2	5.1	14.0	19.8	0.0	2.4	2.7	(41)
2순위	16.7	24.2	11.8	14.6	2.7	1.9	20.4	2.6	0.0	5.1	(41)
3순위	6.4	7.6	12.5	13.6	9.7	6.8	9.1	21.6	0.0	12.7	(4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심층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점, 매일 하는 활동이 아니다보니 아이의 하교시간이 들쭉날쭉해지는 문제, 돌봄교실과의 연계가 잘 안되는 문제, 생각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여러개 보내기도 아이들이 하고싶은 수업이 겹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대도 일주일 내내 가는것도 아니고 짝은 수업이 월화, 월수금 이렇게 틀려져있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일주일내내 가는 수업도 거의 없고 그걸 돌봄으로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면담7 면담자C)

저도 여러 가지 방과 후를 큰 애를 많이 보냈는데 주변에서 애들 뭐 축구 하라고 하면 저학년 애들을 공도 한 번도 못 차고 온다고 그런 경우도 많고 인원 수 자체에서 틀려요.(면담5 면담자B)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하는 책 읽고 독서토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짧게 한 일주일짜리가 있었어요. (중략) 그때도 제가 시간이 이제 다행히 맞아서 하원이나 등교를 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켜줬는데 시간이 좀 제가 일하는 시간 하고 그랬으면 아예 포기하고 안 보냈을 걸 상황이. (면담5 면담자B)

한 가지 아쉬운 게 경쟁이 치열한 과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이가 아이학교에서는 1년에 4번을 신청을 따로따로 받았거든요. 3개월씩. 근데 3개월을 하고 나서 이월을 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서 클릭 순인데 선착순으로. 그거를 경쟁에 밀려서 못하게 되면 이어서 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다양하게 많은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거는 클래스를 두 개, 세 개로 늘린대거나 그런 융통성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싶긴 했었어요.(면담6 면담자C)

방과후를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해야해요. 어차피 그 돈도 조금 더 부담이 되야하고 그럴꺼면 전문적인 학원을 더 보내겠죠. 방과후를 다 선택하려면 예를들어 수학이나 한자나 영어나 그런거를 다 집어넣을꺼면 전문적인 학원을 더 보내게 되겠죠.(면담7 면담자C)

3) 시간제 사교육 만족도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56.0%(매우 만족 7.1% + 대체로 만족 48.9%)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며, 5점 척도 기준에서도 3.5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 58.8%(매우 만족 8.2% + 대체로 만족 50.6%), 외벌이 가구 53.4%(매우 만족 6.1% + 대체로 만족 47.3%)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5점 척도 기준에서도 맞벌이 가구 3.6점, 외벌이 가구 3.5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이상 가구에서는 5점 척도 기준 3.5~3.6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으나 299만원이하 가구가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자녀가 1명 혹은 3명이상인 경우보다는 만족도가 낮았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VI-3-8〉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비용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전체	7.1	48.9	32.7	7.8	1.8	1.7	3.5	100.0 (5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	50.6	28.1	9.0	2.1	2.1	3.6	100.0 (288)
	외벌이	6.1	47.3	37.0	6.6	1.6	1.4	3.5	100.0 (305)
	χ^2/t	6.721						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1.4	33.7	21.1	3.8	0.0	3.1	100.0 (29)
	300~399만원 이하	9.4	47.0	34.8	7.2	0.7	1.0	3.6	100.0 (110)
	400~499만원 이하	4.8	44.6	40.9	6.5	1.2	1.9	3.5	100.0 (156)
	500~599만원 이하	6.3	50.5	31.0	9.1	1.5	1.6	3.5	100.0 (132)
	600만원 이상	9.8	54.2	24.7	5.9	3.0	2.5	3.6	100.0 (166)
	χ^2/F	26.400						2.9*	
총 자녀 수	1명	11.8	51.6	23.9	9.5	0.8	2.4	3.7	100.0 (132)
	2명	4.3	48.1	35.2	8.2	2.4	1.7	3.4	100.0 (358)
	3명이상	10.9	48.4	34.9	3.9	1.0	1.0	3.6	100.0 (103)
	χ^2/F	20.246*						4.6*	
지역 규모	대도시	6.5	51.3	34.0	6.6	0.8	0.8	3.6	100.0 (232)
	중소도시	9.2	46.4	32.0	7.4	2.3	2.7	3.5	100.0 (269)
	읍면지역	2.9	50.2	31.3	11.5	3.0	1.2	3.4	100.0 (92)
	χ^2/F	12.064						1.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8.9%(매우 만족 9.4% + 대체로 만족 69.5%)로 높게 나타났고, 5점 척도 기준 3.9점이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비용만족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4점에 근접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비용만족도는 3.5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3-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전체	9.4	69.5	17.9	1.5	0.0	1.7	3.9	100.0 (5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0	67.8	17.1	2.0	0.0	2.1	3.9	100.0 (288)
	외벌이	7.9	71.1	18.6	1.1	0.0	1.4	3.9	100.0 (305)
	χ^2/t	3.837						0.6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4	68.8	20.0	3.8	0.0	0.0	3.8	100.0 (29)
	300~399만원 이하	9.3	68.9	20.9	0.0	0.0	1.0	3.9	100.0 (110)
	400~499만원 이하	8.1	69.4	19.9	0.7	0.0	1.9	3.9	100.0 (156)
	500~599만원 이하	8.5	70.6	18.4	0.8	0.0	1.6	3.9	100.0 (132)
	600만원 이상	11.7	69.2	13.1	3.5	0.0	2.5	3.9	100.0 (166)
	χ^2/F	14.288						0.3	
총 자녀 수	1명	11.8	66.5	16.9	2.5	0.0	2.4	3.9	100.0 (132)
	2명	7.5	70.1	19.5	1.2	0.0	1.7	3.9	100.0 (358)
	3명이상	12.9	71.3	13.4	1.5	0.0	1.0	4.0	100.0 (103)
	χ^2/F	6.981						1.6	
지역 규모	대도시	6.9	72.9	18.8	0.5	0.0	0.8	3.9	100.0 (232)
	중소도시	13.1	65.4	16.5	2.4	0.0	2.7	3.9	100.0 (269)
	읍면지역	4.9	72.9	19.4	1.7	0.0	1.2	3.8	100.0 (92)
	χ^2/F	15.117						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다. 비용지원 정책 수혜 및 만족도

영유아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의 수혜 여부와 정책만족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양육수당의 수혜율이 92.4%로 가장 수혜 경험 이 높았고, 어린이집 비용 지원은 84.1%, 유치원 비용 지원 52.7%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 비용 지원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고, 유치원 비용 지원 3.9점, 양육수당 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VI-3-10〉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0년)

단위 : %, 점, %(명)

구분	수혜 여부	만족도						평균 점수	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유치원 비용 지원	52.7	0.8	6.8	10.4	61.8	20.0	0.3	3.9	100.0 (2,156)
어린이집 비용 지원	84.1	0.6	5.0	7.9	59.6	26.1	0.8	4.1	100.0 (2,156)
양육수당	92.4	1.6	7.6	16.6	52.2	21.2	0.8	3.8	100.0 (2,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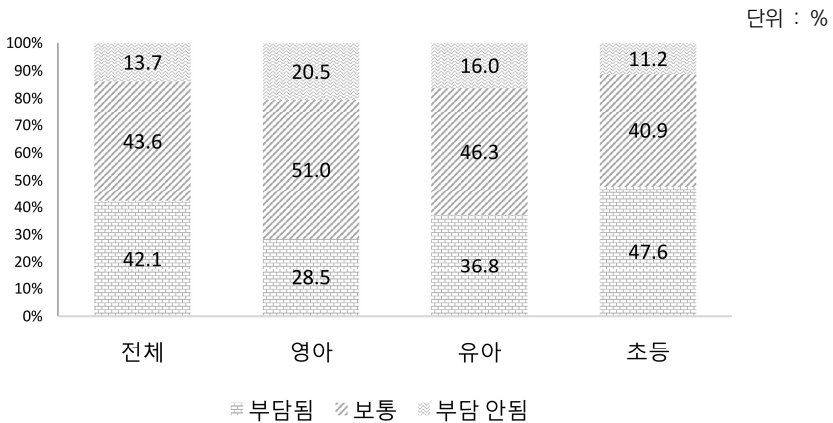
주: 만족도는 '매우 만족' 1~'매우 불만족' 5로 측정된 값을 역코딩한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4. 사교육 비용 부담

자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이 42.1%(매우 부담됨 7.4% + 다소 부담됨 34.7%)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28.5%(매우 부담됨 3.3% + 다소 부담됨 25.2%), 유아인 경우 36.8%(매우 부담됨 4.6% + 다소 부담됨 32.2%), 초등인 경우 47.6%(매우 부담됨 10.0% + 다소 부담됨 37.6%)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I-4-1] 연령별 사교육 비용 부담 (2020년)



주: 1) 분석에 활용한 관측치는 전체 1,299명, 영아 64명, 유아 534명, 초등 701명임.

2) 평균점수는 전체 3.3점, 영아 3.0점, 유아 3.2점, 초등 3.4점으로 나타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사교육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가 31.1%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아이가 원해서 9.5%,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8.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

해서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27.3%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벌이 가구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5.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가 25.1%로 뒤를 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이상 가구들은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와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온 반면, 299만원이하가구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가 43.7%로 가장 많이 나와 이유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이하 가구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가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고,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가 가장 많은 반면, 읍면지역은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표 VI-4-1〉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 영유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최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아이가 원해서	기타	모름	
전체	8.3	31.1	5.9	26.5	2.7	12.0	0.5	9.5	1.0	2.4	100.0 (220)
맞벌이	6.3	27.3	9.8	27.9	4.5	9.9	0.9	9.4	1.0	2.9	100.0 (113)
외벌이	10.3	35.1	1.9	25.1	0.9	14.2	-	9.6	0.9	1.9	100.0 (107)
부	χ^2 12.5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2	11.0	0.0	22.9	0.0	43.7	0.0	11.2	0.0	100.0 (9)
	300~399만원 이하	11.9	47.7	4.4	26.4	0.0	4.8	0.0	2.3	0.0	100.0 (43)
	400~499만원 이하	3.7	29.6	0.0	35.2	1.8	16.5	1.9	11.4	0.0	100.0 (54)
	500~599만원 이하	9.7	22.4	14.9	22.7	0.0	20.1	0.0	7.7	0.0	100.0 (41)
	600만원 이상	8.4	29.9	7.0	22.7	7.1	4.3	0.0	13.3	3.0	100.0 (72)
총	χ^2 58.249*										
자녀 수	1명	13.4	26.7	11.0	21.5	5.2	11.2	0.0	5.5	2.7	100.0 (37)
	2명	7.4	35.5	4.3	29.0	2.2	12.6	0.8	6.7	0.8	100.0 (137)
	3명이상	6.8	21.7	6.8	23.1	2.2	11.1	0.0	21.2	0.0	100.0 (46)
총	χ^2 24.759										
지역 규모	대도시	6.3	30.3	4.9	27.9	1.3	8.8	0.0	15.3	1.3	100.0 (84)
	중소도시	9.6	30.8	6.7	23.1	3.8	14.4	1.0	7.6	1.0	100.0 (105)
	읍면지역	9.4	34.2	6.2	34.5	3.1	12.6	0.0	0.0	0.0	100.0 (31)
총	χ^2 14.57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에 사교육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6.7%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7.8%,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9.7%, 아이가 원해서 7.2%,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6.7%,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5.8%,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7%, 다른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3% 순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2명이하 가구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가 가장 높은 반면,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2〉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년) - 초등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아이가 원해서	기타		
전체	6.7	36.7	5.7	27.8	5.8	9.7	0.3	7.2	0.0	100.0 (3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	36.0	7.3	23.1	10.2	10.0	0.6	6.7	0.0	100.0 (169)
	외벌이	7.4	37.5	4.1	32.6	1.2	9.3	0.0	7.8	0.0	100.0 (164)
	χ^2	17.03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4	36.9	6.1	20.1	5.6	12.4	0.0	6.5	0.0	100.0 (16)
	300~399만원 이하	7.1	46.5	4.2	25.0	3.2	9.7	0.0	4.2	0.0	100.0 (67)
	400~499만원 이하	12.1	33.8	1.3	26.7	7.0	11.6	1.2	6.4	0.0	100.0 (87)
	500~599만원 이하	7.4	31.4	10.5	32.3	4.3	7.4	0.0	6.8	0.0	100.0 (70)
	600만원 이상	0.0	36.4	7.4	28.8	7.6	9.2	0.0	10.7	0.0	100.0 (93)
	χ^2	29.158									
총 자녀수	1명	8.6	35.2	5.9	30.4	5.7	7.0	0.0	7.1	0.0	100.0 (69)
	2명	5.7	39.6	6.2	25.6	6.0	10.7	0.0	6.1	0.0	100.0 (206)
	3명이상	8.2	28.3	3.7	32.4	5.1	9.2	1.8	11.3	0.0	100.0 (59)
	χ^2	11.425									
지역 규모	대도시	9.2	39.5	5.8	28.2	4.3	9.3	0.0	3.8	0.0	100.0 (136)
	중소도시	4.4	33.5	5.1	28.9	8.2	9.8	0.0	10.1	0.0	100.0 (142)
	읍면지역	6.6	38.3	7.2	23.8	3.3	10.5	1.9	8.4	0.0	100.0 (56)
	χ^2	15.48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키즈 카페에 대해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이가 좋아해서가 54.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16.2%,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11.0%,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10.8%,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좋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다음으로 꼽은 이유가 399만원이하 가구는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를, 400~499만원이하와 600만원이상 가구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를, 500~599만원이하 가구는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를 꼽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아이가 좋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꼽은이유가 대도시의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를, 중소도시의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를, 읍면지역은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를 꼽았다.

〈표 VI-4-3〉 가구특성별 키즈 카페 이용하는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전체	11.0	10.8	16.2	54.7	0.0	5.5	1.7	100.0 (3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	10.5	14.3	61.5	0.0	5.8	0.7	100.0 (155)
	외벌이	14.0	11.1	17.8	49.3	0.0	5.3	2.6	100.0 (194)
	χ^2	8.67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0	0.0	11.5	67.5	0.0	0.0	3.0	100.0 (35)
	300~399만원 이하	15.9	10.7	14.9	49.5	0.0	5.2	3.8	100.0 (78)
	400~499만원 이하	12.3	12.9	21.1	47.1	0.0	5.7	1.0	100.0 (104)
	500~599만원 이하	3.6	3.3	12.8	71.0	0.0	7.4	1.9	100.0 (56)
	600만원 이상	6.6	18.5	15.7	52.6	0.0	6.6	0.0	100.0 (78)
	χ^2	32.327*							
총 자녀수	1명	14.3	3.7	21.3	53.6	0.0	5.8	1.2	100.0 (84)
	2명	9.1	12.4	13.9	56.9	0.0	5.7	2.0	100.0 (197)
	3명이상	12.4	15.0	16.9	49.6	0.0	4.5	1.5	100.0 (68)
	χ^2	32.327*							
지역 규모	대도시	11.4	11.4	23.4	47.1	0.0	4.7	2.0	100.0 (153)
	중소도시	11.6	12.4	12.2	56.1	0.0	5.8	2.0	100.0 (156)
	읍면지역	7.2	2.4	4.7	78.5	0.0	7.1	0.0	100.0 (40)
	χ^2	19.90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5.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가. 영유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대신 실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양육형태는 무엇인지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니라는 응답은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유아 1,141명 중 109명으로 9.6%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31.6%,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20.8%,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11.3%,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이 1.9%, 기타 1.8%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자가 어린이집 대신 이용하기를 원하는 양육형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지역규모, 아동연령 등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돌봄’을 원하는 경우가 40.6%,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이 23.4%로 외벌이 가구의 16.7%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 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대리양육을 주로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직접 양육을 하고 싶은 바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정양육 보다는 유치원 이용 41.5%,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등 어린이집 이외의 반일제이상 기관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응답이 34.8%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중소도시 거주 경우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았고(28.0%),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26.1%),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1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사례수가 비교적 적긴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40.9%로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유치원 이용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25.1%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연령별로는 영·유아별 차이가 뚜렷하여서, 만0~3세의 영아는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만4~6세의 경우 어린이집 외의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싶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즉, 만0세의 경우 100%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을 하고 싶었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만1세 중 45.5%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54.5%는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을 실제로 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6세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이용을 가장 원하였다는 응답이 78.0%에 달하였다.

〈표 VI-5-1〉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0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 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32.5	11.3	31.6	20.8	1.9	1.8	100.0 (1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1	5.9	40.6	23.4	3.1	0.0	100.0 (68)
	외벌이	41.5	20.2	16.7	16.7	0.0	4.8	100.0 (41)
	χ^2	15.274**						
지역 규모	대도시	35.7	10.7	34.8	14.6	4.3	0.0	100.0 (48)
	중소도시	31.2	14.7	26.1	28.0	0.0	0.0	100.0 (49)
	읍면지역	25.1	0.0	40.9	16.9	0.0	17.0	100.0 (12)
χ^2		24.263**						
아동 연령	2020년생(만0세)	0.0	0.0	100.0	0.0	0.0	0.0	100.0 (2)
	2019년생(만1세)	0.0	0.0	45.5	54.5	0.0	0.0	100.0 (10)
	2018년생(만2세)	0.0	8.6	60.5	26.6	4.3	0.0	100.0 (22)
	2017년생(만3세)	11.5	11.6	29.4	35.6	6.2	5.7	100.0 (18)
	2016년생(만4세)	35.2	16.6	32.5	15.7	0.0	0.0	100.0 (13)
	2015년생(만5세)	56.3	16.1	15.8	8.0	0.0	3.8	100.0 (26)
	2014년생(만6세)	78.0	11.0	5.8	5.2	0.0	0.0	100.0 (18)
χ^2		63.755***						

주: 2014년생(만6세)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이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한편, 이처럼 원하는 양육형태가 있는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41.1%), ‘비용 부담 때문에’가 13.6%,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0%,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9.4%,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5%,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5.3%,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2.9%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부모의 근로, 비용 부담, 원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소득, 아동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가구일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3.1%로 압도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벌이인 경우는 ‘비용부담’(26.3%)이 가장 큰 이유이나 이외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19.6%),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17.3%) 등 접근성의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 42.0%가 ‘비용부담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가구소득 399만원이하 가구에서 비용부담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 반면, 가구소득 400만원이상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만0~3세의 경우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 아동에 대해 실제 원하는 서비스가 주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 학원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4~6세의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4세의 경우는 33.2%가 ‘일을 하고 있어서’로 응답했고, 이밖에 ‘비용부담 때문에’도 26.4%에 해당하였다. 만5세의 경우는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가 28.2%로 가장 많이 응답된 이유였으며, 만6세의 경우는 ‘원하는 서비스의 대기가 길어서’ 22.6%, ‘비용부담 때문에’ 16.8%, ‘일을 하고 있어서’ 16.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16.2% 등 매우 다양한 상황과 이유 때문에 원하는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가구특성별 가장 원하는 이용형태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실제로는 가장 희망하고 있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유치원이나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맞벌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양육을 하기 어렵고, 외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집보다 비용 부담이 높은 양육형태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표 VI-5-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적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3.6	41.1	9.4	13.0	6.5	5.3	2.9	1.8	6.4	100.0 (1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	63.1	4.6	9.1	7.4	4.2	2.9	0.0	2.8	100.0 (68)
	외벌이	26.3	4.9	17.3	19.6	4.8	7.2	2.8	4.9	12.2	100.0 (41)
	χ^2	43.38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2.0	19.7	0.0	38.2	0.0	0.0	0.0	0.0	0.0	100.0 (5)
	300~399만원 이하	25.6	11.0	12.3	18.4	0.0	12.5	6.9	0.0	13.3	100.0 (17)
	400~499만원 이하	7.4	38.0	10.5	17.7	3.4	10.0	0.0	0.0	13.0	100.0 (28)
	500~599만원 이하	8.7	47.4	0.0	16.0	16.0	0.0	0.0	7.9	4.0	100.0 (25)
	600만원 이상	12.2	57.5	15.6	0.0	6.1	2.7	5.9	0.0	0.0	100.0 (33)
	χ^2	50.577*									
아동 연령	2020년생(만0세)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2019년생(만1세)	0.0	54.5	0.0	0.0	0.0	27.4	0.0	0.0	18.1	100.0 (10)
	2018년생(만2세)	4.3	61.0	0.0	17.2	0.0	0.0	0.0	4.3	13.2	100.0 (22)
	2017년생(만3세)	17.7	59.1	11.6	0.0	5.7	0.0	0.0	5.8	0.0	100.0 (18)
	2016년생(만4세)	26.4	33.2	7.1	7.8	0.0	7.8	8.8	0.0	8.8	100.0 (13)
	2015년생(만5세)	16.2	23.7	11.9	28.2	11.8	8.2	0.0	0.0	0.0	100.0 (26)
	2014년생(만6세)	16.8	16.5	22.6	11.3	16.2	0.0	10.7	0.0	5.8	100.0 (18)
	χ^2	71.051*									

주: 2014년생(만6세)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이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다음으로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부모가 실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유치원 대신 실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양육

형태는 무엇인지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아동이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 실제 바라는 양육형태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19사례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38.5%가 이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29.2%,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21.3%,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5-3〉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0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29.2	21.3	38.5	11.0	0.0	0.0	100.0 (1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이처럼 원하는 양육형태가 따로 있는데도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였으며(38.1%), 이밖에 ‘비용 부담 때문에’가 22.0%, 기타 11.5%,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11.0%,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6.1%,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1%,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5.3%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원하는 형태의 육아를 하지 못하고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근로, 비용 부담, 원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5-4〉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0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22.0	38.1	11.0	6.1	6.1	5.3	0.0	0.0	11.5	100.0 (1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초등학령기

현재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향후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정규과정 수업 후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돌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로 이용할 방법을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는 ‘부모 직접 돌봄(육아휴직 등을 활용)’이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19.7%, ‘방과후 학교’ 15.3%, ‘학원’ 13.0%, ‘조부모 및 친인척’ 6.3% 순으로 응답되었다. 2순위로 이용할 돌봄 방법으로는 ‘학원’이 34.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방과후 학교’ 22.2%, ‘초등돌봄교실’ 14.8%, ‘조부모 및 친인척’ 11.0%, ‘부모직접돌봄’ 10.1%,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등’ 2.0%, ‘비혈연 육아도우미’ 1.0% 순으로 응답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총합한 결과로는 ‘부모 직접 돌봄’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54.4%), 다음으로 ‘학원’ 47.7%, ‘방과후 학교’ 37.4%, ‘초등돌봄교실’ 34.6%, ‘조부모 및 친인척’ 17.2% 순으로 초등학생들의 정규과정 수업 시간 후에는 다양한 돌봄 방법이 활용되며, 학원이 교육적인 목적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돌봄’ 방법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교적 이른 시간의 정규수업 종료로 인해 채워져야 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은 이러한 공백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 조부모 등의 개인돌봄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학원 등의 학교·사교육 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표 VI-5-5〉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를 돌봄 방법 (2020년)

단위 : %, (명)

구분	자녀를 돌봄 방법										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육아 도우미	학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등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이웃, 친구	기타	무응답	
1+2순위	54.4	17.2	1.4	47.7	2.9	34.6	37.4	0.5	0.2	0.0	(1,678)
1순위	44.2	6.3	0.4	13.0	0.9	19.7	15.3	0.2	0.1	0.0	(1,678)
2순위	10.1	11.0	1.0	34.7	2.0	14.8	22.2	0.4	0.1	3.7	(1,67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1순위 응답 기준,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방법을 가구특성 별로 분석해 본 결과,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정규수업 후 돌봄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가장 많고(29.5%),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경우가 23.0%, 방과후 학교 이용 18.6%, 학원 이용 15.4%, 조부모 및 친인척 이용이 11.0%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경우가 60.8%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외벌이인 경우 이외 방과후 학교 12.6%,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12.1%, 학원 이용 11.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부모직접돌봄이 가장 많은 초등학생 돌봄의 형태로 나타나나, 특히 가구소득 300~399만원이하 소득 가구에서 55.1%가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의사를 보여 가장 높고, 가구소득 600만원이상 구간에서 3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의 가구와 299만원이하 가구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각각 26.8%, 21.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고소득, 저소득을 불문하고 맞벌이 가구에 중요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형태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가구소득 300~399만원 구간을 제외한 전 소득 구간에서 학원 이용률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며, 방과후학교도 600만원이상 구간을 제외하면 비교적 고르게 응답되었는 바, 방과후학교는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초등학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돌봄 및 교육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원의 경우도 가구소득에 관계 없이 상당히 보편적인 돌봄 및 교육서비스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를 불문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은 공통적이었으나, 그 비중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려는 요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5-6〉 가구특성별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를 돌볼 방법 (2020년, 1순위 응답기준)

단위 : %(명)

구분	자녀를 돌볼 방법										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육아 도우미	학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등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	이웃, 친구	기타		
전체	44.2	6.3	0.4	13.0	0.9	19.7	15.3	0.2	0.1	100.0 (1,678)	
맞벌이	맞벌이	23.0	11.0	0.8	15.4	1.2	29.5	18.6	0.3	100.0 (735)	
	외벌이	60.8	2.5	0.1	11.1	0.6	12.1	12.6	0.1	100.0 (943)	
여부	χ^2	268.36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0.7	5.9	0.0	13.6	3.4	21.2	15.3	0.0	100.0 (118)	
	300~399만원	55.1	3.8	0.5	8.6	0.5	16.9	14.2	0.3	100.0 (372)	
	400~499만원	47.7	3.1	0.2	14.5	1.4	16.6	16.4	0.0	100.0 (511)	
	500~599만원	40.5	9.5	0.0	13.2	0.0	18.9	17.6	0.3	100.0 (296)	
	600만원 이상	32.8	10.5	1.0	15.0	0.5	26.8	12.9	0.3	100.0 (381)	
	χ^2	100.535***									
총 자녀 수	1명	44.8	7.0	0.7	12.9	0.7	20.1	13.4	0.2	100.0 (543)	
	2명	44.9	6.7	0.2	13.0	0.7	19.0	15.2	0.2	100.0 (889)	
	3명이상	40.7	2.8	0.4	13.0	2.0	21.5	19.5	0.0	100.0 (246)	
	χ^2	19.952									
지역 규모	대도시	47.7	8.5	0.3	12.6	0.9	17.9	11.7	0.3	100.0 (669)	
	중소도시	45.3	5.5	0.5	11.9	0.8	20.2	15.5	0.1	100.0 (746)	
	읍면지역	32.3	2.7	0.4	17.1	1.1	22.8	23.6	0.0	100.0 (263)	
	χ^2	49.65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한편, 본 조사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자녀에 대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가장 이용하고 싶었던 서비스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VI-5-7>에 나타난 바와 같다.

1순위의 응답 결과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방과후 학교'로 41.5%로 응답되었고, 초등돌봄교실 23.1%, 학원 19.7%,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4.6%, 부모직접돌봄 4.5%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응답에서는 무응답을 제외시 방과후학교(18.6%), 학원(11.5%), 초등돌봄교실(7.8%)의 응답 비율이 높고, 3순위에서는 무응답을 제외시 조부모 및 친인척 (12.8%), 방과후학교(4.3%)의 응답이 높았다.

1~3순위 응답의 총합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이용이 64.4%, 초등돌봄교실 33.9%, 학원 32.9%,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0.3%, 부

모직접돌봄 7.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예비 초등생의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이용을 계획하는 서비스 중(표 VI-5-5 참조) 부모직접돌봄 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학원에 대해 초등생 부모들은 실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I-5-7〉 초등 저학년 육아를 위해 이용을 원하였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2020년)

단위 : %, (명)

구분	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부모 직접 돌봄	7.6	4.5	1.7	1.4
조부모 및 친인척	6.2	1.3	2.2	12.8
비혈연 육아도우미	4.4	1.1	1.4	1.9
학원	32.9	19.7	11.5	1.7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10.3	4.6	3.8	1.9
초등돌봄교실	33.9	23.1	7.8	3.0
방과후 학교	64.4	41.5	18.6	4.3
이웃, 친구	4.2	0.5	2.1	1.6
기타	4.8	3.6	0.9	0.3
무응답	0.0	0.0	49.9	81.2
(수)	(366)	(366)	(366)	(36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초등 저학년 돌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였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2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2순위 응답기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가 65.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가 13.3%, '원하는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서' 9.2%, '비용이 부담되어서' 7.5%, 기타 4.8%, '추첨에서 떨어져서' 4.7%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초등 저학년생을 위해 이용하기를 원하였던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학원 등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전국적으로 발발하여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었던 방학의 연장과 출석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2020년 초등학교의 육아서비스 제공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 1,2학년생을 위해 이용하기를 원했던 육아서비스 유형별로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방과후학교(86.4%), 학원(79.2%), 초등돌봄교실(42.5%),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42.4%) 등 기

관 돌봄 서비스는 가장 많은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 이용을 원했지만 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부모 직접 돌봄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11.5%) 이보다 기타 이유 33.1%,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26.2%, ‘비용이 부담되어서’ 11.6% 등의 이유로 이용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및 친인척과 비혈연육아도우미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적당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가 각각 33.7%, 3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혈연육아도우미의 경우는 특히 ‘비용이 부담되어서’(49.4%)와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30.7%)로 응답되어 넓은 범위에서 비용 문제가 이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모의 이웃, 친구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67.1%).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2020년 초등저학년을 위한 육아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히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보다는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들의 경우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연기 및 제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5-8〉 희망서비스 종류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2020년, 1+2순위응답)

단위 : %, (명)

구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계
	추천에서 떨어져서	원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적당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서	코로나 19 영향으로 운영이 연기되어서	기타	
전체	4.7	9.2	5.0	3.3	2.8	7.5	13.3	4.6	65.5	4.8	(617)
부모 직접 돌봄	2.8	14.5	8.0	0.0	7.8	11.6	26.2	3.9	11.5	33.1	(28)
조부모 및 친인척	0.0	8.1	18.5	0.0	33.7	13.2	0.0	13.0	17.3	17.6	(23)
비혈연육아도우미	0.0	6.8	0.0	12.5	32.0	49.4	30.7	0.0	12.6	0.0	(16)
학원	0.0	4.6	1.7	0.0	0.0	23.9	0.0	6.0	79.2	3.4	(120)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5.5	7.5	5.0	5.3	0.0	0.0	21.2	31.8	42.4	5.5	(38)
초등돌봄교실	11.4	8.5	9.1	7.2	0.0	0.9	42.9	1.6	42.5	5.7	(124)
방과후 학교	5.1	13.1	2.6	2.6	0.0	0.9	3.8	0.9	86.4	0.9	(236)
(부모의) 이웃, 친구	0.0	0.0	13.2	5.9	12.9	0.0	0.0	6.8	67.1	6.8	(15)
기타	0.0	0.0	4.5	0.0	0.0	0.0	0.0	0.0	100.0	0.0	(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6.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가. 전체 (영유아~초등학생 자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지원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에서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특성별로 구분한 모든 집단들에서도 해당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에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은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로 19.1%였으며, 이어 개별돌봄서비스는 14.5%, 돌봄 시간 지원은 10.6%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른 가구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돌봄 시간 지원, 개별 돌봄 서비스 등 자녀 돌봄 관련 지원 요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벌이 가구는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맞벌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현금 지원과 양육 물품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분명한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개별돌봄서비스와 돌봄 시간 지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원 요구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된다. 자녀수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현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에서 해당 응답이 4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별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중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낮았다. 특히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에서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돌봄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중이 자녀수 1명 혹은 2명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VI-6-1〉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0년)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
	기관보육· 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전체	19.1	14.5	10.6	13.0	35.1	7.8	100.0 (2,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7	19.1	9.6	19.1	29.4	6.3	100.0 (960)
	외벌이	21.0	10.8	11.4	8.1	39.6	9.1	100.0 (1,196)
	χ^2	102.76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3	10.1	8.2	6.3	48.1	13.9	100.0 (158)
	300~399만원	18.9	10.8	9.8	8.7	41.2	10.6	100.0 (471)
	400~499만원	21.8	13.4	10.4	11.0	37.1	6.3	100.0 (634)
	500~599만원	16.7	15.2	14.4	15.7	32.1	6.0	100.0 (402)
	600만원 이상	19.6	20.2	9.2	19.6	24.8	6.7	100.0 (491)
	χ^2	110.208***						
총 자녀수	1명	19.3	16.1	10.6	13.5	30.8	9.7	100.0 (725)
	2명	20.1	14.0	10.8	13.6	34.8	6.7	100.0 (1,125)
	3명이상	14.7	12.1	9.8	9.5	46.1	7.8	100.0 (306)
	χ^2	29.474**						
지역 규모	대도시	19.0	17.3	11.0	12.9	31.8	8.0	100.0 (865)
	중소도시	20.1	12.8	9.9	13.4	35.9	7.9	100.0 (952)
	읍면지역	16.5	11.8	11.5	11.8	41.0	7.4	100.0 (339)
	χ^2	17.801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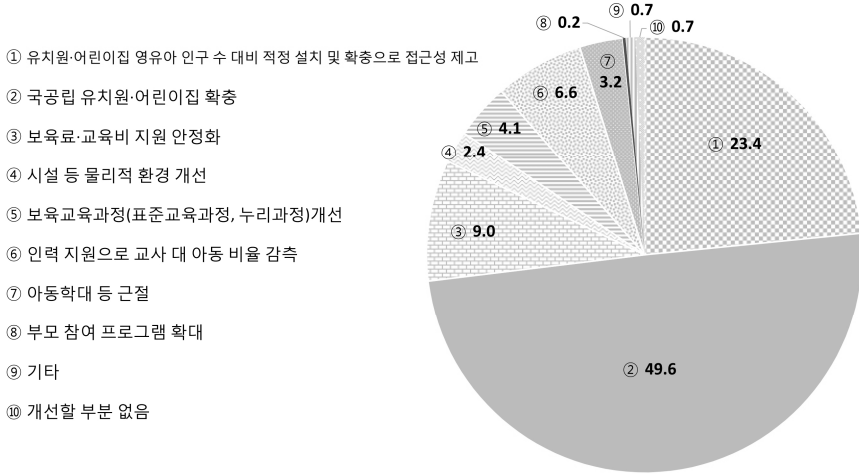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앞서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을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하게 설치하고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즉, 기관보육·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와 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는 9%,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은 6.6%, 보육교육과정 개선은 4.1%, 아동학대 등 근절은 3.2%,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4%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VI-6-1]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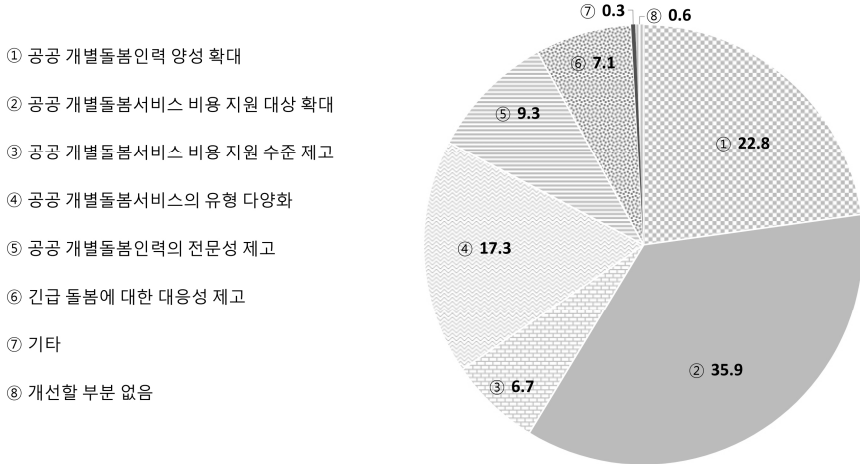


주: 총 411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한 결과,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 지원 수준 제고를 선택한 응답과 합산하면 42.6%가 개별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비용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가 22.8%,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17.3%, 인력의 전문성 제고 9.3%,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2]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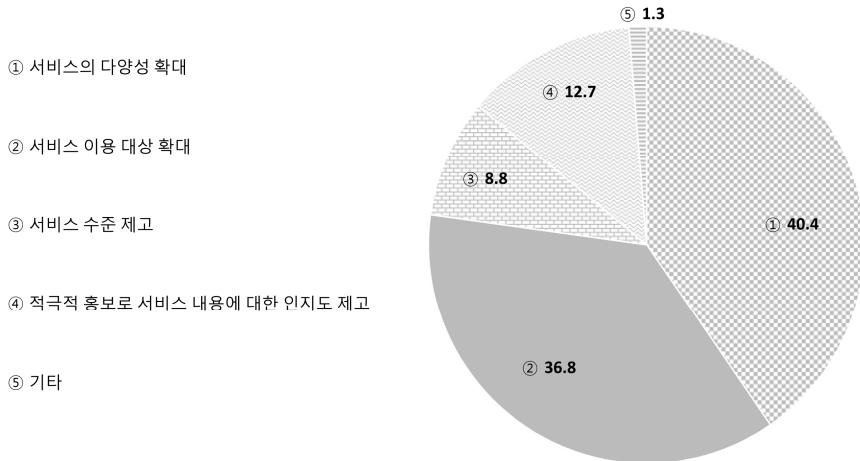
주: 1) 총 312명 응답 결과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I-6-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주: 1) 총 228명 응답 결과임.

2) '개선할 부분 없음' 항목에 응답자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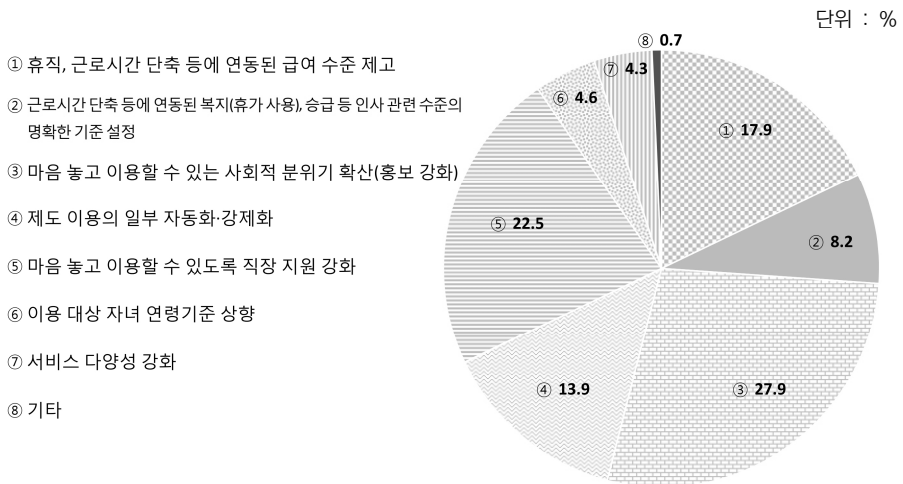
시간제 이용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응답

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한 결과,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36.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2.7%였으며, 서비스 수준 제고는 8.8%가 응답하였다(그림 VI-6-3 참조).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육아지원 분야로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 27.9%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5%였다.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도 13.9%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돌봄 시간 제도 자체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들이 실시 중인 돌봄 시간 지원 제도를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친화적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7.9%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 이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 상향이 4.6%, 서비스의 다양성 강화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주: 1) 총 280명 응답 결과임.
 2) '개선할 부분 없음' 항목에 응답자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즉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는 싶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기업 내부의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아이랑 지지고 볶든 간에 아이랑 조금 더 있는 시간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맨날 아침에 8시 아이 보내고 6시, 7시 되야 아이 있는 시간도 짧고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 2,3년이더라도 아이 단축시간이던가 반나절 근무 같은거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많이 해요. 아이가 커버리면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더라도 단축근무라는 것이 활성화 돼서 힘들더라도 그런 걸 이용하고 싶어요.(중략) 정말 불가피할 때만 이용해야하지. 이게 자유롭게 있어도 연차, 월차 쓰는것도 그렇게 내 휴가지만은 그래도 일바쁠 때 그럴 때 못쓰고 돌아오는 경우 많으니까 참 안타깝죠. (면담7 면담자C)

(육아휴직 사용자는) 다른 차별은 전혀 없는데 승진은 절대 못 해요. (면담4 면담자A)

일부 대기업에서는 눈치 안 보고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회사에서는 아직 좀 힘든 거 같아요. (면담3 면담자C)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일 사용하거나 할 때 저 사회적 눈치 뭐 눈치를 준다거나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후략) (면담2 면담자C)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혀 실상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예 없고요. 저희 신랑 회사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보다 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면담1 면담자A)

저희 애 아빠 같은 경우, 만일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거예요.(면담4 면담자C)

아무래도 엄마가 있으면 엄마 쪽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남성분들이 여성보다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고, 사회분위기에 맞게 또..(면담3 면담자A)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니까 남성 육아휴직이 다 있고 원칙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남성분들은 거의 없고 사용하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중략) 남성이 자유롭게 사용하는거 같지는 않고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사용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임원의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사용안하고 남아있어 봤자 손해를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더 자유롭게 하는거 같고, (후략) (면담3 면담자A)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 분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냥 못쓰고.. (면담8 면담자A)

한편, 육아 가구의 부모들은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쉽게 유연근무제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육아 가구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일·생활균형 지원의 확산을 통해 이뤄지기를 희망하였다.

(유연근무제도 관련 질의)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눈치도 안보이고..그리고 결혼이나 육아를 하지 않고서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쓰다보면.. 제가 육아를 하면서 쓰는 입장이지만 눈치를.. 있는 제도를 쓰면서도.. 눈치를 보는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쓰면 좀 눈치를 안보고.. 쓸 수 있지 않을까..(면담8 면담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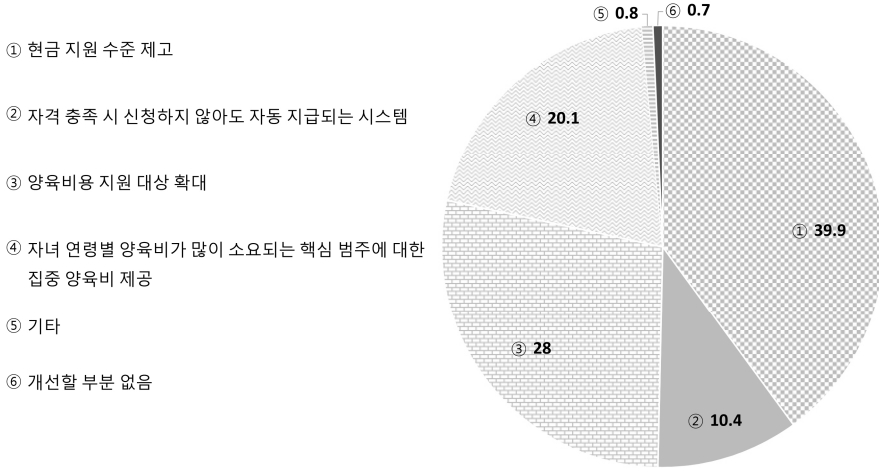
저도 그런 제도(유연근무제도)는 다 같이 쓸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아요.. 육아하는 부분에만 한정을 하니까.. 나는 진짜 이 제도를 쓰지 못해 라고 반대하는 것 같고.. 안 쓰면 손해인 그런거.. 그렇게 돼서 그러면 너도 나도 안 쓰니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면담8 면담자B)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선택한 응답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한 결과, 39.9%가 현금 지원 수준 제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였으며, 자녀 연령별로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집중적인 양육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0.1%, 자격 충족 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지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그림 VI-6-5 참조).

양육물품 지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물품 지원량을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원 자격기준 확대가 19.5%,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가 13%, 서비스 홍보 강화가 10.1%,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이 5.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I-6-6 참조).

[그림 VI-6-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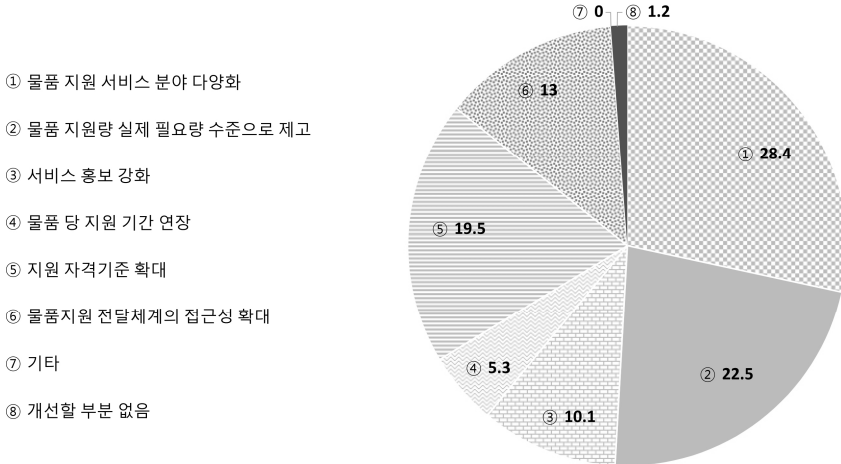
단위 : %



주: 총 756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I-6-6]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주: 1) 총 169명 응답 결과임.
 2) '기타' 항목에 응답자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나.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초등학령기 자녀)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육아지원 분야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중 절반가량인 46.9%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이 27.9%였으며,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11.6%, 개별 돌봄 서비스 8.1%,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서비스 5.6%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높았으며,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반면, 외벌이 가구에서는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3.2%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 구간 500만원까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자녀 돌봄시간지원과 개별돌봄서비스 부분의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 돌봄시간지원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6-2〉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0년)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전체	46.9	8.1	5.6	11.6	27.9	100.0 (1,0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6	10.5	4.4	15.9	21.6	100.0 (477)
	외벌이	46.3	6.0	6.5	8.0	33.2	100.0 (566)
	χ^2	35.400***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자녀 돌봄 시간 지원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4.9	7.7	12.8	5.1	29.5	100.0 (78)
	300~399만원	42.9	6.1	8.1	10.6	32.3	100.0 (198)
	400~499만원	48.5	5.4	5.7	9.4	31.1	100.0 (299)
	500~599만원	48.1	9.3	3.2	13.0	26.4	100.0 (216)
	600만원 이상	47.6	11.9	3.2	15.9	21.4	100.0 (252)
	χ^2	39.163**					
총 자녀수	1명	38.5	11.0	9.3	13.7	27.5	100.0 (182)
	2명	47.5	7.4	4.2	12.3	28.6	100.0 (619)
	3명이상	51.7	7.4	6.2	8.3	26.4	100.0 (242)
	χ^2	16.833*					
지역 규모	대도시	43.2	8.2	5.0	9.6	34.1	100.0 (417)
	중소도시	50.1	8.5	5.7	13.1	22.5	100.0 (457)
	읍면지역	47.3	6.5	6.5	12.4	27.2	100.0 (169)
	χ^2	16.246*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 중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요구도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돌봄 프로그램 개선이 20%로 나타나,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초등돌봄교실 시간 확대가 16.6%,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은 8.6%로 나타났다(그림 VI-6-7 참조).

심층면담 과정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제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냥 어린이집 돌봄느낌?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그래도 애는 초등학생인데 이런 느낌 이 드는게 조금 싫었었고 (중략) 돌봄교실을 통해서 아이가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같은 아 이 맞춤형 피드백 같은걸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피드백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계획 하에 아이가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런거 없이 아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학원가기 전까지 무사히 잘 시간을 보내는 느낌. 그래서 그 런거 같아 질이 많이 떨어지는거 같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교사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 들한테도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계획표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계획표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선

생님이 종이접기도 하고 국어논술 같은것도 하는거 같아요. 비용이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그 시간만큼 지도를 해주면 더 신뢰성도 쌓일 것 같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부모한테 e알림장 통해서 알려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면담7 면담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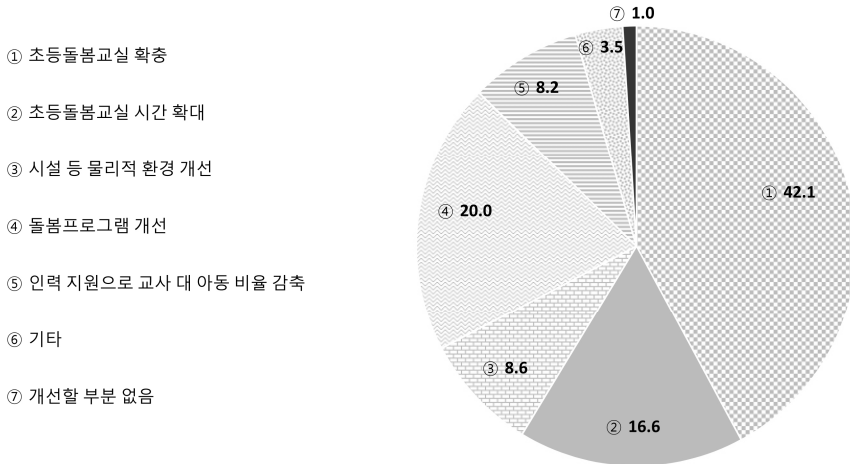
돌봄교실에서의 자체적인 돌봄전담 교육선생님이 따로 있으시다 그러면 방과 후 교실을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돌봄교실 내에서 요일마다 시간표대로 돌봄학생들만 이용하는 국,영,수가 있다 한다면 다른데 왔다갔다 하지 않고 돌봄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충분히 있는데 김영순 주부님 말씀대로 1층갔다 5층갔다 2시에 갔다 3시에 갔다 아이들만 혼란스러운거고요. 돌봄전용 아이를 위한 전용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면담7 면담자A)

프로그램자체가 단조롭다고 해야 하나? 돌봄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관찰은 날도 있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돌봄자체가 한 학년만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1학년,2학년,3학년 이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좀 방치한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하고만 있다는 생각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교육으로 돌린 것도 있죠..(면담8 면담자C)

정부 지원에서 가장 부족한 초등 자녀 양육 지원 분야로 개별돌봄서비스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 부모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선택하였다. 한편, 영유아를 포함한 응답(그림 VI-6-2 참조)보다 다소 높은 23.8%가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응답도 13.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한 상당한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공공 개별돌봄 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1.9%,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7.1%로 나타났다(그림 VI-6-8 참조).

[그림 VI-6-7]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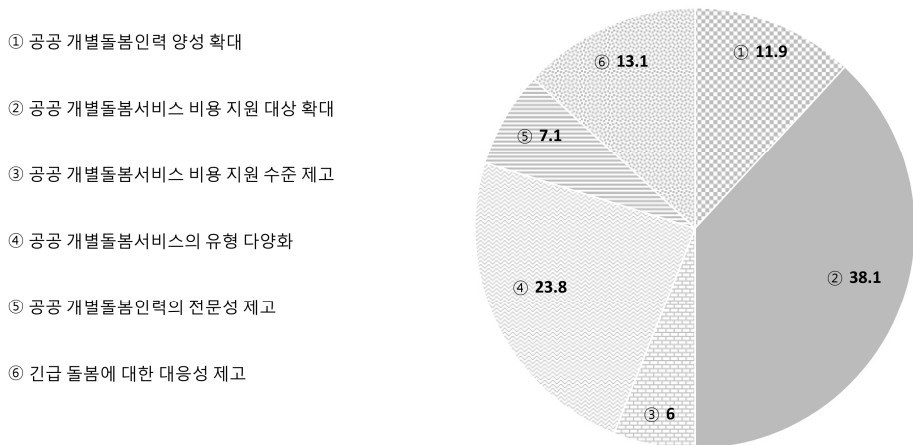
단위 : %



주: 총 489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I-6-8]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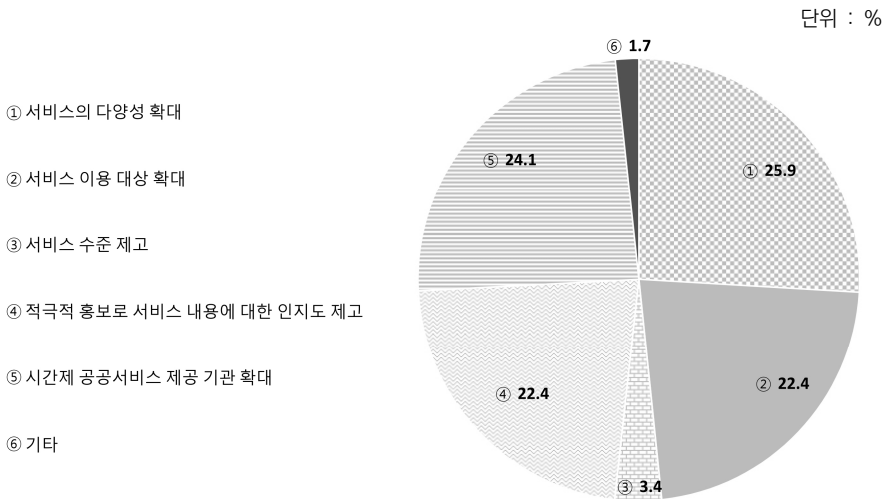


주: 1) 총 84명 응답 결과임.
 2) '기타'와 '개선할 부분 없음' 항목에 응답자 없음.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분야로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가 해당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네 부분이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9%, 시간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가 24.1%,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와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22.4%를 나타냈다. 이는 공급이 많지 않고 대상자가 특정되는 등 응답자의 서비스 자체 이용률이 높지 않고 정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VI-6-9]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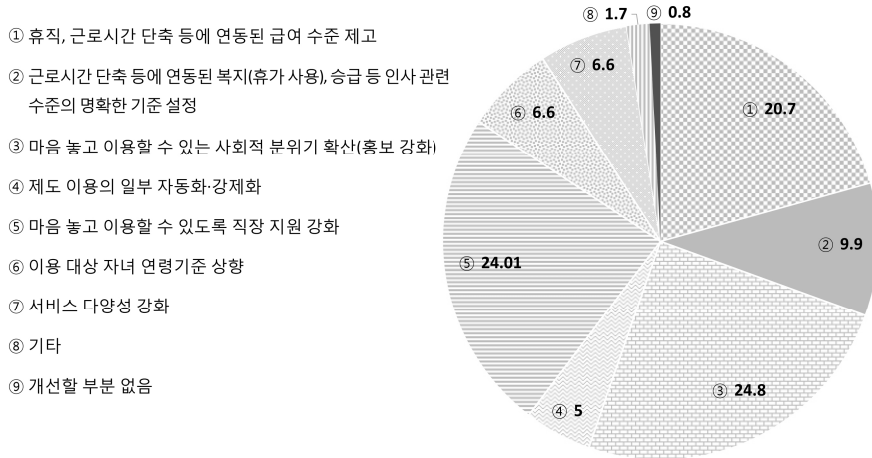


주: 1) 총 58명 응답 결과임.
 2) '개선할 부분 없음' 항목에 응답자 없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부모의 돌봄시간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선택한 경우, 마음 높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마음 높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4.0%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7%,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9%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언급한 응답 비율 순위는 영유아를 포함한 전체 아동 부모의 응답과 동일하나,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초등 저학년 부모는 5.0%에 그쳤다. 이 외에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과 서비스 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둘 다 6.6%로 나타났다.

[그림 VI-6-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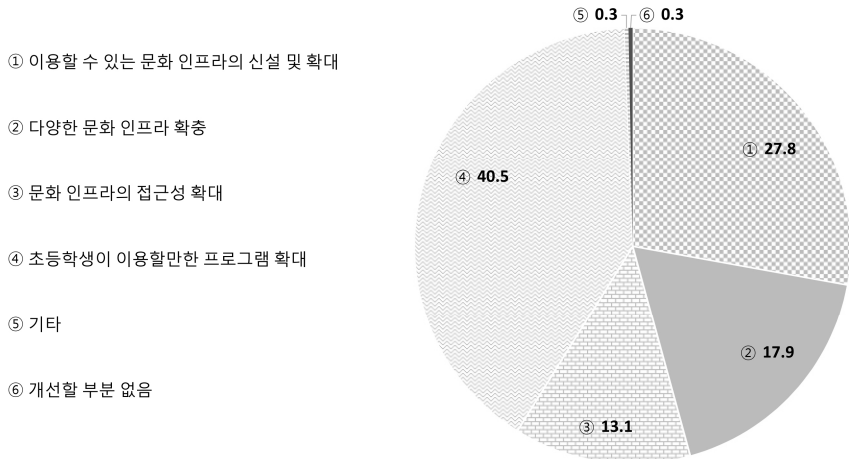
단위 : %



주: 총 121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그림 VI-6-11]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0년)

단위 : %



주: 총 291명 응답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지역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이용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8%,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이 17.9%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부모가 초등학생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3.1%였다.

7. 긴급 돌봄 대응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긴급 상황 속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을 외벌이 가구에 질문하였다. 부모가 직접 돌봄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90.8%로, 대다수의 외벌이 가구는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외벌이 가구는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 돌봄 공백을 가정 내 돌봄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을 희망하는 응답은 1순위에서 5.6%에 그쳤으나 2순위에서는 22.3%로 나타나, 외벌이 가구 내에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7-1〉 외벌이 가구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2020년)

구분	단위 : %		
	1+2순위	1순위	2순위
부모 직접 돌봄	95.7	90.8	4.9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41.0	1.3	39.7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6.1	0.7	5.4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	7.7	1.0	6.6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27.9	5.6	22.3
아이들끼리 있어도 됨	5.8	0.3	5.5
기타	0.2	0.0	0.2
모름/무응답	0.3	0.3	15.4

주: 총 1,147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봄 주된 방식이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법이었는지에 대해 맞벌이 가구에 질문하였다. 65.5%가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3에 해당하는 32.7%는 희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7-2〉 가구특성별 맞벌이 가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 돌봄 방식 실현 여부 (2020년)

단위 :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방식으로 돌봄	희망하지 않는 돌봄방식으로 돌봄	모름/무응답	계
전체		65.5	32.7	1.8	100.0 (96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1.4	25.0	3.6	100.0 (28)
	300~399만원 이하	64.5	34.6	0.9	100.0 (107)
	400~499만원 이하	66.5	32.1	1.3	100.0 (224)
	500~599만원 이하	59.3	37.3	3.4	100.0 (236)
	600만원 이상	68.8	30.1	1.1	100.0 (365)
χ^2		10.671			
총 자녀 수	1명	69.3	30.1	0.6	100.0 (336)
	2명	62.6	35.2	2.2	100.0 (505)
	3명이상	67.2	29.4	3.4	100.0 (119)
	χ^2	8.379			
지역 규모	대도시	67.9	30.5	1.6	100.0 (383)
	중소도시	65.0	34.1	1.0	100.0 (417)
	읍면지역	61.3	34.4	4.4	100.0 (160)
	χ^2	9.47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맞벌이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 자녀를 돌봄 방식(1순위 응답 기준)별로 관측치가 많았던 돌봄 방식 순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 실제로 희망하던 방식이었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 돌봄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보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희망하는 방식이었다는 응답은 64.3%였으며,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해서 돌보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희망했다는 응답이 67.6%였다. 한편,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돌보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방식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이었다는 응답이 94.5%에 달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선호가 분명함을 엿볼 수 있었다. 긴급돌봄센터(어린이집, 초등 포함)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을 활용했다는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방식이 희망하는 방식이었다는 응답이 70.6%, 부모중 재택근로를 사용한 경우 해당 방식이 희망하는 방식이었다는 응답은 70.5%였다. 반면,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 있었다는 응답

한 경우에는 해당 방식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4%, 아이를 일터에 데려가서 돌보았다는 경우에도 69.0%가 희망한 방식은 아니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돌봄 방식이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표 VI-7-3〉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의 실제 자녀 돌봄 방식별 희망 여부 (2020년)

단위 :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방식으로 돌봄	희망하지 않는 돌봄방식으로 돌봄	계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67.6	32.4	100.0 (179)
아버지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31.8	68.2	100.0 (22)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67.6	32.4	100.0 (74)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80.0	20.0	100.0 (5)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94.5	5.6	100.0 (128)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70.5	29.5	100.0 (78)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64.3	35.7	100.0 (238)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54.6	45.5	100.0 (11)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 (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0.0	100.0	100.0 (1)
긴급돌봄 센터(어린이집, 초등 포함)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70.6	29.4	100.0 (85)
아이 혼자(혹은 아이들끼리) 있었음	36.6	63.4	100.0 (71)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31.0	69.0	100.0 (29)
기타	77.3	22.7	100.0 (22)
χ^2	1,070.221***		

주: 1) 총 960명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모름/무응답 17명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2) '실제 자녀를 돌봄 방식은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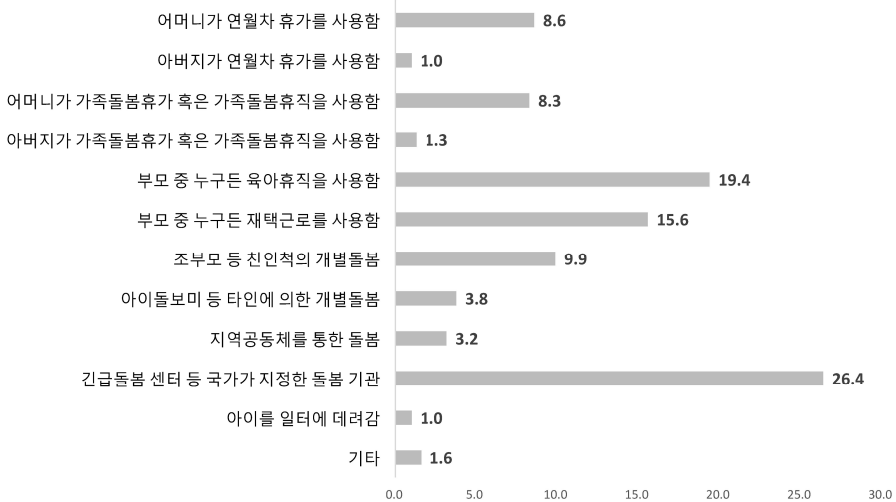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에게 가장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질문한 결과,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를 긴급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이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한편, 부모의 연월차 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재택 근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했으나, 결국 50% 이상의 부모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돌봄 공백 발생 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방식을 희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긴급 돌봄 발생 시 돌봄 기관 확충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 부모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I-7-1]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였던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방식 (2020년)

단위 : %



주: 총 31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버거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 부모님들도 어쩔든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일 생활균형 지원이나 조부모 돌봄 등에 방점을 두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실태조사와 달리 심층면담은 9월 중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관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긴급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보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힘들긴 힘들었던 거 같아요. 휴가를 많이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휴가를 또 써야 했고 또 애기도 이제 한참 밖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시기인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갑갑해 했고 그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그 보내 긴급보육으로 보냈는데 보내는 애들이 또 얼마 없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애가 또 약간 반도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맨날 바뀌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럼 두 번째로 애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초창기에. (면담2 면담자A)

저희 아이는 9시 반에 등원을 해가지고 3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5시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시나 4시정도에 하원 시키고, 계속 외할머니가 케어를 해주세요. 따로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진 않고 있어요. (중략)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안 쓰고 계속 뛰어 놀아도 되잖아요. (중략) 마스크만 없으면 솔직히 5시, 6시까지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인제 뛰어 놀아도 되는데. 마스크 쓰고 인제 뛰어놀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호흡 하는 것도

힘들 거 같고 해 가지고, 아이 생각해서 그렇게 일찍 하원하고 있어요.(면담4 면담자A)

제 생각에는 지금 긴급보육 긴급돌봄 시스템은 저는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을 완전 닫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맞벌이는 다 많은데 문을 닫을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긴급돌봄으로 이제 한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건 사실 불만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렇다고 모든 원아들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회사 차원에서 저희 신랑은. 저는 약간 공공기관 좀 성격을 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희 신랑은 이제 완전 사기업이 아니라서 가족돌봄휴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일과 가정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혀 그런 걸 고려해 주지 않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긴급돌봄을 안 보낼 수 있다면. 이렇게 회사에서 제가 좀 그 휴가를 쓰고 신랑도 가족돌봄휴가를 좀 쓸 수 있었다면 조금 길게 가정보육을 했어도 저게 좀 더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죠. 전체 모든 회사에서 그런 휴가를 쓸 수 없다는 게. (면담2 면담자A)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자녀를 돌본 방식(1순위 응답 기준)별로 희망했던 돌봄 방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질의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관측치가 가장 많은 조부모 등 친인척 개별돌봄의 경우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희망했거나(20.0%),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에서 돌보기(18.8%)를 희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연월차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았으나 그런 방식을 희망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에서 돌보기(27.6%)와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22.4%)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한편,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에서 돌보기(24.4%),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22.2%)가 높게 응답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는 방식대로 돌보지 못한 경우 육아 가구 부모들이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에서 돌봄과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희망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안적 차원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어머니가 연월차를 사용하거나 아이들끼리 혼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초기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I-7-4〉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 자녀 돌봄 방식별 희망하는 돌봄 방식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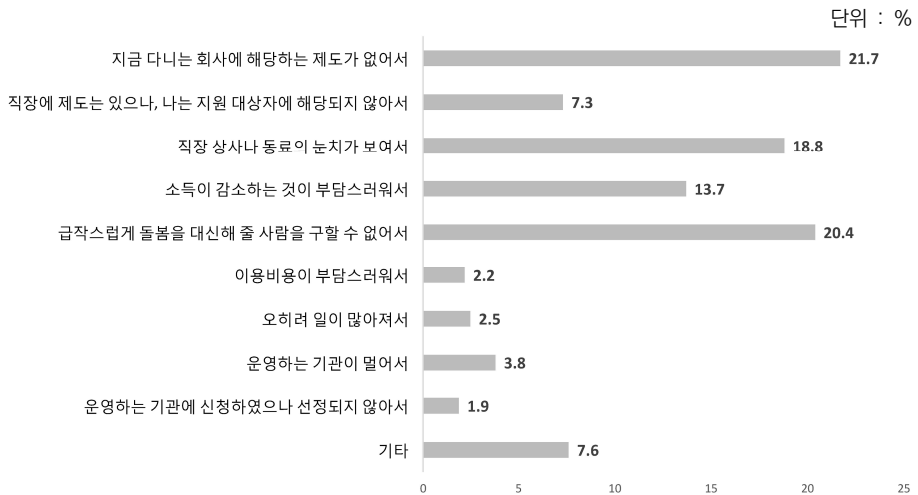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 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⑫	⑬	(수)
①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3.4	0.0	10.3	0.0	22.4	17.2	5.2	6.9	3.5	27.6	3.5	0.0	(58)
② 아버지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0.0	0.0	6.7	0.0	6.7	20.0	20.0	6.7	0.0	40.0	0.0	0.0	(15)
③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4.2	0.0	4.2	0.0	20.8	8.3	20.8	0.0	0.0	41.7	0.0	0.0	(24)
④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
⑤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0.0	0.0	28.6	0.0	28.6	14.3	0.0	14.3	0.0	14.3	0.0	0.0	(7)
⑥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0.0	4.4	8.7	0.0	8.7	8.7	21.7	0.0	4.4	43.5	0.0	0.0	(23)
⑦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12.9	2.4	9.4	1.2	20.0	15.3	10.6	2.4	3.5	18.8	0.0	3.5	(85)
⑧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20.0	0.0	0.0	0.0	20.0	20.0	0.0	20.0	0.0	20.0	0.0	0.0	(5)
⑨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
⑩ 긴급돌봄 센터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12.0	0.0	8.0	0.0	24.0	28.0	12.0	0.0	0.0	12.0	4.0	0.0	(25)
⑪ 아이 혼자(혹은 아이들끼리) 있었음	17.8	0.0	6.7	0.0	22.2	13.3	2.2	2.2	6.7	24.4	0.0	4.4	(45)
⑫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5.0	0.0	0.0	15.0	10.0	20.0	10.0	5.0	5.0	30.0	0.0	0.0	(20)
⑬ 기타	0.0	0.0	20.0	0.0	20.0	0.0	0.0	0.0	0.0	60.0	0.0	0.0	(5)
χ^2	156.977												

주: 1) 총 31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2) 실제 자녀를 돌봄 방식은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맞벌이 가구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희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직도 상당수의 회사가 자녀 돌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와 재택근로 등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18.8%, 소득 감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3.7%, 직장에 제도는 있으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7.3%를 차지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모가 긴급돌봄 공백 시 주변의 압력이나 소득 감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및 수준을 확대하고 육아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급작스럽게 돌봄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20.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돌봄을 원했으나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VI-7-2] 맞벌이 가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 이유 (2020년)



주: 총 31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표 VI-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을 희망했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급작스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기관 미운영)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를 희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가 연월차를 쓰고 싶었으나 쓰지 못한 경우에는 다니는 회사 내에 해당 제도가 없거나 직장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각 33.3%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한 경향으로 어머니가 가족돌봄휴직 혹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또한 회사에 제도가 없어서(38.5%), 직장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30.8%)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시 말해, 맞벌이 육아 가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기관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기관이 미운영하는 등 돌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연월차 휴가 등 일·생활 균형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의 미흡함과 실질적인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심층면담 과정에서는 돌봄 뿐 아니라 사교육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000에 계약을 걸어놨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 학원을 운영을 못 하니까 오히려 보내지 못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정부에서 운영을 못하게 하니까 작년부터 대기했었는데 올해 이제 풀려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내게 됐어요. △△도 올 초에 했었는데 코로나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도 오시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더 학습적인 걸 못하게 됐어요.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아예 학습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단계 같은 경우 (중략) 온라인 수업을 제가 다행히 재택근무를 해서 온라인 학습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3월 달에 초창기 때는 이제 재택근무가 안 돼서 그때는 돌봄 휴가를 썼었어요. 그때는 000 이용하기 전이고 돌봄 휴가 쓰고 친정어머니께서 돌봐 주셔야 되니까 (후략) (면담3 면담자A)

〈표 VI-7-5〉 희망하는 돌봄 방식별 돌보지 못한 이유 (2020년)

단위 : %, (명)

구분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돌보지 못한 이유										(수)
	회사에 해당 제도가 없어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상사/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소득 감소가 부담되서	돌봄단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이용 비용이 부담되서	이용 비용이 증가해서	오히려 일이 많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멀어서	신청 했으나 선정에서 떨어져서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33.3	3.7	33.3	11.1	7.4	0.0	3.7	7.4	0.0	0.0	(27)
아버지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0.0	0.0	0.0	33.3	66.7	0.0	0.0	0.0	0.0	0.0	(3)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38.5	11.5	30.8	11.5	7.7	0.0	0.0	0.0	0.0	0.0	(26)
아버지가 가족돌봄휴가(무급)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0.0	0.0	25.0	75.0	0.0	0.0	0.0	0.0	0.0	0.0	(4)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18.0	18.0	34.4	18.0	9.8	0.0	0.0	0.0	0.0	1.6	(61)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32.7	6.1	22.5	22.5	10.32	0.0	2.0	0.0	0.0	4.1	(49)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12.9	3.2	12.9	6.5	48.4	3.2	6.5	3.2	0.0	3.2	(31)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8.3	8.3	8.3	8.3	33.3	33.3	0.0	0.0	0.0	0.0	(12)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10.0	0.0	0.0	0.0	40.0	0.0	10.0	20.0	0.0	20.0	(10)
간접돌봄 센터등 국기가 지정한 돌봄 기관	16.9	3.6	3.6	8.4	25.3	2.4	3.6	8.4	7.2	20.5	(83)
아이 혼자(혹은 아이들끼리) 있었음	66.7	0.0	0.0	0.0	33.3	0.0	0.0	0.0	0.0	0.0	(3)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0.0	0.0	20.0	20.0	40.0	0.0	0.0	0.0	0.0	20.0	(5)
χ^2 241.993***											

주: 1) 총 314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2) '실제 자녀를 돌봄 방식은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돌봄 및 교육기관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회적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돌봄휴가제도를 32.4%가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유연근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0%, 육아휴직제도는 12.1%로 일가족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개선을 요구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육아지원 정책 분야는 기관 돌봄이 9.6%,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지원은 5.0%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제도와 유연 근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구는 아이돌봄지원제도와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게 응답된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로제도를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유사하게 아이돌봄지원제도와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총 자녀수에 따른 결과에서는 자녀수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기관돌봄과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7-6〉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020년)

단위 : %(명)

구분	필요한 정책							계	
	가족돌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로제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기관 돌봄	지역공동 체 및 기타 아동 지원	기타		
전체	32.4	12.1	14.0	26.6	9.6	5.0	0.4	100.0 (2,156)	
맞벌이 가구	맞벌이	31.8	14.9	15.1	24.7	9.2	3.8	0.6	100.0 (960)
	외벌이	32.9	9.8	13.0	28.1	9.9	6.0	0.3	100.0 (1,196)
여부	χ^2	23.290***							

구분	필요한 정책								계
	가족돌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로제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기관 돌봄	지역공동 체 및 기타 아동 지원	기타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5	10.8	13.9	32.3	5.1	9.5	0.0	100.0 (158)
	300~399만원	31.0	11.0	10.6	29.5	11.9	5.7	0.2	100.0 (471)
	400~499만원	33.9	11.2	13.2	27.3	8.8	4.9	0.6	100.0 (634)
	500~599만원	31.8	15.2	14.2	22.4	10.2	6.0	0.2	100.0 (402)
	600만원 이상	33.4	12.0	17.9	24.4	9.4	2.2	0.6	100.0 (491)
	χ^2	46.716**							
총 자녀수	1명	30.5	14.8	14.8	27.4	8.0	4.3	0.3	100.0 (725)
	2명	33.5	11.6	14.0	25.2	10.4	5.1	0.2	100.0 (1,125)
	3명이상	32.7	7.5	11.8	29.4	10.5	6.5	1.6	100.0 (306)
	χ^2	32.262**							
지역 규모	대도시	31.2	11.7	13.1	28.4	11.2	4.2	0.2	100.0 (865)
	중소도시	34.2	12.3	15.2	25.1	7.5	5.1	0.5	100.0 (952)
	읍면지역	30.1	12.4	12.7	26.0	11.5	6.8	0.6	100.0 (339)
	χ^2	18.87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앞선 결과에서 선택한 육아지원 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에서 비용 지원의 확대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이 22.6%,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4.1%, 제도와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이 외에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0.5%,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기관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8.7%였다.

가구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에서는 비용지원의 확대가 30.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맞벌이 가구에서는 휴가 사용일수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외벌이 가구보다 7.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는 자격 해당자의 제도사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8%로 외벌이 가구보다 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제도의 실질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월 가구소득별 차이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휴가사용 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 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월 가구소득 600만원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월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상에서는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비용 지원의 확대와 자격 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역으로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다소 낮아졌다.

〈표 VI-6-7〉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0년, 1순위)

단위 : %(명)

구분	정책 개선 방향									계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자격해당자의 제도사용 의무화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구축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타		
전체	22.6	27.2	10.5	14.1	12.2	8.7	2.8	1.6	0.2	100.0 (2,156)	
맞벌이 가구	맞벌이	24.8	23.3	9.3	17.8	11.7	10.0	1.8	1.0	0.3	100.0 (960)
	외벌이	20.9	30.3	11.5	11.2	12.5	7.7	3.7	2.1	0.2	100.0 (1,196)
여부	χ^2	46.37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4	32.3	11.4	10.8	9.5	8.9	4.4	4.4	0.0	100.0 (158)
	300~399만원	18.9	32.5	10.0	14.0	10.2	9.3	2.8	2.1	0.2	100.0 (471)
	400~499만원	22.9	27.3	12.6	12.0	12.8	7.6	3.6	0.9	0.3	100.0 (634)
	500~599만원	23.9	24.1	10.7	14.2	13.9	9.2	2.2	1.2	0.5	100.0 (402)
	600만원 이상	26.3	22.8	7.7	18.1	12.6	9.2	1.8	1.4	0.0	100.0 (491)
	χ^2	57.791**									
총 자녀수	1명	25.2	28.3	10.8	14.1	10.1	7.4	2.2	1.9	0.0	100.0 (725)
	2명	22.7	25.9	10.4	14.6	13.0	9.0	3.1	1.2	0.3	100.0 (1,125)
	3명이상	16.3	29.4	10.1	12.7	14.1	10.8	3.3	2.6	0.7	100.0 (306)
	χ^2	26.249									
지역 규모	대도시	19.8	28.2	12.4	16.1	11.4	8.2	2.2	1.5	0.2	100.0 (865)
	중소도시	24.3	27.0	8.5	14.2	12.6	8.2	3.2	1.9	0.2	100.0 (952)
	읍면지역	25.4	25.1	11.2	9.1	12.7	11.5	3.5	1.2	0.3	100.0 (339)
	χ^2	28.52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별로 개선 방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휴가 사용일수가 연장되어야한다 응답이 각 33.7%, 44.6%로 가장 높았으며, 유연근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격 해당자에 대한 제도 사용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제도와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40.3%, 26.9%로 가장 높았다. 기관돌봄의 경우에는 방역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 기관들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되어야한다는 의견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6-8〉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0년, 1순위)

단위 : %, (명)

구분	정책 개선 방향									(수)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제도 사용 의무화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이용 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자원 체계 구축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타	
전체	22.6	27.2	10.5	14.1	12.2	8.7	2.8	1.6	0.2	(2,156)
필요한 정책	가족돌봄휴가제도	33.7	24.8	8.0	18.8	7.2	3.9	2.7	0.7	(698)
	육아휴직제도	44.6	24.2	10.0	11.9	6.5	1.2	1.5	0.0	(260)
	유연근무제도	24.3	15.0	11.0	26.6	13.3	6.0	2.3	1.7	(301)
	아이돌봄지원제도	6.6	40.3	12.6	7.3	16.8	10.8	3.1	2.4	(573)
	기관돌봄	7.3	20.3	14.0	7.3	16.9	29.0	2.9	2.4	(207)
	지역공동체 및 기타아동 지원	8.3	26.9	9.3	5.6	21.3	15.7	6.5	5.6	(108)
	기타	22.2	33.3	0.0	0.0	11.1	11.1	0.0	0.0	22.2
χ^2	745.262***									

주: 정책 개선 방향은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본 연구.
 *** $p < .001$.

Part II

심층분석: 초등 전환기 변화를 중심으로

VII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 01 심층 분석 개요
- 02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변화
- 03 초등 전환기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VII.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VII장은 3차년도 심층 분석 주제인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녀가 초등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육아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변화를 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고찰해봄으로서, 초등 전환기 육아 지원의 사각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1. 심층 분석 개요

가. 분석 자료 특성

분석을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2012년생 자녀)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초등 전환기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동일 자녀를 패널자료 형태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1차년도 조사에 응답된 2012년생은 467명이고, 2차년도에 응답한 2012년생 자녀는 470명이지만, 자료를 패널화 하는 과정에서 2차년도 대체가구 및 신규 가구의 표본이 삭제되어, 심층 분석은 총 327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 분석 대상자는 맞벌이 가구가 약 45% 정도로, 외벌이 가구가 10%포인트 가량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평균 300~399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이며, 1차년도 조사 대비 2차년도에 소득 수준은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총 자녀수의 경우에도 후속 출산이 발생하면서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에 약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자녀가 2명이 경우가 2차년도 기준 60.9%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가가 약간 감소한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 비중이 살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 심층 분석 대상자 가구 특성 (2012년생 추적표본)

단위 : 명(%)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전체		327	(100.0)	327	(10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9	(45.6)	147	(45.0)
	외벌이	178	(54.4)	180	(55.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2	(22.0)	58	(17.7)
	300~399만원 이하	99	(30.3)	98	(30.0)
	400~499만원 이하	75	(22.9)	76	(23.2)
	500~599만원 이하	33	(10.1)	39	(11.9)
	600만원 이상	48	(14.7)	56	(17.1)
총 자녀수	1명	76	(23.2)	70	(21.4)
	2명	196	(59.9)	199	(60.9)
	3명이상	55	(16.8)	58	(17.7)
지역 규모	대도시	147	(45.0)	142	(43.4)
	중소도시	122	(37.3)	126	(38.5)
	읍면동지역	58	(17.7)	59	(18.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심층 분석 대상자의 아동 성별은 남아가 45.6%로 여아 54.4%에 비해 다소 적었다. 부 연령은 2차년도 기준 40대가 대부분으로 70.8%가 40대였는데, 1차년도에는 40대 부의 비중이 57.2%였다. 즉, 아동의 출생연도가 2012년생이므로, 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는 30대 중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의 경우에는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에 부와 마찬가지로 40대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는(13.5%포인트) 하였으나, 2차년도 기준으로도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51.1%)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가 취업중인 경우는 2차년도 조사 기준 45.5%였는데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1차년도 당시 취업모였다가 2차년도에 미취업모인 경우가 25명, 반대로 1차년도에는 미취업상태였으나 2차년도에 취업상태인 경우가 20명으로, 전체적으로는 미취업모가 5명 증가한 상태였다. 즉, 초등 전환기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1차년도 취업모 기준 16.3%)하기는 하나, 반대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의 근로시간은 2차년도 기준 30시간 초과 40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나, 18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라는 응답도 35.3%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의 근로시간은 1차년도 주당 평균 34.3시간에서 2차년도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VII-1-2〉 심층 분석 대상자 아동 및 부모 특성 (2012년생 추적표본)

단위 : 명(%), 시간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아동 특성	성별		
	남아	149 (45.6)	149 (45.6)
	여아	178 (54.4)	178 (54.4)
부 특성	연령	20대	1 (0.3)
		30대	138 (42.5)
		40대	186 (57.2)
	취업 여부	취업	320 (98.5)
	미취업	5 (1.5)	
모 특성	연령	20대	1 (0.3)
		30대	211 (64.9)
		40대	113 (34.8)
	취업 여부	취업	153 (47.1)
		미취업	172 (52.9)
	근로 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58 (37.9)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72 (47.1)
40시간 초과		23 (15.0)	
평균 근로시간		34.3	35.6

주: 부 정보가 없는 경우 2명, 모 정보가 없는 경우 2명이며,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결측으로 인해 관측치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나. 분석 방법

초등 전환기에 자녀 양육비용 변화 및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회귀분석 모형은 횡단 자료 분석을 위해 OLS와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단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고정효과 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횡단 분석의 경우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양육비용,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이용시간 등의 경우는 각 연령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항 변수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 확률의 경우에는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초등 전환기 변화에 집중하여 종단 자료(패널자료) 분석의 경우에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⁵⁶⁾ 여기에서는 종단자료 분석에 사용된 패널 고정효과에 대해서 민인식·최필선(2010)의 제8장 내용에 근거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56) 사후검정 등에서 패널 임의효과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의 모형 적합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일괄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

(식 1)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할 때,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i = 1, 2, \dots, n \text{ 및 } t = 1, 2, \dots, T \quad (\text{식 1})$$

2개의 오차항이 있는 모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u_i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e_{it}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고정효과 모형은 u_i 를 추정해야 하는 모수로 간주하는 모형으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y_{it} = (\alpha + u_i) + \beta x_{it} + e_{it} \quad (\text{식 1})$$

(식2)와 같은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해 within 변환을 통해 β 값의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방식이다. within 변환을 위해 먼저 패널 그룹별 평균으로 이뤄진 between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식 2)에서 빼주면 within 변환을 적용한 추정 모형이 된다. 즉 within 변환이 된 추정 모형은 (식 3)과 같다.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e_{it} - \bar{e}_i) \quad (\text{식 3})$$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 특성 u_i 가 모형에서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 및 독립 변수 또한 개체 특성이 갖는 평균값을 뺀 상태의 값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패널 모형을 통한 추정치의 경우 OLS에 비해 개인 특성 등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함으로써 각 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 예를 들어 성별 효과 등을 감안한 상태에서 다른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아동 개인 및 가구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비용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단, 본 연구는 아동 개인 및 가구 특성이 횡단면 차원에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되어, 따라서 횡단 분석과 종단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변화

이 절에서는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 지출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모든 비용은 실질 비용(2015=100기준)으로 환산된 비용을 활용하였다.

가. 아동당 양육비용 지출 실태

초등 전환기 아동(2012년생)의 양육비용은 만6세 당시 월평균 69만8천원에서 초등 입학 후 만7세에 78만3천원으로 8만5천원 상승하였다. 초등 전환기에 양육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62.7%, 감소한 경우가 37.3%였다.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와 식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가문화생활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비의 경우에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지만 평균 비용 자체는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증가했다는(59.0%) 응답 자체가 많은 비목이었다.

〈표 VII-2-1〉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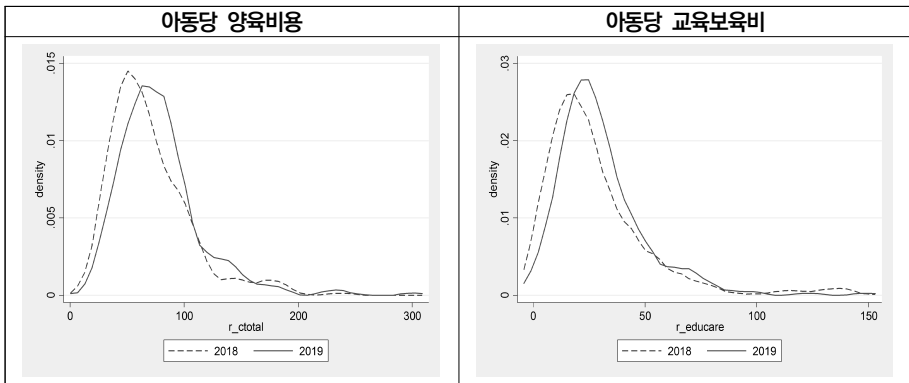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양육비용 증감평균	양육비용 변화 비중		
				감소	변화없음	증가
총계	69.8	78.3	8.5	37.3	0.0	62.7
1.식비(외식비포함)	13.8	15.7	1.9	51.7	0.0	48.3
1-1.외식비	3.5	3.9	0.4	55.1	7.3	37.6
3.기기/집기	1.6	2.6	1.1	15.0	68.2	16.8
4.피복비(의류및신발)	4.9	5.6	0.7	58.4	0.9	40.7
5.보건/의료비	2.6	2.5	-0.1	60.2	4.3	35.5
6.교육/보육비	28.0	30.3	2.2	40.7	0.3	59.0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1.4	10.2	-1.2	59.9	0.6	39.5
7-1.가족여행 등	5.2	4.9	-0.3	56.6	7.7	35.8
7-2.관람 체험학습	1.3	1.6	0.2	41.6	21.7	36.7
7-3.완구	2.3	1.5	-0.8	50.5	24.2	25.4
7-4.도서구매	2.6	2.3	-0.3	44.0	26.0	30.0
8.교통비	0.2	0.5	0.3	8.3	77.1	14.7
9.통신비	0.0	0.8	0.7	1.2	69.7	29.1
9-1.휴대전화비	0.0	0.6	0.5	1.2	75.5	23.2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3	2.2	-0.1	63.0	2.1	34.9
11-2.보험	5.0	6.1	1.1	41.9	11.3	46.8

주: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년도별 총 327명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초등 전환기 아동의 양육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기(만6세) 대비 초등1학년(만7세) 당시의 양육비용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되 최상위 밀도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유아기(만6세) 대비 초등1학년에 더 높아지고 최상위 밀도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다수가 초등 전환기에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다른 양육비용을 일부 줄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됨을 짐작케 한다.

[그림 VII-2-1] 아동당 양육비용 및 교육보육비 분포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용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으나, 초등 전환기 증감 비용은 외벌이 가구에서 더 컸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평균 실질 비용은 살짝 낮아지기도 하였다. 반면 500~5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초등 전환기에 양육비용이 증가한 비중이 71.8%로 매우 많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가 양육비용도 높고 증가폭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양육비용이 높고 증가폭도 컸다.

〈표 VII-2-2〉 가구 특성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양육비용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전체		69.8	78.3	37.3	62.7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1	83.0	39.5	60.5	100.0
	외벌이	64.6	74.6	35.6	64.4	100.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1.8	63.5	32.8	67.2	100.0
	300~399만원이하	61.7	67.6	39.8	60.2	100.0
	400~499만원이하	74.8	84.3	39.5	60.5	100.0
	500~599만원이하	75.6	83.2	28.2	71.8	100.0
	600만원 이상	101.9	101.0	41.1	58.9	100.0
총 자녀수	1명	90.4	100.1	34.3	65.7	100.0
	2명	66.6	76.1	37.7	62.3	100.0
	3명이상	52.7	59.8	39.7	60.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75.1	83.6	32.2	64.8	100.0
	중소도시	66.8	76.0	39.7	60.3	100.0
	읍면동지역	63.0	70.7	37.3	62.7	100.0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년도별 총 327명임.

2) '양육비용 증감평균,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아동 특성에 따라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양육비용 증가폭이 컸는데, 만6세 기준 남아의 양육비용이 여아에 비해 높았으나, 초등1학년의 양육비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조사됐다. 한편,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 가정의 경우 미취업모 가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초등 전환기에 양육비용의 증가폭 자체는 미취업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초등 전환기에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미취업모 가구에서 양육비용의 증가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미취업모 가구에서도 교육보육비용의 증가 시킨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기할만한 점은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만6세 당시 양육비용 평균 101만8천원에 달했으나, 초등1학년인 만7세 때는 평균 83만9천원에 그치며 다른 집단과 유사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VII-2-3〉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양육비용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아동 성별	남아	72.3	77.3	38.9	61.1	100.0	
	여아	67.8	79.2	36.0	64.0	100.0	
부 연령	30대이하	67.2	78.1	31.6	68.4	100.0	
	40대이상	72.1	78.7	40.0	60.0	100.0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69.6	80.4	34.7	65.3	100.0
		40대이상	70.8	76.4	40.5	59.5	100.0
	취업 여부	취업	76.7	82.3	38.7	61.3	100.0
		미취업	64.2	74.9	36.2	63.8	100.0
	근로 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67.3	79.0	30.2	69.8	100.0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76.2	84.2	37.3	62.7	100.0
40시간 초과		101.8	83.9	56.7	43.3	100.0	

주: 1) 아동성별은 각 년도별 327명 기준, 부 혹은 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 2명, 모 근로시간 결측(미취업) 2명임.
2) 양육비용 증감평균,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한편, 양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보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만6세 당시 평균 28만원이던 교육보육비가 만7세에는 평균 30만3천원으로 약 2만3천원 가량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가 소폭 감소한⁵⁷⁾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가 약 4만1천원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 교육보육비를 증가시킨 경우가 감소시킨 가구보다 많긴 하나, 상대적으로 외벌이 가구에서 증가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차년도 기준 가구소득이 500~600만원이하 구간에 속한 경우에 교육보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600만원이상 가구소득 구간은 오히려 평균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600만원이상 가구소득 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58.9%)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41.1%)에 비해 많아, 평균 교육보육비의 감소는 초등 전환기 전후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경우 감소폭이 큰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인 경우에 가장 증가 폭이 큰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동 지역의 교육보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초등 전환기 전후 증가폭은 가장 큰 양상을 보였다.

57) 만6세 대비 만7세에 평균 교육보육비용이 1천원 증가하였지만, 1차 대비 2차년도 조사 당시 맞벌이 가구 수가 감소하여, 2차년도 기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변화량을 산출하는 경우 교육보육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산출되므로, 주의를 요함.

〈표 VII-2-4〉 가구 특성별 아동당 교육보육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교육보육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전체		28.0	30.3	40.7	59.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8	32.9	42.2	57.8	100.0
	외벌이	24.0	28.1	39.4	60.0	99.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6	23.6	41.4	56.9	98.3
	300~399만원이하	23.5	26.0	46.9	53.1	100.0
	400~499만원이하	27.9	31.9	40.8	59.2	100.0
	500~599만원이하	28.9	33.9	23.1	76.9	100.0
	600만원 이상	49.6	39.8	41.1	58.9	100.0
총 자녀수	1명	34.0	38.1	44.3	55.7	100.0
	2명	28.0	29.2	41.7	57.8	99.5
	3명이상	19.9	24.4	32.8	67.2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33.2	33.4	38.0	62.0	100.0
	중소도시	25.7	29.0	46.0	53.2	99.2
	읍면동지역	19.9	25.4	35.6	64.4	100.0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년도별 총 327명임.
 2)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3) 1차년도와 2차년도 교육보육비 변화가 없는 아동이 1명 있으며, 비중의 합이 100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아동 특성별로는 여아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남아에 비해 약간 높았다. 모의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에 미취업모에 비해 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이 높기는 하나, 초등 입학 후 그 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초등 입학 전 후 교육보육비가 평균 32만원 가량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초등 입학 이후 교육보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가 취업 중인 경우 모의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근로를 하는 경우에 교육보육비 증가가 컸으며, 반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 교육보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긴 경우 초등 전환기에 교육보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중 자체 53.3%로 절반가량이 교육비가 초등 입학 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I-2-5〉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교육보육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교육보육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아동 성별	남아	27.8	29.2	42.3	57.7	100.0	
	여아	28.2	31.1	39.3	60.1	100.0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29.0	30.9	39.9	61.1	100.0
		40대이상	26.7	29.9	43.0	57.0	100.0
	취업 여부	취업	32.8	32.4	42.0	57.3	99.3
		미취업	24.1	28.4	39.6	60.5	100.0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25.7	27.5	50.9	49.1	100.0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33.4	36.5	29.9	68.7	98.6
40시간 초과		49.1	31.9	53.3	46.7	100.0	

주: 1) 아동성별은 각 년도별 327명 기준, 부 혹은 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 2명, 모 근로시간 결측(미취업) 2명임.
 2)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3) 1차년도와 2차년도 교육보육비 변화가 없는 아동이 1명 있으며, 비중의 합이 100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식비의 경우에는 초등 입학 전후 평균 1만9천원가량 증가하였는데, 감소했다는 비중이 51.7%로 절반 이상이였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이거나 양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아동당 식비가 작아데다 초등 전환기에 증가분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초등 전환기에 오히려 식비가 살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2-6〉 가구 특성별 아동당 식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식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전체		13.8	15.7	51.7	48.3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3	15.4	53.7	46.3	100.0
	외벌이	14.3	16.0	50.0	50.0	100.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2	14.5	50.0	50.0	100.0
	300~399만원이하	13.5	15.0	56.1	43.9	100.0
	400~499만원이하	14.8	17.5	50.0	50.0	100.0
	500~599만원이하	13.7	16.1	48.7	51.3	100.0
	600만원 이상	15.4	15.7	50.0	50.0	100.0
총 자녀수	1명	16.8	20.6	54.3	45.7	100.0
	2명	13.3	15.0	52.3	47.7	100.0
	3명이상	11.7	12.4	46.6	53.5	100.0

Ⅶ.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식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지역 규모	대도시	14.0	16.2	49.3	50.7	100.0
	중소도시	13.1	15.9	48.4	51.6	100.0
	읍면동지역	14.8	14.4	64.4	35.6	100.0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년도별 총 327명임.

2)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아동 특성별로는 여아의 경우 식비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반해 남아의 경우 식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미취업모인 경우가 취업모 가구에 비해 식비 지출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Ⅶ-2-7〉 아동 및 부모특성별 식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식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아동 성별	남아	14.7	17.8	43.6	53.4	100.0	
	여아	13.1	14.0	58.4	41.6	100.0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13.7	15.6	50.9	49.1	100.0
		40대이상	14.1	14.3	52.5	47.5	100.0
	취업 여부	취업	13.5	15.4	53.3	46.7	100.0
		미취업	14.2	16.0	50.3	49.7	100.0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14.4	15.8	50.9	49.1	100.0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1.8 16.6	14.3 16.9	55.2 53.3	44.8 46.7	100.0 100.0

주: 1) 아동성별은 각 년도별 327명 기준, 부 혹은 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 2명, 모 근로시간 결측(미취업)

2)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는 초등 전환기에 오히려 살짝 감소하였는데, 여가문화생활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59.9%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서 감소폭이 더 컸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599만원인 가구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액 자체가 더 큰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초등 전환기 감소폭도 자녀가 1명인 경우에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 알 수 있었다. 거주지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경향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2-8〉 가구 특성별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전체		11.4	10.2	59.9	39.5	9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9	10.9	57.8	41.5	99.3
	외벌이	10.2	9.6	61.7	37.8	99.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6	6.1	63.8	34.5	98.3
	300~399만원이하	9.5	7.9	59.2	40.8	100.0
	400~499만원이하	13.3	11.8	60.5	39.5	100.0
	500~599만원이하	15.2	10.7	69.3	30.8	100.0
	600만원 이상	15.5	16.0	50.0	48.2	98.2
총 자녀수	1명	18.0	12.7	61.4	37.1	98.5
	2명	9.9	10.4	56.8	43.2	100.0
	3명이상	7.7	6.4	69.0	29.3	98.3
지역 규모	대도시	11.2	10.1	65.5	33.8	99.3
	중소도시	12.1	10.6	53.2	46.8	100.0
	읍면동지역	10.5	9.3	61.0	37.3	98.3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년도별 총 327명임.
 2) 양육비용 증감평균,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3) 1차년도와 2차년도 여가문화생활비 변화가 없는 아동이 2명 있으며, 비중의 합이 100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남아의 경우 유아기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이 여아에 비해 월평균 약 2만원가량 높았으나, 초등 1학년때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액도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데, 초등 전환기에 취업모 가구에서 감소폭이 살짝 더 큰 경향을 보인다. 한편,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초등 학령기 여가문화생활비의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표 VII-2-9〉 아동 및 부모특성별 아동당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아동 성별	남아	12.4	10.2	60.4	39.6	100.0	
	여아	10.5	10.1	59.6	39.3	98.9	
부 연령	30대이하	10.3	9.2	57.9	42.1	100.0	
	40대이상	12.3	10.7	60.9	38.3	100.0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10.8	9.9	59.9	40.1	100.0
		40대이상	12.6	10.5	60.1	38.6	98.7
	취업 여부	취업	12.8	10.7	58.0	41.3	99.3
		미취업	10.2	9.7	61.6	37.9	99.5

구분		6세 (1차년도)	7세 (2차년도)	여가문화생활비 변화 비중		
				감소	증가	계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12.2	12.0	45.3	54.7	100.0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13.3	10.8	61.2	37.3	98.5
	40시간 초과	12.5	8.3	73.3	26.7	100.0

주: 1) 아동성별은 각 년도별 327명 기준, 부 혹은 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 2명, 모 근로시간 결측(미취업)
 2) 양육비용 증감평균, 양육비용 변화 비중의 가구특성 산출 기준은 2차년도 값임.
 3) 1차년도와 2차년도 여가문화생활비 변화가 없는 아동이 2명 있으며, 비중의 합이 100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나.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의 연령에 무관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액이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아동당 양육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양육비용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유아기(만6세) 당시의 양육비용에는 모의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쳐 취업모 가구(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의 경우에 양육비용이 양수로 분석됐다. 다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초등학교(만7세)에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양육비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계수의 부호 또한 음수로 미취업모 가구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I-2-10〉 아동당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구분		6세(1차년도)		7세(2차년도)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		-0.246	-8.148	-0.735	14.488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12.951***	13.054***	6.552	6.534
	400~499만원이하	25.559***	23.320***	22.181***	22.238***
	500~599만원이하	22.268***	21.663***	23.860***	24.134***
	600만원 이상	54.732***	51.923***	40.528***	41.026***
총 자녀수	2명	-25.083***	-25.170***	-23.398***	-24.320***
	3명이상	-43.758***	-43.325***	-42.401***	-42.760***
지역 규모	중소도시	-6.283*	-6.200*	-7.648*	-7.469*
	읍면지역	-7.151	-7.009	-10.367**	-10.319**
아동 성별 (남아=1)			1.163		-3.817
부 연령			1.049		2.633

구분	6세(1차년도)		7세(2차년도)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 연령	40대 이상		0.887	-7.125*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 이하		5.160	-14.124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6.824	-15.590	
	40시간 초과		27.297*	-17.750	
	상수	75.886***	74.595***	88.336***	92.341***
	N	327	327	327	327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지역,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앞서 OLS결과는 횡단면 형태의 분석으로 각 연령에서의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었다. <표 VI-2-11>은 패널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 effect) 분석 결과이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양육비용 변화에 있어 변화하지 않는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해 줌으로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초등 전환기 아동의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모형2 기준) 최상위 가구소득 구간(600만원이상)과 부모의 연령, 모의 근로시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에 비해 개인특성과 시차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하게 양육비용이 컸으며, 부가 40대이고 모가 30대인 가구에서 양육비용 지출을 더 많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모의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미취업모 가구(근로시간이 0이거나 18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한 음수로, 개인 특성과 시차 특성을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적은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취업모 가구에서 초등 전환기에 양육비용 증가가 더 컸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표 VII-2-11 참조).

비목별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식비의 경우에는 모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초등 전환기에 아동의 식비 증가는 가구특성 및 아동 특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한 항목임을 시사한다. 반면, 교육보육비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교육보육비

가 유의미하게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유의한 양수로,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 대비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표 VII-2-12 참조).

〈표 VII-2-11〉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구분		초등전환기 아동(2012년생)당 양육비용	
		모형1	모형2
맞벌이 여부(맞벌이 =1)		2.068	20.629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3.779	4.011
	400~499만원이하	6.926	7.147
	500~599만원이하	9.271	7.015
	600만원 이상	15.626**	15.194**
총 자녀수	2명	-17.073	-19.527
	3명이상	-18.207	-23.934
지역	중소도시	-5.057	-5.674
규모	읍면지역	7.661	5.963
부 연령	40대이상		10.332**
모 연령	30대이하		13.424***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 이하		-16.795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20.016
	40시간 초과		-28.845*
상수		80.907***	73.021***
ρ		0.593	0.633
F -test		2.47***	2.60***

주: 1)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읍면동지역,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미만)을 기준으로 함.

2) 총 관측치는 매해 327명으로, 총 624명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표 VII-2-12〉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구분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식비	교육보육비	여가및문화생활비
맞벌이 여부(맞벌이 =1)		-4.159	11.228	-1.758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0.259	1.095	0.732
	400~499만원이하	-2.445	1.539	4.252**
	500~599만원이하	-1.469	6.152	0.666
	600만원 이상	-1.438	9.407*	1.361
총 자녀수	2명	-1.253	-9.110	-4.393
	3명이상	-6.448	-4.574	-13.362
지역	중소도시	-1.798	-26.811**	1.362
규모	읍면지역	-2.237	-16.155	-1.061
부 연령	40대 이상	1.448	3.883	-0.978
모 연령	40대 이상	4.207***	4.236	-0.872

구분		비목별 아동당 양육비용		
		식비	교육보육비	여가및문화생활비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 이하	3.665	-13.416	3.875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3.603	-8.690	0.476
	40시간 초과	5.621	-14.451	-8.754
상수		16.136***	41.621***	15.664***
ρ		0.591	0.573	0.494
$F-test$		2.32***	1.80***	1.49***

주: 1)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2) 총 관측치는 매해 327명으로, 총 624명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3. 초등 전환기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이 절에서는 양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등 전환기 증가분도 큰 교육보육비와 관련이 깊은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가.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먼저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가 각 42.8%였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 6.1%, 반일이상 기관을 미이용하는 경우도 8.3% 있었다. 여기서 반일 이상 기관만 이용하고 시간제 사교육이나 개별돌봄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5.7%(84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사교육서비스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많았다. 만6세 당시에도 반일이상 기관을 이용하면서 시간제 사교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 분석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과 시간제 사교육을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25.1%,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25.1%였다. 한편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면서 시간제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9.8%였다.

〈표 VII-3-1〉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012년생)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사교육 혹은 개별돌봄 이용여부				계	
	이용안함	시간제 사교육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사교육 +개별돌봄		
전체	27.5 (90)	59.0 (193)	2.8 (9)	10.7 (35)	100.0 (327)	
반일 이상 기관	어린이집	13.2 (43)	25.1 (82)	1.2 (4)	3.4 (11)	42.8 (140)
	유치원	11.0 (36)	25.1 (82)	1.2 (4)	5.5 (18)	42.8 (140)
	반일제이상학원	1.5 (5)	3.4 (11)	0.3 (1)	0.9 (3)	6.1 (20)
	미이용	1.8 (6)	5.5 (18)	0.0 (0)	0.9 (3)	8.3 (27)

-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반일제이상 학원은 반나절 이상 아이가 머무는 학원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교육에 포함됨.
 3)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의미함.
 4)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초등1학년 때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분석 대상의 83.5%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제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4.3% 있었다.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혹은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5%에 그쳐 초등 전환기에 사교육 이용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방과후 돌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50.5%, 공공기관 미이용자가 49.5%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다른 별도의 육아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7%(12명)에 그쳤다.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이용자의 대다수는 방과후학교 이용자였다.

〈표 VII-3-2〉 만7세(초등1학년)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2012년생)

단위 : 만원(%)

구분	이용안함	시간제 사교육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사교육 +개별돌봄	계	
전체	9.5 (31)	83.5 (273)	3.1 (10)	4.3 (13)	100.0 (327)	
온종일 돌봄	공공기관 미이용자	3.7 (12)	41.9 (137)	1.8 (6)	2.1 (7)	49.5 (162)
	공공기관 이용자	5.8 (19)	41.6 (136)	1.2 (4)	1.8 (6)	50.5 (165)

-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공공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을 의미함.
 4)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초등 전환기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만6세 당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만 이용하다가 만7세에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18.1%(59명)이었으며, 만6세 당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했으나 오히려 만7세가 되면서 다른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8%(6명) 있었다. 만6세 당시에는 어떠한 육아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던 응답자는 1.8%(6명)으로 이들도 초등 입학 후에는 공공기관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초등 전환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제 사교육 등 별도의 육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VII-3-3〉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2012년생)

단위 : %(명)

6세(1차년도) 이용서비스 조합	7세(2차년도) 이용서비스 조합					계
	공공기관만	공공기관+ 시간제사교육	시간제 사교육	개별돌봄 서비스 포함	미이용	
전체	5.8 (19)	41.6 (136)	41.9 (137)	7.0 (23)	3.7 (12)	100.0 (327)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	2.5 (8)	8.9 (29)	9.2 (30)	2.1 (7)	1.5 (5)	24.2 (79)
어린이집/유치원+시간제 사교육	1.2 (4)	20.5 (67)	24.2 (79)	2.5 (8)	1.8 (6)	50.2 (164)
사교육만 이용	0.0 (0)	4.9 (16)	4.3 (14)	0.9 (3)	0.3 (1)	10.4 (34)
개별돌봄서비스 포함	1.2 (4)	6.1 (20)	4.3 (14)	1.5 (5)	0.0 (0)	13.5 (44)
육아서비스 미이용	0.6 (2)	1.2 (4)	0.0 (0)	0.0 (0)	0.0 (0)	1.8 (6)

-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공공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을 의미함.
 4)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5) 사교육은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를 합친 경우임.
 6) 개별돌봄서비스 포함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돌봄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로, ①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이상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개별돌봄, ②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이상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 개별돌봄, ③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④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 시간제 사교육 등이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다른 육아서비스와 함께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22.2%로 높은데 반해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55.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높

았으며, 특히할만한 점은 500~599만원 구간의 육아가구는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중이 36.4%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400~499만원 구간의 육아가구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62.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표 VII-3-4〉 가구 특성별 만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단위 : %(명)

구분		6세(1차년도) 이용서비스 조합					계 (수)
		어린이집/ 유치원만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사교육	사교육만	개별돌봄 서비스 포함	육아 서비스 미이용	
전체		24.2	50.2	10.4	13.5	1.8	100.0 (3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8	44.3	10.1	22.2	0.7	100.0 (149)
	외벌이	25.3	55.1	10.7	6.2	2.8	100.0 (17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8	52.8	12.5	6.9	0.0	100.0 (72)
	300~399만원이하	26.3	56.6	8.1	7.1	2.0	100.0 (99)
	400~499만원이하	10.7	62.7	10.7	13.3	2.7	100.0 (75)
	500~599만원이하	36.4	48.5	6.1	9.1	0.0	100.0 (33)
	600만원 이상	27.1	14.6	14.6	39.6	4.2	100.0 (48)
총 자녀 수	1명	26.3	54.0	10.5	9.2	0.0	100.0 (76)
	2명	21.4	53.1	9.2	15.8	0.5	100.0 (196)
	3명이상	30.9	34.6	14.6	10.9	9.1	100.0 (55)
지역 규모	대도시	19.7	52.4	11.6	15.7	0.7	100.0 (147)
	중소도시	27.1	46.7	10.7	13.1	2.5	100.0 (122)
	읍면동지역	29.3	51.7	6.9	8.6	3.5	100.0 (58)

-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사교육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개별돌봄서비스 포함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돌봄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로, ①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개별돌봄, ②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 개별돌봄, ③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④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 시간제 사교육 등이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단일서비스만 이용하는 비중이 30.9%,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9.1%로 가정내 양육이 이뤄지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자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교육서비스 혹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거주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과 상관된 것으로 사료된다(표 VII-3-4 참조).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경우 사교육 이용 비중이 약간 높는데 반해 남아의 경우에는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한편,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과 시간제 사교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모 가구의 경우 다른 육아서비스와 함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비중은 모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중은 8.7%에 그쳐, 사교육서비스 혹은 개별돌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II-3-5〉 아동 및 부모특성별 6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단위 : %(명)

구분		6세(1차년도) 이용서비스 조합					계 (수)	
		어린이집/유치원만	어린이집/유치원+시간제 사교육	사교육만	개별돌봄 서비스 포함	육아 서비스 미이용		
아동 성별	남아	24.2	49.0	9.4	15.4	2.0	100.0(149)	
	여아	24.2	51.1	11.2	11.8	1.7	100.0(178)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20.3	49.5	12.3	15.1	2.8	100.0(212)
		40대이상	30.1	52.2	7.1	10.6	0.0	100.0(113)
	취업 여부	취업	22.9	45.1	9.8	21.6	0.7	100.0(153)
		미취업	24.4	55.2	11.1	6.4	2.9	100.0(172)
	근로 시간	18시간이상	20.7	56.9	12.1	8.6	1.7	100.0(58)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29.2	34.7	11.1	25.0	0.0	100.0(72)	
40시간 초과		8.7	47.8	0.0	43.5	0.0	100.0(23)	

주: 1) 전체 327명이나, 부 연령과 모 연령, 모 취업여부는 무응답이 2명 있으며, 근로시간은 취업자만 응답하여 결측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2) 사교육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개별돌봄서비스 포함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돌봄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로, ①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개별돌봄, ②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 개별돌봄, ③ 반일제 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④ 반일제 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 시간제 사교육 등이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만7세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하고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현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만6세 때와 유사하게 가구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외벌이 가구가 시간제 사교육 이용을 조합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1.8%포인트 높았다.

〈표 VII-3-6〉 가구 특성별 7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단위 : %(명)

구분		7세(2차년도) 이용서비스					계 (수)
		공공기관만	공공기관+ 시간제 사교육	시간제 사교육	개별돌봄 서비스 포함	미이용	
전체		5.8	41.6	41.9	7.0	3.7	100.0 (3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	38.8	38.1	12.2	4.1	100.0 (147)
	외벌이	5.0	43.9	45.0	2.8	3.3	100.0 (180)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6.9	39.7	43.1	3.5	6.9	100.0 (58)
	300~399만원이하	6.1	40.8	46.9	3.1	3.1	100.0 (98)
	400~499만원이하	2.6	46.1	43.4	5.3	2.6	100.0 (76)
	500~599만원이하	5.1	41.0	38.5	10.3	5.1	100.0 (39)
	600만원 이상	8.9	39.3	32.1	17.9	1.8	100.0 (56)
총 자녀 수	1명	0.0	48.6	47.1	2.9	1.4	100.0 (70)
	2명	7.0	38.7	43.2	6.5	4.5	100.0 (199)
	3명이상	8.6	43.1	31.0	13.8	3.5	100.0 (58)
지역 규모	대도시	6.3	47.9	37.3	4.9	3.5	100.0 (142)
	중소도시	6.4	38.1	43.7	8.7	3.2	100.0 (126)
	읍면동지역	3.4	33.9	49.2	8.5	5.1	100.0 (59)

- 주: 1)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 응답된 초등전환기 자녀(2012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 공공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사교육 서비스는 반일제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4)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5) 개별돌봄서비스 포함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돌봄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로, ①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개별돌봄, ② 어린이집/유치원 혹은 반일제 학원(사교육), 공공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 개별돌봄, ③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④ 반일이상 서비스 미이용, 공공기관 미이용 + 개별돌봄 + 시간제 사교육 등이 해당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별도의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로 약간 높은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공공기관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혀 없어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자녀

돌봄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만 이용하거나 육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이한 점은 지역규모에 따라 도시 지역 거주자가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읍면동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읍면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다. 다만, 읍면동 지역 거주자의 관측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경우에는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거나 개별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6세 기준 남아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았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 모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유아기와 초등1학년 모두 공통 사항이었다. 단,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모의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13.2%로, 초등 자녀의 방과 후에 단시간의 돌봄 공백은 공공기관 돌봄서비스(온종일 돌봄)로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3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거나 시간제 사교육서비스만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 초등 학령기 자녀들에게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은 모의 취업여부나 근로시간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로 보여진다.

〈표 VII-3-7〉 아동 및 부모특성별 7세 당시 육아서비스 이용 (2012년생)

단위 : %(명)

구분		7세(2차년도) 이용서비스					계 (수)	
		공공기관만	공공기관+시간제 사교육	시간제 사교육	개별돌봄 서비스 포함	미이용		
아동 성별	남아	6.0	47.0	38.9	5.4	2.7	100.0(149)	
	여아	5.6	37.1	44.4	8.4	4.5	100.0(178)	
모 특성	연령	30대이하	4.8	47.3	38.3	5.4	4.2	100.0(167)
		40대이상	7.0	36.1	45.6	8.9	2.5	100.0(158)
	취업 여부	취업	6.7	38.0	38.7	12.0	4.7	100.0(150)
		미취업	5.1	44.6	44.6	2.8	2.8	100.0(177)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13.2	35.9	37.7	9.4	3.8	100.0(53)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4.5	41.8	43.3	9.0	1.5	100.0(67)
40시간 초과		0.0	33.3	30.0	23.3	13.3	100.0(30)	

주: 1) 전체 327명이나, 부 연령과 모 연령은 무응답이 2명 있으며, 근로시간은 취업자만 응답하여 결측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2) 공공기관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나.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및 이용 시간

1)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에 따라 아동당 양육비용과 교육보육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VII-3-8>과 같다. 만6세 당시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 양육비용은 57만5천원이었으며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육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용이 93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육아서비스의 추가 이용에 따라 교육보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이 가장 큼을 짐작케 한다. 육아서비스 이용 조합에 따라 개별돌봄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비용 증가가 교육보육비의 증가와 깊게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즉, 교육보육비를 제외한 양육비용은 어떠한 육아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결국 육아서비스의 선택에 따라 양육비용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편, 만7세(초등1학년)의 양육비용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은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용 및 교육보육비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한 경우에 비해서도 적다는 점이다. 만7세에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대상자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교육보육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1학년 시기에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시간제 사교육을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이 또한 교육보육비 지출액 및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I-3-8> 이용 육아서비스 종류별 양육비용 및 교육보육비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명)

구분		아동당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수)
6세(1차년도) 이용서비스 조합	어린이집/유치원만 이용	57.5	16.1	27.6	(79)
	어린이집/유치원+시간제 사교육	69.2	26.9	38.7	(164)
	사교육만 이용	75.6	35.6	43.1	(34)
	개별돌봄서비스 포함	93.2	50.0	47.4	(44)
	육아서비스 미이용	44.8	-	-	(6)

구분	아동당 양육비용	교육보육비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수)	
7세(2차년도) 이용서비스	공공기관만 이용	57.3	13.4	23.6	(19)
	공공기관 + 시간제 사교육	84.6	34.3	41.5	(136)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	79.6	30.7	39.2	(137)
	개별돌봄서비스 포함	66.3	29.4	41.2	(23)
	서비스 미이용	48.8	-	-	(12)

- 주: 1) 아동당 양육비용은 해당 아동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교육보육비는 가구조사에서 응답된 교육보육비임.
 2) 사교육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반일 이상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칭함.
 5) 공공기관은 초등학교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2)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이에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 대해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교육보육비의 차이는 시간제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비용 부가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시간제 사교육에는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 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때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제 사교육서비스가 단시간 학원이므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전체와 구분하여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만6세 당시 월평균 14만7천원이었다가 만7세 당시 24만5천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였으며,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 또한 만6세 당시 12만9천원이었으나 만7세 당시 22만1천원으로 약 9만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또한 높아질 뿐 아니라 이용비용 자체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과 단시간 학원 평균 이용비용은 1만원~3만원가량으로 다른 종류의 시간제 사교육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만6세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만7세(초등1학년) 때는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2만7천원가량 많았다. 이는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다른 종류의 시간제 사교육보다 단시간 학원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과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만7세(초등1학년)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간제 사교육비용이 도시 지역 거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II-3-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6세(1차년도)		7차년도(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전체		14.7 (228)	12.9 (131)	24.5 (286)	22.1 (2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9 (105)	13.6 (63)	26.4 (124)	23.7 (113)
	외벌이	14.5 (123)	12.2 (68)	23.7 (162)	20.8 (14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4 (49)	11.9 (20)	19.1 (49)	17.2 (39)
	300~399만원이하	12.9 (69)	11.6 (33)	21.1 (88)	18.8 (79)
	400~499만원이하	15.3 (61)	12.6 (42)	26.1 (69)	22.7 (67)
	500~599만원이하	19.3 (21)	15.1 (16)	25.6 (34)	22.2 (32)
	600만원 이상	20.0 (28)	14.5 (20)	33.4 (46)	31.2 (43)
총 자녀수	1명	18.3 (53)	14.7 (32)	28.7 (68)	25.8 (63)
	2명	12.9 (145)	12.0 (83)	24.3 (172)	21.3 (161)
	3명이상	16.9 (30)	13.8 (16)	19.1 (46)	18.7 (36)
지역 규모	대도시	15.6 (107)	13.5 (65)	24.9 (125)	22.7 (116)
	중소도시	14.8 (82)	12.1 (49)	25.7 (108)	23.3 (116)
	읍면동지역	11.7 (39)	12.5 (17)	21.0 (53)	17.8 (47)

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지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지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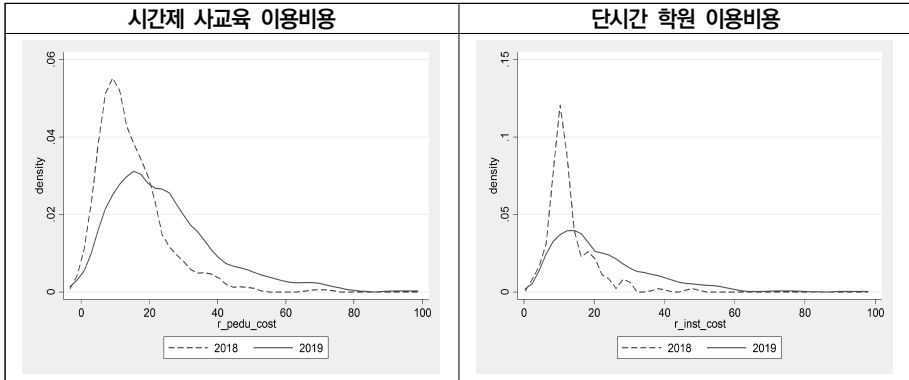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만6세에는 15만원 근처에 매우 밀집된 형태를 보이는 반면, 만7세(초등1학년) 때에는 보다 넓고 평평한 분포를 보이며 최고점은 만6세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동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초등 입학 이후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증가 양상 자체가 가구에 따라 다양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VII-3-1]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분포 (2012년생)

단위 : 만원



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여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남아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이 편차는 만7세에 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모의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지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다만, 만6세 때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은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에 비해 모의 근로시간이 30~40시간 사이인 경우에 더 높았으며, 3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이 다른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모의 근로시간에 따른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의 편차는 만7세(초등1학년)에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령기의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은 단순히 모의 근로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의 해소에만 있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표 VII-3-10〉 아동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12년생, 실질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6세(1차년도)		7차년도(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아동 성별	남아	14.4 (102)	12.7 (60)	23.0 (133)	20.2 (124)	
	여아	14.9 (126)	13.0 (71)	25.8 (153)	23.7 (136)	
모 특 성	연령	30대이하	14.8 (154)	13.1 (92)	25.3 (151)	22.4 (144)
		40대이상	14.5 (74)	12.3 (39)	23.7 (134)	21.7 (115)
	취업 여부	취업	15.2 (108)	13.8 (66)	26.1 (126)	23.6 (114)
		미취업	14.2 (120)	11.9 (65)	23.2 (160)	20.9 (146)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11.8 (43)	9.8 (21)	24.0 (42)	20.9 (37)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16.6 (46)	16.4 (27)	25.8 (61)	24.7 (55)
40시간 초과		19.6 (19)	14.5 (18)	31.0 (23)	25.4 (22)	

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3)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이용하는 육아서비스 조합방식에 따른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은 만6세 당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다른 육아서비스와 함께 개별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로, 이는 맞벌이 가구 등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간제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 등을 조합하여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만7세 때에는 공공기관과 시간제 사교육을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가장 짧아 주당 평균 5시간 38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7세에도 개별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사교육시간도 여전히 가장 길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은 전반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이는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VII-3-11〉 이용 육아서비스 종류별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2012년생)

단위 : 분(명)

구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6세(1차년도) 이용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시간제 사교육	180 (164)	199 (95)
	사교육만 이용	147 (29)	222 (13)
	개별돌봄서비스 포함	213 (35)	231 (23)
7세(2차년도) 이용서비스	공공기관 + 시간제 사교육	338 (136)	333 (127)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	387 (137)	402 (121)
	개별돌봄서비스 포함	431 (13)	432 (12)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을 분단위로 산출함.
 2) 사교육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 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공공기관은 초등학교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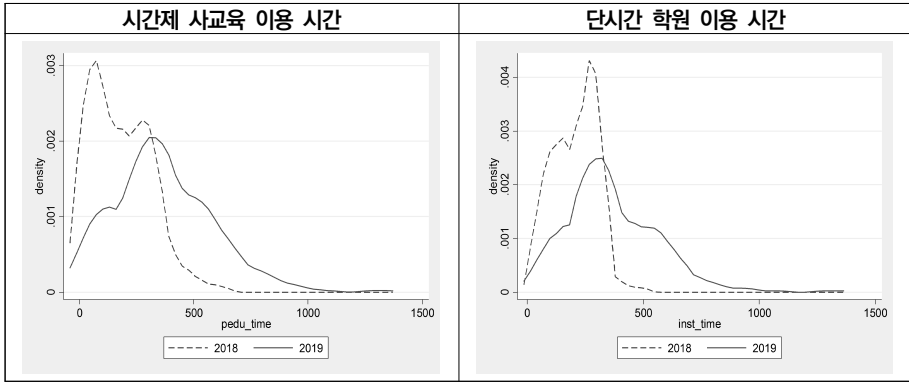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만6세 기준 주당 평균 8시간(480분) 이하 구간에 두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 왼쪽 봉우리(약1시간)가 보다 높은 밀도를 보였다.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또한 2개의 봉우리 형태를 가지고는 있으나 오른쪽 봉우리(약 4시간)의 밀도가 높았다. 즉, 유아기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은 단시간 학원 이 외의 짧은 시간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 이용 빈도가 보다 많으며,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약 3시간~4시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만7세(초등1학년) 때에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분포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유아기에 비해 넓고 평평한 분포를 보여,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면서 가구별로는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7세 때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은 약간의 꺾임은 있으나 약 5시간 전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진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즉, 초등1학년 시기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은 유아기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과 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다른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에 비해 단시간 학원 이용이 증가하여 시간제 사교육의 형태가 단시간 학원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림 VII-3-2]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분포 (2012년생)

단위 : 분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을 분단위로 산출함.
- 2) 사교육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가구 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만6세 때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만7세 때에는 평균 1시간가량 맞벌이 가구의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견되며, 그 편차는 만6세에 비해 만7세때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만6세 때에는 자녀가 3명인 경우에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약간 길었으나, 만7세 때에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도 길어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읍면동 지역 거주자에 비해 연령과 무관하게 길었다.

[표 VII-3-1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2년생)

단위 : 분(명)

구분	6세(1차년도)		7차년도(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전체	181 (228)	207 (131)	365 (286)	366 (2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3 (105)	216 (63)	403 (124)	397 (113)
	외벌이 179 (123)	199 (68)	337 (162)	340 (14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0 (49)	193 (20)	284 (49)	305 (39)
	300~399만원이하 165 (69)	203 (33)	332 (88)	334 (79)

구분		6세(1차년도)		7차년도(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400~499만원이하	207 (61)	212 (42)	403 (69)	377 (67)
	500~599만원이하	207 (21)	194 (16)	394 (34)	384 (32)
	600만원 이상	215 (28)	228 (20)	439 (46)	441 (43)
총 자녀수	1명	199 (53)	196 (32)	387 (68)	376 (63)
	2명	167 (145)	201 (83)	372 (172)	365 (161)
	3명이상	216 (30)	262 (16)	311 (46)	343 (36)
지역 규모	대도시	211 (107)	218 (65)	370 (125)	364 (116)
	중소도시	165 (82)	193 (49)	379 (108)	386 (97)
	읍면동지역	132 (39)	208 (17)	325 (53)	322 (47)

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은 만6세 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만7세 때는 여아의 이용 시간이 평균 10분가량 길었으며, 이는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가 취업중인 경우, 그리고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 만6세 기준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돌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VII-3-13〉 아동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2012년생)

단위 : 분(명)

구분		6세(1차년도)		7차년도(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시간제 사교육 전체	단시간 학원	
아동 성별	남아	181 (102)	223 (60)	360 (133)	354 (124)	
	여아	181 (126)	193 (71)	370 (153)	374 (136)	
모 특 성	연령	30대이하	187 (154)	215 (92)	375 (151)	362 (144)
		40대이상	169 (74)	187 (39)	355 (134)	369 (115)
	취업 여부	취업	184 (108)	214 (66)	399 (126)	395 (114)
		미취업	178 (120)	200 (65)	339 (160)	340 (146)
근로 시간	18시간이상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166 (43)	226 (21)	351 (42)	344 (37)	
		189 (46)	219 (27)	416 (61)	424 (55)	
		214 (19)	190 (18)	439 (23)	410 (22)	

주: 시간제 사교육(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재교구, 비방문형교재교구,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칭함. 즉, 반일제이상학원+시간제 사교육 이용자와 시간제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통합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다. 시간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절에서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각 연령별로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짓(logit) 모형을 분석하여, 해당 연령에서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의 이용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 연령별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이용비용을 종속 변수로 하는 OLS 분석을 통해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 효과(fixed effect) 모형 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에 대한 OLS분석과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시간 결정 요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만6세 당시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많지 않은데,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에 299만원이하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사교육 이용 확률이 높았으며,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이용 확률을 보였다. 단시간 학원 이용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소득 구간이 늘어나 400~599만원이하 가구들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은 모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7세 때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는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초등 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이 매우 보편적 현상으로 초등 전환기를 기점으로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시간제 사교육의 이용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단시간 학원 이용 확률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오히려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초등 진학 이후에도 개별돌봄서비스를 여전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 확률이 낮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취업모인 경우에

미취업모(근로시간이 없거나 18시간 미만인 경우) 가구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 확률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모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다른 종류(개별돌봄서비스 혹은 초등돌봄서비스 등)의 육아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반적인 경우 초등 진학 이후 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육아서비스의 이용이 시간제 사교육 형태로 전환됨을 암시한다.

〈표 VII-3-14〉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logit)

구분		6세(1차년도)		7세(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단시간 학원 이용여부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단시간 학원 이용여부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		-0.128	-0.993	1.915	2.271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0.250	0.448	0.646	0.950**
	400~499만원이하	0.910**	1.355***	0.813	1.601***
	500~599만원이하	-0.086	1.100**	0.609	1.252**
	600만원 이상	-0.307	0.654	-0.208	0.751
총 자녀수	2명	0.291	0.075	-1.907**	-0.920**
	3명이상	-0.687*	-0.663	-2.564***	-2.129***
지역 규모	중소도시	-0.355	-0.231	-0.283	-0.467
	읍면지역	-0.394	-0.764**	0.144	-0.257
아동 성별 (남아=1)		-0.094	-0.003	0.276	0.463
부 연령	40대 이상	-0.684**	-0.510*	-0.428	-0.155
모 연령	40대 이상	-0.015	-0.245	-0.394	-0.958***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0.513	0.863	-2.805*	-3.131*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0.017	0.702	-1.350	-2.223
	40시간 초과	0.988	2.502*	-3.269**	-3.359**
상수		1.170***	-0.459	4.163***	2.493***
N		327	327	327	327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는 가구소득과 자녀수 등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6세 기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됐다. 반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런데 만6세 기준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에는 가구소득이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는 만6세 때의 시간제 사교육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이뤄짐을 시사하며, 단시간 학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7세 때에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때는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도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하였다. 즉, 만7세때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은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유의미하게 적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비용 지출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반면, 만7세 당시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과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에는 모의 근로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초등1학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및 단시간 학원 이용이 모의 취업여부나 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일반적 현상임을 짐작케 했다.

〈표 VII-3-15〉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구분		6세(1차년도)		7세(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	단시간 학원 이용 비용
맞벌이 여부 (맞벌이 =1)		-7.065	-4.180	7.470	11.948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1.561	-0.888	2.190	1.549
	400~499만원이하	3.462*	-0.737	6.513**	4.856*
	500~599만원이하	7.512***	1.084	6.753*	4.784
	600만원 이상	8.257***	-0.786	14.761***	13.492***
총 자녀수	2명	-5.848***	-3.679***	-4.321**	-4.585**
	3명이상	-1.329	-1.085	-9.978***	-7.551***
지역 규모	중소도시	-0.190	-1.662	0.299	0.136
	읍면지역	-1.926	0.771	-3.363	-4.277*
아동 성별 (남아=1)		-0.506	-0.002	-3.760**	-4.038**
부 연령	40대 이상	0.309	2.361*	3.011	3.739*
모 연령	40대 이상	-0.861	-1.824	-3.120	-2.205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3.128	0.471	-7.561	-12.643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7.251	8.735**	-9.227	-12.164
	40시간 초과	8.897	5.832	-3.971	-11.498
	상수	16.653***	14.943***	25.071***	22.600***
N		228	131	286	260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개인 특성과 시차 특성을 제외하고도 맞벌이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이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에 비해 초등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시간제 사교육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횡단분석과 달리 패널 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개인 및 가구특성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초등 전환기에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의 근로시간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및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음수로, 맞벌이 가구 여부 등 개인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다른 육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제 사교육 혹은 단시간 학원의 이용이 적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표 VII-3-16〉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구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단시간 학원 이용비용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맞벌이 여부(맞벌이 =1)		0.206	32.350***	0.343	40.199***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1.302	1.993	3.993	3.391
	400~499만원이하	3.985	3.787	7.930	6.359
	500~599만원이하	9.188**	8.472**	9.453	8.395
	600만원 이상	15.802***	12.005**	17.153**	10.163
총 자녀수	2명	20.023*	19.656**	15.307	14.339
	3명이상	24.161	18.925	17.404	14.649
지역 규모	중소도시	43.679***	41.280***	40.748***	37.135***
	읍면지역	51.670***	47.971***	46.731***	42.764***
부 연령	40대이상		9.182***		10.441**
모 연령	30대이하		12.357***		18.403***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32.241***		-39.883***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33.783***		-46.604***
	40시간 초과		-33.979***		-49.742***
상수		-25.937**	-32.806***	-23.190	-29.361*
ρ		0.851	0.865	0.776	0.820
N		514	514	391	391
$F-test$		1.35**	1.71***	0.67	0.94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가구 및 아동 특성은 거의 없었다. 즉,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이용 시간 자체는 가구 및 아동 특성 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단, 만6세 당시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299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지역 규모가 클수록 길었다.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은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서 오히려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용비용과는 달리 이용시간은 만7세 때에도 만6세 때의 경향성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초등1학년 때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은 음수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초등 전환기에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 시간 또한 증가하는데 반해 가구내 다른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제한됨을 내포하는 결과이다.

〈표 VII-3-17〉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OLS)

구분		6세(1차년도)		7세(2차년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맞벌이 여부 (맞벌이 =1)		-37.656	33.813	216.995	180.054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24.823	29.778	35.072	18.577
	400~499만원이하	64.303**	27.971	98.879**	52.374
	500~599만원이하	67.293*	3.266	83.031*	51.442
	600만원 이상	65.287*	51.065	110.716**	94.988**
총 자녀수	2명	-25.199	14.885	-15.327	-11.650
	3명이상	20.212	81.752***	-85.621**	-35.645
지역 규모	중소도시	-44.186**	-29.061	-5.195	10.024
	읍면지역	-71.109***	-14.938	-47.957	-44.028
아동 성별 (남아=1)		1.041	30.846*	-24.702	-28.081
부 연령	40대 이상	-14.449	-48.862**	18.826	25.246
모 연령	40대 이상	-17.808	0.084	-31.960	-1.204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20.928	2.507	-210.781	-180.654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36.196	-4.367	-161.190	-121.221
	40시간 초과	49.507	-33.341	-150.062	-142.070
상수		198.271***	175.781***	333.628***	321.427***
N		228	131	286	260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마지막으로 패널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모형2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이 초등 전환기에도 외벌이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가 299만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모의 근로시간은 유의미한 음수로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미취업모 가구(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이거나 0인 경우)의 시간제 사교육 및 단시간 학원 이용시간이 취업모 가구에 비해 오히려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은 모의 취업상태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목적보다는 교육적 목적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II-3-18〉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생, 고정효과 모형)

구분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		단시간 학원 이용 시간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맞벌이 여부(맞벌이 =1)		5.190	431.266**	2.275	533.260***
가구 소득	300~399만원이하	50.287	53.999	12.517	4.051
	400~499만원이하	70.033	56.367	44.397	16.206
	500~599만원이하	133.704*	118.176	55.617	50.032
	600만원 이상	224.221**	162.896*	168.675	85.430
총 자녀수	2명	311.874*	306.563*	331.880	312.154
	3명이상	358.439	253.462	347.171	293.214
지역 규모	중소도시	702.792***	671.019***	616.185***	579.483***
	읍면지역	878.445***	817.076***	872.089***	814.234***
부 연령	40대이상		157.579***		193.458***
	30대이하		165.705***		226.306***
모 근로시간	18시간이상 30시간이하		-440.544**		-513.563***
	30시간초과 40시간 이하		-421.742*		-627.211***
	40시간 초과		-390.313*		-599.312***
	상수	-460.820**	-568.621***	-365.310	-479.592**
ρ		0.829	0.836	0.809	0.837
N		514	514	391	391
$F-test$		0.84	1.03	0.66	0.86

주: 가구소득은 299만원이하, 총 자녀수는 1명, 지역규모는 대도시, 부연령과 모연령은 30대이하, 근로시간은 미취업(18시간미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

* $p < .1$, ** $p < .05$, *** $p < .01$.

Part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결론 및 정책 제언

- 0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 02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산 및 정착
- 03 양육비용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의 취약 가구 지원 강화
- 04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안착 및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05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 06 정책 제언 종합 및 후속 연구 제언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육아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용 경감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육아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 권리 측면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비용 지원의 확장보다는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확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제언하였다.

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양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응답표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차년도(2020년) 기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지원금으로 인해, 전체적인 평균 가구소득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의 감소는 확연하게 포착되었다.

2020년 육아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기준 전년대비 4만2천원 감소한 116만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비목별로는 식비 등 대부분의 비목에서 양육비용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총 양육비용의 감소를 유인하였다. 이때, 여가문화생활비 비목 중에서도 완구 및 도서 구매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용 감소가 코로나19의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및 가족여행 및 관람 등의 이용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양육비용의 감소는 평소 교육/보육비 및 여가문화생활비 지출이 많았던 고소득 가구에서 훨씬 커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의 감소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의해

유인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양육비용이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은 고소득 가구의 경우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감소한데 반해,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가구소득 수준에 연동되어 소비되는 사치재적 성격을 가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양육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평소 이러한 비목에 대한 소비가 크지 않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자체는 더욱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정내 양육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중 식비 등 필수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와 관련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감소하고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반일제이상 기관과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 육아가구의 비중이 늘었으나,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기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길게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미실시 등으로 이용비용이 감소하였으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용비용 또한 소폭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⁵⁸⁾.

초등 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공적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비중이 크게 변동하였다. 해마다 표본상의 응답대상 자녀의 연령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⁵⁹⁾, 2차년도 62.7%에 달하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비중은(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 180) 3차년도에는 크게 감소하여 4.5%에 그쳤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비중 또한 2차년도 16.6%였으나(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 180), 3차년도에는 11.9%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주요 축인 마을돌봄 즉,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의 이용률은 2.1%에서 2.6%로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아

58) 미이용자 비중이 많아 전체 응답자 대상 이용비용은 감소.

59)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해 추적조사를 통해 표본이 확대되고 있어, 2차년도는 초등1학년만 대상에 포함된 반면 3차년도는 초등2학년까지 대상에 포함되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움.

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은 주로 취약가구 위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으나, 최근 온종일돌봄체계 하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을,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특징이 여전히 발견되기는 하나, 3차년도에는 고소득 가구 내에서도 약 2%내외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 이용율이 2.6%인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 가구내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긴급돌봄센터 등으로 해당 기관이 지정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올해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적인 마을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감소한 가운데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의 이용 비중은 증가한 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방문 학습지 및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시간과 이용비용 등에 있어서조차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투입이 적게 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직접적인 자녀돌봄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육아가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교를 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47.1%), 어머니가 연월차를 사용하거나(38.6%), 아버지가 연월차를 사용(22.3%)하는 등 가족 관계 중심의 가정내 양육의 실시가 가장 우선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은 15~20%내외로, 기존의 제도 활용율에 비하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어머니의 연월차 사용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긴급돌봄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을 이용한 비중은 18.5%로, 아이 혼자 혹은 아이들끼리 있었다(20.5%)는 응답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시점(5월~7월)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긴급돌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을 당시의 상황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 가구들은 가족돌봄휴가제도(32.4%), 아이돌봄지원제도(26.6%), 유연근무제도(14.0%) 순으로 응답하여 가정내 돌봄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돌봄 방식이 희망하는 방식이었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녀를 돌본 방식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 방식은 긴급돌봄센터 등 기관 보육(26.4%)이며, 다음으로 육아휴직(19.4%), 재택근로(15.6%) 순이었다. 이때 긴급돌봄센터 등 기관 돌봄을 못한 이유는 기관 미운영에 따른 것이 크며, 육아휴직이나 연월차 등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가족돌봄휴가/휴직이 사용은 회사에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맞벌이 육아가구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시간 지원 정책의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가 회사 내에 없거나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공적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또한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 제도 활용 이후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나.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1)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앞서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육아기 자녀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⁶⁰⁾),

6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

이하 고평법), 2020년 1월 제도 확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양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9월 8일, 감염병 확산 혹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돌봄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의 확대에 힘입어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2019 : 194~200)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5%⁶¹⁾로 모른다는 응답이 53.6%에 달하였으며,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38.0%만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활용 실적은 1.9%에 불과한 제도였다⁶²⁾.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제도 확장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증가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업주가 79.3%, 노동자의 61.6%에 달했다⁶³⁾.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육아가구들은 긴급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가족돌봄 휴가제도의 개선(32.4%)을 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사용율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본 연구인 KICCE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긴급돌봄에 대응했다는 응답은 1+2+3순위 합산 기준 14.9%(전체 300%)에 불과했다. 즉, 조사 시점이 법령 개정 전임을 감안하더라도 인지도 상승에 비해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및 활용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법령 개정 후에 실시된 심층 면담 과정에서도 드러나,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된 기업이 많지 않고, 제도는 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용은

LinkP.do?joNo=003900000&languageType=KO&docType=J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 (인출일 : 2020. 10. 20).

61) 잘 알고 있다(11.5%) + 대충 알고 있다(14.5%) + 들어본 적은 있다(20.5%) 합산 수치임.

62) 2019 일·가정 양립 지원실태조사(강민정·김종숙·김난주 외, 2019) 당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제도 도입 전으로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확인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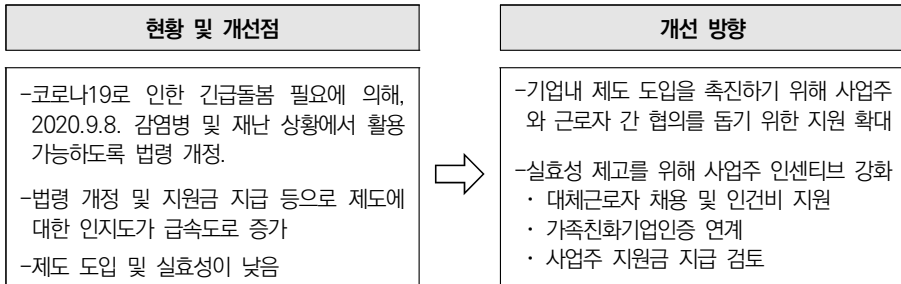
6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 (인출일 : 2020. 10. 20).

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가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돌봄 사각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사용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이행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제재 방식은 휴직/휴가 사용후 해당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은 제재보다는 지원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직 신청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 채용 지원⁶⁴⁾ 및 대체 근로자 인건비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을 기업단위로 집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봄 직하다.

[그림 Ⅷ-1-1] 긴급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2) 지속가능한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확산

육아 가구 부모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휴가, 휴직의 사용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는 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을 활용하여 긴급한 돌봄 필요에 대응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의 감소 등이 가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를 중단

64)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돌봄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아이들끼리 가정 내에 남겨져 있거나, 영유아 자녀만 있는 경우 어머니가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희망하는 돌봄 방식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긴급돌봄센터 등 기관 보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이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 기관 돌봄이 중단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다 취약한 육아 가구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훨씬 크게 발생할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관 돌봄 이외에 다른 대체 돌봄 수단을 갖지 못한 취약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녀들끼리 있기 어려운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제외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긴급 돌봄이 재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한 긴급돌봄의 제공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및 기관 등을 통해 집단 감염 및 전파가 보고되면서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학령기 자녀의 학력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⁶⁵⁾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사태이기는 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권리 보호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생애 초기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단순한 아동 보호 혹은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올해 긴급 상황에서 제기된 운영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65) 예컨대 전문가 자문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상 문제로 어린이집 등원아의 경우 자가진단이 앱 등을 통해 지원되지 않아 교사가 발열체크 등을 수기로 해야 하는 문제, 대체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 긴급돌봄 인력과 담임교사 사이의 업무 분장에서의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

와 속고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긴급돌봄 매뉴얼 및 운영 방안 등의 마련과 보급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⁶⁶⁾

3)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활동 자료 보급 및 부모 정서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 가구의 부모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였다. 특히 외벌이 가구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향후에도 가정내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했다. 그러나 감염병의 위험에 대한 우려로 가정내 양육을 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과 별개로 종일 자녀와 함께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 학대 위험의 증가와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미디어 중독 증가, 신체활동 감소 등(정익중, 2020: 32~33) 가정내 양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가구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로 문화센터와 예체능 학원을 특히 많이 지목하였다. 이때, 육아 가구 부모들은 이러한 활동을 사교육 서비스라기보다는 놀이의 일종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해, 가정내 양육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일종의 놀이 활동의 제한이 육아 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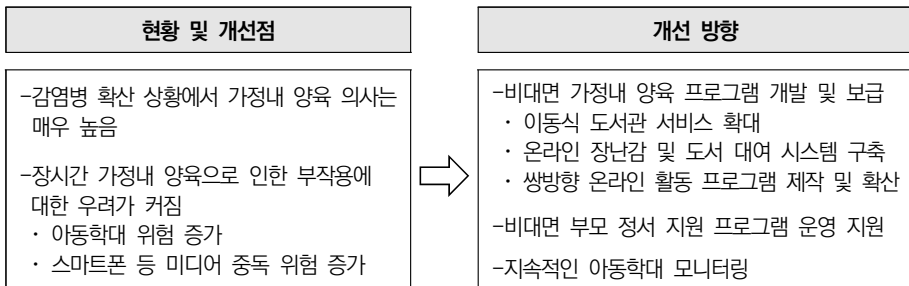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육아가구들이 가정내 양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아동 학대 혹은 방임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가정내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놀이 활동과 연관된 온라인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배포가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재 혹은 교구의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긴급 상황에서의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육아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되, 비대면 육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이들 공공

66) 긴급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요함.

육아지원 기관들의 기존 가정내 양육 지원 방식이 통상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 농어촌 낙후 지역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이동식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 온라인 장난감 대여 시스템(택배 배송 포함) 구축 및 운영, 온라인 도서대여, 쌍방향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내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 대상의 비대면 정서 지원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아동 학대가 조기 발견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가정내 양육 아동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림 VIII-1-2] 긴급 상황에서의 가정내 양육 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2.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산 및 정착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시간표로 조사하는 등 아동의 시간 활용에 보다 초점을 두어 아동용 설문조사를 수정하였으며, 가구용 조사에서 모의 취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편 보육의 확장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오히려 더 제약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육아로 인한 모의 경력단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정책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교육기관의 휴원 등과 같이 정상적 육아 지원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들은 더욱 심각한 돌봄 공백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모의 노동시장 이탈이 촉진되어 가계 경제에 무리를 가져오는 중복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맞벌이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직장 문화 혁신 및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가구의 미취업모들은 54.5%가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자녀가 평균 만7.9세가 되면 재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취업 의사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며, 재취업 사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증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재취업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33.2%)이었으며, 반대로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일보다 자녀 양육이 우선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 초등 저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들의 육아 부담이 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부모의 직접 육아 부담이 완화되지만 교육/보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구소득 증가를 위한 노동시장참여 의사가 크게 증가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취업모 가구인 경우 모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중은 3차년도 조사 기준 17.0%로, 부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중(44.8%)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반대로 18시간이상 3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모의 경우 19.6%에 달한 반면, 부는 0.7%에 불과했다. 또, 취업자 중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임금 근로 비중이 부가 모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라 할지라도 부는 가계 경제(혹은 양육비용)와 관련된 부담을, 모는 직접적인 양육 책임을 더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육아 가구의 모는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나 비임금 근로를 많이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육아 가구의 모가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지원이 원활

하게 이뤄지지 않음을 반증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제도 자체의 적합성과 적절성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민정·이서현·임희정, 2017: 18).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육아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층 면담 결과 등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업장의 규모와 분위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모가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1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육아가구 부모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를 희망(95.7%)하였으나, 실제로 희망하는 방식으로 돌보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32.7%에 달했다. 이때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로 회사에 해당 제도가 없거나(21.7%), 직장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18.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담에 참여한 취업모들도 모두 맘 편히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이는 등 직장 내 분위기와 장기적으로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단기적인 임금의 손실 등이 문제가 된다고보다는 일종의 낙인효과로 인한 장기에 걸친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보다 큼을 내포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에 대해 사회적 이해도가 낮고 부정적 낙인효과가 보다 크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남성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일종의 낙인효과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보호 장치와 무관하게 직장 내 분위기와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노동생산성이나 노동자들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제도적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육아 가구의 여성이 활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남성의 제도 활용이 제약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출산 및 육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고용을 꺼려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강화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여성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보다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 가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자녀 양육과 일(노동 시장참여)의 병행을 돕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던 정책 지원을 넘어, 유자녀 노동자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진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보다 방점을 둔 일·생활 균형 정책의 확장이 역설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회 전반의 걸친 근로시간의 단축 혹은 주52시간 법제 변화에 대응한 유연근무의 확산 등을 통해 육아 가구의 부모가 교차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육아 가구로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비해 보다 실효성이 높은 지원 방식일 수 있다. 전자인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 가구에 한정된 지원 방식에 비해 직장 내 반발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 확산 및 정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임신과 출산시기에 활용 가능한 출산 전후 휴가제도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육아기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⁶⁷⁾. 해당 제도들은 근로기준법 혹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되어 제도적으로 지원 체계가 완비된 상태이며, 2019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아바육아휴직보너스제 강화,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도 강화되었다⁶⁸⁾. 다만, 이의 활용수

67) 이 외에도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보장, 유산 휴가,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등 모성보호 관련 법안도 다수 존재하나, 논의의 편의상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는 명기하지 않음. 한편,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육아기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제언함.

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 및 심각한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해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⁶⁹⁾,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근로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조치로, 기존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하던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②⁷⁰⁾).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⁷¹⁾.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시간 근로(초과근로)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²⁾.

고용노동부(2019. 8: 3)에 따르면 유연근무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 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보상휴가제(제57조) 등이 연관된다. 연구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시차출퇴근제, 자유출퇴근제, 재량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일·생활 균형에 기여하는 방식의 지원 제도이다.

현행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제도적 완비 수준에 비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실효성이 낮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유연근무제도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활용도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을조차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맞벌이 육아 가구가 원활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유연근무제도 등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육아

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정책,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6952> (인출일 : 2020. 10. 20)

69) ILO, Work-life balance, <https://www.ilo.org/global/topics/working-time/wl-balance/lang-en/index.htm> (인출일 : 2020. 11. 9).

7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70&efYd=20180901#0000> (인출일 : 2020.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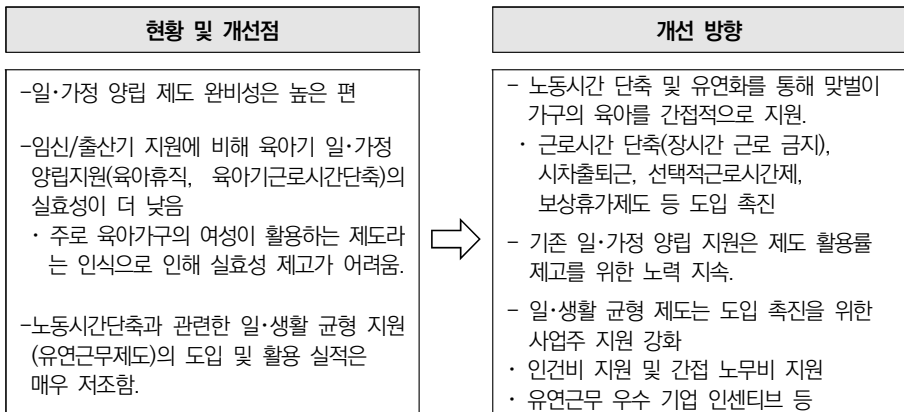
71)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72) 실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대책에는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동시간 단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270>, 인출일 : 2020. 10. 20).

가구의 선호 등을 감안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제도적 강화보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조속한 확산 및 정착이 효과적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지원(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대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인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교대제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유연근무 도입 등의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유연근무 도입 및 확대 시행 기업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2019. 8 : 126~150).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의 추가 도입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그림 Ⅷ-2-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2) 가족돌봄휴직/휴가 지원 범위 확대

앞서 감염병 확산 등 긴급 돌봄 상황에서 크게 제도가 확장된 가족돌봄휴직/휴가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제언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 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지원 체계 하에서 육아 가구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상황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제도 확장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에 자녀 양육이 포함되긴 했으나, 이 경우에도 긴급한 돌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등 일상적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 제도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제도 홍보를 위해 2020년 일부 지원금이 지원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직/ 휴가는 무급휴직/휴가 제도이며, 휴직 및 휴가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주와의 협의를 요하는 등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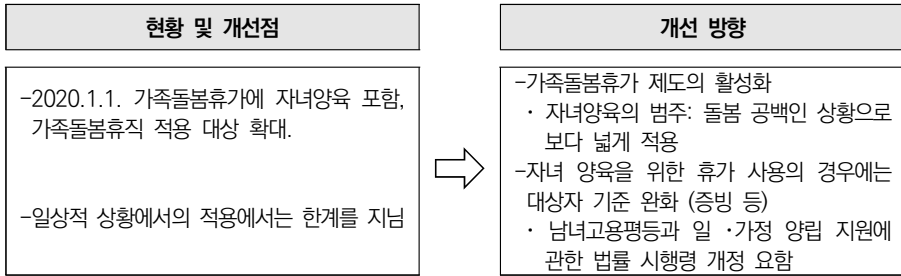
심층 면담에서 대부분의 육아 가구 부모들은 무급일지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소득 보전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동일 법상에서 보장되는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했을 때 초등 저학년 자녀의 돌봄을 요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등에 비해 육아 휴직의 사용이 오히려 유용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간의 휴직이 아닌 휴가의 경우 육아 휴가는 법적 보장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돌봄휴가가 좀 더 유용하며, 제도 활용의 대상자(자녀) 연령 등이 특정되지 않아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 등이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장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가 개별 기업에 안착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지원⁷³⁾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본인 외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 제외되는 기준⁷⁴⁾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을 기업단위로 집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직 하다.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시기 및 임금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①항 2호에 해당함.

[그림 VIII-2-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3. 양육비용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의 취약 가구 지원 강화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2013년 무상 보육의 전면적 실시 이후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보편적 보육은 육아 가구들에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2019년 아동수당 지원에서도 보편 복지로서의 육아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가구소득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육아 가구가 동일 수준의 비용 지원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육아 지원은 양육비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여 다수의 육아 가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 지원의 확장에 따라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절대적 수준에서 돌봄 사각지대는 축소되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적 육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돌봄 취약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오히려 다소 증가했을 우려 또한 상존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적 육아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교육/보육비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양육비용 부담이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 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보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집단이었다.

교육/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든 아동이 최소한 평균화된 교육 및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정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보편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외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비용

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생존권 혹은 삶의 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 개개인이 소외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구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식비나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구 소비는 가구 특성에 따라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취약 가구 내 아동 개인에 대한 투입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계 소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지출 또한 크게 제약된다. 한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반적 가구 소비에 있어 양육비용 지출 비용이 커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 1인당 양육비용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아동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입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한부모 가구,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의 경우에도 별도의 양육비용 지원을 요하지만,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상 해당 가구의 관측치가 매우 적어, 이에 대한 제언은 생략한다.

나.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1)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수당 지원 강화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보편 지원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식비 지원을 위한 영양플러스, 조제분유 지원 사업, 주거비를 보조하는 지원(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의료 지원⁷⁵⁾,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교통 통신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돌봄 지원 등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 육아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16~117).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로 지원 대상이 특정된다. 즉,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영양결핍이 확인된 경우,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모유수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존재한다.

75) 예방접종 지원(만12세이하), 영유아 건강검진(만6세 미만)은 보편 지원으로, 저소득가구 일괄 적용.

〈표 Ⅷ-3-1〉 저소득 육아가구의 아동 대상 지원 사업

구분	지원 대상 연령 (최대 연령 기준)			
	영아	유아	초등이상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기저귀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플러스	
		●기저귀 지원 ●조제 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생아 건강관리(0)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19)		
	○신생아 난청검사(0)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0)			

주: 1) 사업명 앞의 ●기호는 소득과 연령 기준 이 외에 대상자 선정 기준(예를 들어 특정 질환여부 등)이 더 있는 경우를 의미함. ○는 소득과 연령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임.

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만나이)를 의미하며, 별도 기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령구간의 최대값까지 지원. 소득기준도 최대값 기준으로 해당 소득 이하 구간은 모두 지원됨.

3)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사업은 제외.

4)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2,906,250원, 3인가구 3,760,000원, 4인가구 4,613,750원, 5인가구 5,467,500원, 6인가구 6,320,000원, 7인가구 7,173,750원, 8인가구 8,027,500원임.

자료: 1) 정부24,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005> (인출일 : 2020. 10. 21).

2) 정부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500> (인출일 : 2020. 10. 21).

3) 정부2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043> (인출일 : 2020. 10. 21).

4)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05390> (인출일 : 2020. 10. 21).

5) 정부24,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1000000218> (인출일 : 2020. 10. 21).

6) 정부2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110> (인출일 : 2020. 10. 21).

7) 정부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GEF000000010> (인출일 : 2020. 10. 21).

한편, 가구를 지원 단위로 하는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각종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요금감면서비스는 육아가구에 특정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저소득 가구 전반에 적용되는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 가구에 지원 대상이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VIII-3-2〉 저소득 가구 요금감면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TV수신료	면제	-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월 5,000원	

자료: 복지포, 요금감면서비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RdctxServView.do> (인출일: 2020. 10. 21).

이처럼 다양한 지원이 저소득 육아가구에게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저소득 가구 안에서 한정되거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집단에 한정됨으로써, 정책의 포괄범위가 좁은 편이다. 실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육아가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⁷⁶⁾, 이상의 저소득 가구 지원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 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아동당 양육비용의 투입이 모든 비목에서 적은 상황으로, 생애 초기 아동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고려할 때 상대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지원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의 저소득 가구 대상 의료 지원은 주로 선천성 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데, 보다 일상적인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 등에서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등 저소득 가구가 의료

76)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p.118.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저소득 가구는 식비 등 생필품에 대한 지출 부담을 크게 느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양육비용 지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자재 및 생필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교육 및 문화생활 등에서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소득 이외에 지원 대상을 특정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육아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심각한 영양 결핍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소득 가구는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식품 꾸러미나 아동수당 바우처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저소득 가구의 선택권 확대까지를 고려하여 일종의 추가적인 아동수당(가칭 아동수당플러스)의 도입을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 저소득 가구 전반에 지원되는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현행 지원 제도 중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비용 지원 체계를 가진 정책으로 세제 지원 정책 중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제 지원 정책은 육아 가구 내에서 전반적으로 인지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은 정책으로, 이의 확장을 통한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차등 지원의 설계에 있어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로, 근로가구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⁷⁷⁾.

이러한 지원 기준은 앞서 저소득 가구의 육아지원 기준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다⁷⁸⁾.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50~70만원이 지원되지만, 자녀세액공제액의

77) 정부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1> (인출일 : 2020. 11. 9).

78) 저소득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장려금 지원은 가구 단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3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므로, 지원 금액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즉,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비용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현행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며, 지원금의 규모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속한 비용 지원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규모 확대가 요구된다. 다만, 주지한 바와 같이 세제 지원 정책은 체감도가 매우 낮고, 특히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맞물려 지원되는 특성, 즉 부모가 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 권리 보호 측면의 지원과는 다소 상이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그림 VIII-3-1] 저소득 육아가구 양육비용 절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현황 및 개선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지원: 선천성 질환 등에 집중 -식품 및 생필품: 저소득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요금감면: 저소득가구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적음 -자녀장려금 :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자녀 세액공제액과 중복수혜가 금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꾸러미 혹은 아동수당플러스(가칭) 등 -소득 이 외의 지원 조건(질환 유무 등) 및 소득 기준 완화(차상위→기존중위소득)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 및 상해 등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지원수준 증액 필요

2)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추가 지원 및 육아지원 강화

육아가구의 특성 중 양육비용의 편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자녀 가구 여부라 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가중되지만, 아동당 양육비용은 낮아 다자녀 가구의 아동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위험이 높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비목의 양육비용에 대한 가구 단위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교육·보육비 및 여가문화생활비 등의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행이라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⁷⁹⁾.

79) 이는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들이 추가출산을 꺼려하는 것의 반증적 결과라 보여짐.

그 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다자녀 가구의 아동 개인의 권리 혹은 삶의 질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은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다. 상당수 다자녀 가구 지원은 저소득 육아가구 지원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동당 양육비용이 적다는 점 등에서 저소득 육아가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지원 요구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 Ⅷ-3-3〉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비용지원	주거안정지원	세액공제	교육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금리우대 ·전세자금보증(특례)	·기본공제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보육 및 돌봄	공공요금 할인	교통관련 할인	기타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전기요금 감액 ·상하수도 요금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에너지 복지요금	·주차요금 할인 ·기차요금 할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자료: 최효미·박은정·엄지원(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p.5.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저소득 육아 가구와 달리 소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여러 명의 자녀를 동시에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양육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 지원은 단순한 비용의 지원을 넘어선 일종의 돌봄 지원을 내포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육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연령이 영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기를 초월하여 보다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가 아닌 손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의 가중이 결국 국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아동수당 등 육아 관련

비용 지원이 대부분 영유아기에 집중되고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가 제고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의 경우 만7세(0~83개월)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수급액이 가구 내 영유아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⁸⁰⁾. 결국 총 자녀수가 아닌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더 많이 수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서와 유사하게 아동수당플러스(가칭)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원 대상의 연령과 지원 단위(아동 단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지원 당시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첫째 자녀인 경우 현행과 같이 10만원을 지원하되, 동일 연령이더라도 출생순위가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현행 지원 체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비용 지원의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비용지원의 확대보다는 서비스 이용 권리의 보장 혹은 우선권 보장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더 어린 자녀의 돌봄에 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위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지원 연령이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서는 더 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경우 휴가 사용일수가 노동자를 기준으로 10일이 부여되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별로 상황이 달라 돌봄 필요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 상황에서의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처럼 휴가 사용일수를 좀 더 연장해주는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볼 직 하다. 또,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의 경우 자녀가 3명이상이면서 영유아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되며⁸¹⁾, 만12세이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혹은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아동돌봄서비스의 우선권을 갖는⁸²⁾ 현행 지원 제도

80)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detail.php> (인출일 : 2020. 10. 21)

8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인출일 : 2020. 10. 21)

8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

는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을 막내 자녀로 조정하고 지원 대상 연령에 속한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다자녀가구로 조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Ⅷ-3-2]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현황 및 개선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육아가구 지원과 유사하게 지원 -다자녀 가구는 돌봄 지원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영유아기 아동 단위 지원에 집중된 경향 -총 자녀수가 아닌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짐 -전반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정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출생순위를 고려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가칭 아동수당플러스) 검토 -자녀수를 고려한 점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일수 연장 등 검토 -육아서비스 우선권 부여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 해당 연령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지원

4. 개편된 보육지원체제 안착 및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⁸³⁾. 이러한 보육지원체제의 개편은 맞벌이 가구 부모의 돌봄 공백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유 있는 수업준비를 통해 교사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즐거움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이다⁸⁴⁾.

그러나, 새로운 보육지원체제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긴급 돌봄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실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육아 가구 부모들에게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보육지원체제의 개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9%에 불과하며, 이는 연장보육 이용사유

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인출일 : 2020. 10. 21).
 83) 정부24, 2020년 보육지원체제 개편 안내,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74005> (인출일 : 2020. 10. 22).
 84) 정부24, 2020년 보육지원체제 개편 안내,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74005> (인출일 : 2020. 10. 22).

와 직결되는 정책 대상 집단인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유아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도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전년도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따르면 연장보육의 시작은 16:00시 이후이지만(보건복지부, 2020d: 76) 연장보육료의 지원 기준은 17:00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30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0d: 350),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들은 16:00~17:00시를 하원지도 시간 정도로 생각하여 실질적인 연장보육의 시작을 17:00시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인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영유아의 어린이집 하원시간은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16:00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17:00시에 하원하는 경우도 영아 21.1%, 유아 25.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17:30분 이후 하원하는 비중은 영아 15.8%, 유아 16.4%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변경된 보육지원체계 하에서 연장보육료의 지원 받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차년도(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한 17:00시 이후 어린이집 하원자 비중은 총 27.9%로⁸⁵⁾, 실질적으로 연장보육료의 지원 대상 자체가 많지는 않았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영유아 부모들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의 현장 정착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것과 이용시간이나 서비스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⁸⁶⁾.

한편,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대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육아가구 부모들의 기대는 3.5점(5점 척도⁸⁷⁾)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가 4점(5점 척도),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4.1점(5점 척도)인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85) 오히려 3차년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원시간이 더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86)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보기 위해 2020년 2월 29일 이전과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함.

87) 정책 변화에 대한 찬성 정도로 매우 부정적 1점, 매우 긍정적 5점임.

있다. 이처럼 육아 가구의 부모들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장 보육 이용이 오히려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다. 심층면담 과정에서는 다수의 영유아 부모가 눈치가 보여서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반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보육 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보육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31.3%), 예전보다 당당하게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22.5%), 장시간 보육이 줄어 기본보육시간에 질이 제고될 것 같아서(20.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육아 가구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엿볼 수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나.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1) 원활한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대응으로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의 안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향후 새로운 보육지원체계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편된 보육지원체제는 기존 12시간으로 되어 있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장시간 보육을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즉, 이번 보육지원체계에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가 제외됨에 따른 휴게의 부여(최효미·조미라·예한나 외, 2018: 10)⁸⁸⁾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⁸⁹⁾에 대응한 후속 조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보육시간이 정확히 준수되어야 하며, 원활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제공

88) 근로기준법 제59조. (2018. 7. 1 개정됨).

89) 근로기준법 제53조. (2018. 7. 1부터 단계적 적용).

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⁹⁰⁾,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을 2020년 3월부터 1만2천명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2천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⁹¹⁾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하여⁹²⁾, 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산 부족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신규 채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⁹³⁾, 연장보육교사의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앞서 논의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지원체계상에서의 연장보육시간(16:00~19:30)과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17시 이후 하원자에 대해 30분 단위 지원) 사이의 괴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용 어린이집 운영 안내⁹⁴⁾에 따르면, 기본보육시간은 16:00까지이지만 하원 지도 등으로 17:00시까지 통합보육이 허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자의 1/4가량은 16:00~17:00시에 하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담임교사의 기본보육업무가 17:00시 이후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편된 보육지원체계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보육시간의 준수와 충분한 인력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맞

9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 원장용 p.9,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guide_08_02.pdf (인출일 : 2020. 10. 22).

9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3).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02&SEARCHKEY=TITLE&SEARCHVALUE=%EC%97%B0%EC%9E%A5%EB%B3%B4%EC%9C%A1%EA%B5%90%EC%82%AC+%EC%B1%84%EC%9A%A9+%EC%A7%80%EC%9B%90%EC%9D%84 (인출일 : 2020. 10. 22).

9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3).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02&SEARCHKEY=TITLE&SEARCHVALUE=%EC%97%B0%EC%9E%A5%EB%B3%B4%EC%9C%A1%EA%B5%90%EC%82%AC+%EC%B1%84%EC%9A%A9+%EC%A7%80%EC%9B%90%EC%9D%84 (인출일 : 2020. 10. 22).

93) 베이비뉴스(2020. 6. 11). 시작부터 예산고갈...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채용 중단,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66> (인출일 : 2020. 10. 22).

9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 교사용 p.28,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guide_08_03.pdf (인출일 : 2020. 10. 22).

별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등 양육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투입을 통한 제도 정착 노력이 더욱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연장보육료 지원 체계 정비

한편, 영유아 부모가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17:00시 이후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많지 않아 연장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맞벌이 영유아 가구 심층면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의 아동 수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연장보육서비스의 지원내용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17:00시 이전의 하원을 유도하는 등 파행적 운영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개편된 보육지원체제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원아의 조기 하원을 종용하는 등 암묵적으로 연장보육서비스의 이용을 못하게 유인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기적으로는 하원 지도 업무를 기본보육시간 이내에 편입시키고, 연장보육시간 전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즉, 16:00시 이전에 기본보육반의 영유아가 모두 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16:00시 이후 연장보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시간과 보육료 지원 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3)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및 입소대기시스템 연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자의 80% 이상이 17:00시 전후 하원하고 있어 실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연장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지금보다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15.2%에 그쳐,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서비스 추가 이용 의향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실태조사와 심층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어린이

집 연장보육서비스 이용 의사가 낮은 이유는 자녀가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조기 하원 권유, 사교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수가 적은 것이 문제의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다. 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적으면 전담인력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연령별 학급 운영이 불가능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이 증폭시키게 된다. 여기에 자녀가 혼자 남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을 더욱 꺼려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장보육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장보육교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규모의 학급 설치가 가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의 지정 및 강화된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은 기존의 야간돌봄 등 시간연장형 보육을 위한 거점형 어린이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육시간 내 아동의 어린이집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내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과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우선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원 체계 내에서는 인접한 어린이집 중에서 지역내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육아가구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장보육반 전담 교사 지원 및 운영 지원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 등에 해당 어린이집이 지정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을 공지하여, 어린이집 선택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및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육아 가구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장보육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세분된 지역 단위로 철저히 이뤄져야하며, 입소대기 시스템 상에서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수요에 맞추어

추가적인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이 탄력적으로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유연함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⁹⁵⁾

[그림 Ⅷ-4-1]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향

현황 및 개선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실질적 연장보육 이용도 저조. -연장보육시간 시작시간(16:00)과 연장보육료 지원 시작시간(17:00) 사이 괴리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짐 -맞벌이 가구의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우려 -예정된 인력(연장보육교사, 보조교사)의 배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 하원을 종용하는 등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본보육시간 이내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장보육시간 전체(16:00 이후)에 대한 보육료 지원 검토 -어린이집 입학 전 사전 연장보육수요조사를 통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및 맞벌이 가구 수요를 고려한 충분한 공급 유지 · 맞벌이가구 우선선택권 보장 · 입소대기 시스템과의 연계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에 대한 인력 및 운영 지원 강화(규모의 경제 확보)

5.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가.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은 상당 부분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증가하는 등 초등 저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령기 자녀의 돌봄을 위한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을 발표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⁹⁶⁾. 이에 힘입어 2019년 말 기준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는 애초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양적인

95) 사전에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 순서 등을 정해두고 지원하는 방식 등이 고려해 봄 직 함.

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확충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⁹⁷⁾.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향후 추가 이용 의사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2020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가구는 11.9%에 불과하며, 방과후 학교 4.5%,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공적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6%에 그쳤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차년도(2019년) 조사 결과⁹⁸⁾를 살펴보아도 방과후 학교 이용자는 62.7%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16.6%에 그쳤으며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율은 2.1%에 불과했다(이정림·구자연·김한솔, 2019: 180). 즉,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맞벌이 가구의 30%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육아 가구들 사이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인 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들은 정책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로 학교연계 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46.9%), 학교연계 돌봄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하다(42.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육아 가구들은 정책적인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는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인 이용의사 자체는 그다지 높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 향후 초등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54.4%), 학원을 이용하겠다(47.7%)는 응답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겠다(34.6%)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초등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복합적 이유를 가지고 있겠으나, 공적 돌봄서비스의 양적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선호가 낮은 것이 가장 근본적 이유라 볼 수 있다. 초등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초등돌봄교실의 공급량

9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98) 초등 저학년기 아동은 조사 대상의 연령이 해마다 확장되고 있어, 연도별 단순 비교가 어려움. 2차 조사 대상자는 초등1학년에 국한되며, 3차 조사 대상자는 초등2학년까지를 포괄함.

증가와 이용시간 확대 등의 양적 확장이 이뤄진다면이라도 초등돌봄교실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매우 낮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구심과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초등 전환기 육아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초등 입학 전후하여 단시간 학원 이용이 급증하며, 이러한 변화는 취업모 가구에 비해 미취업모 가구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유아기에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초등 진학 이후 시간제 사교육의 종류가 단시간 학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는데 반해,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 입학 후 시간제 사교육, 특히 단시간 학원의 이용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며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등학령기에는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투영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공적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해 사교육 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 초등저학년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는 단시간 학원이 가장 이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로, 3차년도 조사 기준 만7세(초등1학년) 60.9%, 만8세(초등2학년) 69.2%가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2020년)는 코로나19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한 시기로, 2차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만7세(초등1학년)의 단시간 학원 이용 비중은 81.0%에 달했다. 초등저학년 아동이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분야는 체육 53.9%, 음악 39.4%, 영어 32.8% 순으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위주의 학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및 심층 면담에 참여한 초등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초등저학년 자녀의 단시간 학원 이용을 사회성 발달이나 재능 개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를 학습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 등의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가성비(시간당 비용 및 교사대 아동비 등) 측면에서 오히려 사교육 서비스가 더욱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 저학년 자녀의 양육비용 경감 및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공적 돌봄/교육서비스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가구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편의성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나.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1)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 체계 하에서 돌봄서비스의 공급 목표는 2017년 33만명(학교 24만명, 마을 9만명)에서 2022년 53만명(학교 34만명, 마을 19만명)까지의 양적 확대가 주축을 이룬다⁹⁹⁾.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초등 돌봄 수요를 46~64만명으로 예측하고, 이에 맞춘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학교를 통한 확대가 10만명(초등돌봄교실 7만명+ 교실지자체협업 3만명)이며, 마을돌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10만명을 확대할 계획이다¹⁰⁰⁾.

[그림 VIII-5-1] 온종일 돌봄 계획



자료: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온종일 돌봄,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3.do> (인출일 : 2020. 10. 23).

이 중에서 특히 육아 가구 부모들의 확충 요구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17년 기준 6,054개교, 11,980실(24만5,303명)이 운영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6,117개교, 13,910실(29만358명)이 확대되었다¹⁰¹⁾. 2020년에는 초등돌봄교실을 700실 더 확충하여 약 30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100)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온종일 돌봄,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3.do> (인출일 : 2020. 10. 23).

1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3,500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¹⁰²⁾.

또한, 온종일 돌봄 계획에는 위와 같은 학교돌봄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돌봄전용교실 전환,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 교실 디자인 개선 등 돌봄교실 환경개선 정책과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이용대상 연령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¹⁰³⁾. 즉, 공급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환경 개선, 운영시간, 이용 대상 확대 등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부모들은 공적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교육을 이용할 의사가 더욱 높으며, 초등돌봄교실을 현재보다 더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매우 낮은 상태라는 점이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부모(초등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들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초등돌봄교실의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주로 초등돌봄교실의 교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이를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가 아닌 초등 자녀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방지 수준의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이 일부라도 충족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자녀의 놀(혹은 쉼) 권리 확보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예체능 활동(교육)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초등돌봄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KICCE 소비실태조사(3차년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개선 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사항은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74.9%¹⁰⁴⁾), 숙제 등 학습관리 강화(47.7%), 돌봄 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47.1%) 순이었다. 이에 반해 물리적 환경 개선(24.4%)이나 돌봄 시간 연장(12.6%) 등에 대한 요구는 낮은 수준을 보여, 육아 가구 부모들의 생각은 현재 정부의 돌봄서비스 내실화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른 입장임을 미루어 짐작케 했다.

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1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104) 1+2+3순위 합산 결과.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은 현행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운영 내용에 있어서의 질적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없이는 양적 확대, 특히 운영시간의 확대 등의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이하의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은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제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본 연구의 벗어나므로 별도의 후속연구를 요한다.

가) 초등돌봄교실 창의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심층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의 초등돌봄교실에서 놀이·안전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별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실체가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이용과 관련하여 창의·인성 프로그램의 운영과 숙제 지도 등 개인 활동 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분명한 바, 모든 초등돌봄교실에서 기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초등돌봄교실 내에서 외부강사 및 교원 등을 활용하여 주5회(시간) 이내 놀이·안전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48).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b: 49)에 제시된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예시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시간은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3시 이후 놀이활동(창의·인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단체 활동, 4시 이후 숙제하기/일기쓰기 등 개인 활동의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 내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등돌봄교실 자체적으로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의 강화를 위해 돌봄전담사들이 참고하고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안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나)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강화

육아 가구 부모들의 정책 요구가 높았던 초등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다양화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원 체계 하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 시간표를 통일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48¹⁰⁵)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심층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이 동일 교내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아동 관리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돌봄전담사가 꺼려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물론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우선되는 것이 서비스 만족도나 운영상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규모와 돌봄 인력 구성에 따라 초등돌봄교실내 별도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프로그램 연계를 기피하거나 이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연계 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돌봄전담사 추가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한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과정상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추가 배치와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전담사와 시간제 전담사로 구분되는데, 학교별로 업무 분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5). 이때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교당 1명이며 돌봄교실 추가 1실당(1실은 25명 내외로 구성) 시간제 전담사를 1명 배치하도록 되어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3).

105) 또한, 현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 중에 있으나(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2020. 10. 23 인출), 이는 이용 대상이 주로 초등 고학년으로(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12), 엄밀한 의미에서 초등돌봄교실 참여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와는 구분됨.

심층면담에 참여한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들은 돌봄전담사의 질이 학교별, 실별로 천차만별이라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운영 지침 상 돌봄전담사의 자격기준이나 지원 기준 등은 어느 정도 정비가 이뤄진 상태라 보여지나,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체감과 만족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다시금 돌봄전담사의 배치 기준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교실 운영 및 놀이·안전, 학생 관리 등 돌봄전담사 대상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전일제 전담사 뿐 아니라 시간제 전담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라)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지원 강화

한편, 학기중 초등 돌봄의 이용시간의 증가를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방학중 초등돌봄의 확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특히 올해와 같이 긴급돌봄의 필요가 높은 시기에는 이와 관련된 공급 확대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학중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심층 면담 과정 중 다수의 부모가 방학중 이용을 위해 학기중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일단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단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침 상으로는 학기 중에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방학 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b: 170). 다만 이러한 방학중 돌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점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인근 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32), 실질적인 운영 현황은 학교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초등저학년 자녀의 경우 학기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방학 중 오전 시간대 돌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공급량의 확대와 운영(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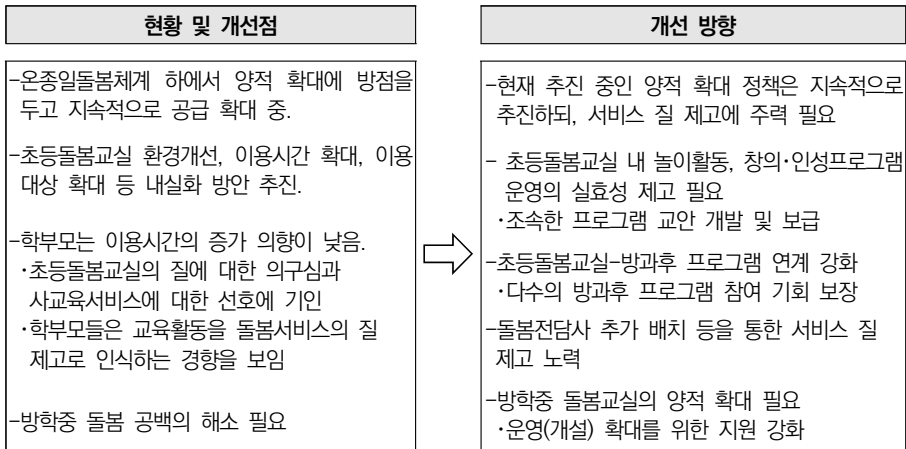
마) 초등돌봄교실-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확대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하교 시간은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이 종료되는 17:00시 이전으로, 17:00시 이후 단시간 학원 등 추가적인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녁돌봄(17:00~19:00)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 이용자가 적은 것은 복합적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사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자녀가 장시간 홀로 초등돌봄교실에 남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주된 이유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돌봄교실의 저녁돌봄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낮은 상황으로, 저녁돌봄 공급량의 확대 혹은 운영 강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초등돌봄을 늦게까지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17:00시 이후 별도의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없이 저녁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이후 추가적인 돌봄의 필요가 높은 육아가구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한 돌봄서비스의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때, 지역사회 인프라로는 작은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돌봄센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다. 따라서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VIII-5-2]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2)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돌봄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a: 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a: 8), 내용과 운영 방식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 전 혹은 늦은 시간 운영하는 것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등(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9a: 8~10), 학부모가 생각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활동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고학년이 될수록 이용 의향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등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시켜보고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는 잘 부합하는 육아 서비스라고 할 것이다.

KICCE 소비실태조사(3차년도) 결과에서는 초등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률이 4.5%로 매우 저조하지만,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년도 조사 결과 초등1학년의 방과후 학교 이용비율은 62.7%로, 초등 대상 육아서비스 중 학원(81.0%)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서비스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초등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와 방과후 돌봄 공백을 생각할 때, 향후 서비스의 질 개선을 수반한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용시간, 이용비용, 학습 공간, 교사대 아동비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요구는 매우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방과후 학교 개선 사항¹⁰⁶⁾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61.2%), 프로그램 질 제고(49.3%), 수강인원 확대(38.9%) 순으로 높은 응답 순위

106) 1+2+3순위 합산 수치임.

를 보였다. 이 외에도 학교수업과의 연계성 강화(32.9%)와 프로그램별 수업시수 확대(30.5%) 등도 30%이상의 요구¹⁰⁷⁾를 보였다.

다시 말해, 현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부모 요구에 좀 더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종류(교과목)의 다양화, 단계별 다양한 클래스의 개설,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 강화, 이용갯수 확대(매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 강사의 질 관리, 교사 대 아동비 축소 등 서비스 질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VIII-5-3] (초등저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방향

현황 및 개선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자율적 운영으로, 운영상황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침 등의 절차는 잘 갖추어져 있음. -초등저학년 대상 공적 서비스 중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임. -반면, 학부모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 또한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필요 ·프로그램 종류의 다양화 ·단계별 다양한 클래스 개설 ·초등돌봄교실과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이용갯수 확대 (매일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강사 질 관리 및 교사 대 아동비 축소 -방과후 프로그램 양적 확대 및 학교별 편차 축소 필요

3) 학습 연계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검토

육아 가구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중은 13.2%(3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준)로, 2차년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중(10.7%)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 조사 기준 개별돌봄서비스의 제공자를 기준으로 조부모가 2/3가량을 차지하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5.3%, 민간 도우미는 4.2%에 불과해, 전체 육아 가구 대비 비혈연 육아돌보미를 활용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이돌보미 활용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아무래도 고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⁰⁸⁾.

특히 자녀가 초등학령기에 진입한 이후 맞벌이 육아 가구들은 방과후 돌봄을 위

107) 2순위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보임.

108) KICCE 소비실태조사(3차년도) 결과 초등 자녀의 돌봄을 위해 비혈연육아도우미를 활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이유 1순위는 비용이 부담되어서(49.4%)였음.

해 비혈연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조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단시간 혹은 간헐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초등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가 성인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단순히 돌봄만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부모 혹은 친인척의 개별돌봄은 주로 사교육과 사교육을 연계하는 중간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해 고가의 비혈연 육아도우미를 활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만12세(초등6학년)까지로, 초등학생기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제 서비스의 내용은 일반형 기준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종합형의 경우에는 가사업무가 일부 추가된다¹⁰⁹⁾.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한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를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충족시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개별돌봄서비스는 육아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용이 큰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 여러 개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며 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과후 가정 내 양육의 필요성은 높다고 사료된다. 이에 기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학습을 고려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학습 연계형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가정 내에서 돌봄과 숙제 혹은 기타 특기활동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에 교육서비스가 접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서비스만으로는 고가라고 느꼈던 육아 가구 중 일부는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의 질만 담보된다면, 초등저학년 시기의 사교육 서비스 일부가 개별돌봄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으며, 가정 내 양육의 증가로 아동이 쉼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9)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1&L_MENU_CD=020201&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인출일 : 2020. 10. 23).

6. 정책 제언 종합 및 후속 연구 제안

이상의 정책 제언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비용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초등 학령기의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 지원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초등 저학년(만8세)까지 이용 가능한 시간지원으로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가 크게 확장되었다.

〈표 Ⅷ-6-1〉 육아 가구 양육비용 경감 및 육아서비스 지원 방안 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연령	지원 대상의 취약여부			
		구분없음(전체)	저소득	다자녀	맞벌이
비용 지원	영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플러스(가칭) 지원 검토 -의료비지원 확대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아동수당플러스(가칭) 지원 검토
	유아	-아동수당			
	초등	-초1: 아동수당			
시간 지원	영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초2) -가족돌봄 휴가/휴직	-유연근무 제도 도입 촉진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일 수 확대 검토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정착 및 확대
	유아				
	초등				
서비스 지원	영아	-무상보육/유아교육	-가정내 양육을 위한 놀이활동 자료 보급 및 부모 정서 지원	-육아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기준 완화	-연장보육서비스 현장 안착 지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확산
	유아				
	초등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체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확산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

- 주: 1) 취약여부는 특히 방점이 주어진 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함.
 2) 음영에 굵은 글씨가 본 연구의 주요 제안 내용이며, 흰색의 경우 기존의 주요 지원 제도를 표기한 것임.
 3)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비용 지원(요금감면 등) 등 세부적 지원은 가독성 측면에서 별도 표기하지 않음.

육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당 양육비용 투입의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 및 아동수당플러스(가칭), 세제 지원 중 자녀장려금 제도 강화 등 주로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양육비용 지원과 함께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지원 정책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수의 확대, 육아서비스 이용의 우선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 자체가 낮은 문제보다 육아서비스 이용의 제한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육아서비스 지원에 방점을 두어 제안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인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제언을 다수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삶의 질 제고와 연관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확장을 통한 육아 지원을 강조하여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제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외에 육아 가구의 정책적 요구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전년도 연구 및 기타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고, 특별히 2020년에 강조하거나 변경된 제안 사항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언은 생략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20년 관심이 높았던 의료지원 및 의료보장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언과 육아 가구가 장기에 걸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주거비 등에 관한 제언은 3차년도 연구 범위에서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연구가 통합되면서, 연구 범위가 방대하여 의료비 및 주거비 관련 심층 설문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제언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a).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9b).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0).
- 강민정·김종숙·김난주·이선행·권소영(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강민정·이서현·임희정(2017).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고용노동부(2018). 유연근무제 우수사례집: 잘 나가는 기업, 비법은 유연근무제!.
- 고용노동부(2019).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19. 8).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8. 4).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 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9. 10).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계획(안).
- 김근진·박은정·김희수(2019).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종숙·마경희·권소영·윤자영·안주희(2015).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인식·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선권(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보건복지부(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a).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b).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c). 2020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2020). '20.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부모용).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020. 4. 13).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오시영·전주성(2018).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6(2), 69-89.
- 유해미·이정림·최윤경·김지현·이민경(2017). 다함께 돌봄사업 도입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김성희·김옥자·채명숙(2015).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중심 실행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이희현·조진일·최형주·임봉조·강지원·김선미(2018). 학생·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익중(2020). 코로나19와 아동기 정신건강. 제10차 한국생애학회 추계 학술대회(온라인) COVID-19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한국생애학회.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엄지원(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조미라·예한나·이택면·김영숙·이재경·권도연(2018). 보육교사 휴게시간 활용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이사회.

홍나미·정익중(2019).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론. 사회복지연구, 50(3), 5-31.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 2020. 3. 25).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ersonBnef> (인출일 : 2020.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70&efYd=20180901#0000> (인출일 : 2020.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6558&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출일 : 2020.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9. 8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20일·가정%20양립%20지원에%20관한%20법률> (인출일 : 2020.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joNo=003900000&languageType=KO&docType=J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C%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 (인출일 : 2020. 10.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정책,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6952> (인출일 : 2020. 10.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588> (인출일 : 2020. 10.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동시간 단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270> (인출일 : 2020. 10.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돌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인출일 : 2020. 10. 22).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온종일 돌봄,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3.do> (인출일 : 2020. 10. 2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 원장용 p.9,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guide_08_02.pdf (인출일 : 2020. 10. 2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안내 교사용 p.28,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guide_08_03.pdf (인출일 : 2020. 10. 2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 2020. 4. 10).

복지로, 양육수당, www.bokjiro.go.kr/welinfo (인출일 : 2020. 6. 9).

복지로, 요금감면서비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인출일 : 2020. 10. 21).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info/detail.php> (인출일 : 2020. 10. 21).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1&LMENU_CD=020201&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인출일 : 2020. 10. 2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sp/fam/sp_fam-f005.do (인출일 : 2020. 4. 16).

정부24,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74005> (인출일 : 2020. 10. 22).

정부24, 가족돌봄휴직제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

- PTR000051336 (인출일 : 2020. 10. 20).
- 정부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인출일 : 2020. 11. 9).
- 정부2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10>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90>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043>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1000000218>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GEF000000010>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005>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0500> (인출일 : 2020. 10. 21).
- 정부 24, 초등돌봄교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200000005> (인출일 : 2020. 6. 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인출일 : 2020. 10. 2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인출일 : 2020. 10. 21).
- ILO, Work-life balance, <https://www.ilo.org/global/topics/working-time/wl-balance/lang-en/index.htm> (인출일 : 2020. 11. 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16). 코로나 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96 (인출일 : 2020. 6. 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24).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 (인출일 : 2020. 6. 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 (인출일 : 2020. 10. 20).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 4. 2).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51 (인출일 : 2020. 6. 18).
- 교육부 보도자료(2020. 1. 9).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458&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 2020. 6. 10).
- 교육부 설명자료(2020. 1. 19).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5&boardSeq=7953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 (인출일 : 2020. 6. 18).
- 뉴스원코리아(2020. 6. 8).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롯데썬, 재택근무·화상회의 적극 도입, <https://www.news1.kr/articles/?3957972> (인출일 : 2020. 6. 18).
- 베이비뉴스(2020. 6. 11). 시작부터 예산고갈...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채용 중단,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66> (인출일 : 2020. 10. 22).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0. 2. 27).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 중이고, 외부인 출입제한, 교재교구 및 빈번 접촉부분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http://www.mohw.go.kr/react/al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7&CO NT_SEQ=353193 (인출일 : 2020. 4.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5. 14).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813&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6%EC%9B%94 (인출일 : 2020. 4.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0. 3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돌봄 확대 결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479&SEARCHKEY=TITLE&SEARCHVALUE=%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A%B3%B5%EB%AC%B4%EC%9B%90 (인출일 : 2020. 6.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1. 23).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 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502&SEARCHKEY=TITLE&SEARCHVALUE=%EC%97%B0%EC%9E%A5%EB%B3%B4%EC%9C%A1%EA%B5%90%EC%82%AC+%EC%B1%84%EC%9A%A9+%EC%A7%80%EC%9B%90%EC%9D%84 (인출일 : 2020. 10.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B%8F%8C%EB%B4%84%EC%BF%A0%ED%8F%B0 (인출일 : 2020. 4. 1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9. 4. 2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217&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231%EB%A7%8C (인출일 : 2020. 4. 1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 2020. 4. 16).

서울신문(2019. 12. 11). 누리과정 단가 7년 만에 인상...난임시술 최대 110만원

지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004010> (인출일 : 2020. 4.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92 (인출일 : 2020. 4. 16).

중부일보(2020. 7. 15). 초등 돌봄교실 근거 법령제정 입법 중단...교육부, 교원 반발에 백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_xno=363433304 (인출일 : 2020. 10. 10).

한국일보(2020. 2. 26). [속보] 전국 어린이집 27일~내달 8일 휴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127341935> (인출일 : 2020. 4. 16).

한국유아교육뉴스(2019. 7.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오후 7시 30분까지,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_xno=1489 (인출일 : 2020. 4. 10).

〈법령 및 고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20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20.1.6).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2017.1.6)

〈통계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2차년도 원자료¹¹⁰⁾.

110)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원자료는 본 연구 자료에 해당하여 참고문헌 별도 표기 생략.



KICCE Spending Survey: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III)

Hyo Mi Choi · Jeong Won Lee · Eun Jung Park · Tae Woo Kim

This study, which is conducted to alleviate the childrearing cost burde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o address the need for support regarding childcare services, represents the 3rd wave of a multi-year study being conducted over 5 consecutive years. As was the case for the 1st and 2nd waves, the present 3rd wave study's main goal is to track and observe the childrearing costs and us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Meanwhile, given the far-reaching impact on household economies an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that the worldwide COVID19 situation of 2020 has had, the current wave has been supplemented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survey questions to gauge how such societal shocks have impacted childrearing households. The current 3rd wave study also includes an additional in-depth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previous (1st and 2nd) waves. It looks at changes in childrearing costs an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Given the broadness and amplitude of the study's findings, the results have been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5 topics for convenience: 1) an overview of the 3rd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2) childcare cost expenditure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3)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4) views and demands voiced by childrearing households regarding childcare service policies,

and 5) changes in childrearing costs an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1. Overview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 3rd Wave

- The total sample for the 3rd wave included 2,156 households, out of which 1,634 (75.8%) were successfully contacted. 268 Households were replaced due to sample attrition, and 254 new entrant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3rd wave study.
- In terms of the number of children, the 3rd wave total sample comprised 3,278 children, out of which 2,493 were successfully contacted. 365 Children were replaced due to sample attrition, and 420 children were newly included in the 3rd wave study.
-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5,018,000 KRW in the 3rd wave, up from the previous year.
 - While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labor income, this income loss was offset by emergency COVID19 subsidies, resulting in smaller variation in overall household income.
- The number of children included in this wave of the study, by year of birth, were as follows: 2020 - 158, 2019 - 321, 2018 - 331, 2017 - 334, 2016 - 378, 2015 - 424, 2014 - 422, 2013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 441, 2012 (2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 469.

2. Childcare Cost Expenditure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 In 2020,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living expenses was 2,825,000 KRW, down from 2019 by 24,000 KRW.
 - The Engel coefficient, which gauges the expenditure share of food costs, rose by 3.8%p to 29.8, a considerable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20, the average monthly gross childcare costs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stood at 1,165,000 KRW, down by 42,000 KRW from the previous year. Childrearing costs for young children fell by 61,000 KRW to 822,000 KRW, representing a faster decrease

compared to gross childcare costs.

- In 2020, the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 per young child was 582,000, down by 48,000 KRW from the previous year.
- 62.9% of respondents said that their gross household expenditure did not change due to COVID19. 18.6% responded that their expenditure increased, while similarly, 18.4% responded that their expenditure decreased.
- 'Food' (71.9%) was an item that saw increased expenditure following COVID19.
- The items that saw the largest decrease in expenditure following COVID19 include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34.5%), followed by 'education / childcare' (22.9%)

3.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Childrearing Households

-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Households with Infants
 - Across all child ages, there was an overall decrease in the use rate of half-day or longer childcare programs.
 - Respondent awareness regarding the change in 'basic care hours' was low - 82.8% responded that childcare facility use hours remained the same following the policy change, while 10.2% reported a decrease and 6.9% reported an increase.
 - Costs of childcare facility use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41,000 KRW for newborns, 16,000 KRW for children aged 1, 40,000 KRW for children aged 2, and 54,000 KRW for children aged 3.
 -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re was a marked decrease in the use of culture centers, along with an overall decrease in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While the non-use of half-day or longer childcare programs among young children was less than 2% last year, this has risen dramatically to approximately 10% in the 3rd wave. This change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COVID19 situation.
 - Following the change in basic care hours, most (83.5%) respondents

reported no change in facility use hours, 10.0% reported a decrease, and 6.5% reported an increase.

- By child age, the costs of childcare facility use were: 67,000 KRW for children aged 4, 81,000 KRW for children aged 5, and 72,000 KRW for children aged 6. Costs of kindergarten use were: 146,000 KRW for children aged 4, 143,000 KRW for children aged 5, and 111,000 KRW for children aged 6.
 -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re was a marked decrease in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Meanwhile, there were slight increases only in the use of contactless private education (e.g., non-visit workbooks, online learning, non-visit arts & crafts activities, etc.).
-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Households with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 The most frequently used public facility-based service was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11.9%), followed by after-school care (4.5%), and local / community / neighborhood childcare centers (2.6%)
 - Of the types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the use of short-term study centers was most prevalent, albeit down markedly compared to the previous wave.
- Emergency Care and the Impact of COVID19
- In the event of a closure at a childcare facility, kindergarten, or school, parents coped mostly by individual reliance on grandparents or other relatives (47.8%), followed by the use of a paid day off by the mother (38.6%) (based on the top 3 highest-ranked responses).
 - When asked whether the use of special activities or specialized programs were impacted by the COVID19 situation at facilities operat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22.3% of kindergartens and 23% of childcare facilities reported that there had been some changes.

4. Views and Demands Regarding Childcare Service Policies by Childrearing Households

-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basic care hours set to 7), 37.0% of the responding parents reacted positively, followed by a 'neutral' response of 35.4%, and a 'very positive' response of 15.4%, indicating that 87.8% of respondents gave it a rating of 'neutral' or better.
- 42.1%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felt burdened by private education costs. This is equivalent to 3.3 in a 5-point scale, thus indicating a score that is somewhat above 'neutral'.
- When asked about areas of government support for childcare they found the most lacking, most respondents (35.1%) pointed to insufficient childcare allowance and other cash subsidies.
- For each area of government support found to be lacking, the most frequently requested measures included the following:
 - (facility-based care / educational services) establish more national / public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 49.6%.
 - (individual care services) broaden eligibility for subsidies for publicly-provided individual care service use fees - 35.9%.
 - (use of part-time and other care services) expand the variety of available services - 40.4%.
 - (support for parent care hours) establish a social atmosphere / norm where parents feel free to use care hours - 27.9%.
 - (cash subsidies for childcare) larger cash subsidies - 39.9%.
 - (support for childcare-related goods) expand the variety of material support services - 28.4%.
- In the event of another unforeseen need for emergency care due to the closure or unavailability of usual services arising from society-wide situations (such as COVID19), 90.8% of single-earner households opted for direct care by a parent.
 - Among dual-earner households that were unable to access their desired mode of care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most respondents (26.4%) opted for state-designated care facilities such

as emergency care centers.

- Regarding the childcare support policies that needed improvement in the face of such societal crisis situations, the most frequently-requested items included better support for family care leave (32.4%), followed by better childcare support (26.6%) and improved flexible work arrangements (14.0%).

5. Changes in Childrearing Costs an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 Using raw data from the first two waves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this analysis looks at children born in 2012, who are mak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 Compared to when they were pre-school children (age 6), entering 1st grade(age7) was associated with a right ward shift in childcare costs, with a slight down ward adjustment in the highest densities.
- Entering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associated with a dramatic increase in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83.5% of the total analyzed sample responded that they were using some form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among 6-year olds included household income and the number of children. Meanwhile, household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among 7-year olds, thus suggest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households were using part-time private education among this group.
- Controlling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ime factors, we found that dual-earner households, households with an income of 5 million KRW or higher, with 2 or more children, and residing in small or middle-sized cities or sub-metropolitan areas spent significantly more on part-time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 Households with two earners, higher household income, with a single child, and residing in smaller regions were found to make use of

more hours in part-time private education and short-term study centers for childr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Impact of COVID19 and post-COVID19 Response
 - Strengthening support for business owners by introducing family care leave / days off
 - Implementing and expanding sustainable support systems for emergency care
 - Affective support for par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play activity materials for in-home childrearing
- Expanding and fully establishing policies for work-life balance
 - Expanding and fully establishing flexible work systems for work-life balance
 - Broadening support eligibility for users of family care leave / days off
- Strengthening support for at-risk households, to improve equity in childrearing costs
 - Broadening support eligibility for low-income childrearing households, and strengthening childcare allowances
 - Providing additional childcare allowances and strengthening childcare support for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 Ensuring a stable transition to the revised care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extended care services
 - Securing the necessary budget for the adequate allocation of teachers to extended care classes
 -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extended care services, and renewing support systems for extended care service fees
 - Designating 'extended care facilities (provisionally named)' and linking with waiting list systems
- Enhancing elementary school care services to better meet user needs
 - Developing and providing creativity /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 Strengthening links between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and after-school programs
- Enhancing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by providing more caregivers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 Expanding th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during vacation,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m
- Strengthening the links between elementary school care classes and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 Improving the variety and quality of after-school programs
- Consideration of part-time care services linked to learning activities

Keyword: cost burden of childrearing households, childrearing costs for children transitioning to elementary education, alleviation of childrearing cost burden, assistance policies for low-income childrearing households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